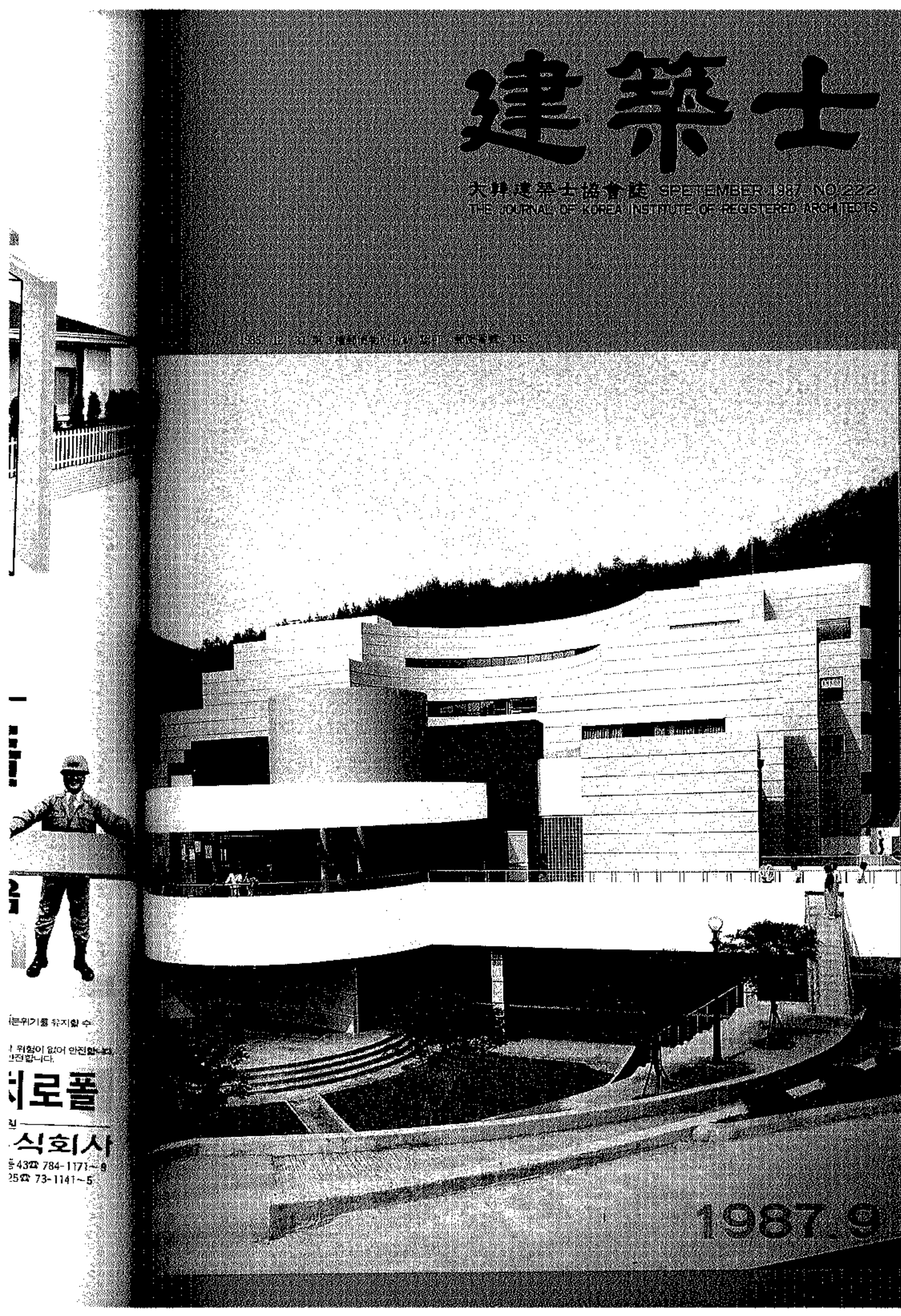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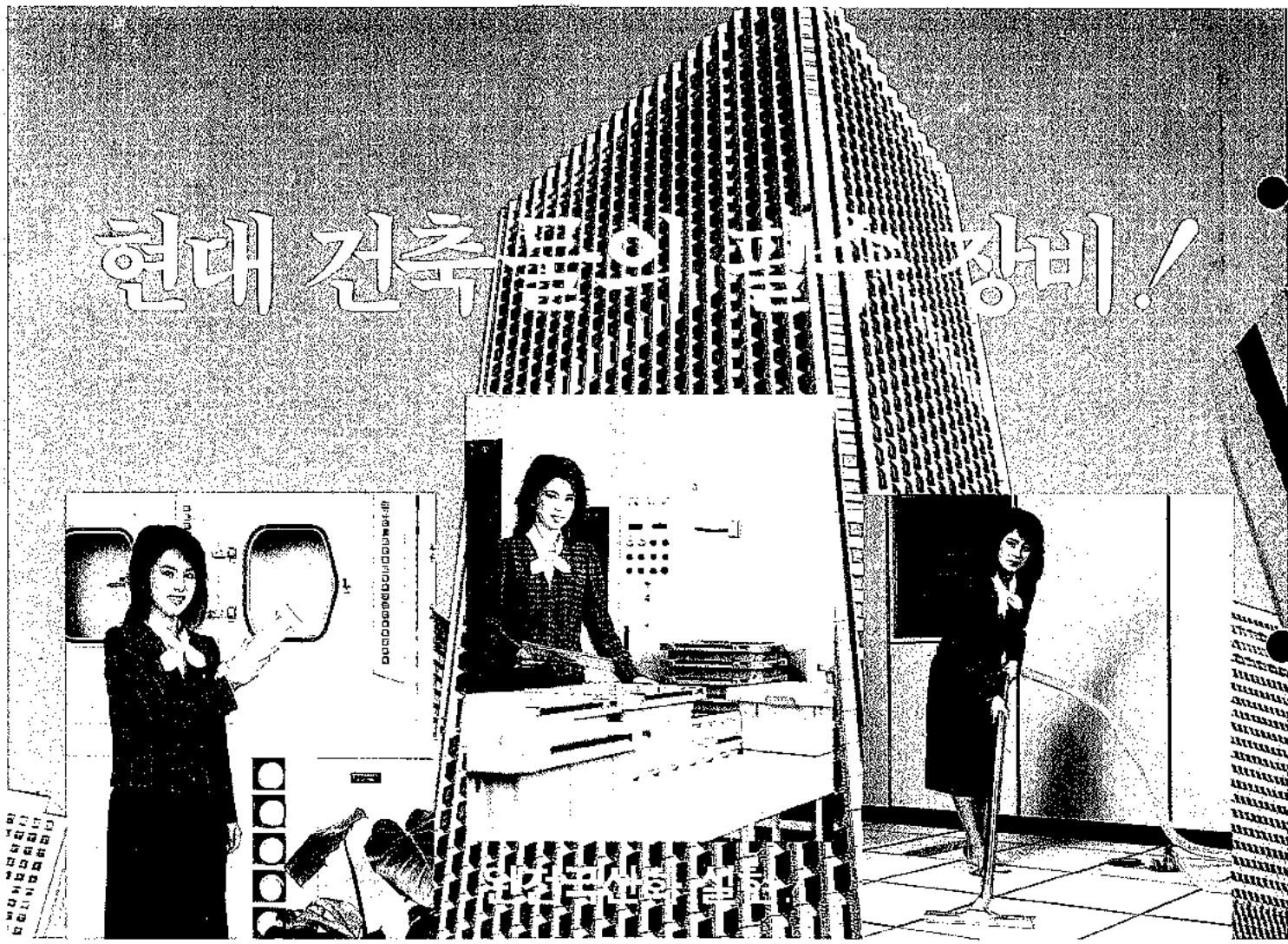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SPETEMBER 1987 NO.222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7.9

현대 건축의 필수 장비!



「중외 에어슈터」는 첨단 O.A 시대를 리드하는 최신 설비!

■에어슈터란 각종 서류, 전표, 문서, 현금, X-Ray필림 등을 보내고 싶은 층(層)의 방(房)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최신 설비로 고급 인력의 시간 절약은 물론 전사원의 업무 능률 향상의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특징

- 각종서류, 문서 등의 신속한 전달
- 사무자동화로 인건비, 관리유지비 절감
- 조작이 간편하며 극소면적 차지
- 기존 건물에도 시공 가능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경마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빌딩 및 공장 건물 속의 작은 트럭!

■「중외 버티컬 콘베어」는 중량 30kg 이하의 운송 물품을 원하는 층, 방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리는 운송장비입니다.
특히 병원의 각종 약품, 은행, 오피스의 각종서적 및 장부류에서 공장에서의 각종 소형 운송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므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특징

- 전자동 연속 작동으로 대량 운송 가능
- 사용, 취급이 간편함.
- 수직, 수평 이동이 가능함.
- 안전설계로 사고 방지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현대인을 위한 건강 청소 중외 센츄럴 크리너!

■「센츄럴 크리너」란 종래의 습식 청소방식에서 탈피, 선진국형인 건식 청소 설비입니다.
건물이나 공장내에 산적해 있는 먼지나 오물을 자동으로 흡입식 공기 압력으로 완전 제거하는 최신 청소 장비입니다.

특징

- 소음이 전혀 없읍니다.
- 위생적입니다.
- 청소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주식회사 중외상사

서울·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표) 841-1212, (직통) 841-2721~3

第13回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

第 2 回

新人學生設計作品巡廻展

일정 : 1987. 10. 24~11. 8
장소 : 서울경복궁지하철역 전시장

主催 : 大韓建築士協會　後援 : 建設部

표지설명 : 대전대학 학생회관
설 계 : 李載成+俞炳雨+朴相容
씨엔유 건축사사무소 (대전)

발 행 인 안 기 태

편찬위원회

위원장 안 장 원 위 원 강 태 석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변 용
위 원 김 기 석
위 원 박 영 호
위 원 김 정 동

편 집 출판사업부

발 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 화 :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 월23일
U.D.C. 69 / 72(054－2) : 0612(519)
인 쇄 : 광문정판사
인 쇄 인 :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72(054-2) :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建築士

차 례

1987년 9 월호 (통권 222 호)

論壇

6 建築士의 使命……金正澈

會員作品 (地方會員作品)

7 대전대학 학생회관…… 李載成+俞炳雨+朴相容
10 동래여자중·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李龍欽
14 인재 미술관……朴華洙
16 제일의원…… 崔勝元
18 하트타운…… 金榮培
20 포항종합제철(주) 사옥…… 李鍾甲+沈聖輔

일하며 생각하며

23 장마有感…… 朴在煥

哲学的散策 / 建築은 무엇인가

24 人類의 軌跡과 建築軌跡의 理解……崔昌奎

企劃連載

30 韓国近代建築의 再照明(5)…… 金晶東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 ①

39 오스발트 마티아스 웅거스……成仁洙

批評

54 도시적 삶과 도시적 건축…… 金文德

研究報告

60 大都市 管理(2)……盧椿熙
67 雙楹塚을 通해서 보는 建築要素 및 날 小考……趙仁淑
76 住居用建物의 設計改善方案 研究(1)…… 朴相東+朴孝洵+尹龍鎭

追慕特輯

84 故 李康植兄을 생각하며…… 安將元

提言

90 2000년을 향한 건축사의 자세…… 申鍾浩

91 **協会消息**
94 **올림픽광장**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September 1987. Vol. 222

FOCUS

Architect's Mission ····· Kim, Jung Chul 6

WORKS

Student Hall Taejŏn College ····· Lee, Jea-Seong + You, Byung-Uh + Park, Sang-Yong 7

Dongrae Girl's Middle & High School, Busan Arts School ····· Lee, Yong Heum 10

Injae Art Center ····· Park, Hwa-Soo 14

Jeil Pediatric Clinic ····· Choi, Seung-Won 16

Heart Town ····· Kim, Young-Bae 18

Posco Headquarters Building ····· Yi, Jong-Gap + Sim, Seong-Bo 20

OCCASIONAL THOUGHTS

"Rainy Season" ····· Park, Jae-Whan 23

ESSAY

Understanding the Trace of Mankind & Architecture ····· Choi, Chang-Kyu 24

SERIAL

A Study on the Mordern Architecture of Seoul ····· Kim, Chung-Dong 30

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Oswald Matthias Ungers ····· Seong, In-Soo 39

CRITICISM

Urban Life & Urban Architecture ····· Kim, Moon-Duk 54

REPORT

Urban Management ····· Ro, Choon-Hee 60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Features through the Mural-Decorated Tumulus 'Ssangyong-Chong' ····· Cho, In-Souk 67

A Study on the Energy Efficient Disign Methods in Residences ····· Park, Sang-Dong + Park, Hyo-Soon + Yoon, Yong-Jin 76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FRIEND

Sees Mr. Lee, Kang-Sik off ····· An, Chang-Won 84

PROPOSITION

Architect's Posture for the 21st Century ····· Shin, Jong-Ho 90

KIRA NEWS ····· 91

OLYMPIC PLAZA ····· 94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 581-5715~8
- 서부분소/서대문구연희동169-16/333-1873
-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923-6213
-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가1(부산데파트내)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0331) 42-6490 7072
-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719-9/(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 성남분소/성남시신흥동5512/(0342) 2-5445
- 의정부분소/의정부시의정부동182/(0351) 2-1083
- 송탄분소/송탄시산광동21/(0333) 4-6153
- 고양분소/고양군원당읍주교리38번지16호/(0344) 63-8902
-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0346) 63-8112
- 이천분소/이천군이천읍중리216-8/(0336) 2-3396
- 광명분소/광명시원산동46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0361) 2-2442
-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0371) 42-3257
-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0391) 2-2262
-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468-66/(0392) 2-5081
-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0397) 2-3106
-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복운로2가116-168/ (0431) 2-2752
- 충주분소/충주시연전동673-1/(0441) 2-3082
- 제천분소/제천시의림동8-8/(0443) 2-6253
- 옥천분소/충북보은읍삼산리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 22-4088
-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0451) 2-2853
-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문리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3-3881
-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2/(0653) 52-3304
-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 (062) 364-7567
-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1/(0631) 2-7280
-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3/(0661) 2-7892
-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053) 45-4904
-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96-70/(0562) 74-9713
-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9-1/(0561) 2-2680
-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356-2/(0546) 52-7903
- 안동분소/안동시삼산동125-19/(0571) 2-3641
-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 문경분소/점촌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 (0551) 2-4530~1
- 울산분소/울산시남구선정동585-6/(0522) 74-8836 74-2555
-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77-101/(0557) 2-2504, 2-7420
-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5B-17L/(0594) 2-3155
- 밀양분소/밀양군밀양읍내일동67-1/(0527) 53-2110
-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0523) 4-2669
-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 62-3920, 3322

建築士의 使命

金正澈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우리의 姿勢와 役割—

建築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風雨와 맹수를 피하는 동굴이나 움막에서 시작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문화적 유산들과 巨大하고 첨단적인 기술이 반영된 現代的 産物에 이르기까지 허다하게 세워지고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담고 環境을 造成하는 이러한 것의 대부분이 우리 건축사의 손에 의하여 설계되고 만들어져 지상에 세워진다. 이런 시설물들은 粗惡한 것이건 쓰기에 불편한 것이건 일단 세워지면 마음대로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건축사에게 맡겨진 임무는 막중하다. 좋은 건축, 훌륭한 건축 더나아가서 문화적 유산으로 남을 걸작을 많이 만들어 후세에까지 남기고 전해야 하는 책임 또한 따른다.

건축은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모든일이 건축사의 요청이 있어야 설계작업이 시작되고 그 案이 받아들여져야만 施工이란 과정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自意的인 작품활동이거나 자기만이 인정하는 설계는 지상의 한날 그림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건축의 폭 넓은 기초지식을 터득하고 이론을 연마하여 깊은 전문성을 지니고 또한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만 좋은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 끝도 없고 한정도 없는 藝術과 技術의 분야에서 개성과 취향이 다른 많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명답을 내야하는 건축사는 정말 현재성과 비범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資質이며 專門性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분명히 전문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博士는 찾으면서도 전문가로서는 외면당하는 사회가 아닌가. 박사는 하나의 형식 요건이지 영역이 지켜지고 존중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박사를 넓을 박(博)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전(專)인 專師라 호칭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닐런지. 우리도 전문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자질을 갖추어 기술이 풍부한 건축사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올바른 建築意志를 가진 건축주를 만나 밸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質管理가 된 시공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리자나 사용자가 올바르게 써 줄때 우리의 노력이 담겨진 작품이 건축으로서 역할을 하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사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건축풍토, 환경을 만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

—좋은 建築, 훌륭한 作品—

사회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좋은 건축,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사명감 있는 건축사와 자질이 종요하고 건축을 아해하는 건축주가 있어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전국에서 활약하는 2천6백여명의 건축사는 일본에 비하면 인구비로나 사회적으로 보아 아직 과다한 편이 아니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건축사법상의 보호는 물론 發注方式에 있어서도 아직 일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양식과 가치적 판단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된다. 모든 건축사는 올바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의 일을 수임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를 많이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 기량과 충분한 노력을 다해 수준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비, 설계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좋은 프로젝트를 만나야 한다. 건축사에게는 우리의 모든 Client들이 건축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건축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문화적 유산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 이런 마당에 과당 경쟁이란 있어서는 안된다. 현행 설계비 자체가 선진국의 設計報酬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데 건축사끼리 수주경쟁으로 규정된 요율도 못받는 현실에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자명한 일이다. 더 많은 고민과 전문성에 입각한 설계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훌륭하고 가치있는 설계내용이 되고 건물이 아닌 예술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건축을 이룰 수 있다. 설계내용의 작업량에는 한계가 없다. 너무 많은 작업을 한 설계는 덤핑이 아니냐며 자책하고 작업량에 따라 설계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외국 건축가의 이야기를 상기하게 된다.

—品位 보존과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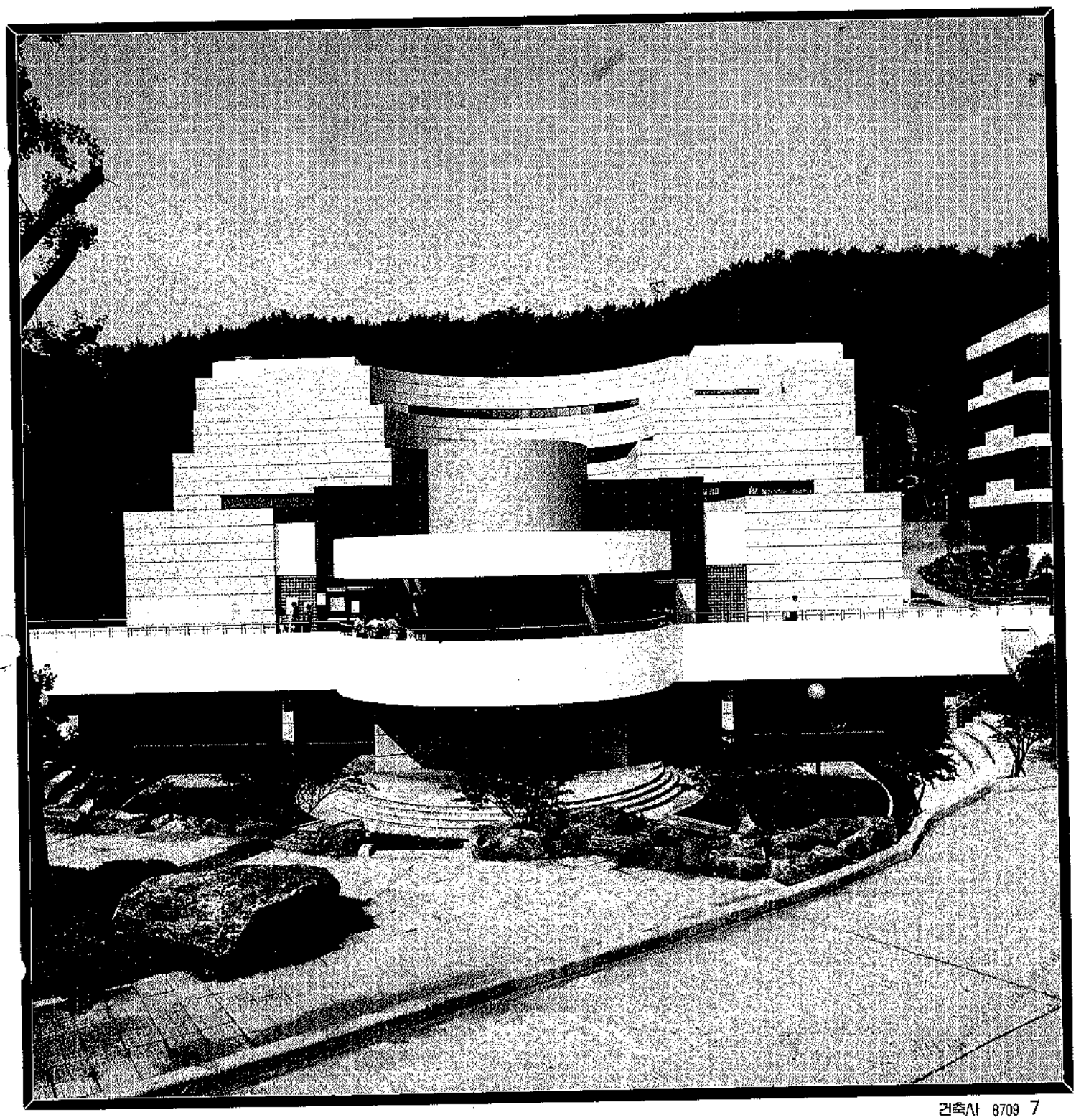
우리의 작업은 思索을 통한 知的인 작업이 된 때 진정한 의의와 메시지(Message)가 담겨 있는 공간이 되고 생활의 가치가 창출되는 건축이 된다. 건축이 한낱 매스(Mass) 단이 아닐진데 셸터(Shelter) 안에 새로운 행위와 생활이 창출되고 인관관계가 원활해지고 살아 숨쉬는 미래로 연결되는 생산적 장이 되어야 한다. 건축은 개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답고 조화된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視覺的으로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도시공간들을 제공하여 지역적 내지는 도시적 기여를 하는 그곳의 자랑이 되어 세월과 더불어 살아남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건축은 도시적 사회적 조형내지 공간이다. 그러므로 높은 의미에서 수요자라는 사회이며 이용자는 시민들인 것이다. 건축주는 불특정 기간동안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건축주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여 사회의 요구, 이용자들을 위하여 건축사의 전문적 활동의 도움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독선이나 개인적 취향이 너무 강조되거나 우선이 될 수 만은 없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올바른 요구를 해결하고 깨닫지 못한 건축의 사회성을 인지시키고 지역에의 기여를 제도하여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을 때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것이며 여러 건축주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된다고 확신한다. 건축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활약이 될때 우리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지고 보람있는 창작생활을 할 수 있다. 올림픽을 앞둔 이 시점에서, 스포츠에 따른 에너지만 發散 誇示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활동 즉, 지적 활동분야에서 보다 높은 문화적 자질을 함양하고 서로 양보 협동함으로써 훌륭한 건축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전문인들로서 높이 평가받는 건축사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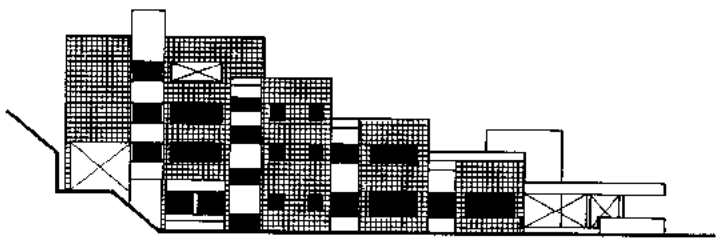
대전대학 학생회관

Student Hall Taejon College
Designed by Lee, Jea-Seong, You, Byung-Uh, Park, Sang-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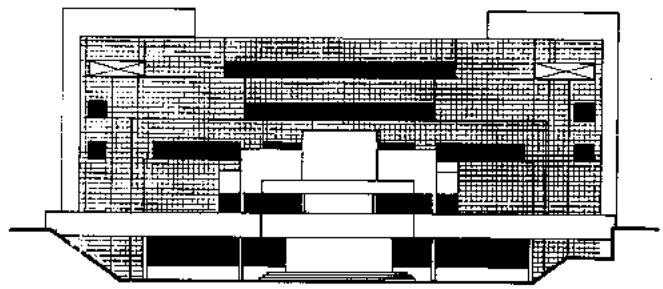
李載成+俞炳雨+朴相容 / 씨엔유건축사사무소
충남 대전시 중구 대흥동 189 / 23 - 0004, 253 - 1456,

□ 대지위치 : 대전시 동구 용운동
□ 대지면적 : 49, 571㎡
□ 건축면적 : 2, 127㎡
□ 연면적 : 5, 723㎡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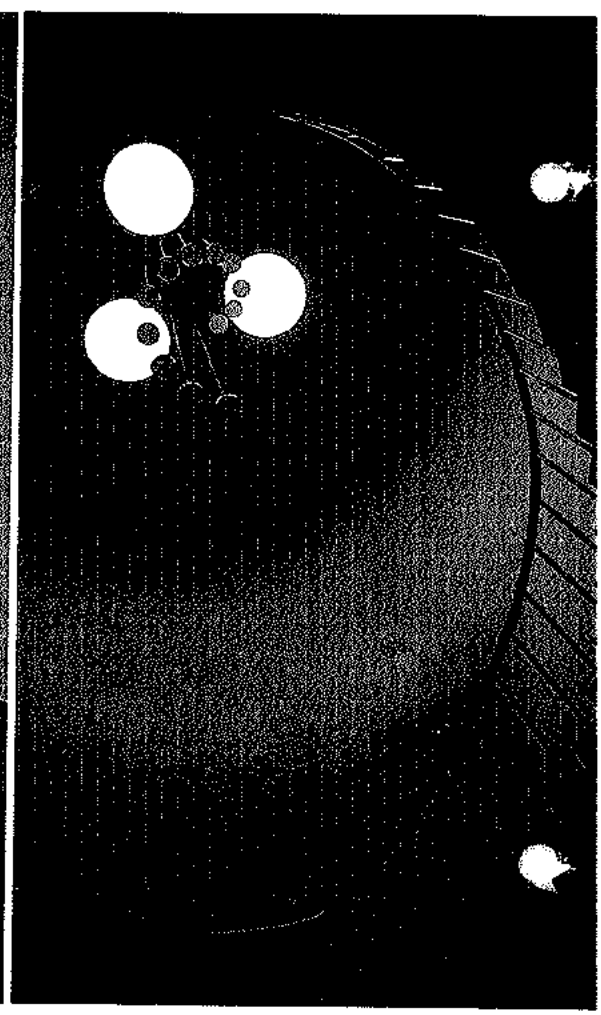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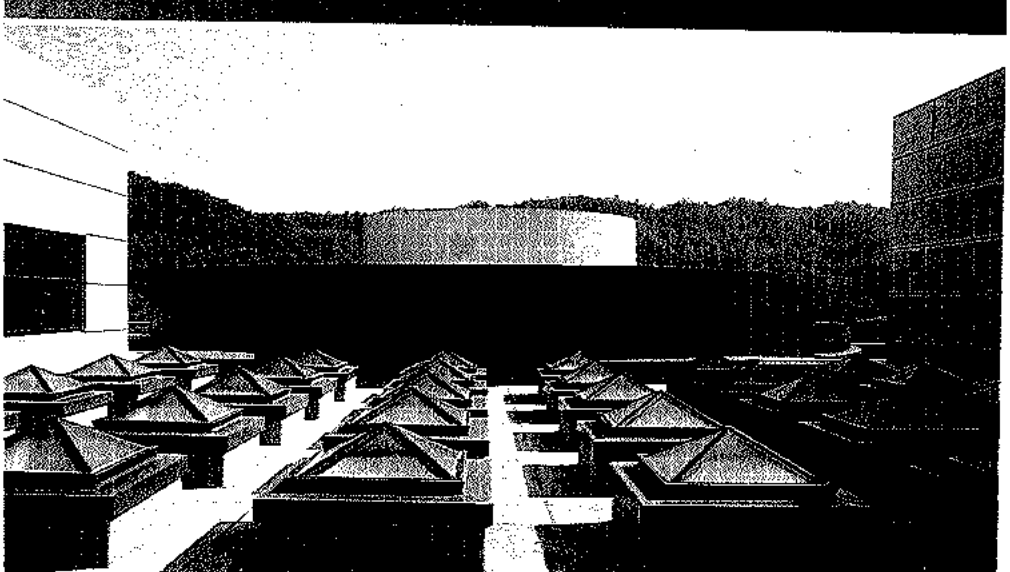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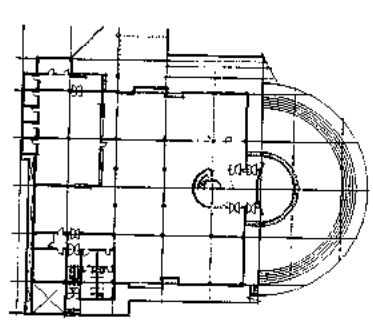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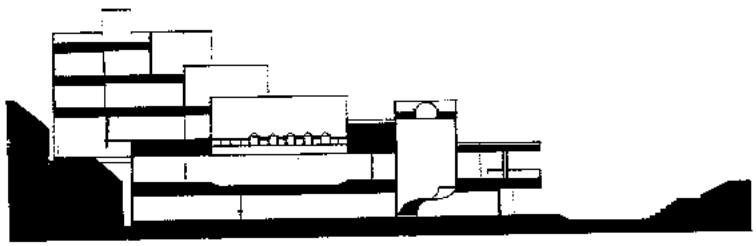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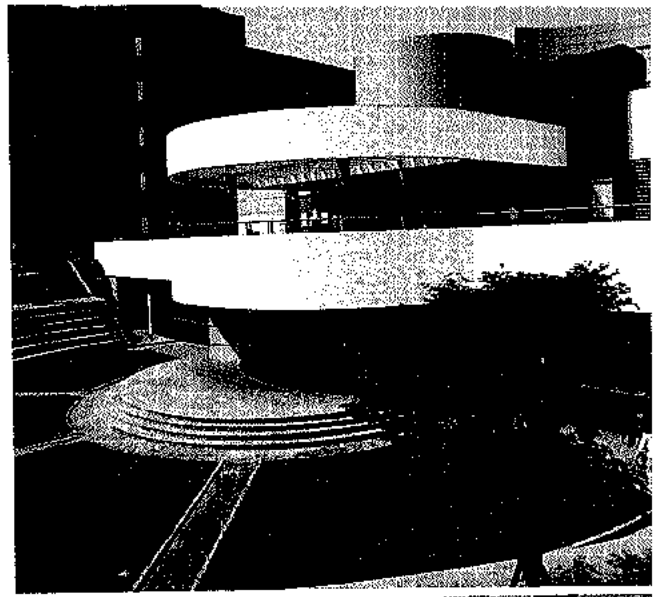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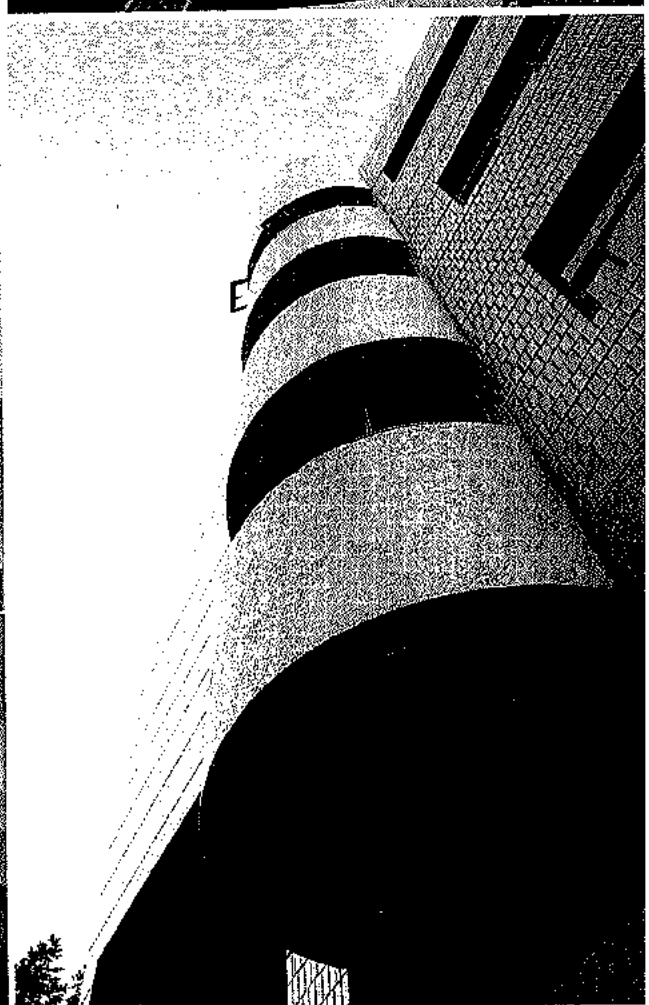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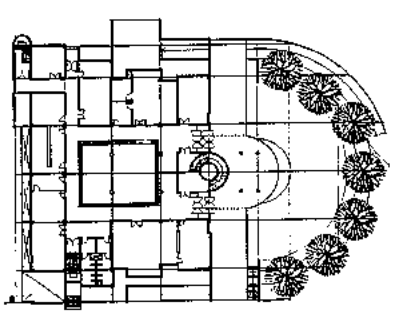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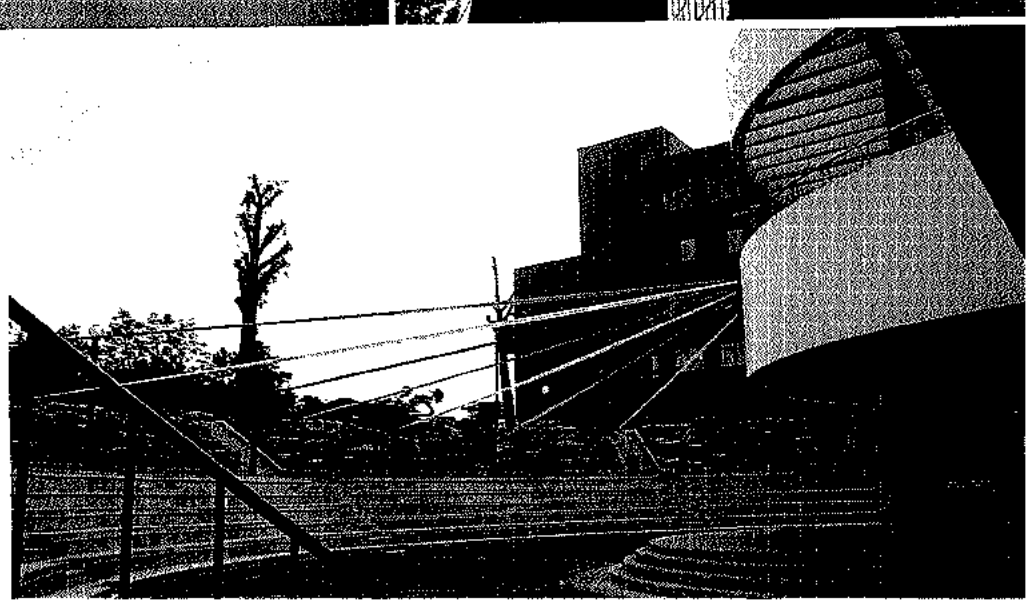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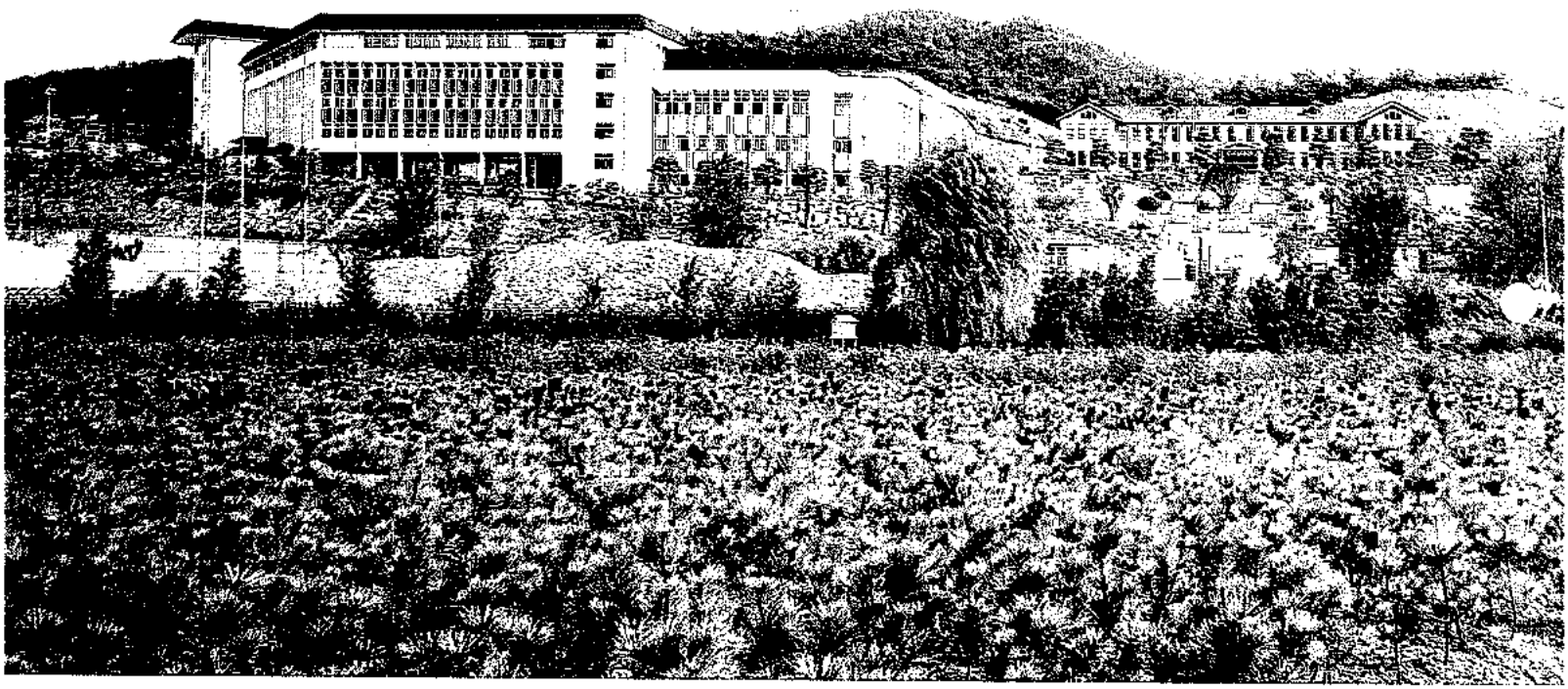






1층평면도





동래여자중·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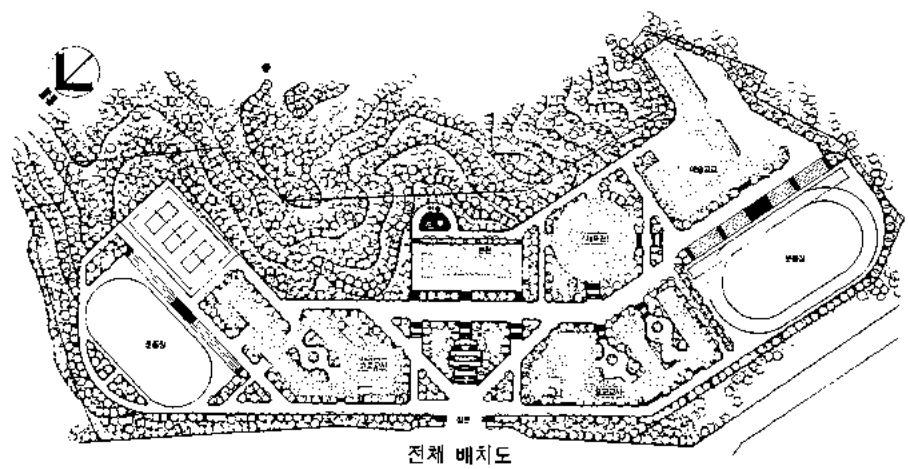
Dongrae Girl's Middle & High School, Busan Arts School
Designed by Lee, Yong-Heum

李龍欽 /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동 1157~1 / (051) 462-47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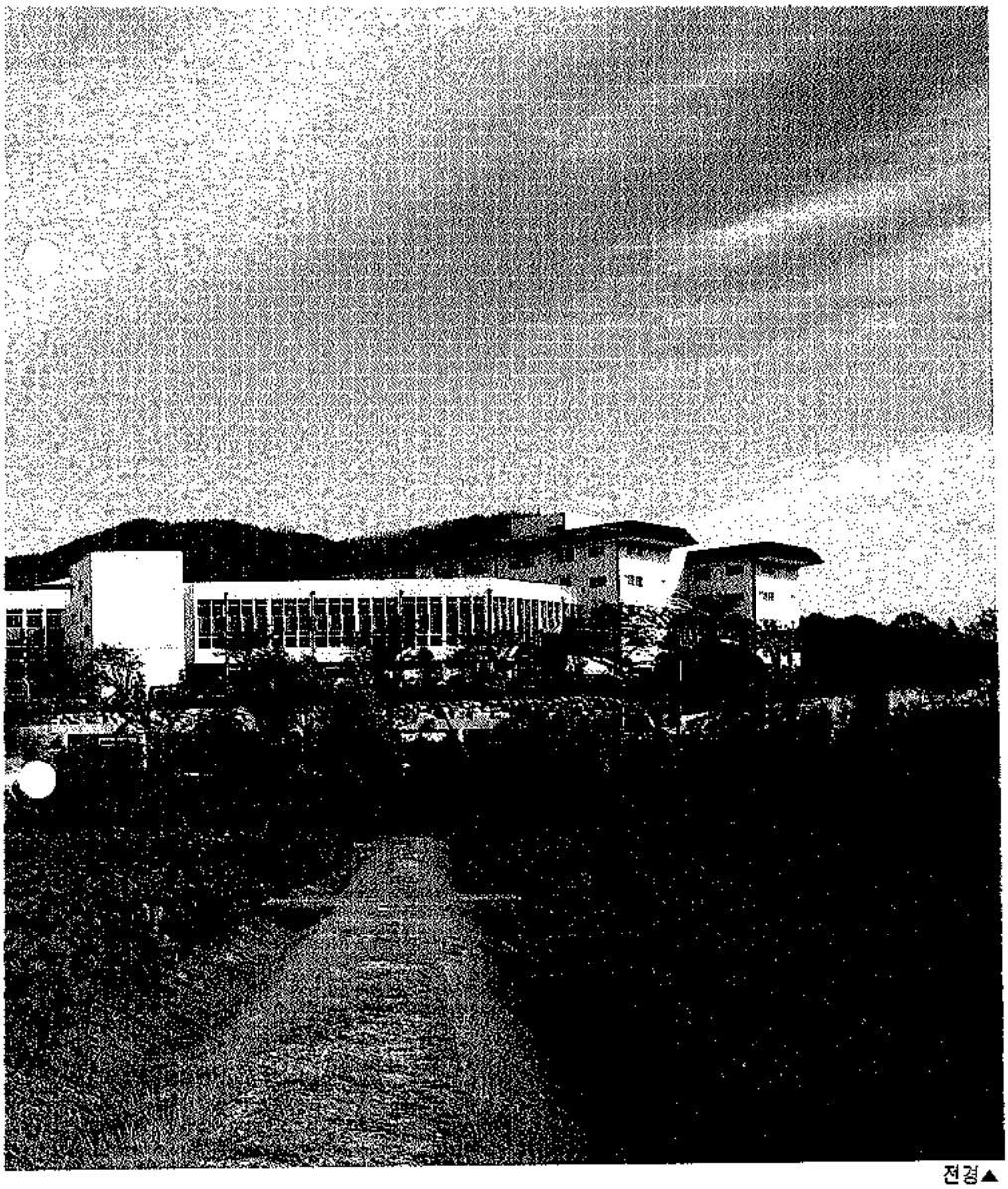
■ 현상설계 당선안 /
84. 12. 부산 및 서울 9개사 지명

■ 설계개요

□ 대지위치 :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 대지면적 : 77, 393㎡
□ 건축면적 : 9, 920. 85㎡
□ 연면적 : 31, 095. 02㎡
중 학 교 / 7, 789. 83㎡
고등학교 / 9, 310. 34㎡
본 관 / 1, 189. 98㎡
체 육 관 / 2, 289. 04㎡
예 술 고 / 9, 873. 19㎡
기 타 / 642. 64㎡
□ 건폐율 : 12. 82%
□ 용적율 : 39. 36%
□ 교 조 : 교사 / 철근콘크리트조
체육관 / 철골조
□ 외 장 : 교사, 체육관 / 우레탄페인트
본관 / 화강석 잔다듬



전체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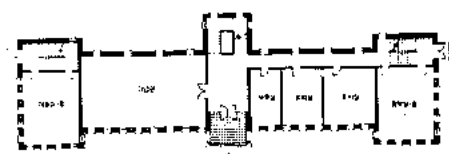
■ 설계소묘

경부고속도로 연변의 경관이 수려한 2만 여평의 경사부지에 90年 역사를 가진 학교의 전통계승 및 지형에 순응한 合理的인 Master Plan이 설계지침으로 요구되었다.

배치개념은 종래 학교건물의 획일적인 배치형식에서 탈피하여 本館을 中心軸으로 좌우에 중·고등학교를 각각 배치하고 지형이 이루는 自然軸에 순응하여 각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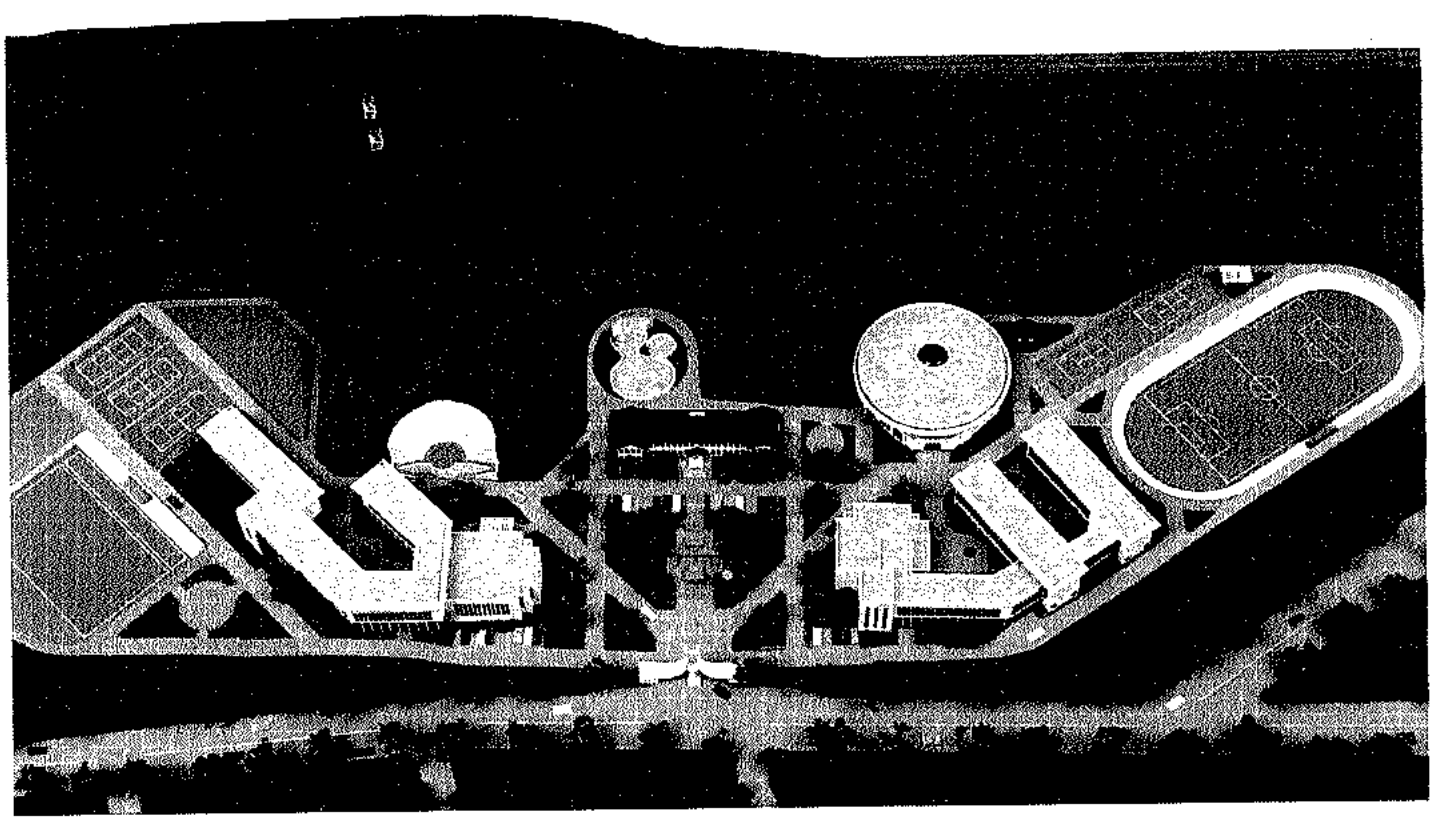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여학교의 특성에 부응하는 아늑하고 정서적인 환경을 창조하였으며 토지이용은 기존 자연요소를 최대한 보존 활용한다는 원칙하에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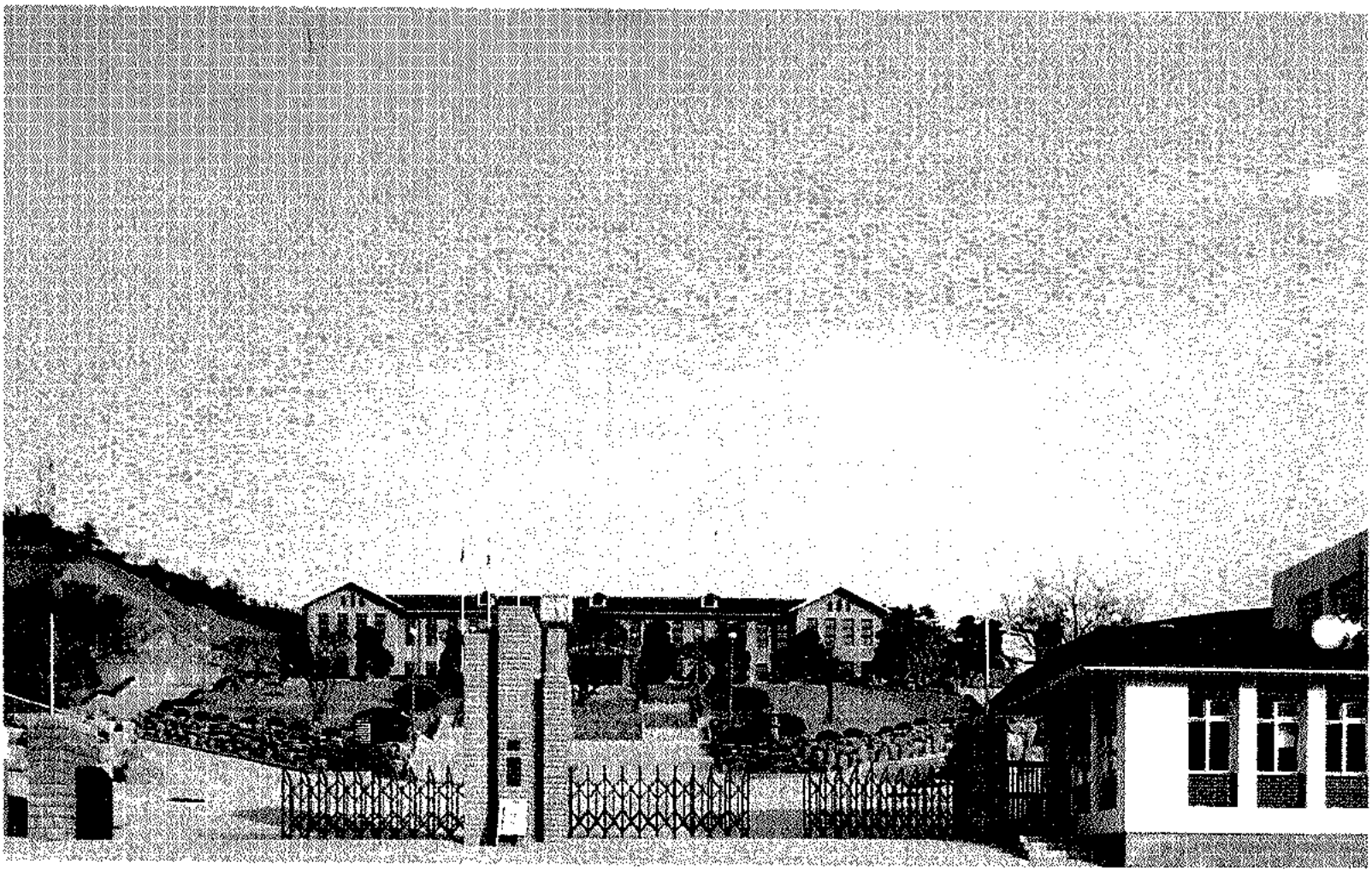
학교의 전통을 상징하여 복원한 본관은 전면의 상징Plaza와 함께 전체시설의 Core를 형성하도록 배치되었으며, 교사동은 크게 일반교실과 특별교실부분으로 분리되고 남향의 교실WING을 Buffer Zone으로서의 복도가 연결하는 형식으로 내부에는 휴식과 정서공간인 중정이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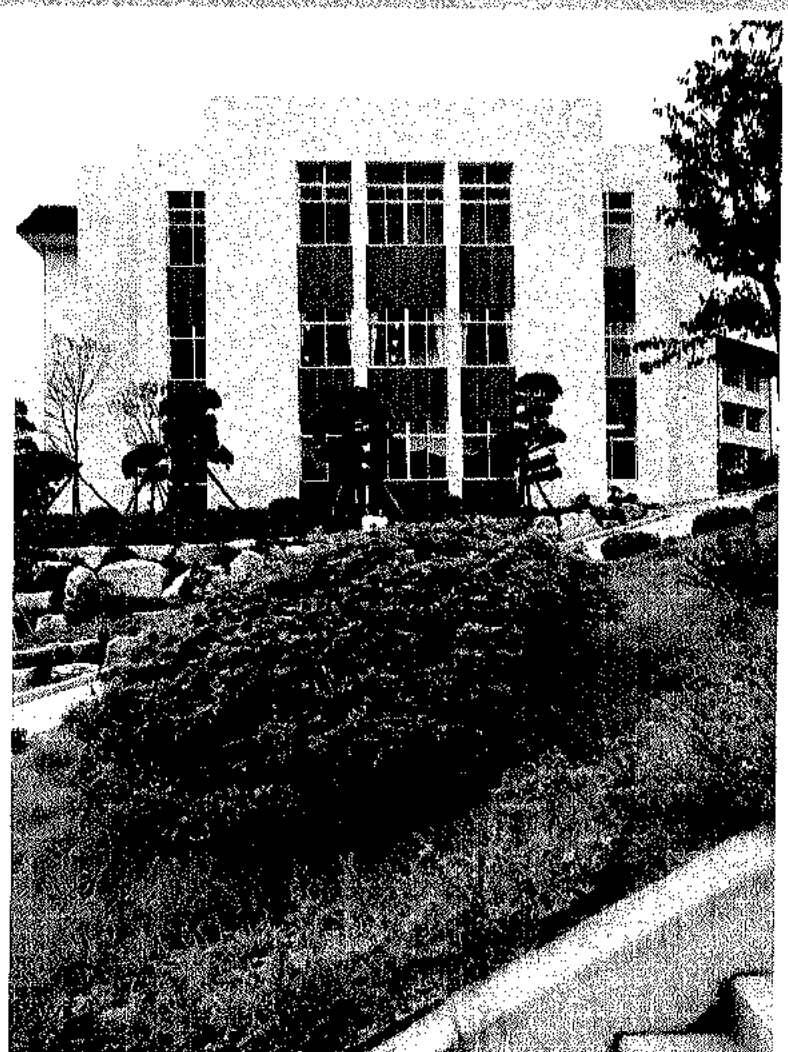


본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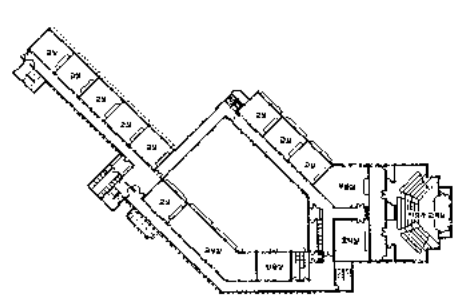
▼Compe 당선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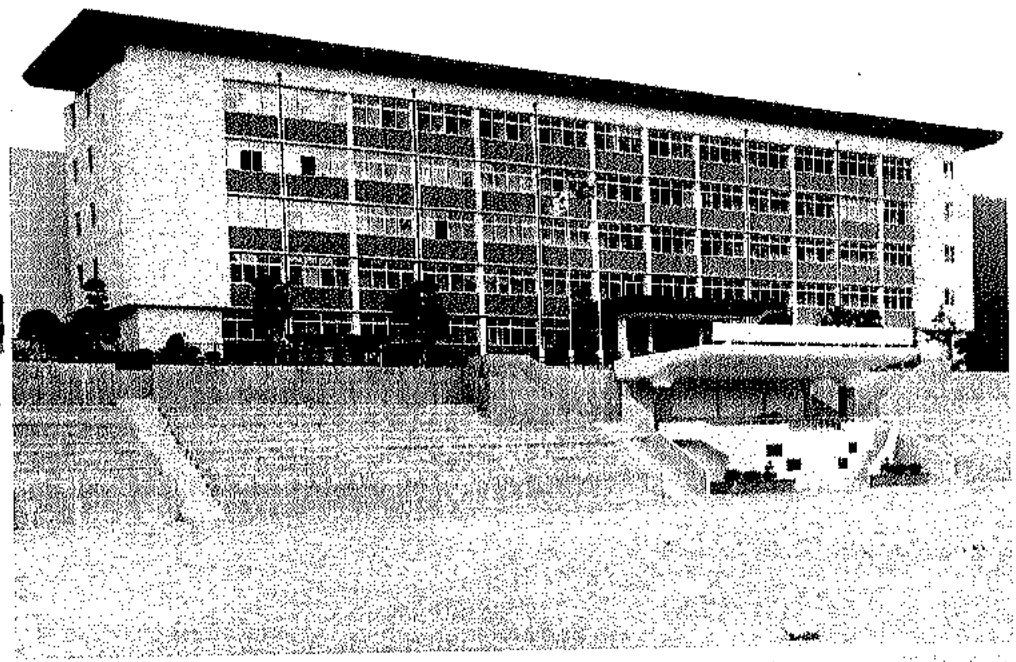


▲여중 전경
◀여고 측면
▲진입로에서 본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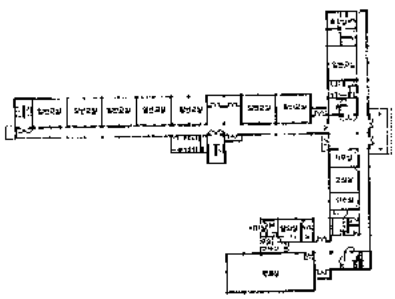


여고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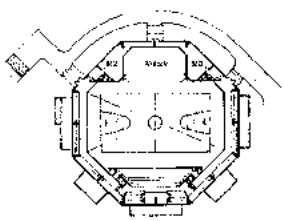
예술고 측면▲



예술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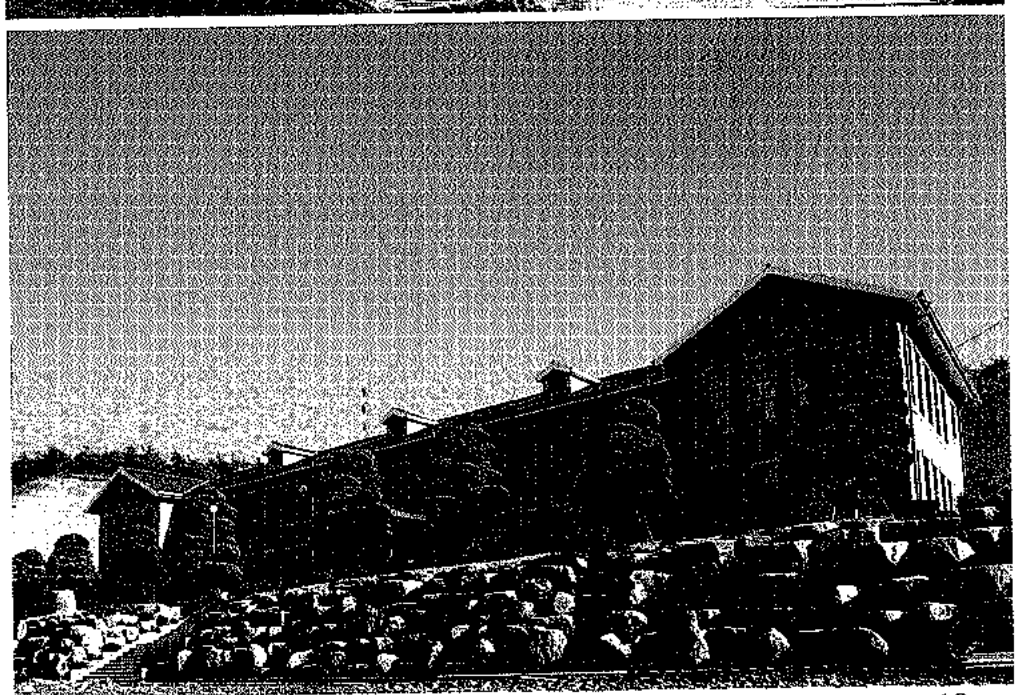
예술고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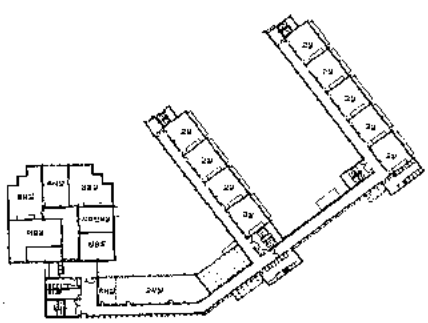


체육관 평면도

체육관▶

본관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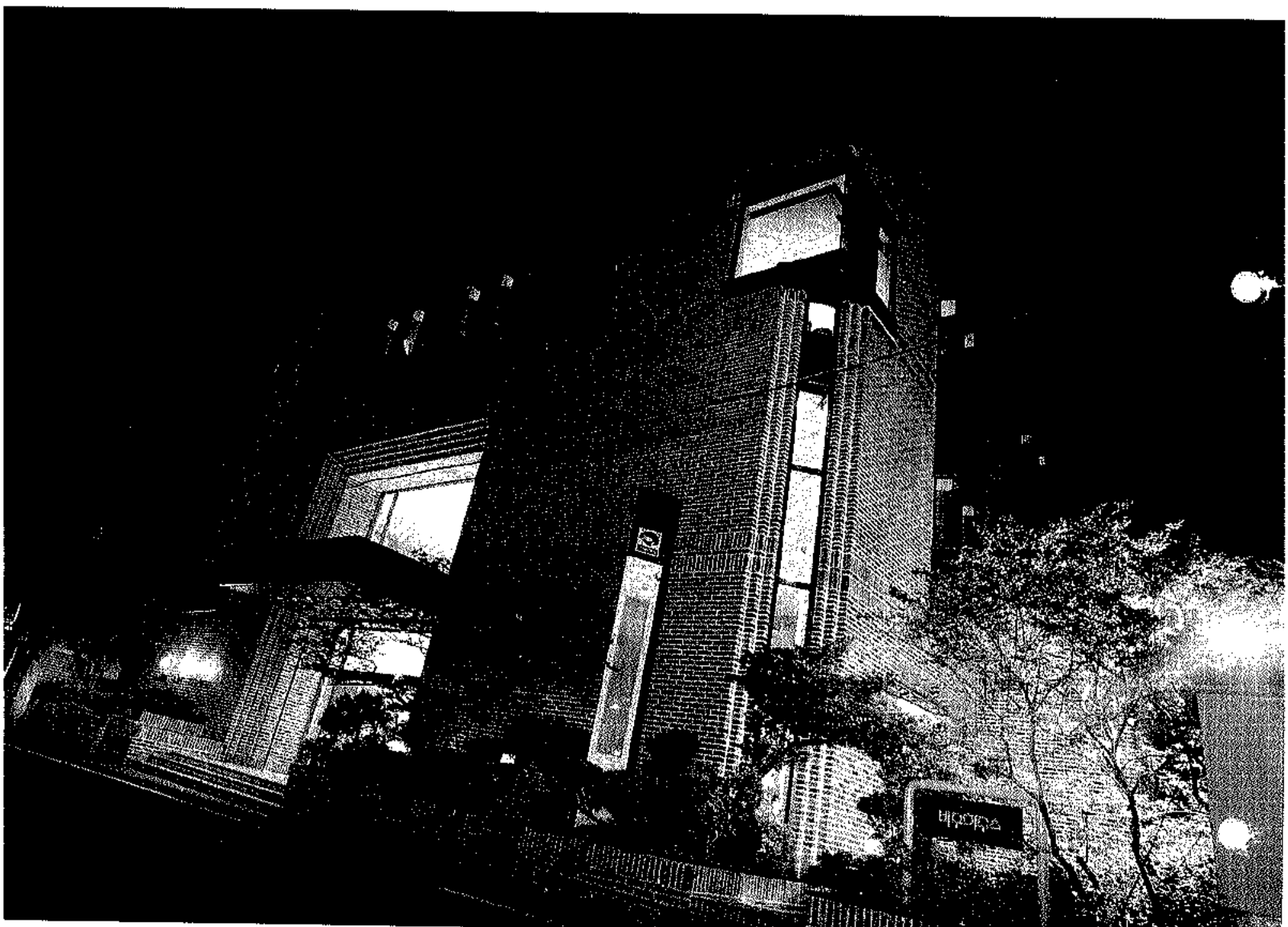
여중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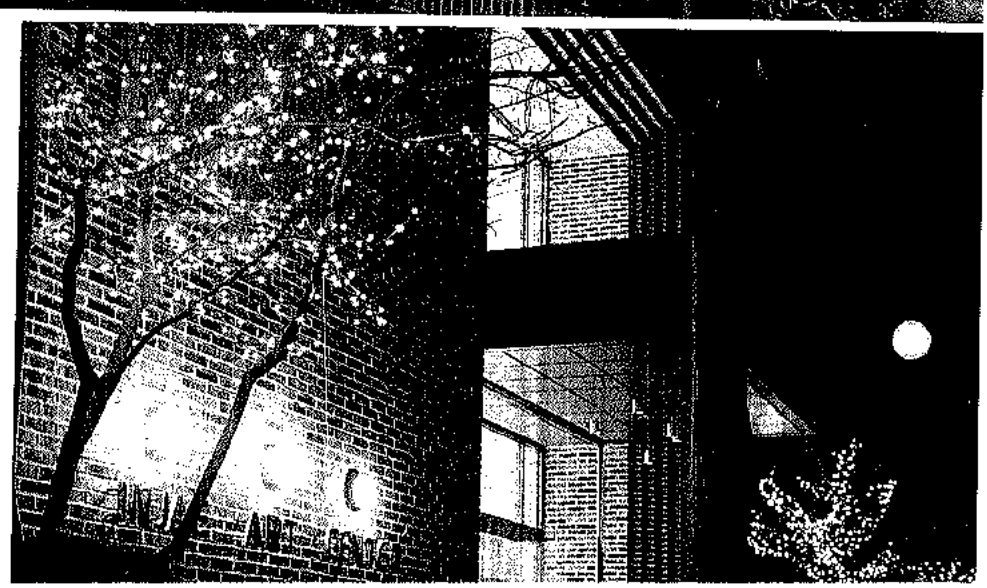
■ 會員作品

인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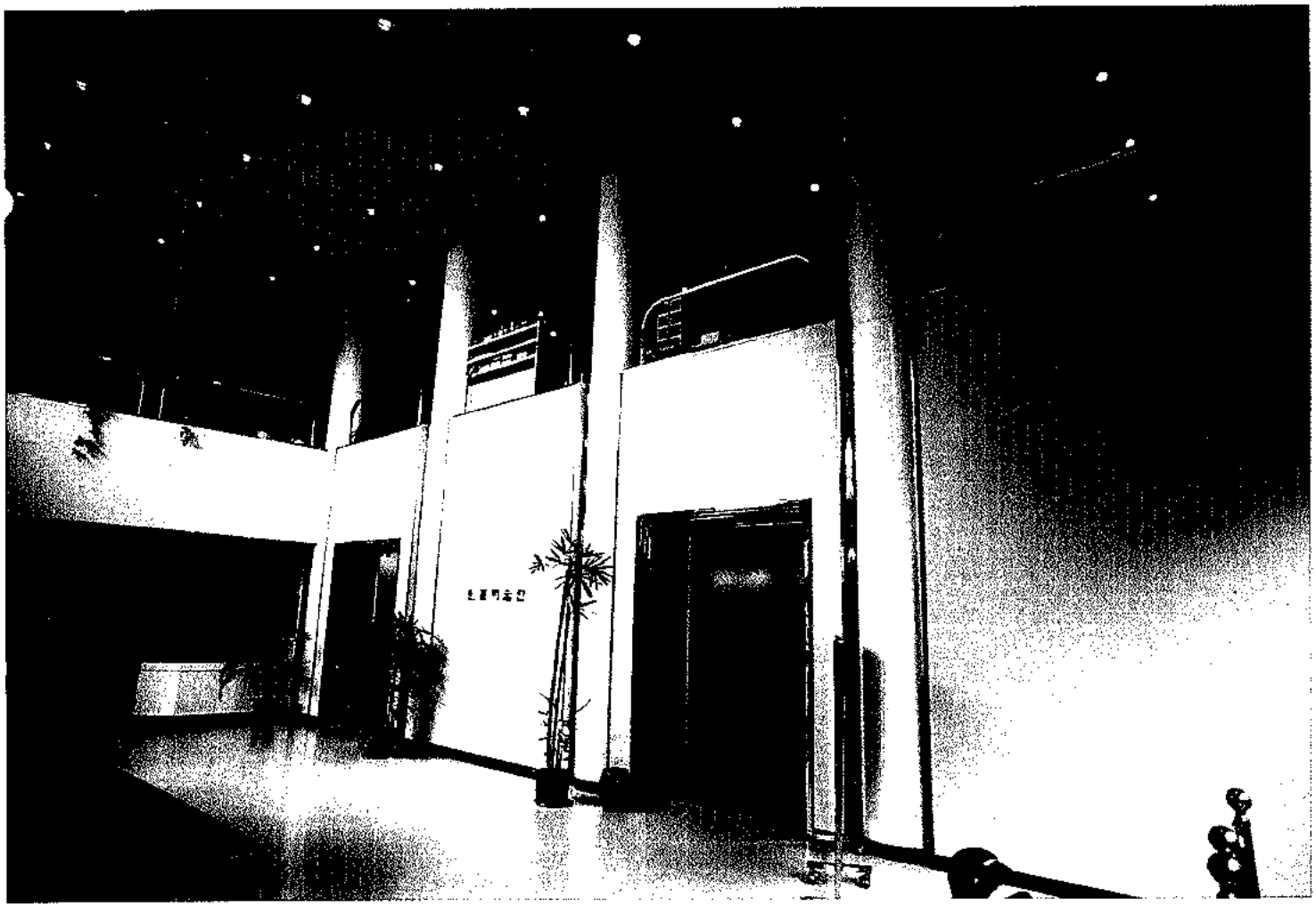
Injae Art Center
Designed by Park, Hw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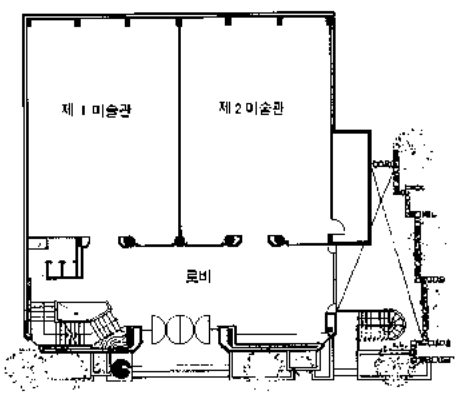
朴華洙 / 건축사사무소 국보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1가 19/ (062) 22 - 9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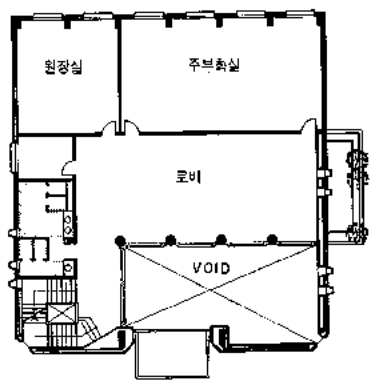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동구 장동 71- 1
□ 대지면적 : 705. 40㎡
□ 건축면적 : 406. 42㎡
□ 연면적 : 1438. 82㎡
□ 규모 : 지하 1 층, 지상 3 층
□ 구조 : R - C 라멘조
□ 마감재료 : 적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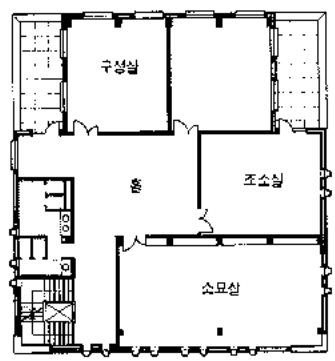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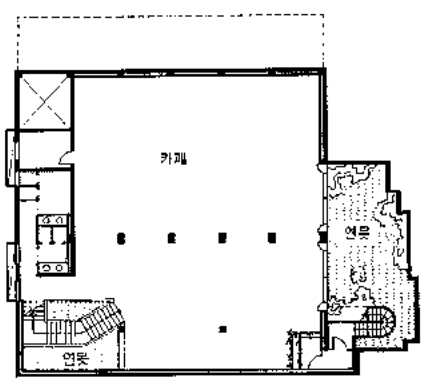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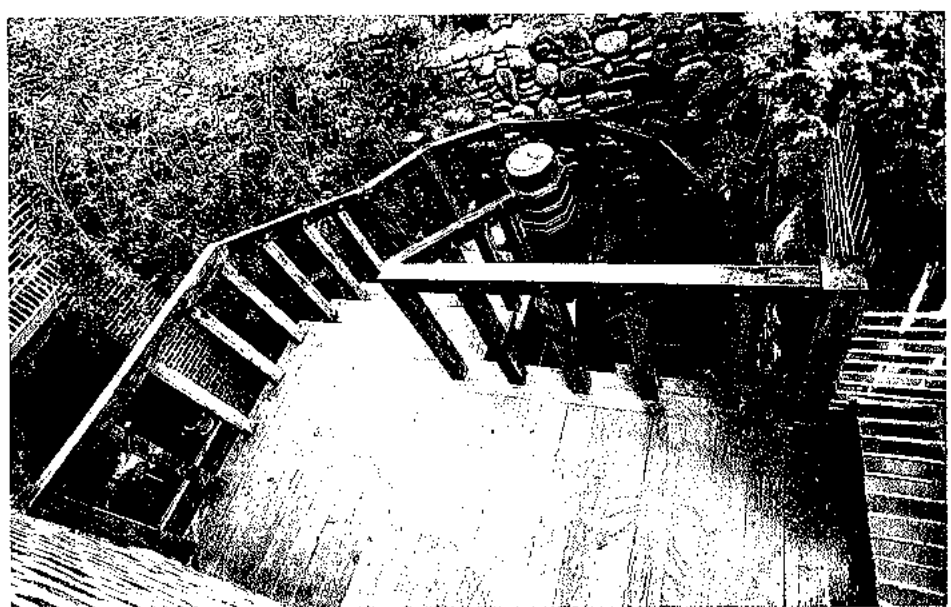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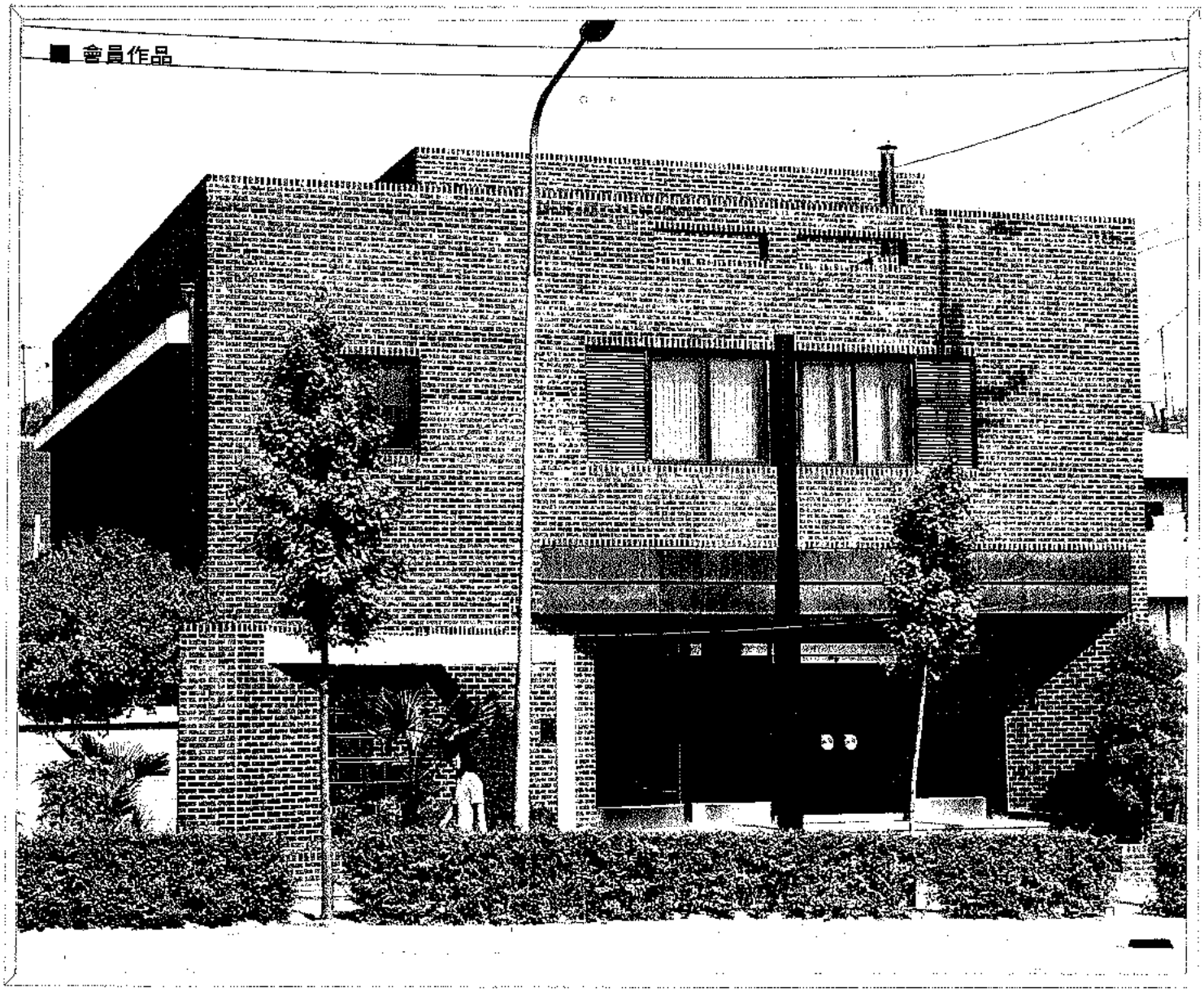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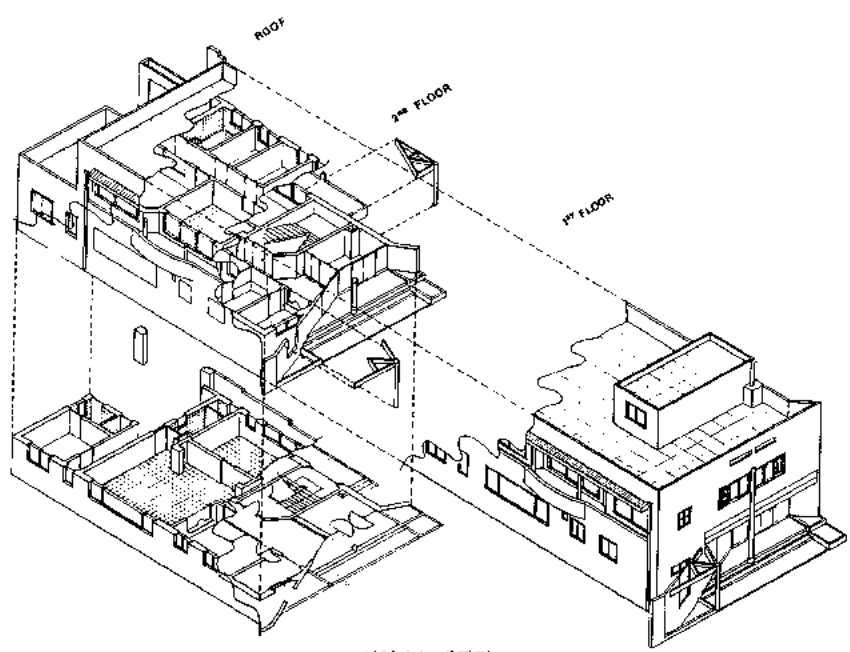


제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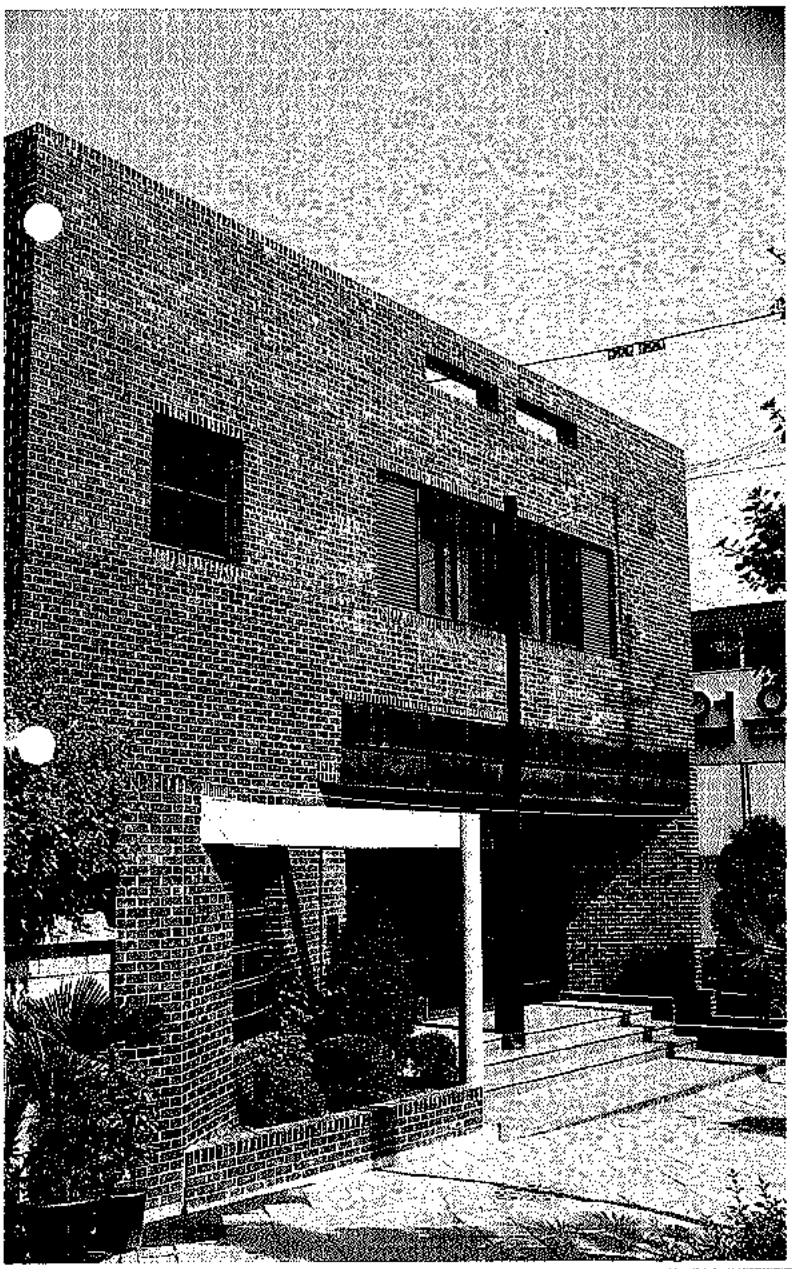
Jeil Pediatric Clinic
Designed by Choi, Seu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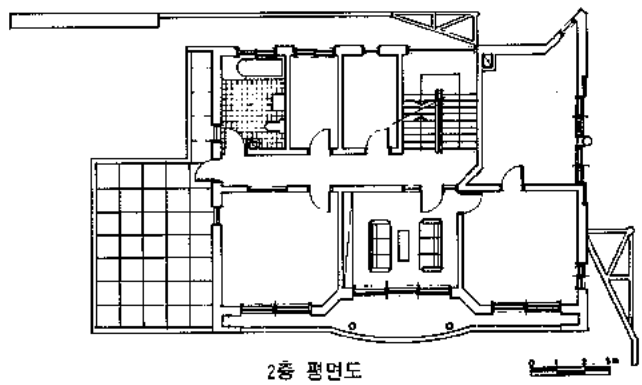
崔勝元 / 건축사사무소 홍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05-10 / (0343)2-6992

□ 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110-3
□ 주요용도 : 의원
□ 대지면적 : 291.50㎡
□ 건축면적 : 163.33㎡
□ 연면적 : 449.09㎡
□ 마감 : 외벽-적벽돌 치장쌓기
창호-16㎜ 페어그라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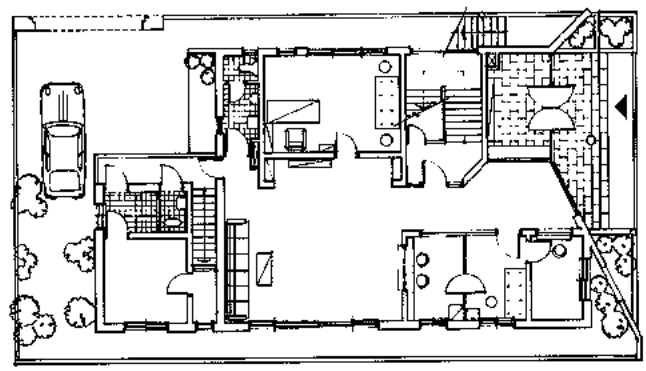


아이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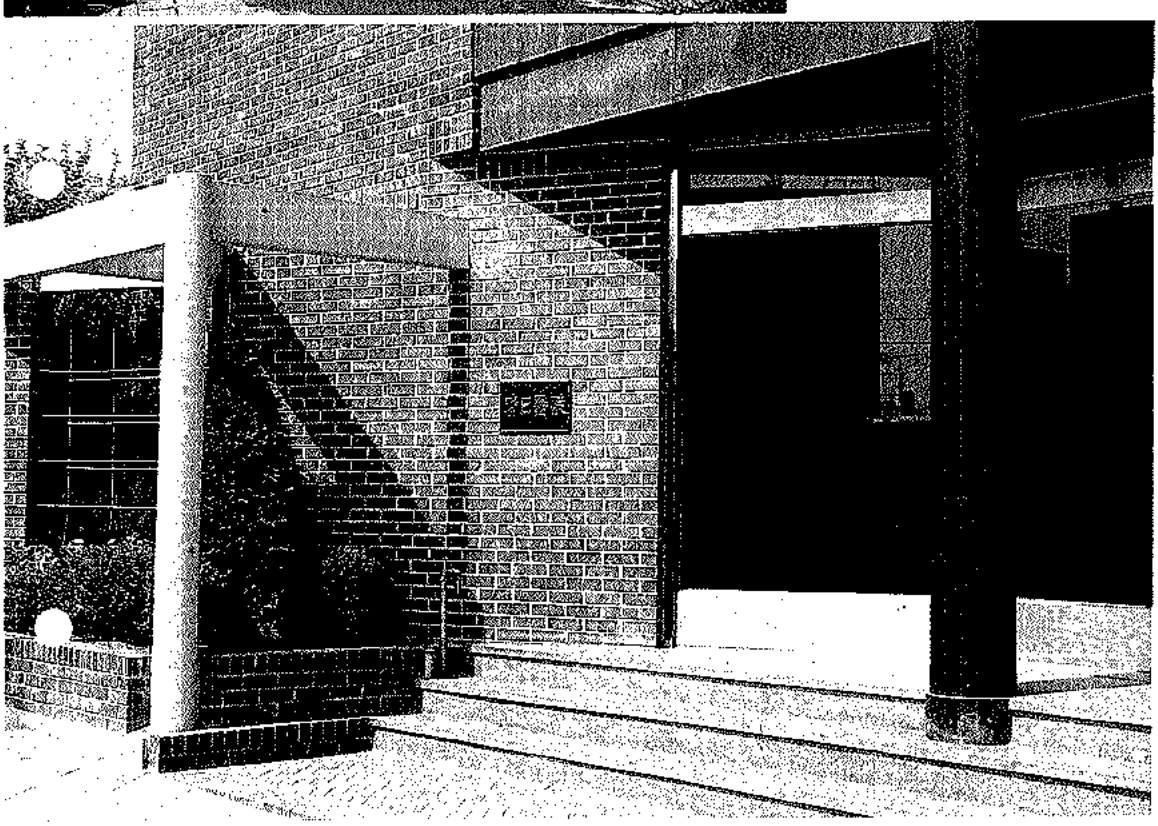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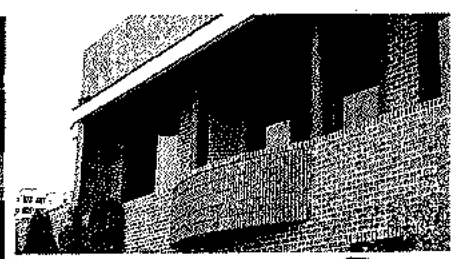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설계소묘

현관의 평면은 활형으로 펴 찾아오는 유아에게 따뜻한 환영을 뜻하고 있다. 하얀 벽돌집을 희망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고 주변환경 사정으로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은 미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힘은 있으나 사치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했던 건축이다. 평소에 의사가 활동하던 섬세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선한 형태의 건축이다.





■ 會員作品

하트 타운

Hear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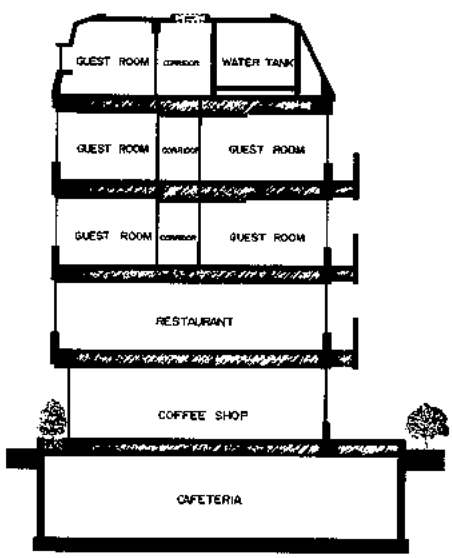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Young-Bae

金榮培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6-6 / 462-6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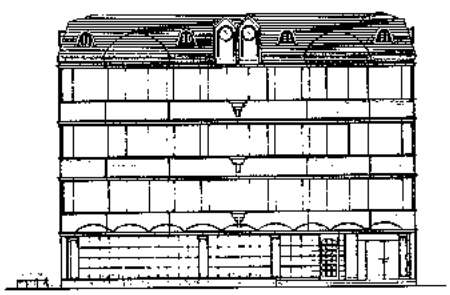
□ 대지위치 :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197-14
□ 대지면적 : 439. 80㎡
□ 연면적 : 923. 49㎡
□ 지역 : 준주거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외장 : 적벽돌
□ 용도 : 지하층 / 카페, 1층 / 다방
2층 / 양식당, 3, 4, 5층 / 여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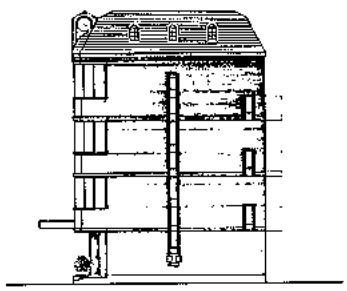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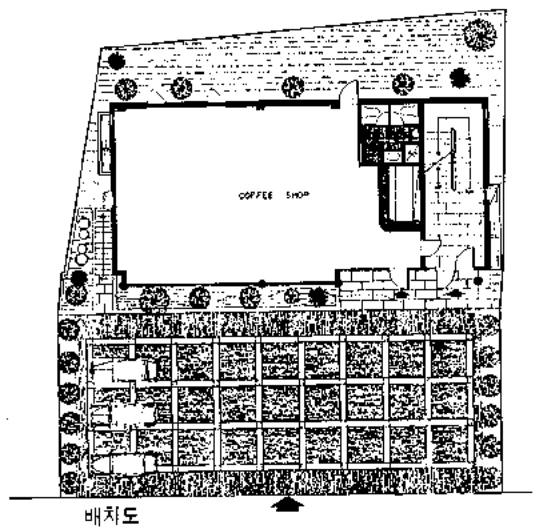
▲현관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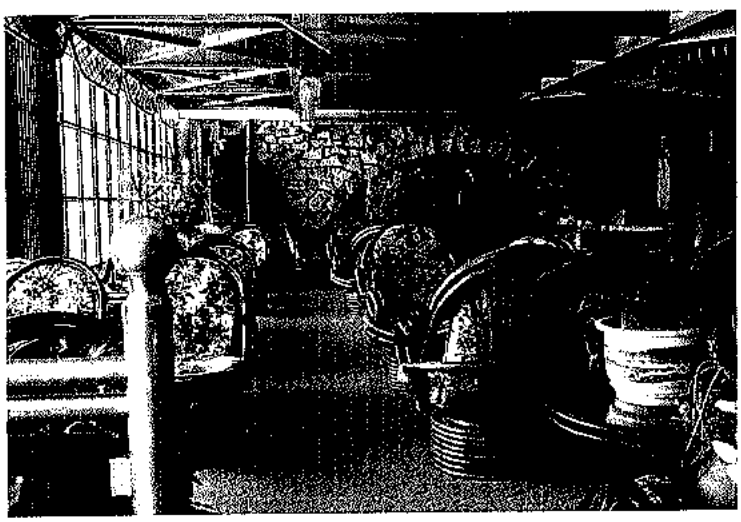
정면도



측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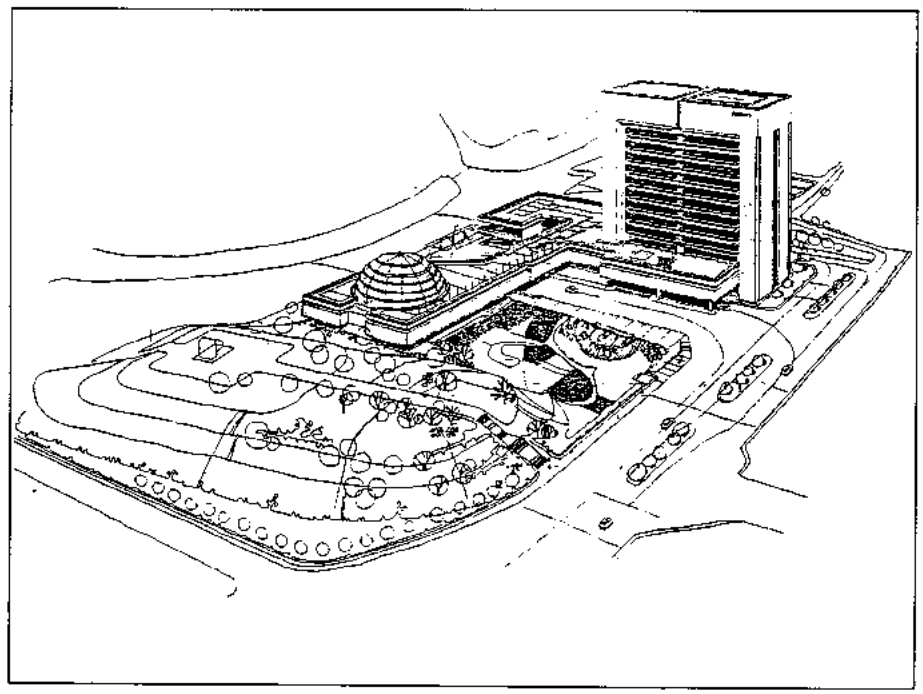


■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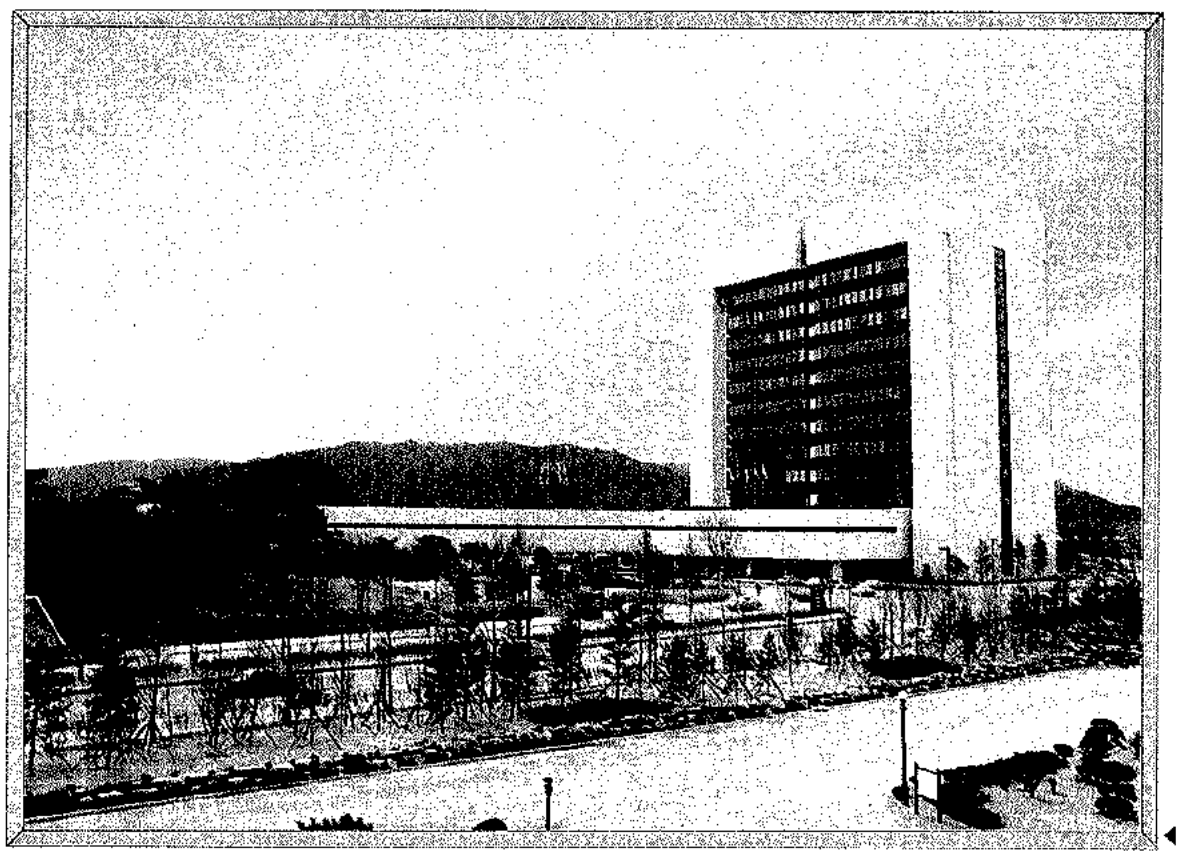
포항종합제철(주)사옥

Posco Headquarters Building
Designed by Lee,Jong Kap &
Sim,Seong-Bo

李鍾甲+沈聖輔 / (주)세마종합건축사사무소
경북 포항시 괴동동 568 / (0562)72-5651



□ 대지위치 : 경북 포항시 괴동동 1 번지
□ 건축면적 : 5605㎡
□ 연면적 : 3, 2016. 5㎡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라멘조
□ 규모 : 지하2층, 지상13층
□ 최고높이 : 63. 45㎡
□ 외부마감 : GPC 및 석재, Al Curtain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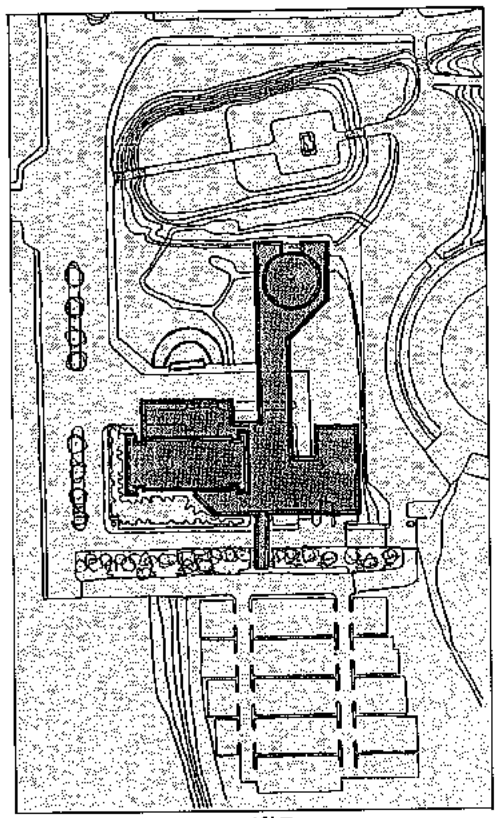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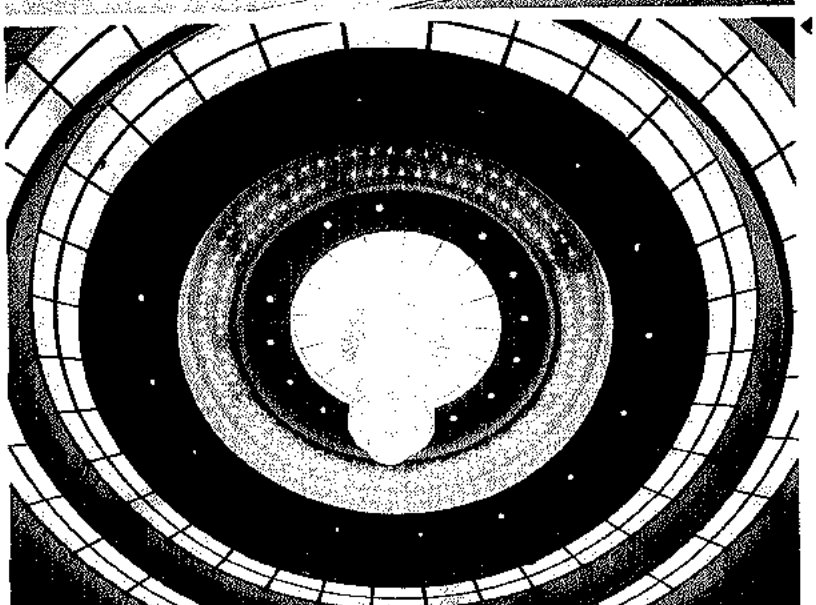
■ 설계소묘

Building 자동화 System 정보통신 Network 를 구축해 음성 영상등의 정보 교환기능을 갖춘 건물이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건물 배치계획에 있어서 주변 기념탑과 산세를 자연스럽게 건물 전면까지 끌어들여 내방객에게 웅장하면서 풍부한 공간 형태감을 보여주며, 기능에 따른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또, 각 시설도 Approach 동선에 따른 경관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제철소 정문으로부터의 수직 도로는 진입로의 시원스러움을 더해준다.
건물 외형은 GPC 및 화강석 건식공법을 사용하여 웅장하면서 듬직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으며 Curtain Wall 의 설치로 건물의 현대 감각을 가미하였다. 특히, Sky Line에 어울리도록 고층부와 저층부를 조화롭게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OA화를 주체로 한 Office 의 장기적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6M의 장Span 으로 기둥없는 사무실로 Low Partition 구획이 이용되었다.
내부의 동선은 서로 교차되지 않으며 주 수직동선은 에레베이터를 이용하고 Security 를 고려한 단면 Zoning 계획을 하였으며, 문서방송 설비를 포함한 제반 설비 공간의 집약화로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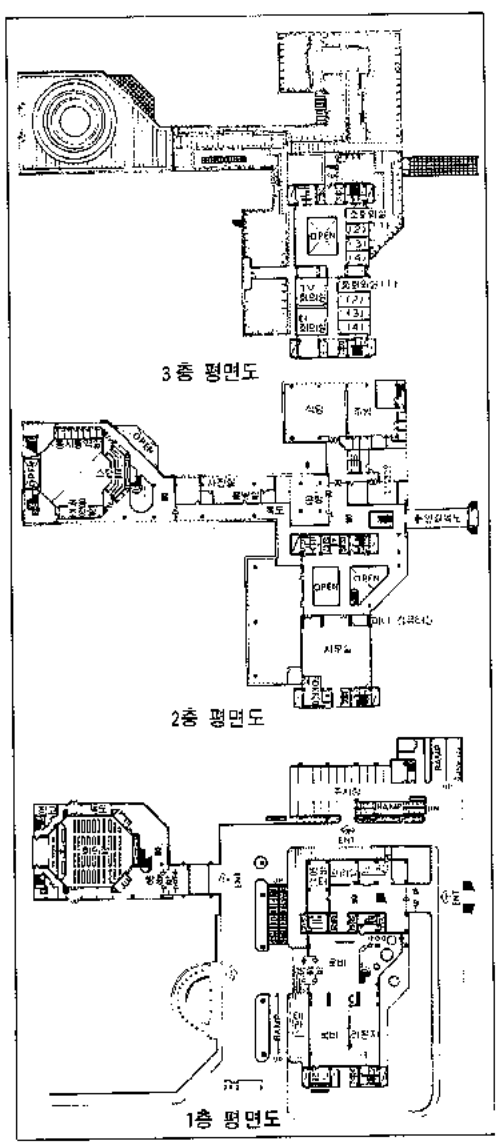
◀본관 및 회의장 연결 브릿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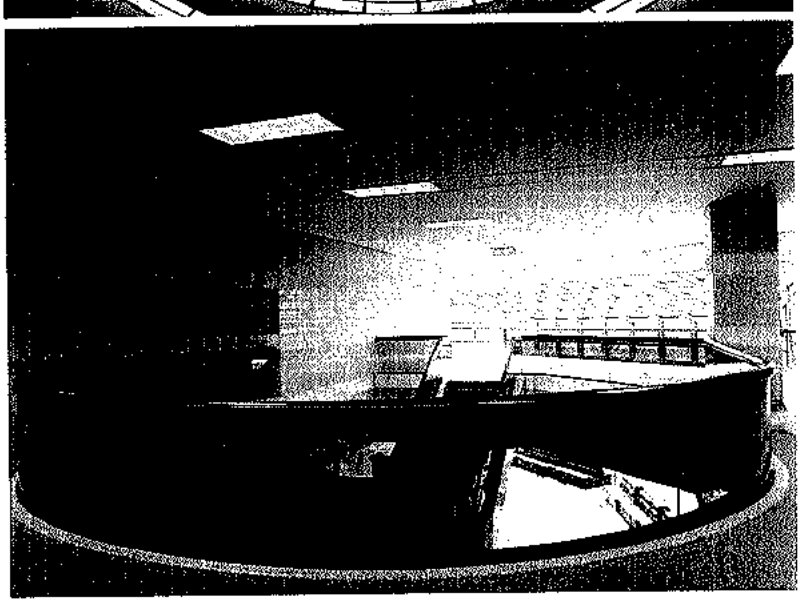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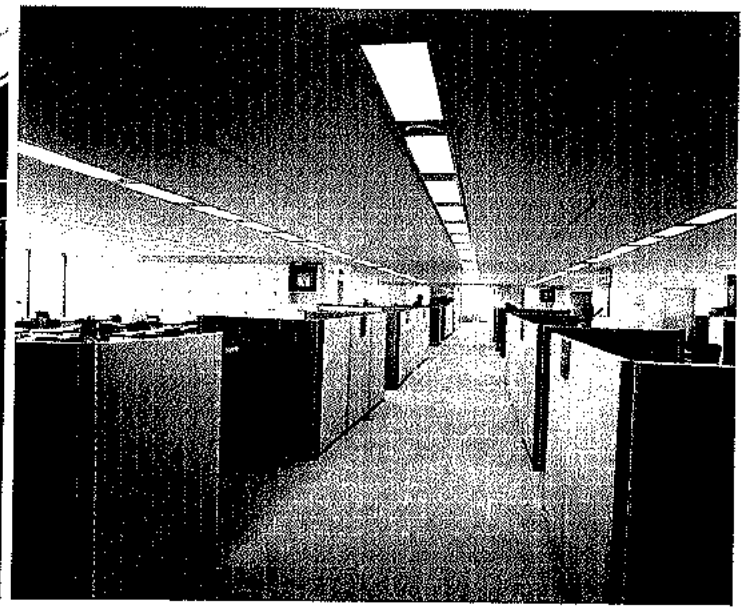
◀회의장 천장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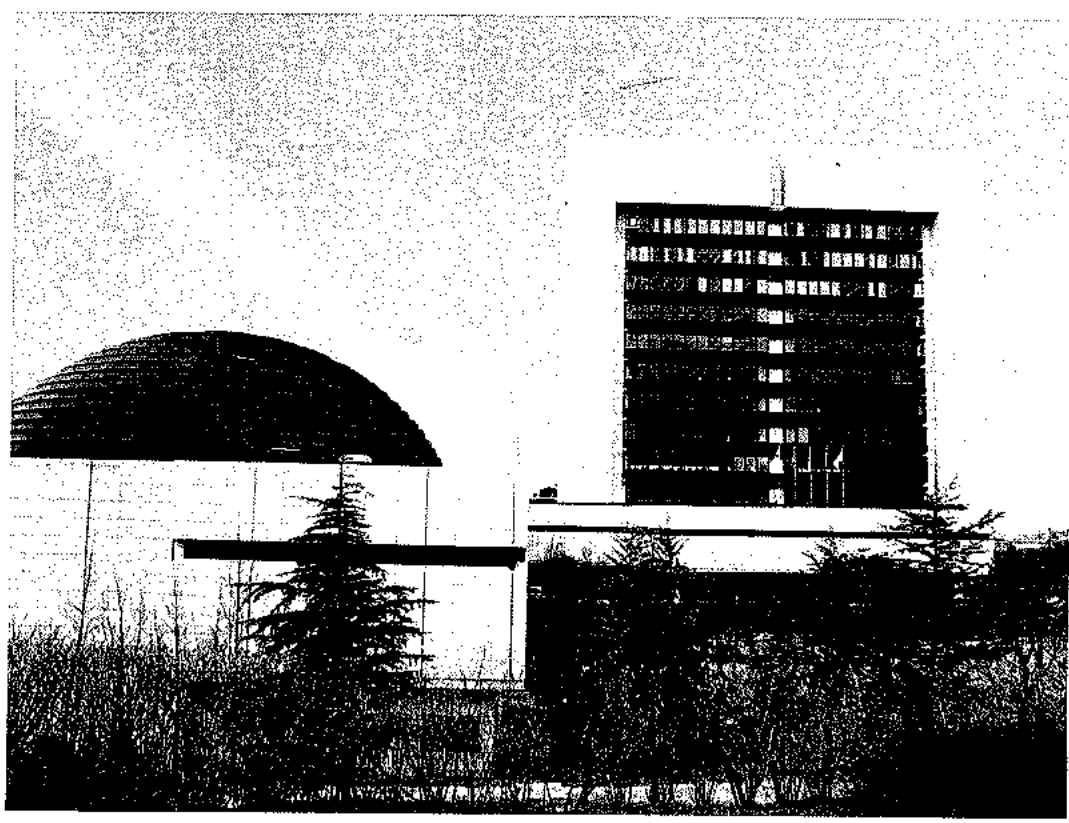


◀2층에서 본 계단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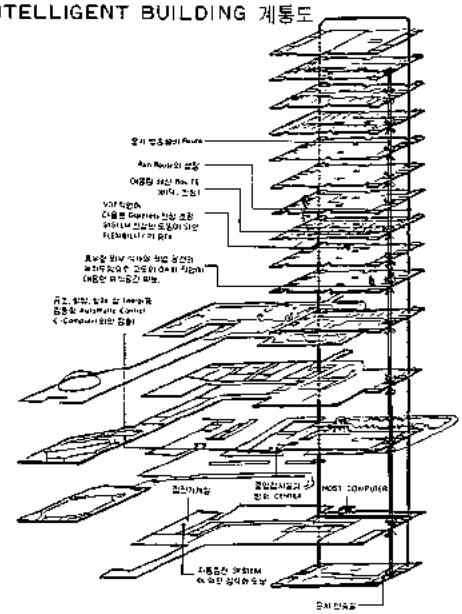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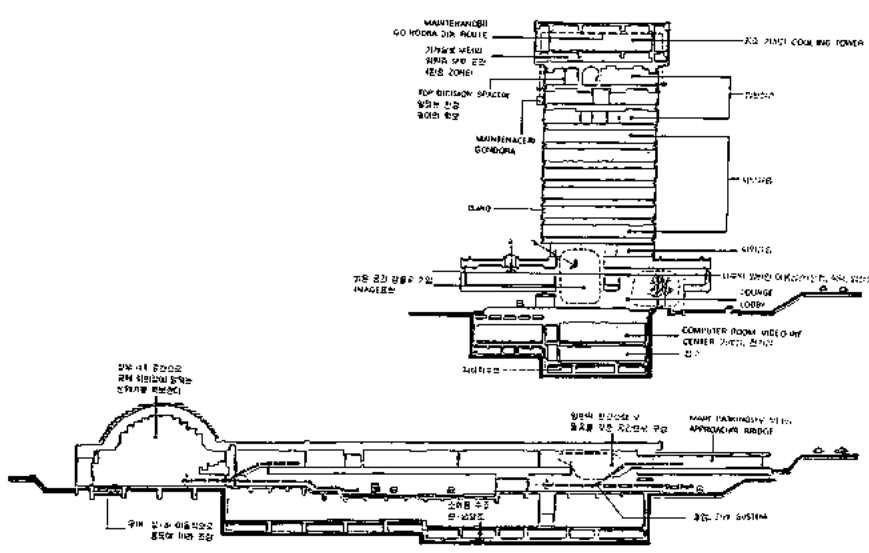
사무실▲



◀본동 및 회의장

INTELLIGENT BUILDING 계통도





단면계획

장마 有感

"
세계에서 몇번째, 동양에서 제일이다 하는 화려한 시설도 좋고 대규모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막힌 하수도 잘 뚫어주어 배수 잘되게 하고 질좋은 수도물이 늘 끊이지 않고 나오며 큰 비 올때마다 자주 정전이 되고 불통되는 전화가 없는 복지문화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朴在煥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 무이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변덕스러운 장마로 여러사람들이 곤욕을 치뤘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호우로 엄청난 재산의 손실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가 그친 7월말경,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는 A화백등 친구 몇이서 저녁을 할 기회가 있었다. 화제는 자연히 장마가 중심이 되었다.

「건축가의 집들은 장마에 끄덕없겠구만」 A화백의 말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는 별걱정없다고 대답하면서 A화백의 자택은 피해가 없느냐고 물었다.

A화백은

「다행히 저대가 높은곳에 살고있어 침수걱정은 없으나 집이 오래되어서 천정 곳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소리가 빗물받이 그릇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로 변하여 들린다」고 하여 모두가 웃고 말았다.

한 친구는 자기집 지하층이 침수되는 바람에 지하층에 세든 식구의 가재도구와 많은 생활용품들이 물에 젖어 이려운 살림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며 주인이고 세든사람이고 모두 물난리를 함께 겪는다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푸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하나는 자기 집, 자기 가정에 대한 관리와 보수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시설로서 사회나 국가가 시행할 공공사업이다.

전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관심으로 쉽게 대처가 되나 후자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연구와 방법이 수립되어야만 그 해결이 가능하다 하겠다.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집안 어른들이 일년에 한 차례씩은 손수 집안손질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칠이 벗겨진 마루나 창문틀의 페인트칠, 창호지 새로 붙이기, 깨진 기와나 채양의 보수, 장독대나 마당의 손질 또는 삐걱거리는 대문손질 등 웬만한 집안의 잡일들은 손수 고치며 부지런히 쓸고 닦아 집안을 늘 환하게 꾸미고 살으셨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 살고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땀흘리며 손질할 집안의 일거리도 없고 정성들여 쓸고 닦을 생활도구도 사라져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물난리로 인한 공공시설의 침수로 전기가 끊기고 수도물이 안나오며 전화가 불통되는 등의 불편도 함께 겪게 된다.

지하도가 하수구 노릇을 하고 넓은 도로가 개천으로 바뀌고 저지대의 주택가와 논·밭들이 호수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옛말씀처럼 治山治水를 잘하는 정치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富하게 만드는 길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세계에서 몇번째, 동양에서 제일이다 하는 화려한 시설도 좋고 대규모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막힌 하수도 잘 뚫어주어 배수 잘되게 하고 질좋은 수도물이 늘 끊이지 않고 나오며 큰비 올때마다 자주 정전이 되고 불통되는 전화가 없는 복지문화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장마로 본인이 설계한 건물에도 비가 새는 바람에 입장이 곤란했었다. 시공자의 의례하는 변명마따나 처마가 없는 건물이어서, 물을 잘빨아들이는 벽돌이어서, 설계가 까다로와서…… 모든 원인이나 책임이 설계자에게 돌려지니 이런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을리 없다.

잘지은 건물이 누수로 집안 천정이 얼룩지고 외벽에 하얗게 백화가 낀것을 보게되니 건축가의 자존심은 말이 아니다.

공사때마다 시공자에게 하는 잔소리지만 콘크리트 이어치는 위치나 방법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우고 후래싱을 철저하게 시공토록 부탁하지만 결과가 안좋을 때는 시간과 비용의 2중손해뿐 아니라 좋은 설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지게 된다.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옛말과 같이 종이장같은 틈새에서 쏟아지는 빗물때문에 겪게되는 곤욕을 피하기 위하여는 그지 꼼꼼한 설계와 깐깐한 감독과 성실한 시공이면 틀림없이 가능하여 위에서 밑에서, 또는 옆에서 스며드는 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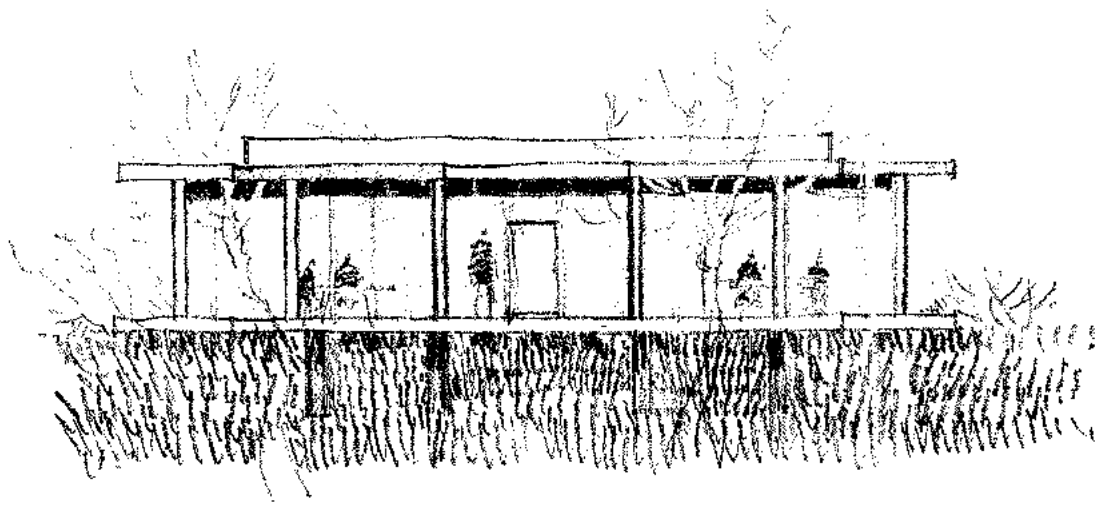
(續 建築 너 뭣고)
人類의 軌跡과 建築軌跡의 理解

■ Essay
Understanding the Trace of Mankind & Architecture
by Choi,Chang-Kyu

"사람들은 "삶" 自体를 眞摯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建築을 생각하고 보고 接近해야 建物을 理解할 수가 있다"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인간이 살아가려면 하고 싶은 말도 많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해서 할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인간은 매일 살고 있으면서 그 생활자체나 환경이나 의식에는 몹시도 둔감한 것 같다. 오직 정치요 경제요 인기요 투기에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생활자체의 의식이나 환경에 대한 또는 그런일에 종사하고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을 들어 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제 새삼 "나의 建築觀"이니 "建築家의 辯"이니 하는 따위의 제목은 붙일 필요도 없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한다.',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정도의 것. '건축이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닐까요?'라는 정도의 자신없는 思念들을 拙文으로 좀 써볼까 한다.
현대인들은 謙讓은 값싼 타협이라고들 한다지만 그래도 미덕임엔 틀림없는 일이다.
"니이체"는 "인간은 일찍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해 자라났다. 구태여 인간이란 桎梏"을 떼어 버리려 하지말라. 대자연이 脫皮를 요구할 때 스스로 벗겨진다."라고 동양적인 자연순응적인 말을 하고있다.
우리를 키우고 살게 하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들의 생활환경이다. 건축이란 바로 이 인간들의 생활환경을 결정하고 淸澄하게 만들어 내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모든 일을 다루어야하고 관계해야 하고 창조해내야 하는 일이 된다.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 등등의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환경은 제한된 시간내에(한사람의 일생)예언이나 해결한다고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는 건축가들을(통털어서) 당돌한 무리들, 이상가들, 이상한 기인들로 알고 있다. 또 건축가들은 건축가들대로 사회가 그들을 이해 못한다고 부정하고 사회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이 사회를 불신하게 되면서부터 늘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의 태아로서 자처하고 오직 인류의 미래나 지역의 생활환경이란 단위를 목표로 形成力을 기르고 지적인 과정과 수단으로서 태아인 스스로를 자생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에는 보편적인 문명의 목적을 이해관계나 경쟁이나 厚顔無知한 상식적인 습관을 만들어내고 사명과 도덕은 사회직능으로서 특권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정치, 전재나 실제, 합리와 효능이 빚어낸 기계나 과학의 문명이 사이비권위를 사회상식으로 했을 뿐만아니라 공해라는 인류멸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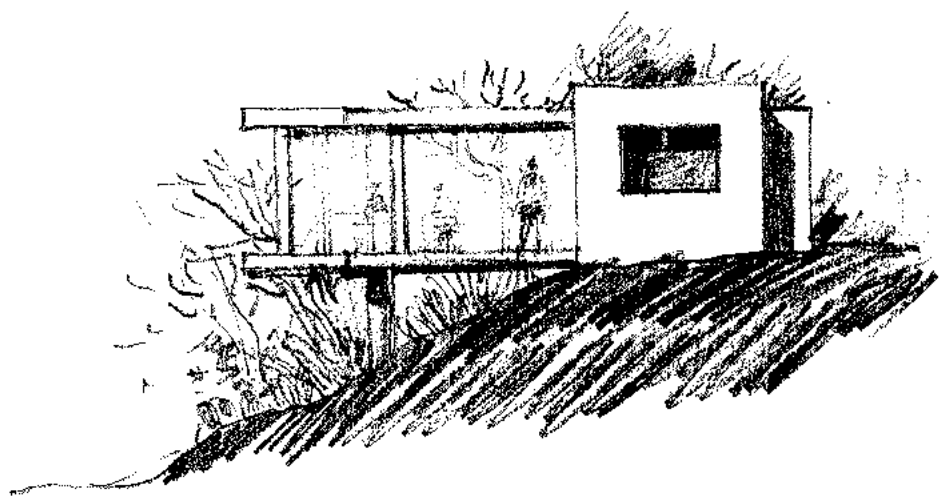
毒素나 부조리나 不信 不勞에로의 射倖性같은 추악한 장애물들이 너무도 범람해서 건축가들의 가륵한 미래로 향하는 행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하다고 해서 건축자체가 그 추악한 것으로 인해 소멸해지거나 멸망할 수도 없길래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건축을 택했고 인류의 문제되는 모든 일에 제안하고 예언하고 또 조형하는 것이다. 人類生活環境의 淸澄을 위한 시도나 표현은 건축가들 직업이요 권한이요 先慧요 본능인 것이다.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 하지도 않고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오직 그것을 해결할 施案과 可能性을 표시하고 표현할 뿐이다. 이러한 施案들은 제1차 성공을 암시하는 가장 의욕적인 징조인 것이다.

인간은 여간해선 만족을 못하는 동물이다. 만족을 못하기에 도전이 있고 試圖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간들의 행동이 훗날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늘 인간생활을 위해서라는 대전제가 붙어 있게 마련이다. 헌데 19세기초부터 이러한 산업혁명이나 기계문명과 미래의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들은 놀라웁기는 하지만 피상적인 만족과 감동을 가지고 왔지만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라는 달갑지 않은 것도 같이 가지고 왔다. 고귀한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공해나 人間自滅을 내포하고 있는 핵무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아닌 종교와 예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즉 인류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는 대량생산이나 대량소비가 결국은 공해원인이고 보면 또는 平安과 慰樂과 實利만이 인간 행복의 요소가 될 수 만은 없다고 본다면 결국은 고도화된 原始主義에로의 復歸思想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터인데도 현실과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온천이다. 산이나 바다에 가보았자 마음을 비우고 오지는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환경을 창조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건축가들을 사회는 우습게 알고 저버리고 있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건축가들을 절실하게 필요로하고 원할 것은 틀림없다. 사회는 그들을 버렸다가 불신했다가 다시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건축가는 끝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남으려면 청정한 생활환경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건축가들이 창출해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장구하지만 그의 대부분이 親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 人間化한 秩序를 창조해 온 인간노력의 기록들이고 동시에 인간들이 속삭이고, 중얼대고, 외치고, 울부짖은 수많은 언어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창조적인 언어만을 수록한 것이 人類歷史일진데 자연환경과 동화할 수 있는 인간생활상의 발견!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인간들의 생활환경의 창조가 즉, 그 언제인가 성실한 언어로서 인류역사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믿어야만 하겠다.
여기서 인간들은 성실하게 창조한다는 것에 대한 진의를 알게 되면 인간을 위한 생활환경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같이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감정, 인격, 사상, 권태와 호기심을 콤퓨터도, 정치가도, 종교도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建築家(藝術家)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늘 반정치적이요 반종교적이 되고 정치와 종교는 상대적으로 반예술적이 되어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축가는 그들의 자질과 영감과 손과 인격과 재능으로서 기계문명이나 과학문명의 盲点을 파헤치고 그 위험성을 미연에 대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와 싸우고 소멸시킬 의무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천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해결수단의 풍부성에 반하여 목적 불확실성에 관한 원칙은 건축을 저해한다는 것과 무의미한 희생이나 충성심을 요구하는 따위의 이상이나 이념을 연구해 내는 것보다도 環境이나 造形問題에 腐心하고 虛勢와 僞善과 宣傳만이 充滿한 사회에서도 대중이나 시대가 요구할 때만이 건축을 창조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즉, 인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의 경제성에서도 그러하거니와 건축이 예술이라는 진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자신의 자질과 영감도 필요하지만 사회나 대중의 원망이나 자극없이는 무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건축가 사회나 인류의 원망의 가장 충실한 창조적인 매개체임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인간이 요구하는 건축이란 어떤것일까? 인간이 소망하는 환경이란 어떤 것일까? 책에 써 있는대로 안일하고 편리하고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선인들의 체험에서 얻은 즉흥적인 규범적인 의미를 가진 術語에 충실한 것일까? 혹은 예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정의에 符合된 것들일까? 이러한 의문은 무한히 연발될 수 있고 어느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단언할 성질의 것도 못된다.
건축자체가 지니고 있는 多系複合한 의의는 이런 몇개의 규범이나 정의나 조건따위로서 규정지울 수도

> 「時間+空間」이 인간의 생명이라면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 建築學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엔 수많은 학문이 있다해도 인간의 생명과 장래를 다루는 건축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해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도 그 소중한 부분임을 이해할때 건축가들의 자부와 의무의 귀중함은 자각해야만 할 줄 안다

없는 것이다.
무의식에서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구차스러운 속박이나 여건을 떠나서 초인간적인 경지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 공학과 경제와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마련인 즉 문제는 더욱 복잡하기만 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인간환경이란 문제가 시도됨에는 심리학, 미래학, 생태학, 사회학, 경제학, 과학 등등의 복합적인 반영이 가미되어야만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試圖이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그 시간의 長短如何에 따라 건축가의 일생이 한정되어 있으니 자기가 생존시에 所期의 결과를 보겠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건축자체가 끝까지 시도임에 결과를 바라는 것조차가 우둔한 일이된다.
현실적인 면에서 간단히 "좋은 건축이란" 질문에 간략한 대답으로서 건축가와 건축주와 시공자와+α가 호흡이 합치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α란게 문제가 된다. 그 α란 사회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건축법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보면 三者+α의 호급일치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다. 때문에 現今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는 건축주나 시공자이외에도 대중의 건축에 대한 몰이해, 심미도의 貧困, 권력의 횡포, 기타 사회적인 모략이나 질투 등 인간사회의 추악한 모든 것들이 건축에 대해 集中影響力을 주고 있으니 건축의 갈길은 험난할 뿐이다. 더불어 사회적인 제한, 규정, 법령이나 법칙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장해조건들이 純粹建築의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現今이다. 건축주들의 법문서나 청구서로서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한(건축은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은 아니므로), 명령이나 지시로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한(건축가는 대중의 부하나 병졸이 아니므로), 돈만 주고 요구조건만 제시하면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한(전문가는 신이 아니므로), 절대적인 권력이나 절대적인 경제력이 건축을 이룩할 수 있고 믿는 한에 있어서는 훌륭한 건축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근자에 와서는 歐美各國에선 「建築은 이미 使用이나 目的以前의 空間藝術이다.」 또는 「現代建築은 結果보다도 그 過程과 手段이 더 重視되어야 한다.」느니 즉, 공간과 시간이 현대건축의 주요기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은 현대의 建築哲學에서 인간의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생명을 정의하기를 「時間+空間=生命」이라는 원리에 基因함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러한 사조들은 彼岸의



火災가 아닌 인간사회의 哲理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적용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나 말들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문과 공포같은 것마저 느껴지는 것이다.
「時間+空間」이 인간의 생명이라면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 建築學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엔 수많은 학문이 있다해도 인간의 생명과 장래를 다루는 건축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해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도 그 소중한 부분임을 이해할 때 건축가들의 자부와 의무의 귀중함은 자각해야만 할줄 안다.
인류의 문제점은 많다. 가난과 疾病, 不幸과 不便, 不信과 不條理, 資本과 利潤, 努力과 效率, 自由와 平等. 冷戰과 核武器, 知慧와 公害. 言語와 宗教. 人種과 國家 等等의 엄청난 문제들은 제아무리 不可解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저지를 일들이기에 신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저지른 인간 자신들만이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험난한 문제들의 해결이나 처리를 정치가나 교육가, 종교가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을 수도 없다.
오직 있다고 한다면 高邁한 原初的 思想으로서의 藝術家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가능성과 현실과는 긴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온천이나 산이나 바다에 가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판국에 한가닥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종족이 예술가들이라는 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긴 시간성이 加担해 주어야겠고 어떤 발언, 어떤 방안, 어떤 말들을 발견못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고 발언하고 실천하는 부족이 바로 건축가인 것이고 이때까지의 건축의 역사가 그러했고 일면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지식과 자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도보다 늘 수준이 낮은 건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가능성과 현실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건축은 미래의 아름다움으로의 환경으로만을 지향하고 묵묵히 진행하는 進行詞인 것이다.
인간에 알맞는 환경은 인간이 단순하게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존심이나 본능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태리의 건축의 거장 Gio Ponty 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급이고 최상이라는데 대한 형용사는 "건축적이다 "라는 말 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일은 전인류의 집중된 노력으로서 우리와 환경을 창조해 내는 일 뿐인 것이다. 건축가란 이런 일을 목표로 삼고 또 그 목표로 향해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위해서만의 예술을 한다거나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한다거나 예술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예술을 사랑하면 그때 예술은 그의 신통력으로 이 사회를 구원할 것이다.
무릇 창작이라 함은 그 작가의 내부에 은밀한 감동으로 그의 全知全力을 경주해서 이룩되는 것인데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을 볼 때 타 부문의 數多한 예술과는 달리 計算, 技術, 材料, 構造等, 工學的인 면이 다분히 가미되므로 한 공간을 점유하고 표현되는 미술(繪畫)이나 공간은 점유하면서 외부공간을

“
존재에도 이유야 있겠지만
생존에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전제나 사명같은 것이 있음은 확실하다.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무엇이
건축가로서는 창작이 되는 것으로서
우주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공간조형을 창조한다는 창조라는 뜻에서는
건축가는(모든 예술가는) 신과 동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경외하게도 창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

형성하는 彫刻보다도 건축은 공간을 점유하고
내부공간을 창조하고 외부공간을 구성까지 하는 즉
공간조형이 되는 것으로 또는 음악이나 회화같이
90% 이상이나 원형과 동일하게 복사, 녹음되게
수십만개의 양산이 가능한 것에 비해 건축의 원형은
오직 하나 뿐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설계도면으로
近便에 건립했다손 치더라도 그 환경과 재료와 위치가
동일할 수가 없고 向이나 분위기마저도 완연히 다르게
마련이다. 사진이나 모형을 만들었다 해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사진속이나 모형속에서 인간이 일을
하거나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Original 은 원형 하나 뿐이라는 점이 다르다. 사진,
회화, 연극 등도 원형이야 하나 뿐이고 순간뿐이지만
복사되면 필요에 따라서 再演, 反覆해야 하므로서
순간예술이라고 까지 부르는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은 유일하게 複寫나 同二가 없는
純粹性을 가진 본연의 예술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어느
때인가 기억할 수 없지만 사진작가가 “건축이
藝術이라면 寫眞도 藝術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웃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건축이 설 땅에는 수많은
險路가 있다. 즉 요구한 자연환경 속에서 日增月羅하는
변화무쌍한 인간생활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는
기술발전과 비례해서 인간의 현존질서를 변조시키고
기존개념의 왕국은 멸망시켜가고 권위를 낮게해서
더욱 직능적인 분파작용과 양산을 촉진시켜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조성했고 하여간 지구상에 기술이 나타난
이래 무엇인가 끝장이(人類) 나기 시작하는 것만 같다.
물론 오직 건축의 탓으로 돌릴 것만도 못되지만
社會大流속에서 오직 건축만이 唯我獨尊할 순 없다는
이야기다.

현대 건축가들은 건축을 하나의 직업으로 看做하고
있으나 건축이 직업으로 되어갈 때는 이미 그 건축은
예술과는 먼 거리에 있게 된다. 자기의 생의
방법으로서(생업) 예술을 한다면 이는 예술의 모독이요
또 예술 본연의 순수한 체질에 위배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뿐더러 원초 예술의 發祥始初가 어떤 목적이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였고 다만 권태와 무료와 여유에서,
인간본능에서 시작되었고 (그런 것이 예술적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예술이 인류역사와 동시에
그 발단이 있었다는 점과 인류역사를 오늘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서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지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행동을
계속하지만 의미없는 무가치하게 살아 있다는 것은
생존과 존재의 의미로서 구분 되어야 하겠고 물론
존재에도 이유야 있겠지만 생존에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전제나 사명같은 것이 있음은 확실하다.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무엇이 건축가로서는
창작이 되는 것으로서 우주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공간조형을 창조한다는 창조라는 뜻에서는
건축가는 (모든 예술가는) 신과 동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경외하게도 창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近代建築思潮에서 근대건축은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기능의 비중은
비대해가기만 한다. 그런데 이 기능적이라는 단어에는
오해도 많은 것 같다. 원래 기능적이란 개념은
實用目的의 충족에서 가치의 영역까지의 복합체를
意味內容으로 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고 形의 주어진
과제의 內的 諸條件의 총체로서 부터 많이 산출해
내려는 생각의 구체화를 의미해야 할 것이고, 최종적인
形이 豫知된 것이 아니고 合目的思考와 목적에
관계없는 사상과의 創造的 交流에서만이 발견되어야 할
터인데 안일과 편리만을 즉흥적으로 고안하면
기능적이라고 하고 사용목적에만 충족되면 또는
목전의 경제적 조건만 해결이 되면 현실적 과정에서
수단이 간편만 되면 기능적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다.
건축은 하나의 시도의 표현이다. 시도나 표현에는
어떠한 규제나 표준이 있을 수 없다. 완전하게
자유분방해야 할 터인데 규격이나 방법의 범위가 생기고
하물며 요구조건이 명령조로 나오고 있다. 이런때
어느쪽이 강자이고 어느 편이 약자인지는 우리 현실에선
자명한데 약자의 정당한 요구는 그 발언이 강경해도
애원에 지나지 않고 강자의 요청은 그 목소리가 아무리
유순해도 명령이 되는 마당에서야 건축가의 자유로운
창작이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도시환경의 창조문제도 건축에 속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로서 근래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건축가가 구상했던 또는 창안했던 도시가 과연 자유로운 주장에서 대담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즉 창작의 순수성에 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건축과 동일하게 많은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도로가 하필이면 국유지나 공유지나 하천부지로 가야 하는가? 이는 토지의 地上所存權이 私有인 경우엔 토지보상의 비용이 건설의 비용의 몇 배가 소요되므로 그 사업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규제하에서 과연 자유분방한 도시계획이 창안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진정한 도시계획이란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진정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려면 먼저 토지의 지상소유권의 해방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우기 토지의 지상소유권의 해방이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의 변경이란 큰 문제와도 관계를 가지게 된다.
건축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즉 構造性, 造形性, 持續性, 忠實性, 時間性, 幼想性, 등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기계는 기술의 산물이요, 건축은 위상의 산물이다. 기계는 내일 더 아름답고 효능좋고 값싼 것이 나오면 오늘의 것은 즉석에서 폐품이 된다. 그렇치만 건축은 많은 思潮와 流波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전의 것을 버린 일은 없다. 오히려 공존해 왔다. 바로 이런 점이 예술과 기계(기술)와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에서도 정치가와 과학자와의 결탁은 많다. 그러나 정치가와 건축가와의 提携는, 건축가와 과학자, 건축가와 종교와의 提携는 인류를 위해 이로우면 이로웠지 해천 일은 없다.
건축가란(우리 사회에선 별로 불리워 지지도 않치만) 사회의 諸般問題를 의심하면서도 斷念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을 탐구하고 동시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건축가란 그저 묵묵히 미래를 꿈꾸며 순수에로의 길로 걸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의 대중은 건축을 마치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회속에서 그 사회의 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떼어 놓을 수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는 것만 같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에 노력한다면 사회상황은 현저하게 달라질 줄 믿는 것이다.
中世以前만해도 건축에 관한 기능공이니 특수공이니의 따위는 없었다. 현세에도 지방의 오지마을에선 전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주택을 짓고 차남의 분가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도시에서 단독주택이나 APT 에서 살려면 주거인은 거의 주택이나 건물자체에 손하나 대지 않는다. 돈만 주고 계약과 약속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살 건물에 자기들은 손하나 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축도 아니다 백화점에 가서 뭐하나 사다 쓰는 그런 개념이나 의식이라면 구태여 건축이니 건물이니라 말할 필요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 수 밖에 없게 된다.《完》

韓国近代建築의 再照明 (5)

金晶東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28. 韓国産業銀行 本店

위　　치 : 남대문로2가 140－1
착공년월일 : 1906.6
준공년월일 : 1907.
설 계 자 : 中村誠(증축부분)
시 공 자 :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상3층
　　대지면적 : 2,187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5,147평
보존상태 : 1984. 12. 철거

韓國産業銀行은 1918년 설립된 朝鮮殖産銀行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또한 이 朝鮮殖産銀行은 1906년 6월에 창업한 農工銀行[1]을 흡수하여 설립하였다.

朝鮮殖産銀行의 前身인 農工銀行의 漢湖農工銀行 行舍는 1907년에 세워졌다. 그러나 漢湖農工銀行의 설계년도, 설계자, 시공자는 모두 未詳이다. 건축의 樣式으로 보아 일본인에 의한 1900年代 건축임에 틀림없다. 漢湖農工銀行은 현위치에 세워졌다.[2]

原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이 漢湖農工銀行의 行舍이고 左右兩翼의 부분은 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된 후 증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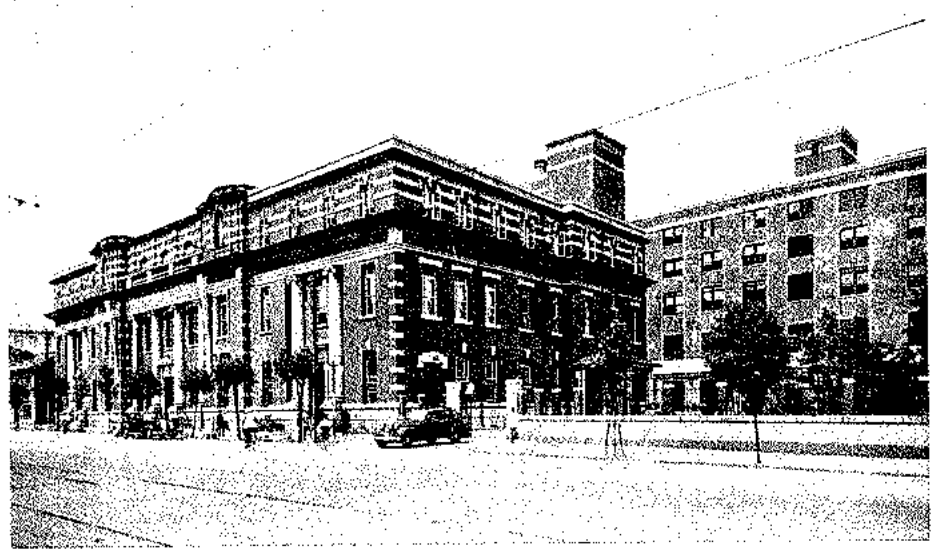
漢湖農工銀行은 그 自身으로 이미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4개의 長大한 Ionic Order 의 기둥, 그리고 Parapet 부분의 돌난간 장식 등은 銀行 건물로서의 Credit 한 면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입면, 평면은 모두 완전 대칭으로 분할 되었다.

朝鮮殖産銀行 本店 건물은 그 前身(漢湖農工銀行)의 수평적 증가로 밖에 볼 수 없다.

건물은 좌우로 각각 폭을 넓혀, 건물을 더욱 품위롭고 안정되게 만들었다. 특히 Roof 위의 옥상층은 증축된 부분답지 않게 기존부와 잘 조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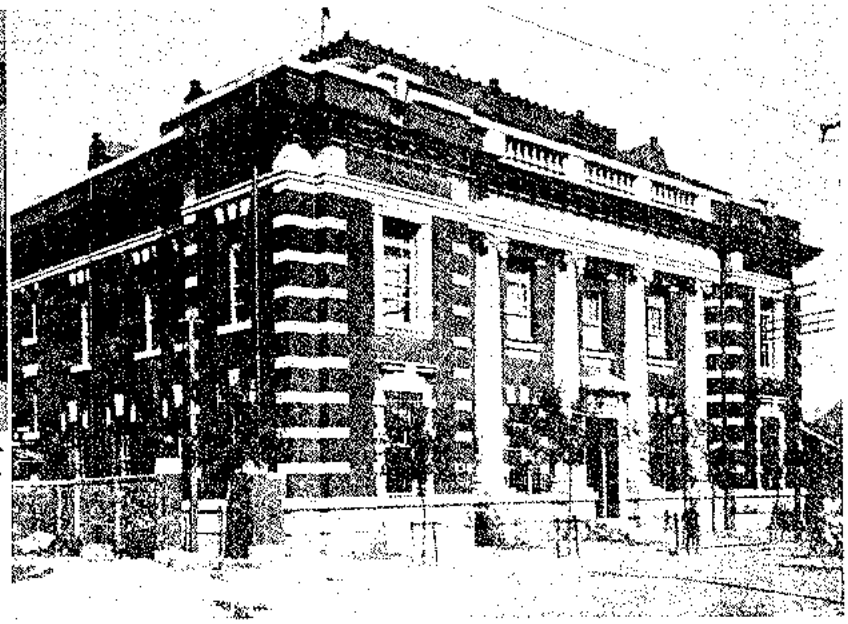
건물은 Entablature 부분이 허리벽으로 처리된 느낌을 주고 있다. Roof Slab Line 은 돌출되므로 해서 강조된 수평선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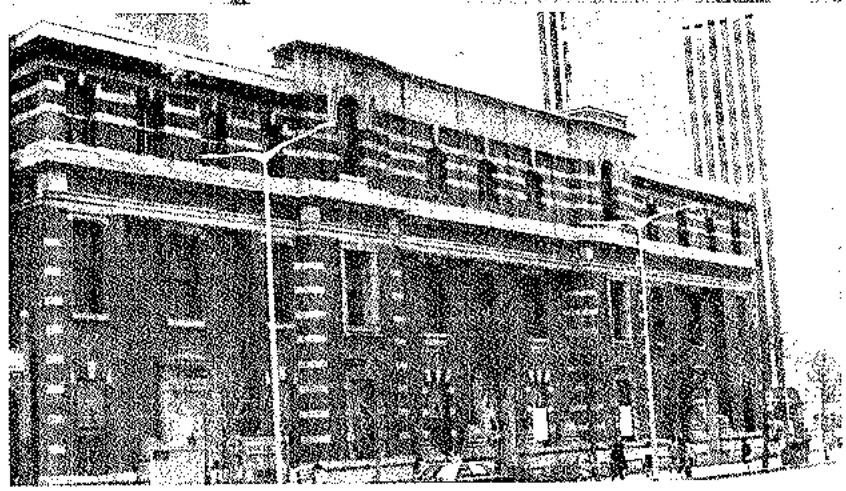
2＋4＋2組의 붙임円柱는 벽 속에 파고들은 듯하여 은밀하며 정교하게 느껴진다.



1923年, 朝鮮殖産銀行本店으로 增築된 後 ▶
(朝鮮殖産銀行 20年志)

철거되는 銀行(每日經濟新聞) (1984. 12. 18) ▲
原, 漢湖農工銀行 行舍(1907年) ▶
道路확장으로 前面 변경후의 韓国産業銀行本店(꾸밈) ◀





붉은 벽돌조 벽면에 점 박듯이 파넣은 화강석 띠석(Quoin)은 캔바스 위에 수채화를 그려 놓은 듯 자유롭게 처리됐다.
朝鮮殖産銀行은 東洋拓殖會社와 함께 朝鮮半島의 零細한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日帝 통치의 下手役을 충실히(?)해냈다. 따라서 건물은 그만큼 威風的으로 보이도록 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 은행은 石造가 主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상 느낌이 그렇게 누겁지만은 않다.
이 증축부분은 1923년 8월 준공되었는데, 설계자는 日本人 건축가 中村 誠이었다.[3] 그는 또 한사람 나까무라(中村興資平)와 함께 朝鮮에서 건축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것이다.
8. 15 해방과 함께 이 건물은 韓國産業銀行 本店으로 쓰여지다가 南大門路 확장 공사에 밀려 前面部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이때 건물의 파사드는 모두 변형되었다. 이후 前面部를 원형과 유사하게 마감해 두었으나 이미 石柱, 屋上部 모두는 원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후 本店은 그 위치적 이유 때문에 롯데그룹에 매각되었고 그 자리에 35層의 롯데호텔과 백화점을 신축하며 철거되어 버렸다. (1984. 12.)
철거 시점의 자료에 의하면 그 垈地(2,187坪)에는 本館을 포함한 2個의 附屬棟도 있었다.
(延建坪은 5,147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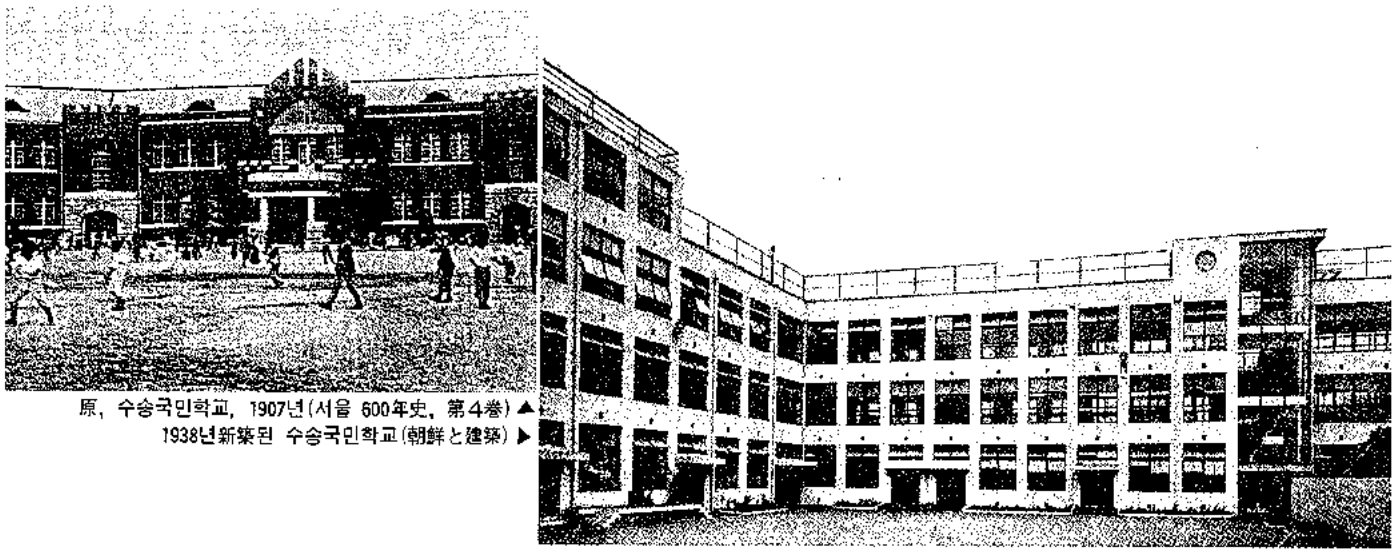
29. 壽松国民学校

위　　치 : 수송동 146－2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07
설 계 자 :
시 공 자 :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상2층
　　대지면적 : 2,624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보존상태 : 1934년 燒失

壽松國民學校는 1907년에 개교했다. 韓國에서 가장 오래된 中心的 國民學校중의 하나였다.
壽松國民學校는 옛날 外司僕寺(외사복시)터에 세워졌다. 司僕寺는 말(馬)을 관리하던 국가 조직의 하나로 內司僕寺와 外司僕寺로 나눠져 있었다. 內司僕寺는 宮中에 두었고[1] 外司僕寺는 壽進坊에 두었다.

『… 鄭道傳의 집은 壽進坊에 있다. 지금 中學은 鄭道傳의 書堂 자리이고, 지금 濟用監은 鄭道傳의 안채 자리이며 지금 司僕寺는 鄭道傳의 마굿간 터이다.…』[2]

1907年 司僕寺가 폐지되자 그 "마굿간"터에 壽松國民學校는 들어섰다.
新 校舍는 이 때 세워졌다.
2층 붉은 벽돌조 校舍는 현관부 正面을 人字와 Pointed Arch 로 面處理하였고 높이 세워 올렸다. 斜線과 曲線이 보기 드물게 함께 사용된 예이다.
　兩側 두번째 Bay 는 城館의 모습으로 특이하게 처리됐다. 강조된 출입구 3개가 運動場을 향하고 있다.
이 校舍는 1934년 화재로 소실되었다.[3]
京城府 學務課는 이 자리에 新校舍를 착공하기로 했다. 화재의 위험에 따라 구조는 철근 Conc. 조로



原, 수송국민학교, 1907년(서울 600年史, 第4卷) ▲
1938년新築된 수송국민학교(朝鮮と建築) ▶

하고 各級 敎室을 방화벽으로 막기도 했다.
또한 비상출구, 계단실을 독립시켰다.
新築은 京城府廳 營繕係에서 맡았다. 施工은 東亞工業株式會社가 했다. 建築의 樣式은 매우 Modern 했다. 新 校舍는 1937년 3월 착공되었다.(1938. 3. 준공).
3층의 校舍는 운동장의 모서리를 차지하며 ㄱ字形으로 세워졌다. 대형 유리창이 자유롭게 사용되었고 벽면은 흰색으로 마감했다.
古典的 意匠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塔屋 부분의 원형창 1개만이 유난스럽게 보일 뿐이다.
계단실은 모두 유리로 노출시켜 Bauhaus 의 유입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양식은 이미 일본에서도 유행을 하던 것이었다. 이 校舍는 최근까지 壽松國民學校에서 사용하다가 서울 都心확장에 따라 기능을 잃고 門을 닫게 되었다. 1979년 서울특별시에서 매입, 鍾路區廳을 새로 지었다. 이때 原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30. 雲峴宮, 李埈公邸

위　　치 : 운니동 98－50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07. (?)
설 계 자 : 片山東熊(?)
시 공 자 :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목조
　　층별 : 지상2층, 옥탑Dome
　　대지면적 : 5,000평
　　건축면적 : 146.95평
　　연 면 적 : 284.66평
보존상태 : 사적 제257호(雲峴宮全体)

『… 雲峴宮이란 명칭이 보이는 것은 高宗이 即位한 다음인 高宗 元年(1864)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宮이라 하지 않았다.
高宗이 登極하면서 그의 本宮이 됨으로써 宮의 명칭이 붙었다고 할 것인바 高宗이 王이 되기 이전에 所居하였고, 그의 實父인 興宣大院君(李昰應)의 집이었던 이 家弟의 호칭은…』[1]

雲峴宮은 大院君과 高宗의 私邸이었고 이곳은 1800年代 후반기[2] 朝鮮 王朝史의 큰 현장이었다.
雲峴宮은 대지 약 5,000여평에 東西南北의 4大門과 여러 동의 古屋들로 채워져 있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잘리고 뜯겨나가 宮의 제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3] 그러나 그 장소성 때문에 史蹟 第257號로 지정되어 있다.(1977. 11. 22)
이 古典風의 宮 안에 近代式 洋風 邸宅 이 들어선 것은 1900년대 후반이었다.
이 洋館의 건축년대나 설계자, 시공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4] 건축연대도 1907～11년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1911年을 건립년도로 보는 것은

『… 이 건물은 1911年, 大院君의 큰 손자 李埈公(永宣君)이 日本 체류중 일본 건축가에 의뢰해 착공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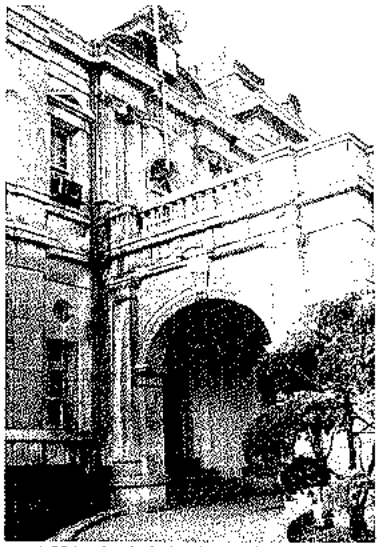
『… 1911년경 李王家우대 정책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집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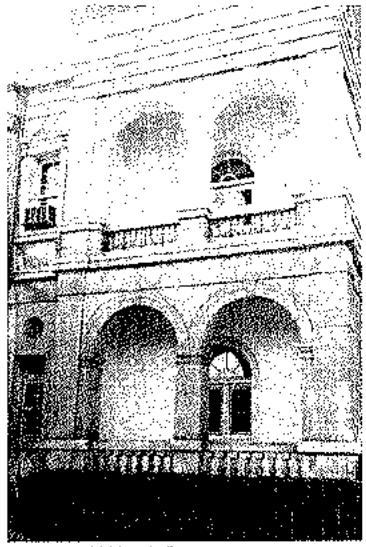
이라는 기록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 日本이 우리나라를 삼킨 후 1912年을 전후해서는 곳곳에서 義兵들이 일어나, 나라를 잃은 王室이 거액을 들여 邸宅을 築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보다는 李埈公의 귀국 직후인 舊韓末에 지은 것이 확실하다…』[7]

는 吳駿泳교수의 조사연구도 있다.
그러나 前記한 說들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1907년이 가장 近接하는 年代라고 추정된다.
朝鮮總督府는 親日 귀족들을 위하여 韓國에서 서구식 「五爵叙勳制」를 실시하고 그 상징으로서 몇 채의 洋館 邸宅을 그들에게 지어 주었다.[8]
이때의 邸宅들은 모두 Neo-Baroque風이었다. 당시 日本의 皇族, 華族들은 이 貴族風의 建築 樣式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 위세를 떨치던 Neo-Baroque 風 宮廷 建築을 선도했던 건축가는 가따야마(片山東熊, 1853～1917)였다. 片山은 1908年 龍山의 朝鮮總督府 官邸 도 설계한바 있다.[9]
片山이 日本의 赤坂離宮과 表慶館을 세운 것은 1909년이었다. 片山이 自身의 능력을 독자적으로 발휘했던 최대의 Peak time 이 이 즈음이었다. 雲峴宮의 邸宅이 李埈公을 위해 세워진 것은


▲玄關部의 장식이 정교하다.


▲Arcade부분 상세

李埈公邸(서울 600年史 第4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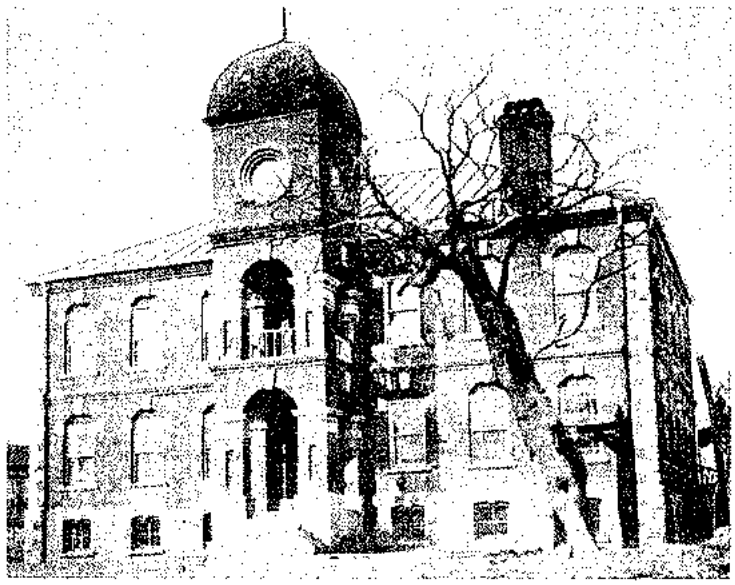
雲峴宮 旧屋일부(서울 600年史 第3卷) ▶

확실하다.[10] 그는 親日 皇族이었기에 이것은 가능했다.
李埈(1870~1917)은 1897년부터 1907년까지 Europe (1897~1899)과 日本에 (1189~1907)에 장기 체류 했다.
이 때 李埈은 (日本에서) 片山東熊와 교류했었고 그에게 자신의 洋館 住宅을 (설계) 의뢰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됨으로써 李埈은 歸國, 同 處所에 들게되었던 것이다.[11]
이 邸宅은 벽돌조 2층이며 石材와 木材도 겸용했다. 연건평은 284.[66]평이었다.[12]
건물의 전체적인 의장은 Balcony 부분의 2聯 Arch(Arcade) 4 Set 가 잡아주고 있다. 실제적인 벽면은 후퇴시켜 강한 陰影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前面 현관(Portico) 은 中央 Arch 를 붙임기둥으로 세밀하게 마감했다.
그 2층의 기둥머리는 雙 Ionic Arch 로 싸 넣어졌다.
외벽은 벽돌 위에 Mortar 를 발라 마감했다. 지붕의 처리는 이 건물의 핵심부이다. Balcony 상부의 Pyramid 형 지붕 2개와 넓고 큰 중앙의 Dome 지붕은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지붕 상부의 가느다란 鐵材 장식은 매혹적인 느낌을 준다.
지붕의 主材는 Slate 이음이었다.
宮의 내부는 木造 마루로 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화스럽고 난방장치로 페치카도 설치했다. 그 장식은 매우 화려했다. 더욱 창에는 카텐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天井에는 샹데리아 전등도 달았다.
건물의 전체는 완전 대칭형으로 궁전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13] 邸宅은 李埈이 別世한 후 李鍝[14]에게 넘어갔다.
8.15 해방이 되자 이 건물은 美軍 政廳에 접수됐다. 한때는 李鍝의 유족들이 사용했었으나 1946년 8월 德成女大로 완전히 넘어갔다.[15]
이 건물은 준공 이후 지금까지 큰 改補修 없이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時計부착 부분은 원래 돌출 다락창이었다.
大院君과 함께 舊韓末의 風雲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건물로서 근대사적 의미가 깊다.

31. 西北学会 会館

위　　치 : 낙원동 282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08. 1
설 계 자 : 清国技師
시 공 사 :
건 축 규 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하 半, 지상 2, 옥탑 1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 면적 : 300 평
보 존 상 태 : 1985년 복원(건국대학교캠퍼스)

「西北學會」는 1908년 1월 李甲 李東輝등, 西北 5道人에 의해 결성된 愛國 啓蒙團體였다. 學會는 「西友學會」의 「韓北學會」를 병합해서 설립되었는데 學會報 간행, 순회강연 등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日帝의 침략을 배격하는 일들을 해왔다.
學會 會館의 건립 자금은 舊韓國 청년 將校였던 李甲이 주로 부담했다.[1]
이 건물의 준공은 1908년 1월에서 6월 사이로 보인다.
西北學會 月報의 창간이 1908년 6월 1일인데 이 創刊號에 會館사진이 실려 있고, 이 學會의 창립은 1908년 1월이기 때문이다.
이 會館은 樂園洞에 위치하고 半地下와 地上 2層의 벽돌 조적조



▲西北学会 会館(高麗大学 60年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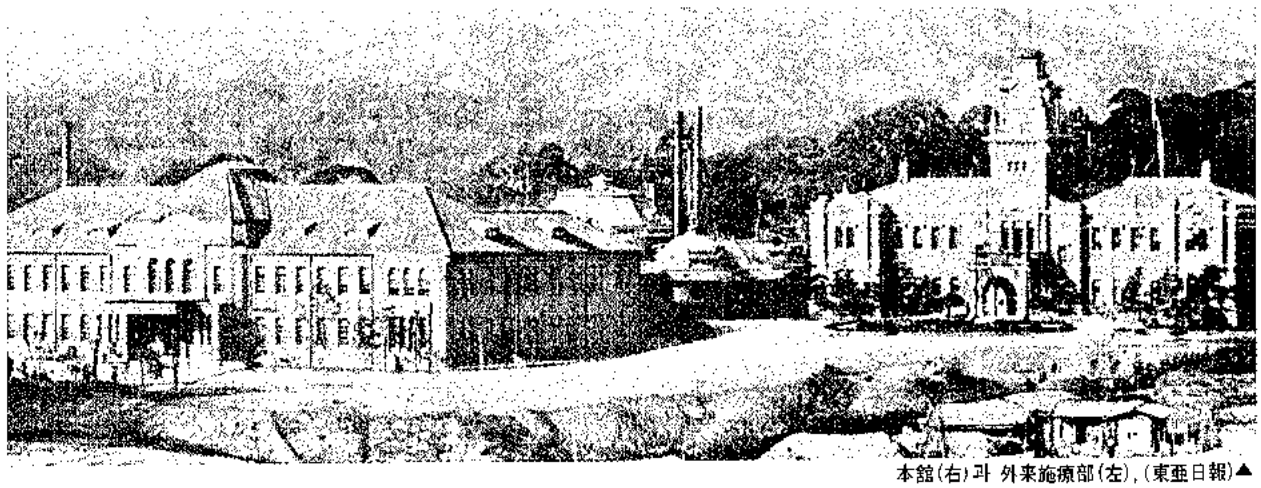
▲建国大学校 캠퍼스로 이전, 復元된 모습, 1985년.

건물이었다.[2]
이 會館은 1898年 鍾路「長安빌딩」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던
「韓美電氣會社」 사옥의 형태를
모방하였다고 전해지는데[3] 그것은
전체적인 규모뿐이고, 부분적
Detail 은 전혀 다르다.
韓美電氣會社 사옥은 격식을 갖춘
Renaissance-Baroque 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으나 西北學會 會館은
모임지붕과 Dome 처리, 窓門
Design 에서 생략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설계자는 淸國技師로만 알려져
있다. 時計塔 부분은 正方形 파사드
속에 후퇴(Recessed) 한 원형
時計틀을 두어 Perron 상부의
Arch 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은 韓日合併이 되던 해인
1910년까지 愛國 啓蒙운동의 前進
基地로 쓰여졌다.
西北學會가 강제 해산된 후에는
五星學校(後身은 協成學校)의
校舍로 사용되므로 해서 교육기관과
緣을 맺었다.
그후 일시
普成法律商業學校(後身은
高麗大學校)의
校舍(1918~1922)로도 쓰여졌고 그
후 協成學校가 다시 사용하던 중
1939년 劉錫昶이 인수,
「民衆病院」으로 전용됐다.
8.15해방후 다시
朝鮮政治學館(1946.5 설립, 後身은
建國大學校)으로 쓰여졌다.
그 후 建國 大學 夜間部의 樂園洞
校舍로 계속 사용됐으나 도시계획에
걸려 헐려버렸다.
建國大學校는 解體된 會館의
解體物을 보관해 오다가 1984년 12월
현 建國大 캠퍼스(성동구 모진동
93-1) 구내에 복원, 1985년 11월
23일 준공시켰다.
이 復元 사례는 매우 값진 일로
기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歷史를 말하는 대학 캠퍼스에 역사적
건축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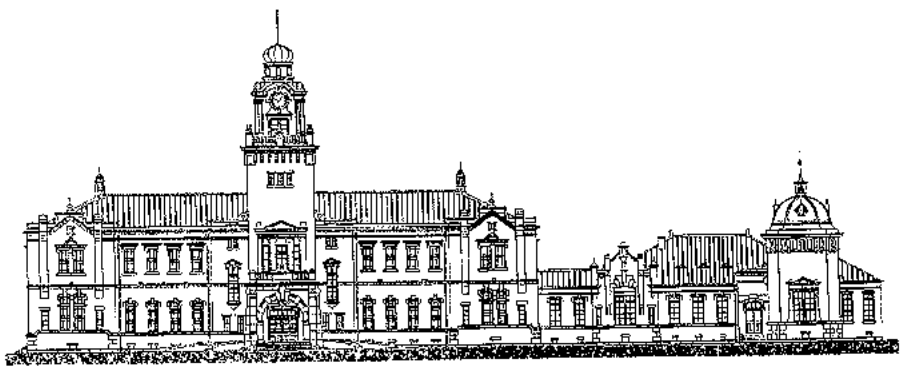
32. 大韓医院本館

위　　치 : 연건동 28-2
착공년월일 : 1907.3
준공년월일 : 1908.11
설 계 자 : 度支部建築所(矢橋賢吉)
시 공 자 :
건축규모 : 구조 : 지상2, 옥탑, 시계탑
　　대지면적 : 40,900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510.28평
보존상태 : 사적 제248호
　　(서울대학교 병원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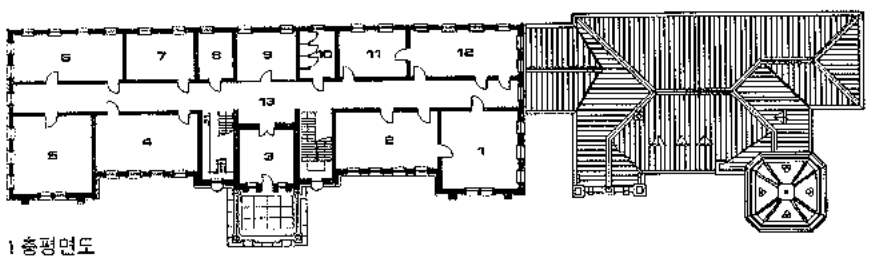
현재 서울大學校 附屬病院이
자리잡은 東小門안의 馬登山 일대는
원래 景慕宮과 含春苑이 있었던
곳이다.[1]
統監府는 이 유서깊은 장소에 日本人
관리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로 했다.[2]
「大韓醫院」은 현 서울大學病院
前身으로 1907년 春 3월 本館과
病室 7個棟, 그리고 附屬 建物들이
함께 착공됐다.
本館의 設計者는 度支部 建築所의
技師[3] 야바시 겐끼찌(矢橋賢吉)로
알려져 있다. 그는 官廳
建築專門家로 1897~1910년경
韓國에서 활동했다. 大韓醫院은
1907년 3월 廣濟院(1899),
京城醫學校 및 附屬病院(1903),
大韓赤十字病院(1905) 등을
통합하여 제1의 병원으로 開院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大韓醫院은 명실공히
大韓帝國의 衛生 行政분야의
中樞기관이 되었다.
이후 건물이 준공되기까지는 廣濟院
舊屋에서 우선 개원했다.[4] 醫院
本館은 1908년 11월 준공되었다.
(外來施療部는 1909년 6월 준공) 이
病院은 붉은 벽돌 2층으로 495평의
규모로 세워져 그 주변 立地에서 주는
분위기(昌慶宮, 언덕)와 함께
莊麗함을 더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의 서울 長安의 三大
名建物(韓國銀行, 東洋拓殖)로
지칭되기도 했다. 특히 언덕 위의
時計塔은 一品이었다. 時計塔은
本館의 중앙부에 자리잡아 건물높이
이상으로 높이 솟아올라 상징성을
더했다.
중앙부는 石造 Arch 의 현관 Porch
위에 Pediment 가 있는 장식 창문을
내고 그 위로 또 다시 城館과 같은
난간을 내고 그 위에 Baroque 형의
시계탑을 놓았다. 그 塔部는 다시
소규모의 Mosque 형 Dome 으로
마감했다. 本館 壁部는 窓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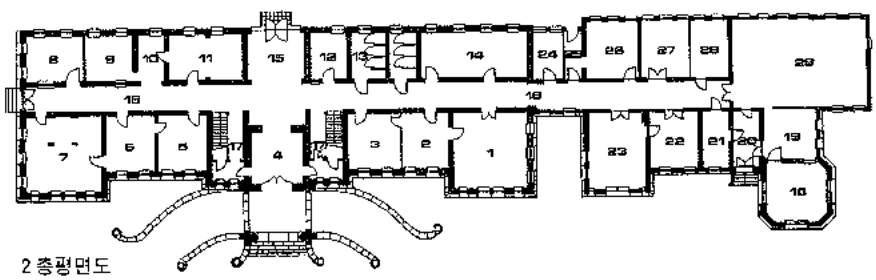
本館(右)과 外来施療部(左), (東亜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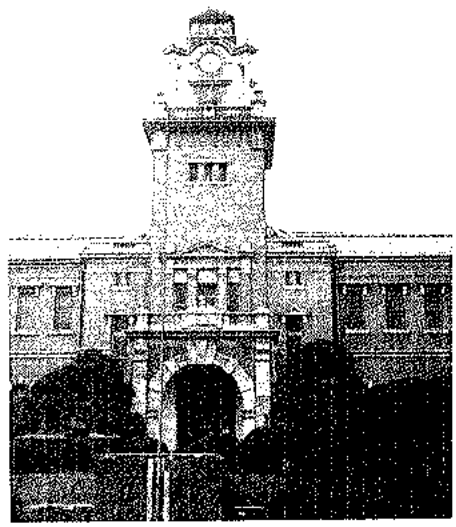
◀ 大韓医院 本館 立面図(崔雅史)
▲ 本館 1, 2層平面図(崔雅史)
▼ 時計塔과 正門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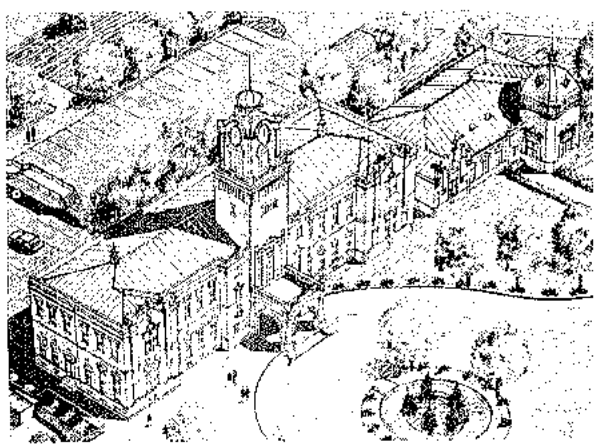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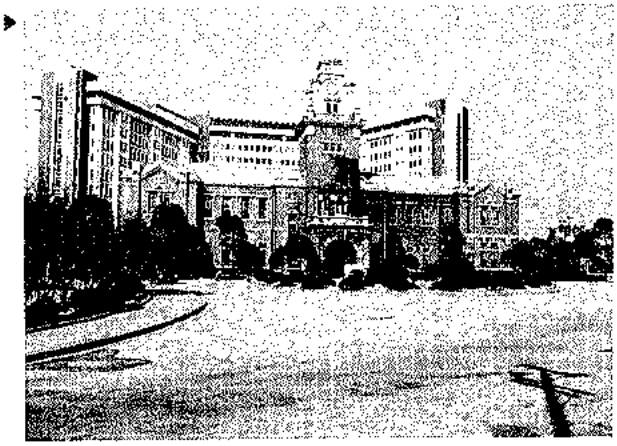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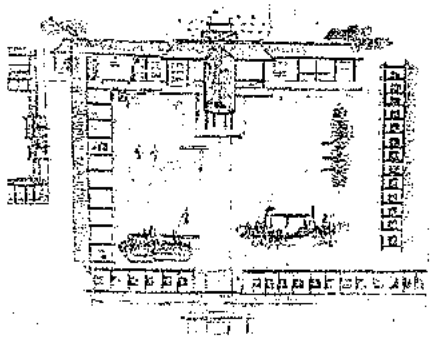
◀ 조감도(崔雅史)

서울大学病院이 ▶
둘러쌓고 있다.



▲大審院 및 京城控訴院(植民地史)

▼ 義禁府図(京城府史 第2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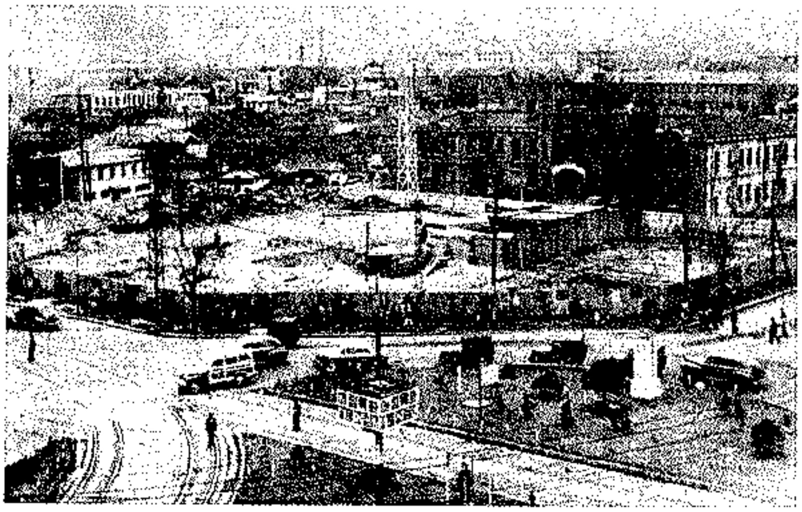


1 : 1의 비례로 분할됐다.
正面과 後面은 완전 대칭이다. 양날개 부분은 돌출시켜 Pediment 로 처리했다. 전체적으로는 古風스럽고 Neo Baroque 적이다. 붉은 벽돌과 花崗石을 主材로 했고 지붕은 銅板으로 덮었다.[5]
6.25 동란때는 괴뢰군이 그들의 병원으로 차용하기도 했다. 이때 피해를 받아 改修한 바 있고, 이어 美空軍 專用 病院으로 다시 사용되었다. 이후부터는 서울大 府屬病院으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1979년 新館이 준공됨으로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끝냈다.(1968~1979) 그 주위 건물들은 1978년 모두 철거되었다.
1981년 本館은 補修 공사를 했고, 이때 「大韓醫院 本館 實測調査 및 修理報告書」를 내놓았다.
현재 이 건물은 서울大學 病院 硏究所에서 사용하고 있다.

33. 平理院 · 漢城裁判所

위　　치 : 공평동 163
착공년월일 : 1908.6
준공년월일 : 1908.11
시 공 자 : 度支部 建築所
건 축 규 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상2, 옥탑半Dome.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352평
보 존 상 태 : 1957년경 철거

이 裁判所의 위치는 종로구 公平洞 舊 新新百貨店 뒷편에 있었다.[1]
이 일대에는 조선조말까지 義禁府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1896년부터는 警務廳으로 사용됐다.
이듬해인 1897년에는 다시 漢城裁判所가 그자리에 들어섰다.[2]
이 터는 日帝의 韓民族 彈壓의 상징적 장소성을 띠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는 이후로도 義兵將등 수많은 愛國 抗日 鬪士들이 日帝 判官들에 의해 억울하게 斷罪되어 나갔다.
統監府는 이 자리에 新式 平理院과 漢城裁判所 廳舍를 세우기로 하였다.[3]
신축 청사는 1908년 6월 착공되었다.
설계는 度支部 建築所에서 맡았다.
이 당시 度支部 建築所는 內閣廳舍(度支部, 建築所廳舍, 1907), 工業傳習所 本館(1907), 大韓醫院 本館(1908)등 그들의 植民政策的 건물들을 한참 세워 나가고 있을 때였다.
平理院 및 漢城裁判所 신축 廳舍도 이때 (1908.11) 세워졌다.
5개월의 工期로 세워졌으니 매우 스피디한 工程을 보였다. 廳舍 규모는 연건평 352평이었다. 地上 2층의 벽돌조로 세워졌으나 內閣廳舍와 같이 表皮를 灰壁으로 마감하여 石造모양을 냈다.
基礎는 이 地帶의 地盤이 연약하여 10尺 길이의 뗏목(筏) 地形을 썼다.[4]
建物은 中央 玄關部를 돌출시켜 Arch 로 돌리고 그 上部에 半 Dome 을 올려 놨다.
玄關 Parapet 部는 城館과 같이 凹凸처리했다. 建物은 전체적으로 권위적인 대칭형이며 Renaissance style 에 가까웠다.
이 廳舍는 1910년 이후로는 다시 京城 覆審法院(舊 京成控訴院) 및 京城地方法院(舊 京城地方裁判所)으로 개칭되어 오다가 1920년 7월 貞洞에 본격적인 法院(現 大法院)이 세워진 후로는 地方法院과 登記所로 격하됐다.[5]
1929년 8월에는 장소성이 인연이 되어 다시 鍾路警察署로도 사용됐다.[6]
8.15 해방 후에도 계속 鍾路警察署로 사용되어 오던 중 6.25동란으로 건물은 깊은 상처를 입어 Dome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로도 건물의 몸체는 그대로 남아 1957년까지 鍾路警察署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건물 前面에 新新百貨店을 세우면서 조용히 철거되었다.



◀1957년의 狀況, 前面은 新新백화점 新築地 (和信50和史)

□ 註

28) 韓國産業銀行 本店

1. 農工銀行은 漢湖, 全州, 光州, 慶尙, 平安, 咸鏡 등에 설치됨으로써 통칭 六農工銀行이라 불렀다. 朝鮮殖産銀行은 이 은행들의 업무를 승계하여 설립되었다.(1918. 10. 1) 이 중 漢湖銀行 行舍를 朝鮮殖産銀行의 本店으로 사용하였다. (「朝鮮殖産銀行 二十年志」).
2. 南大門路 2街, 韓國産業銀行本店 舊址.
3. 나까무라 마꼬또(中村 誠) "貯蓄銀行 新築工事 豫想," 「朝鮮と建築」, 1931. 3.

29) 壽松國民學校.

1. 景福宮내에 있었다. 현재의 國立中央博物館 社會敎育館(舊中央廳 厚生館)자리.
2. 漢京識略, 「서울史話」, p. 272(再引用).
3. 「朝鮮と建築」, 1934. 12.

30) 雲峴宮, 李埈公邸

1. 「서울 特別市史」(古蹟篇), 1963, p. 476.
2. 大院君은 1899년 雲峴宮에서 別世.
3. 禮式場, 文化 Center, 고층 Office Bldg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4. 1900년대의 건물에 대한 기록은 國·內外에 모두 미약하다.
5. 尹一柱, 「80年史」.
6. 李圭泰, 「開化百景(5)」, p. 353.
7. 吳駿泳, 雲峴宮과 興宣大院君, 鄕土 서울 pp. 153~177과 京鄕新聞 綜合.
8. 朴齊純, 尹德榮, 尹択榮, 李鍵公 등의 邸宅이 이를 전후해서 세워졌다.
9. 그는 이때 高宗皇帝로부터 勳一等 8卦章을 받기까지 했다. (日本의 建築「明治, 大正, 昭和」, 第2卷, 東京, 三省堂, 1979).
10. 興宣大院君
    - 李載冕(熹) — 李埈鎔(埈)
    - 高宗
        - 純宗
        - 李堈 — 李鍝 — (李淸, 李淙)
        - 李垠 — 李玖
    - 李載先

    (朝鮮神士寶鑑, 1912)
11. 李埈의 父親(李載冕)은 1911년 雲峴宮에서 別世.
12. 1層은 146.95坪, 2層은 137.71坪.
13. 鄭寅國, 尹一柱의 견해종합.
14. 李鍝는 日本에 체류중 廣島에 떨어진 原子暴弾에 맞아 別世했다.(1945. 8. 6)
15. 本館으로 사용했으나 雙門洞으로 Campus를 옮기자(1984. 9. 17) 지금은 二部大学에서 사용하고 있다.

31) 西北學會 會館

1. 「서울 600年史」, 第3卷, p. 310.
2. 회관의 규모는 地下層 : 95坪, 1層 : 98坪, 2層 : 98坪, 屋塔 : 27坪으로 연건평 300坪이었다.
3. 尹一柱의 자료.

32) 大韓醫院 本館

1. 景慕宮(殿)은 원래 英祖가 思悼世子를 위해 昌德宮 안에 세웠었으나 英祖 40年(1764) 현 서울醫大 府屬病院 북쪽 含春苑자리로 옮겼다. 이 부근에는 永禧殿도 있었다. 景慕宮은 6.25동란에 타버려 含春門과 石壇만이 남았다.(「서울 史話」, p. 34, p. 174).
2. 勅令 第9號(1907. 3. 10), 議政府 直屬 大韓醫院 設立, 合併 후는 朝鮮總督府醫院으로 개칭, 京城帝國大學醫學部 附屬病院(京城帝大病院)은 1926년부터였다. 1946년 國立 서울大學校 附屬病院으로 개편 되었다.(「서울 600年史」, 第3卷, p. 312).
3. 度支部 建築所는 妻木賴黃(1859~1916)과 失矯賢吉(1869~1927)이 이끌었다. 度支部의 활동은 1907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4. 濟洞. 李鎬俊의 집.
5. 더욱 자세한 내용은 「大韓醫院 本館 實測 調査 및 修理報告書」. (1982, 서울大學病院)참조.

33) 平理院 · 漢城裁判所

1. 현, 第一銀行 本店 新築地.
2. 李圭泰, 「開化百景」, 第1卷, p. 284.
3. 裁判所 구성법에 의해 大審院 및 京城控訴院으로 개칭(1908. 1). 1審은 大審院(京城에 設置), 二審은 京城控訴院(京城, 平壤, 大邱에 設置), 三審은 地方裁判所(京城, 公州, 咸興등에 설치). 1910년 이후는 다시 覆審法院 및 地方法院으로 개칭
4. 尹一柱와 「서울 600年史」 第3卷, p. 313, 종합.
5. 1928年까지 사용 「서울 600年史」, 第4卷, p. 282.
6. 鍾路警察署는 1915. 9~1929. 8까지는 鍾路2街 所在 韓美電氣會社 社屋(1900~1950, 現 장안다방 위치)을 사용하다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다.

■ 會員動靜

변경

□ 서울지부

▲강봉진 / 건축사사무소 국보건축 / 종로구 적선동 156 / 733 - 5917

▲이종우 · 허광호 / (주) 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735 - 5 / 552 - 9606

▲김영호 / 건축사사무소 덕진 / 강동구 성내동 556 - 4 / 487 - 6214

▲임도생 · 임길생 · 강영순 / 현대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성수동2가 322 - 1 / 468 - 0998, 468 - 0999

▲강태봉 / 건축사사무소 가인 / 종로구 동숭동 1 - 11 / 744 - 4123

▲강희용 / 태성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8 - 1 / 540 - 4926

▲안병의 · 박수량 / 건축사사무소 향건축 / 강남구 방배동 851 - 3 / 590 - 6001

▲신명수 / 청구건축사사무소 / 중구 묵전동 30 - 3 / 266 - 1258

▲신언학 / 토우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444 - 7 / 586 - 3086

▲여세현 · 박우하 · 박성규 · 유명하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 창, 함석, 고려건축 / 중구 인현2가 192 - 30 / 267 - 7826

▲임성호 / 한진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319 - 27 / 482 - 2848

▲라영근 / 서광연합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 76 - 41 / 923 - 9292

□ 대구지부

▲박상정 / 경진건축사사무소 / 중구 동인 1가 303 - 1 / 463 - 3203

□ 인천지부

▲이대원 / 환경건축사사무소

□ 경기지부

▲박종화 / 현대건축사사무소 / 송탄시 서정동 90 - 1 / 4 - 2215

▲김정치 / (주) 부영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 88 - 1 / 653 - 0494

▲조일환 / 현진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관양7지구 10 - 5롯트 / 44 - 9306

▲조성만 / 건축사사무소 성광 / 수원시 인계동 652 - 2 / 36 - 6638

□ 전북지부

▲김성용 / 태형건축사사무소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6 - 1

建築士誌 稀貴本 기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本協會 資料室에 비치하고 있는 建築士誌 가운데 간혹 缺本이 있어 자료실을 찾는 회원들을 안타까웁게 하였으나 여러 篤志 會員들께서 소장하시던 稀貴本들을 흔쾌히 기증하여 주심으로써 缺本을 채울 수 있게 되었읍니다.

기증받은 建築士誌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合本製冊토록 하였으며 귀중한 建築史料로서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建築士誌를 기증하여 주신 篤志會員의 성함을 다음에 밝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서울특별시지부

- 金仁倍 (건축사사무소 엘림) 5권
- 金仲九 (신동아 건축사사무소) 4권
- 朴培遠 (우림공간 건축사사무소) 7권
- 朴종길 (태창건축사사무소 근무) 12권
- 尹炳完 (건축사사무소 미조) 3권
- 李京鎬 (건축사사무소 제일건축) 13권
- 李海星 (주 · 이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1권
- 崔浩男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진) 31권

□ 大邱直轄市支部

- 金在佑 (한남건축사사무소) 24권
- 任鍾淳 (임종순 건축사사무소) 14권

□ 京畿道支部

- 吳成允 (오성윤 건축사사무소) 1권

□ 江原道支部

- 洪台杓 (가나 건축사사무소) 5권
- 金和泳 (김화영 건축사사무소) 3권

□ 忠淸南道支部 6권

□ 全羅北道支部

- 李正善 (정선 건축사사무소) 3권

□ 濟州道支部

- 白亨哲 (삼진 건축사사무소) 8권

전통과 유럽건축 부흥을 위한 열정과 좌절

오스발트 마티아스 웅거스

Oswald Matthias Ungers

成仁洙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Serial/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
by Seang, In-Soo

略歷 :
1926년생. 칼스루에공과대학졸업.
1951년 사무소 개설. 1962년 제2사무소 개설.
1969~1975년 코넬대학 건축학과장 역임.
1980년부터 다시 설계작업 시작. IBA87 협동기획자로 활약.
기타 국제적인 현상설계 등에 심사위원등으로 활약중.

■ 연재를 시작하며

가본적이 없는곳의, 만나본 적도 없는 건축가를 찾아, 미로를 헤메듯 나아가는 걸음이 또하나의 함정일 수 있다. 이 끝없는 길을 가는 이유를 이해하는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리라 믿는다. 197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건축가를 소개하기 앞서, 서구의 현대건축의 여러 양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어떠한 건축가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선정작업의 첫단서로서 우리는 세계건축가협회 14차(카이로, 1985년)총회장으로 가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 Democratisation
분산화 Decentralisation
효과적인 정보교환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그 회의에서 임원진들은 앞으로의 목표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필자주〉

"건축이란 발견이고,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개념을 늘 새롭게 해석하는 일인 것이다"[1]

우리는 "선언"만으로 그친 건축가의 생각도 알고있고, 우리는 선언없이 이룩된 작품들의 "아름다움"도 알고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끝없는 선언을 하고 있다.

1. 대표작품

그의 대표작으로는 80년대의 두건물을 들 수 있다. 60년대의 웅거스의 사택이나 많은 집합주택이 있음에도, 이 두건물에서, 그의 종합된 경향을 볼수 있다.

웅거스는 서독 프랑크푸르트에 박람회장건물(1984년)군을 설계했다. 〈사진 1~9〉 철도선을 가로질러 동관과 서관으로 된 두지역의 전시관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에, 철도가 갈라지는 교차점에 ("Gate house" 라는 고층회의장이) 세워졌다.

고층회의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5층이며 높이는 27m : 서비스 시설, 점포, 보도관계시설,일반오피스, 보행자 통로등의 시설이 있다.

—6층~20층까지의 중간부 : 외부를 돌로 마감하고 유리의 변화를 지닌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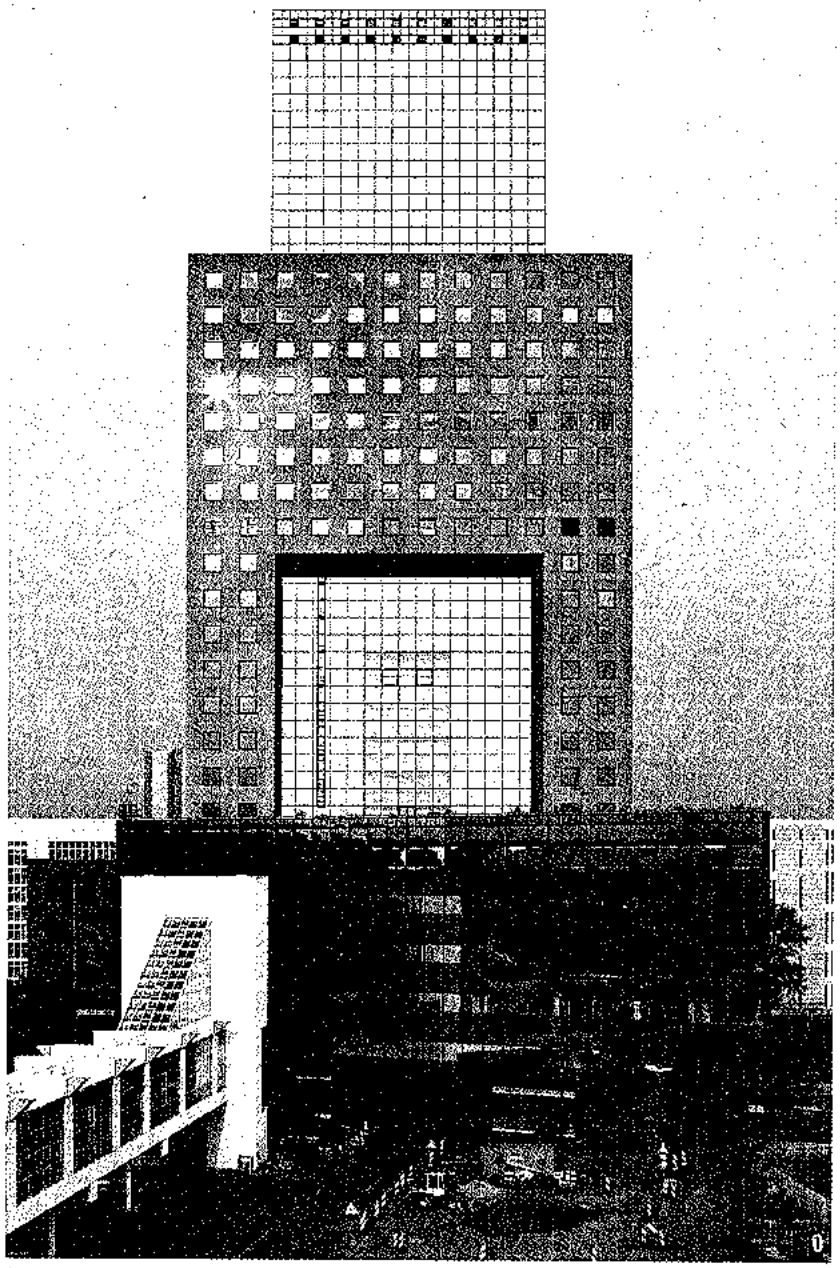
—21층~27층 까지의 유리블럭 : 회의장 및(옥상)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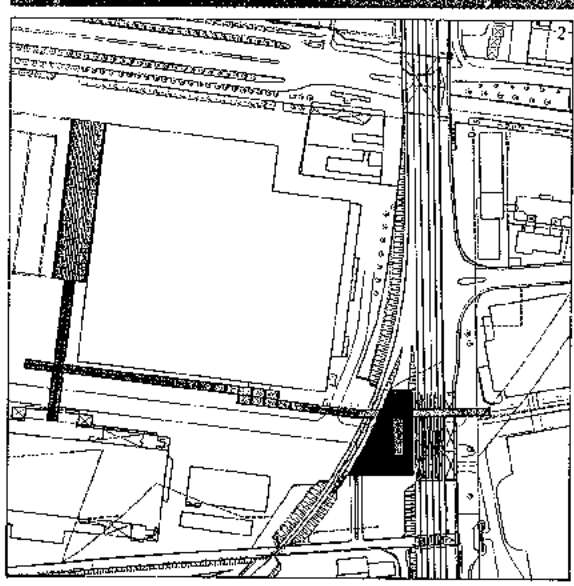
콘크리트 프리패브판위의 붉은 석재와 녹색의 반사유리의 강한 대비, 내부는 유리에 의한 건축과 외부는 돌의 건축의 대비, 고층부분의 2개의 매스분절의 극적효과를 통해 이 건물은 일생동안 그가 해맨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이 건축물은 하나의 거대한 문이나 큰 스케일와 창으로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형태는 박람회를 위한 문, 도시의 입구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서측저층의 전시홀인 9호관은 5층으로, 연면적 45,000m²으로 1,2,3,층에 전시, 4,5층에 1,200대 주차시설등이 있다. 2개의 동서 전시관을 잇는 갤러리는 폭이 25m, 길이가 120m이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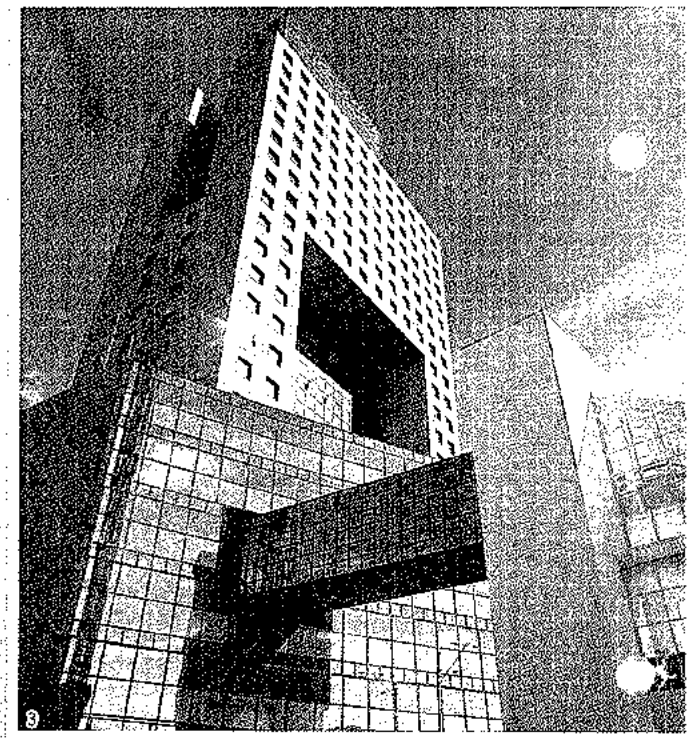
베를린 미륄거리에 완성된 류초프라츠의 집합주택(1979, 1980~1983)은 공공성과 개인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설계되었다.〈사진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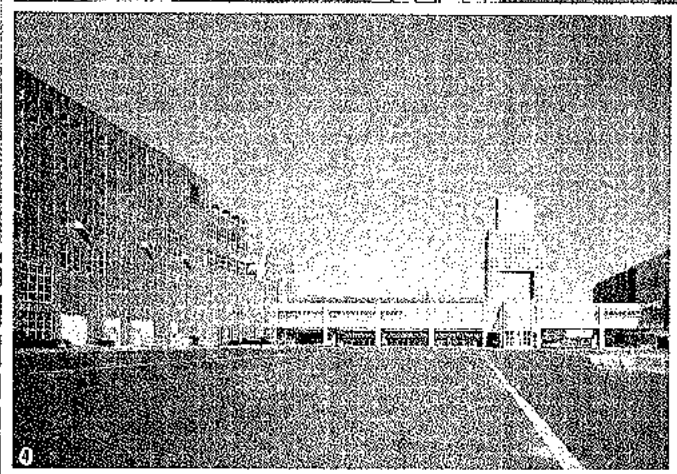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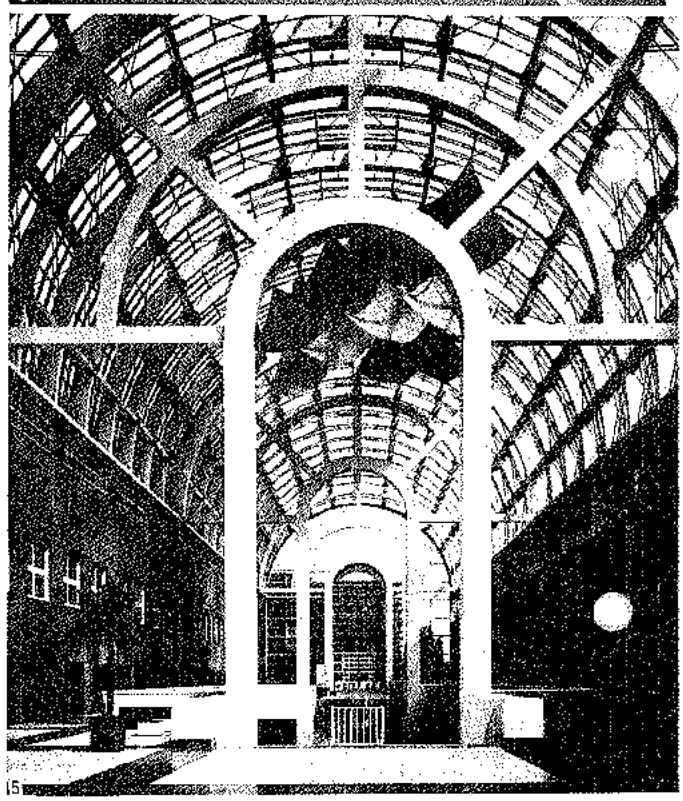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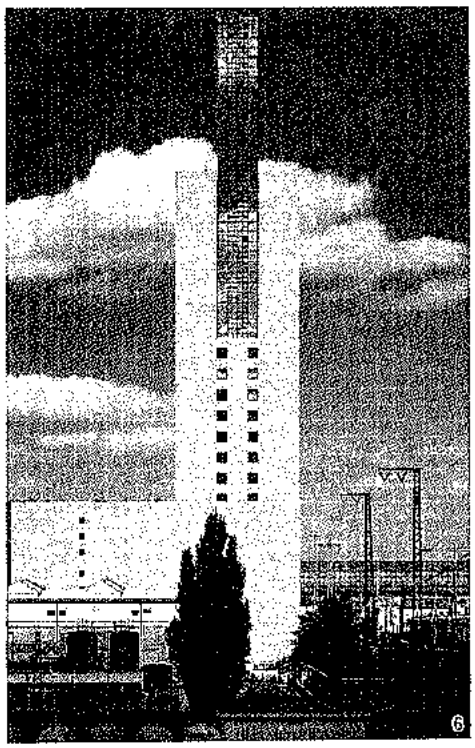
프랑크프르트 박람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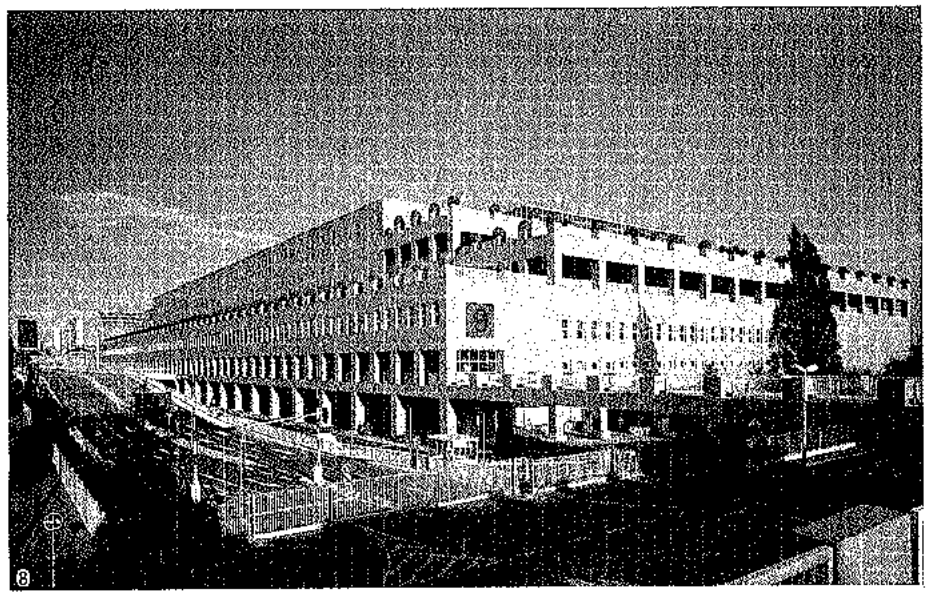
1. 서측면
2. 배치도
3. 북서측면
4. 서측광장에서 본 통로와 원경
5. 갤러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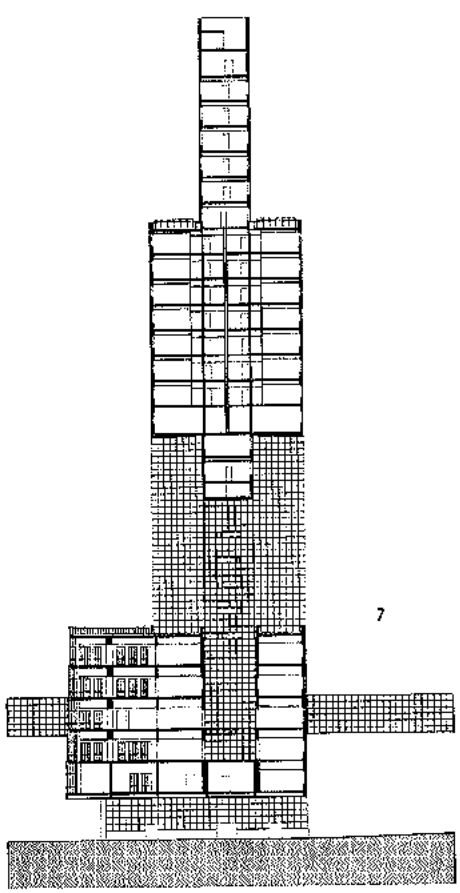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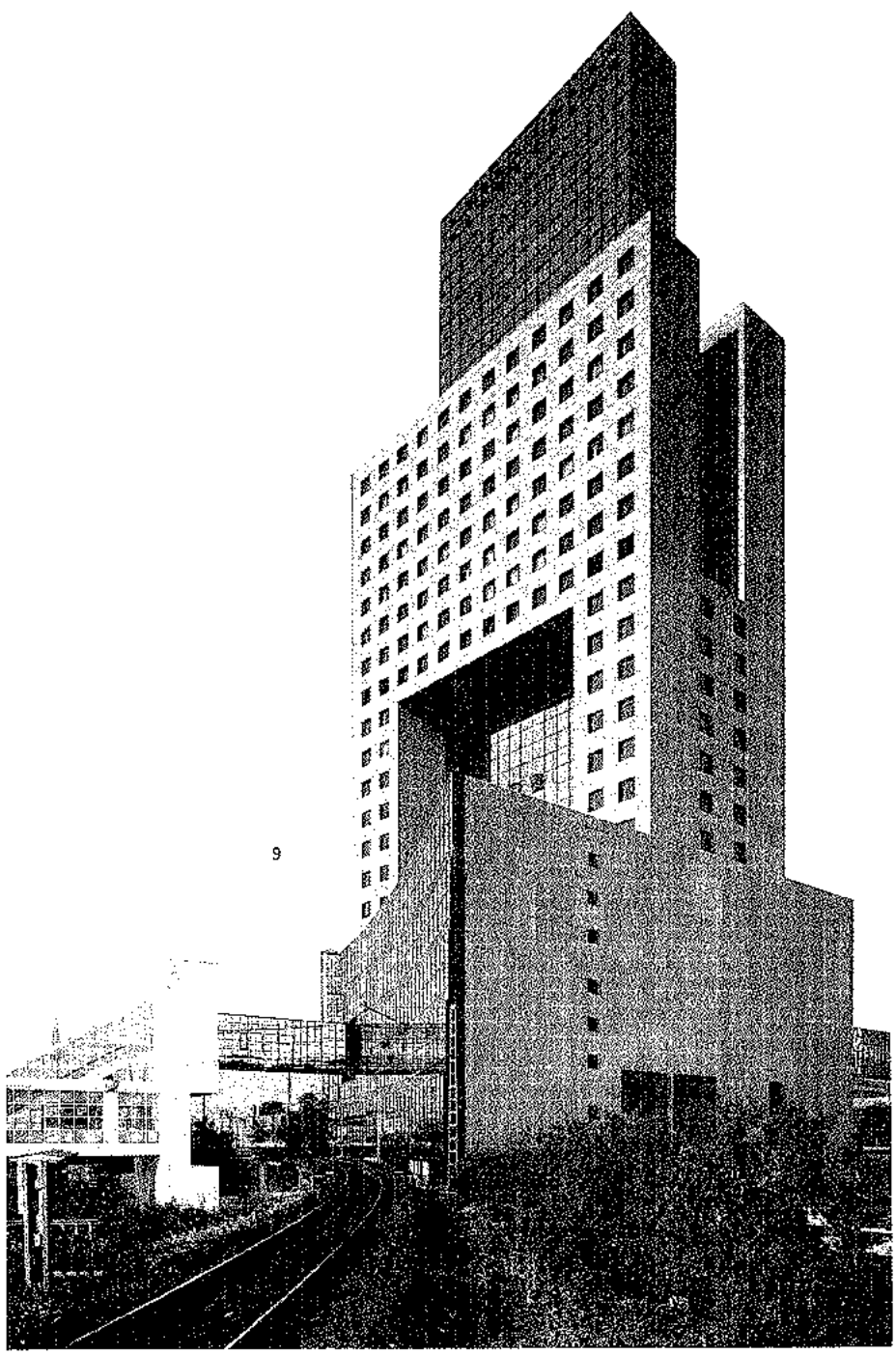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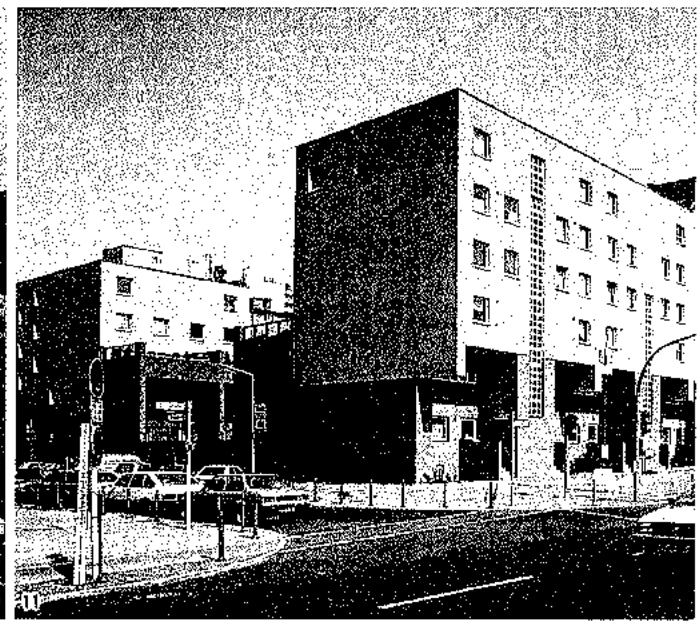




6. 프랑크프르트 박람회장 남측입면
7. 프랑크프르트 박람회장 횡단면도
8. 프랑크프르트 박람회장 서측의 저측
9. 프랑크프르트 박람회장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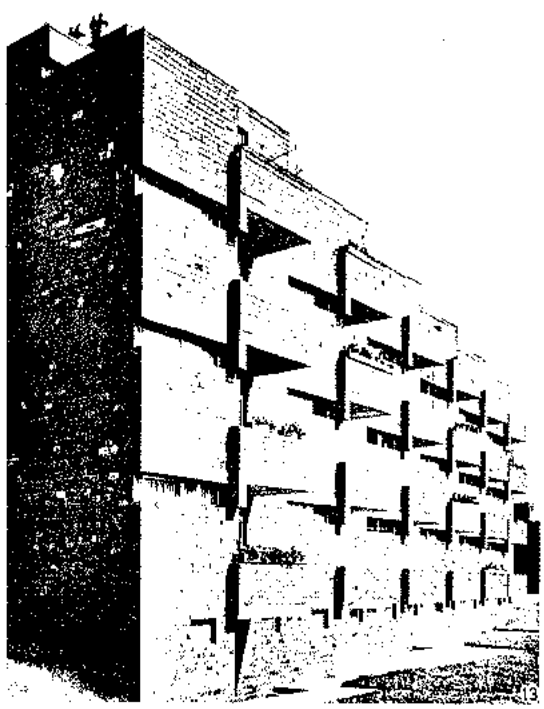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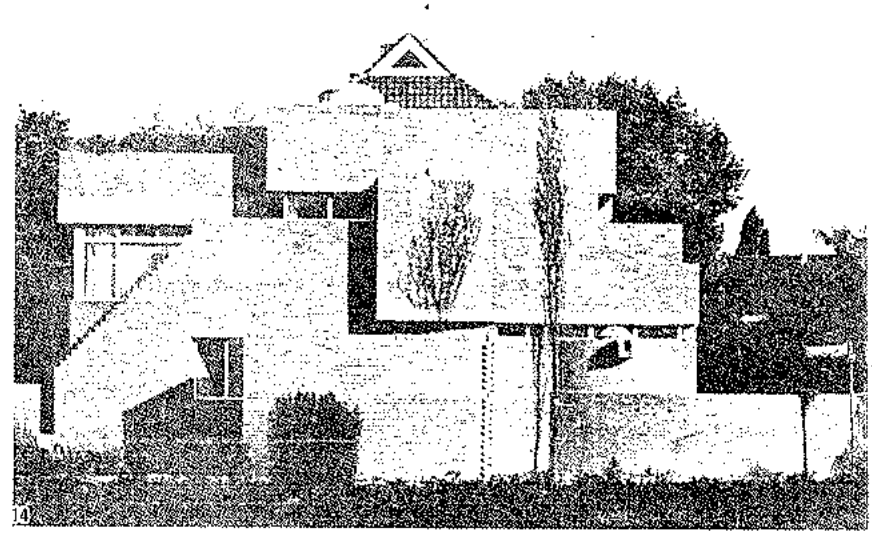


도로변의 교통소음을 피해 주택과 거실은 중정을 향하고 있다.
어프로치는 외부의 1층 주차장에서 중정으로, 중정의 가로를 통해 각세대로 연결된다. 외부의 도로측 입면은 폐쇄적 연속성, 내부는 개별적 프라이버시와 형태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3]
최근 웅거스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각서"(1985년, 쾰른)에서, 그는 유형론의 방법과 사고를 통해 30년만에 겨우 그 변환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가슴속에 지닌 문제를 서서히 풀고 있다.
작품으로서 보다는 이론적인 웅거스가 최근에 독일에 돌아와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있다. 50년대의 가능성이 지금 다른 면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웅거스.
그가 처했던 시대상황, 그가 추구했던 문제와 그 모색의 과정을 바라볼 때, "전통"에 관한 그의 기나긴 여정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멀리 미국에 까지 건너가 그가 모색하려고 했던것은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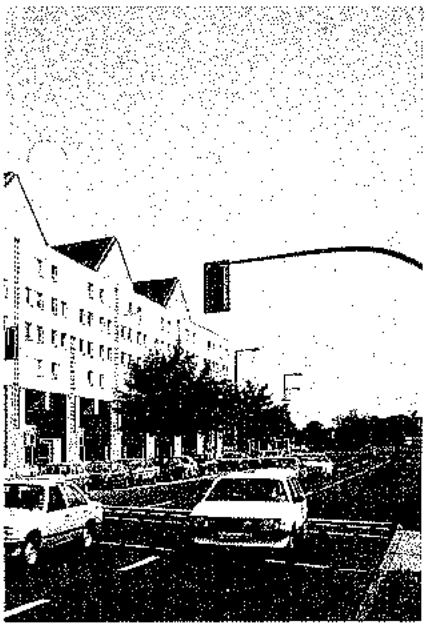
2. 활동과 작품

a. 제1기 자립기 : 집합주택의 시기 : 1950~1959년
웅거스는 1926년에 독일 아이펠의 카이저제쉬에서 태어났다.
2차세계대전중에 병역을 마치는 동안, 전쟁 포로가 되었었다. 전쟁이 끝나고, 1947년에 칼스루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스승 에곤 아이어만 밑에서 건축공부를 시작했다. 1950년에 졸업을 하고 쾰로뉴(Cologne)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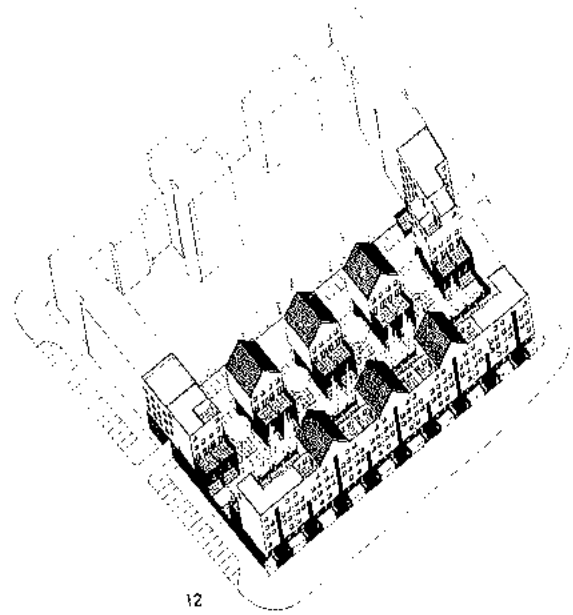




13. 마우엔하우머 5층주거단지
14. 웅거스의 자택



10. 류초프라츠 전경
11. 류초프라츠 남측원경
12. 류초퓨라츠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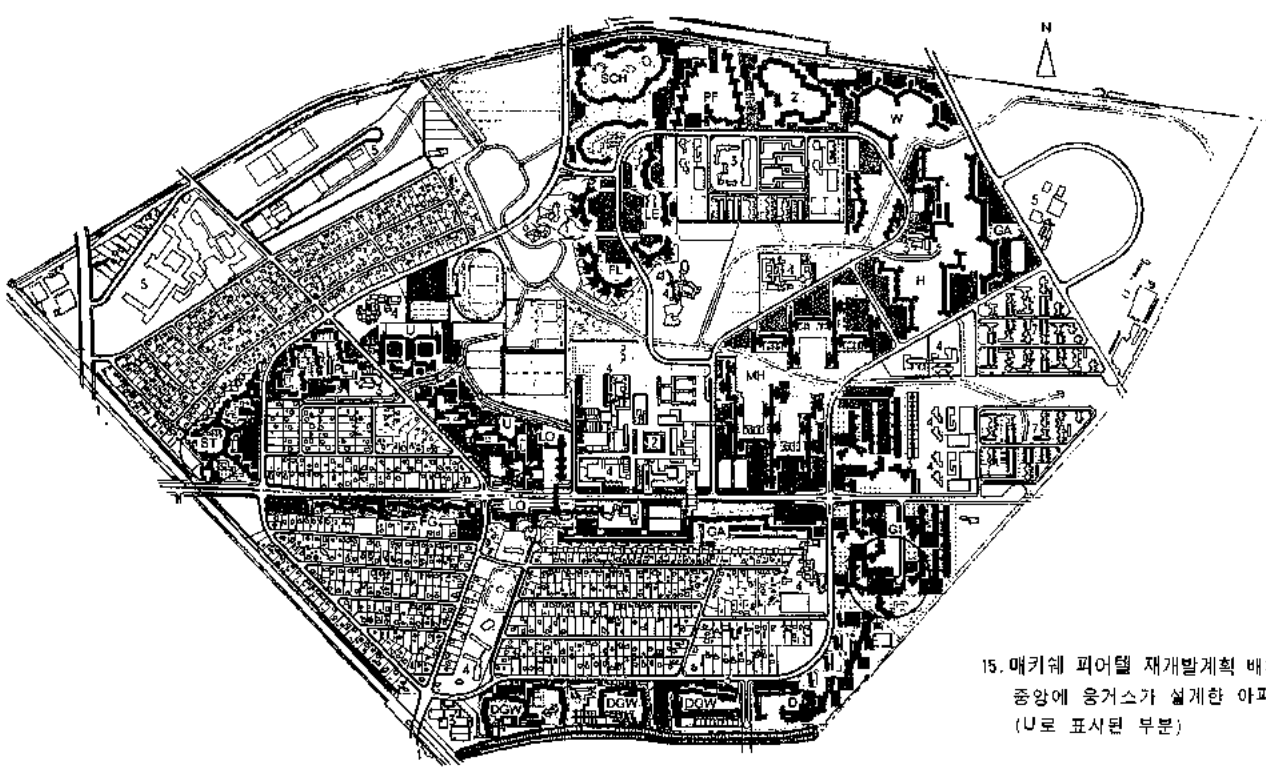


12

그의 첫작품은 오더백 주택이었다.(1951년) 그후 오비하우겐의 대학교육을 위한 연구소설계(1953~58년)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의 통일된 메스보다는, 작은 단위로, 세분하여 서로 연결시켜 처리하는 설계원리를 터득했다.
1954년 9회 C.I.A.M. 에 참가했고, 1956년 10회 C.I.A.M. 에 참가하였으나, 정식 멤버는 아니었다. 그는 C.I.A.M. 에 어느정도 동조하면서도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다.

1956~59년에는 쾰른 님스애 마우엔하이미 5층 주택단지계획에 참여했다. 조적조 기법과 엄격한 구조의 정밀성을 외벽에 나타내고 있다. 이 5층 집합주택에 나타난 구성법은 볼륨의 조절을 통한 주거단위의 개성적 표현을 마련하여, 단지의 이미지형성에서 익명성보다 개인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사진 13〉
1957~58년에 쾰른, 베아트만거리 2가족용 주택설계,
1958년에 쾰른 한사링에 다세대주택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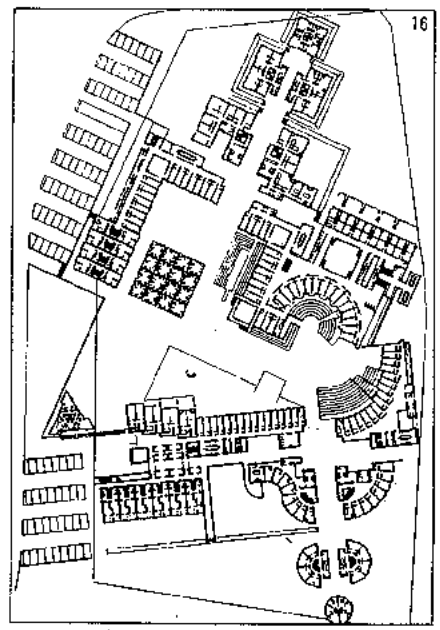
1958~59년에는 쾰른에 빙겔스돌프 벨베데레 거리에 그의 자택을 지었다. 건축사무소를 1층으로 하고, 2,3층에 주택을 두었다. 도로를 향해 남을 설치해서 중정과 조그만 정원을 마련했다.
이 자택에는 브르탈리즘의 이념을 따르는 태도와 유럽의 조적조의 전통이 나타나고 있다. 요철이 있는 외관은 근대건축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으며, 한편으로 볼륨요철의 표현성은 독일 표현주의의 전통이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사진 14〉



15. 매키쉐 피어텔 재개발계획 배치도
중앙에 응거스가 설계한 아파트단지 (U로 표시된 부분)

주거단지계획 콜로뉴 지베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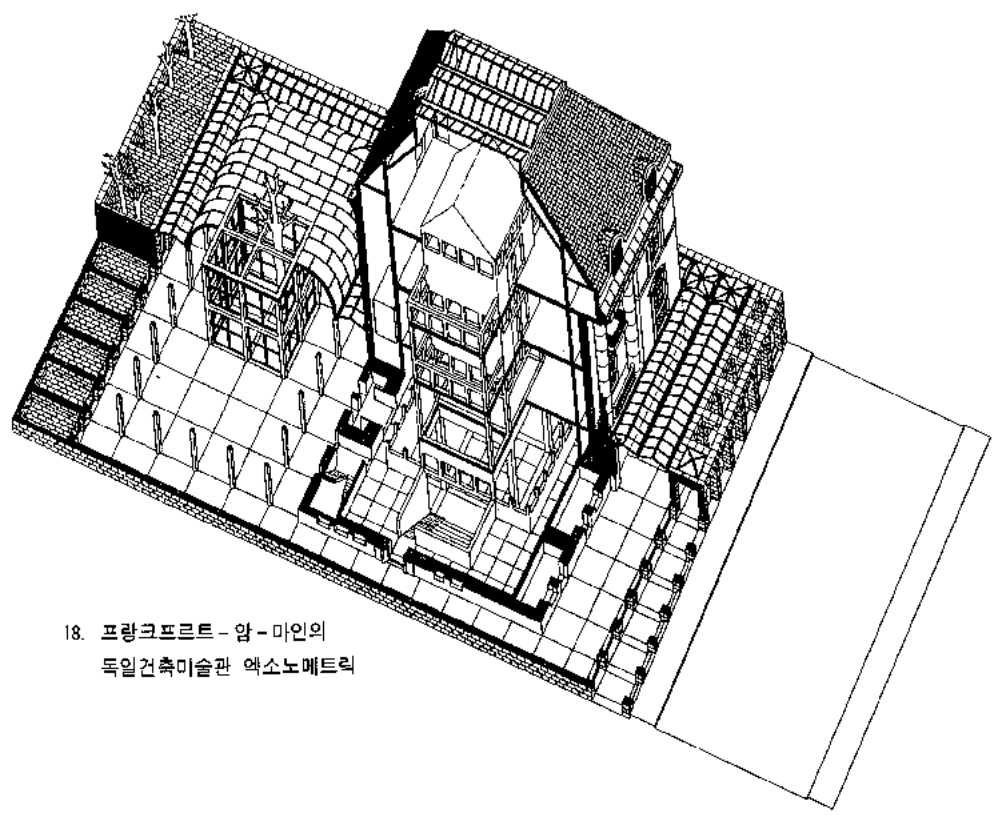
b. 제2기 토레 벨라스카 :
발산기 : 국제주의 흐름에 관심을 :
1960년~1969년
벨라스키탑이 C.I.A.M. 의
오텔로회의(1959년)에 소개되었을 때,
피터 스미슨은 비판을 했고, 웅거스는
옹호하는 논쟁을 했다.
벨라스카탑이 팀텐의 회의장에
전시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논쟁이 있은 다음 해에, 이탈리아
건축잡지 "카사벨라 콘티뉴타"에서
취재차, 웅거스를 방문했는데, 편집장
빅도리오 그레고티와 함께 알도 로시,
쵸지오 그라시 등이었다. 이 잡지의
주필은 벨라스카 탑의 설계팀인
BPR 의 일원인 어네스도 나탄
로저스였다.
벨라스카 탑을 통해 독일의 젊은
건축가 — 웅거스와 이탈리아의 젊은
건축가들의 정신적 교류는 알도로시가
그잡지에 쓴 "독일의 젊은
건축가 : 오스발트 마티아스
웅거스 — Un Giovane Architto
Tedesco " 내용으로 소개됐고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됐다."
1959년 부퍼탈 엘버펠트의
모짜르트거리의 아파트
1960~61년 오베라쓰의 슈르 거리의
주택
1961~62년 헤네프지그의
비팬호너거리의 주택 등을 통해 그는
기존의 환경을 의식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1962년 부터 베를린에 제2사무소를
설치하였다.
1962년 메키쉐 피어텔 재개발지역
계획〈사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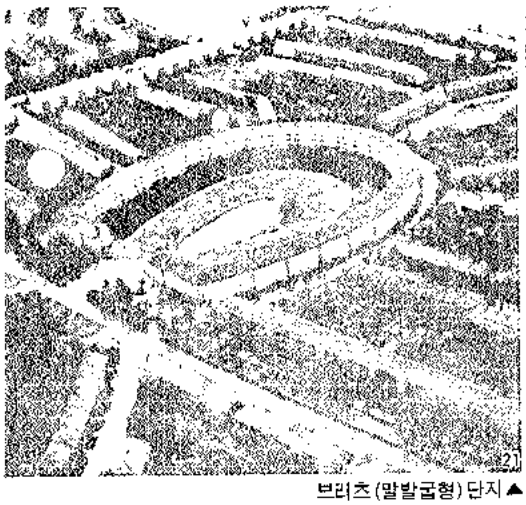
테벤터 공과대학 학생기숙사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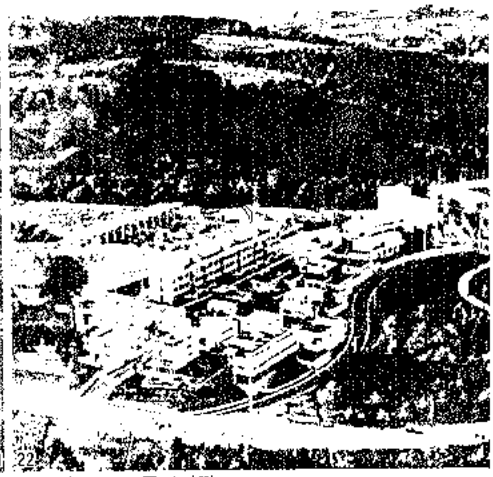
독일건축가 35명이 참가한 이 계획은,
도시내 스럼지역을 개발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 그는 Unit 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4개의 기본형을 배열하여
다양한 구성을 하였다.
1963년 베를린 공과대학에 초빙되어
건축교육에 참여 했다. 그뒤로
오랫동안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1964년 네델란드 엔스헤데의 터밴터
공과대학 학생기숙사 계획안을
발표했다.(사진 16) 이 계획안에서는
하드리안 빌라를 본따, 도시의
주요구성요소가 등장한다. 독립주택,
연립주택, 중정주택, 복합건물과 가로,
광장등이 다양한 배치로 나타났다.
1965년에 Team-X 의 베를린 모임에
웅거스가 협조한다.
1965~66년 주거단지계획 콜로뉴
지베르크〈사진 17〉
1966년 켈른 코르바일러에 주택설계.

c. 제3기 : 이론 모색기 : 1970~1979년
1969년 베를린을 떠난 1980년까지
미국에 거주하게 된다.
1969~1975년까지 코넬대학
건축학과장을 지냈다. 그외에도
하바드대학과 UCLA 에서, 비엔나
공과대학에서도 객원교수로서 강의를
했다.
코넬대학의 콜린 로우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18. 프랑크프르트 - 암 - 마인의
독일건축미술관 액소노메트릭





브리츠(말발굽형)단지▲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로우도 크리에 형제나 알도로시등의 신합리주의자와 비교하여 웅거스를 다르게 평가하였다. 즉 웅거스를 제외한 건축가들은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가 웅거스에게 어떠한 시기에 해당하는가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 그를 부른 것인지, 그가 미국을 찾아갔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1976 세미나 뉴 욕 URBAN BLOCK
1977 세미나 베를린 URBAN VILLA
1978 세미나 베를린 URBAN GARDEN

웅거스가 두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시설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 이시기에 현상설계를 통해 많은 시도를 하나, 실패로 끝나게 된다.

루즈벨트섬의 도시계획 현상설계응모(1975)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
뮤조광장의 베를린 호텔(1978), 베를린
부다페스트거리 호텔(1978), 베를린
서베를린 지구 계획안, 쾰른(1978)
베를린대법원 계획안(1978~79)

d. 제4기 : 창조기 : 1980~

다시 독일에 온이후 그는 대형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분주하게 보낸다. 그의 작품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독의 세곳에서-콜로뉴,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칼스루에등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독일건축 미술관(1979~82설계,1984완공) (사진 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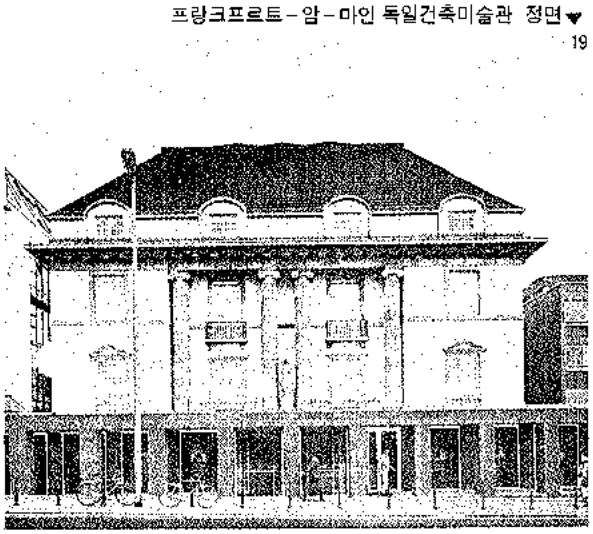
"마인강변에 세울 미술관군"이라는 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완성된 이건물은 기존의 두가족용 주택을 개조한 것이다. 도시내의 평범한 주택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하고, 대지 또한 넓은편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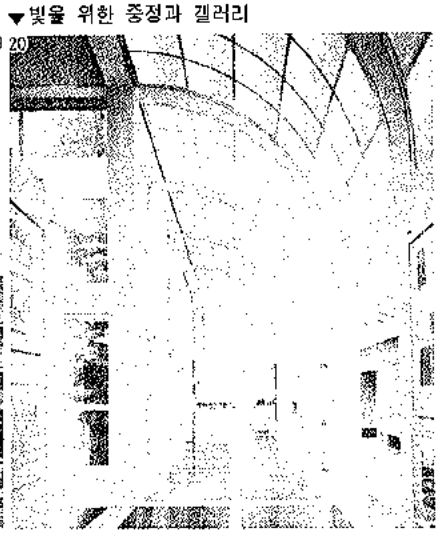
웅거스는 대지경계에 서있는 담장까지 이용하여 미술관은 실내는 철거되고 외부만으로 시작되었다.

외부의 석조→석조와 벽돌조위에

프랑크프르트-암-마인의 독일건축미술관

프랑크프르트-암-마인 독일건축미술관 정면▼ ▼빛을 위한 중정과 갤러리





회반죽→콘크리트→입체스틸격자→유리→증정으로 이어지는 재료화, 시각적 변화에서 웅거스의 "유형론"을 생각케 된다. 즉, 맞지않은 용도와 스케일의 차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기능과의 충돌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론적 내용을 증명한 작품이다.

베를린 미켈거리에, 튜초프라츠의 집합주택(1979,1980~1983) 쾰른에 서방예술을 위한 가설미술관 (1981년, 1983년), 프랑크푸르트에 박람회장건물(1984년)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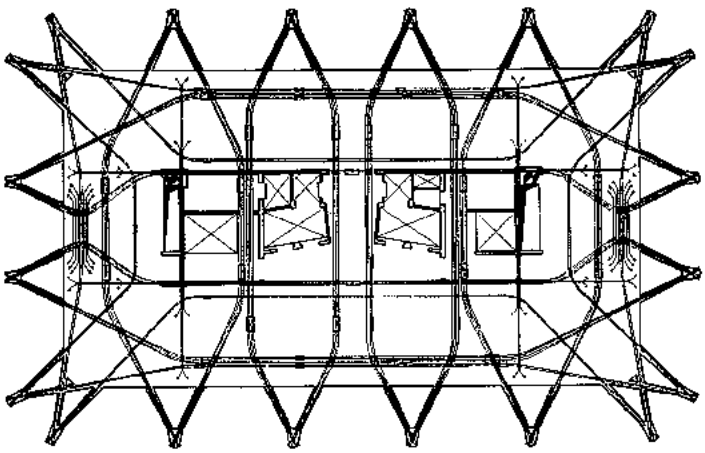
IBA 1987 (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Berlin) 의 협동기획자로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근대건축이 진행되면서 독일의 건축가들은 주택외 실물전시회를 계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근대건축의 성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기회도 되려니와, 일반대중과의 끊임없는 질의응답인 이 주택실물전시회는 사용자와 건축가가 그시대 그지역에 필요한 형태를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독일에서는 여러번의 주택 실물전시회가 있었다.

발발굽형단지(1925~27년, 1930~31년 베를린, 브리츠주택단지)(사진21)
바이센호프전시회(1927년, 스튜트가르트, 한스 샤로운, 월터 그로피우스, 루 꼬르뷔제, 미이스 등참가)(사진22)
1957년 Inter Bau 내일의 도시속에서의 주거생활, 그로피우스등 참가
1979년 IBA 국제건축전 :
1987년 IBA 콧프리트 뵘, 롭 크리에, 촬스 무어, 랄프어스킨, 이소자키, 레온 크리에, 제임스 스털링, 마리오 보타, 방에르트 안센, 웅거스, 아이젠만, 구로가와, 알도로시등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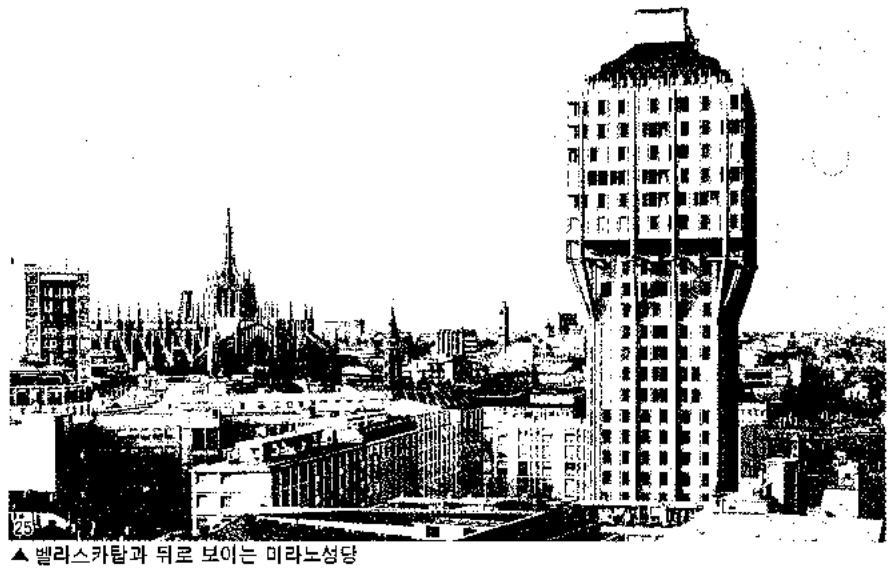
3. 그의 생각

a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웅거스가 전통에 관심을 갖게되고, 선언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시간이



24. 벨라스카탑의 18층바닥 철근배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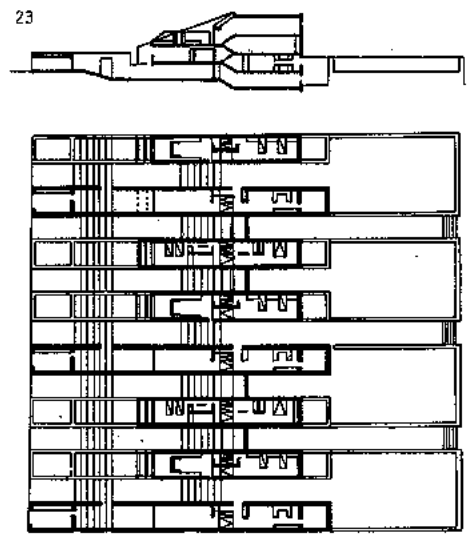
▲ 벨리스카탑과 뒤로 보이는 미라노성당

필요했던 것 같다. 1926년에 태어난 그가 1950년 24세의 나이로 롤로뉴에서 사무소를 설립하고, 초기의 작품을 하고 있을 때는 전통에 관한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웅거스는 친구 기젤만과 함께 건축에 관한 선언을 하게되는데 타이틀은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1960년)였다. (Zu einer neuen Architectur, Der Monat 1963년 3월호) 이 선언은 유럽건축의 부흥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부르짖고자 발표했다. 건축과정의 합리화, 수익성, 건축법규, 기술혁신 등의 요구증대에 건축가들이 본연의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건축가의 직업관에 대해 명확히 하기위해 기능주의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 창조적 예술은 전통과의 정신적 격돌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격돌 속에서 자기시대의 순수한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존형태를 부서야 한다.
… 형태는 정신적 내용의 표현이다.
— 만약 우리가 기술적, 기능적 건축의 방법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획일적인 표정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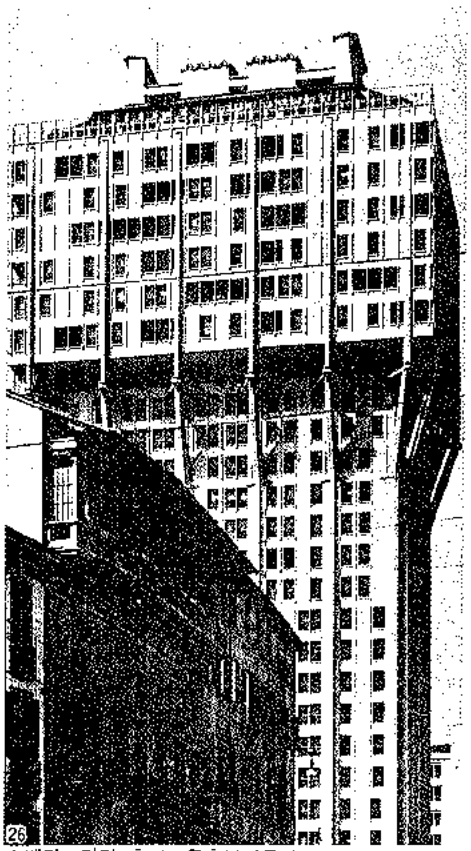
1967년 "Team·X 선언문"에 실린 웅거스의 글은 주택단지에 관한 것이었다. 웅거스는 많은 주택단지를 설계했고, 관심이 초기부터 많았다. 그는 고도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크기로 집을 짓기 위한 요소로 세가지를 들었다.
— 건설해야 하는 많은 주택수
— 십을 건설하는 노력에 못 미치는 주택수
— 토지의 부족
여러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주택을 제공하느냐? 인구의 끊임없는 증가와 도시에의 집중으로 대중의 생활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웅거스는 건축가가 구체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틀만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거대구조는 질서를 마련하는 틀을 만들고, 그 구조내에 기생하는 (Parasite Architecture) 개개단위로서 주기단위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활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7] 그예로서, 계획안으로 끝나긴 했지만, 1965년의 졸스탁 계획안〈사진23〉에서는 내외부 공간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되는 공간을 제시했다. 즉 각 주거 단위에는 폭이 5미터로 된 두개의 Zone 이 있다. 가운데 통로를 두고 그중 한 Zone 에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차고, Patio, 정원을 설치하고, 다른 Zone 에는 용도가 자유롭도록 설계했다. 비어있는 Zone 에서 자발적인 주거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건축가는 틀을 만들고, 사용자는 스스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 "엄격한 질서로 이루어진 기본구조는 인간생활을 위한 건축공간의 틀을 만들어 준다."[8]

▼ Green Belt South계획안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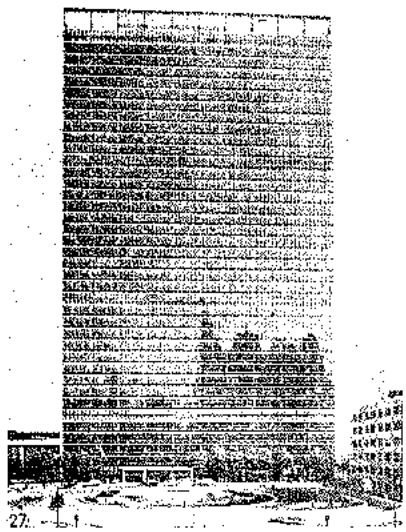


b. 현대건축의 흐름에 관심을
1959년 오텔로 회의에서 "토레 벨라스카"논쟁을 피터 스미슨과 벌이게 된다. 토레 벨라스카는 26층의 사무기능과 주거기능을 갖춘 건물이다. 돌출된 상부에는 층별 11세대주거가 있고 하부에는 사무소가 있다. 〈사진 24~26〉 1957~5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BPR (구룹일원인 반피(Banfi) 가 죽기전엔 BBPR 이란 명칭을 썼다)이라는 이발리아 합리주의 건축가 집단이 미라노에 설계했다.
당시에는 곳곳에서 새로운 종류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1947~1965년까지의 대표적 고층건물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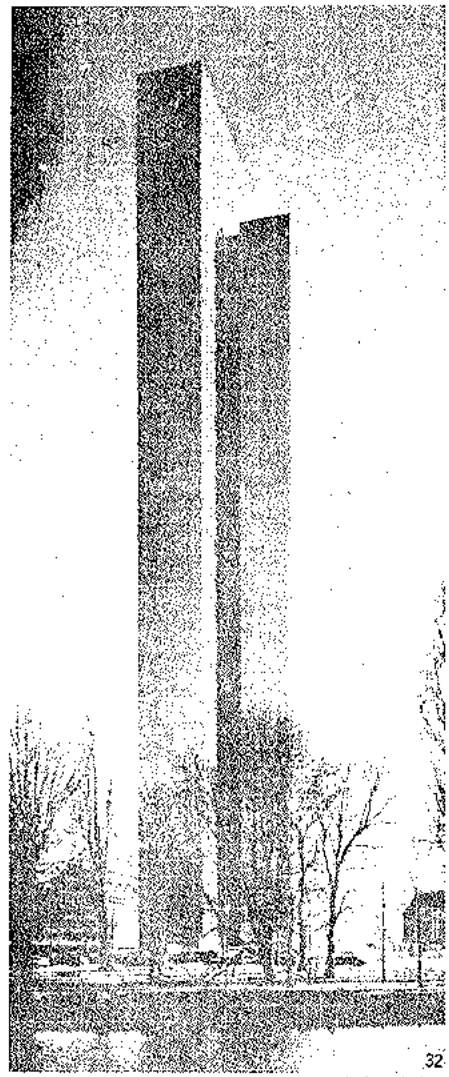
○ 라이트 존슨왁스빌딩 1947~50 미국
○ 르 꼬르뷔제 해리슨 유엔빌딩 1947~52 미국 〈사진 27〉
○ 벨루치 이퀴터블빌딩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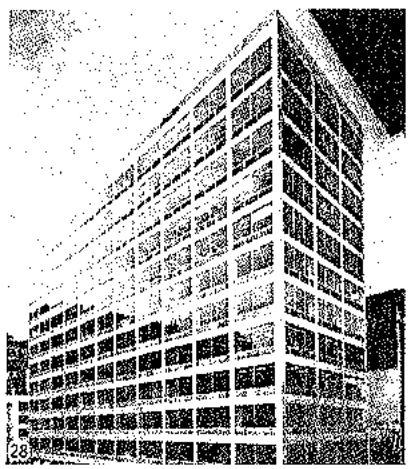
▲벨라스카탑 측면. 돌출부가둥이 보인다



▲해리슨 유엔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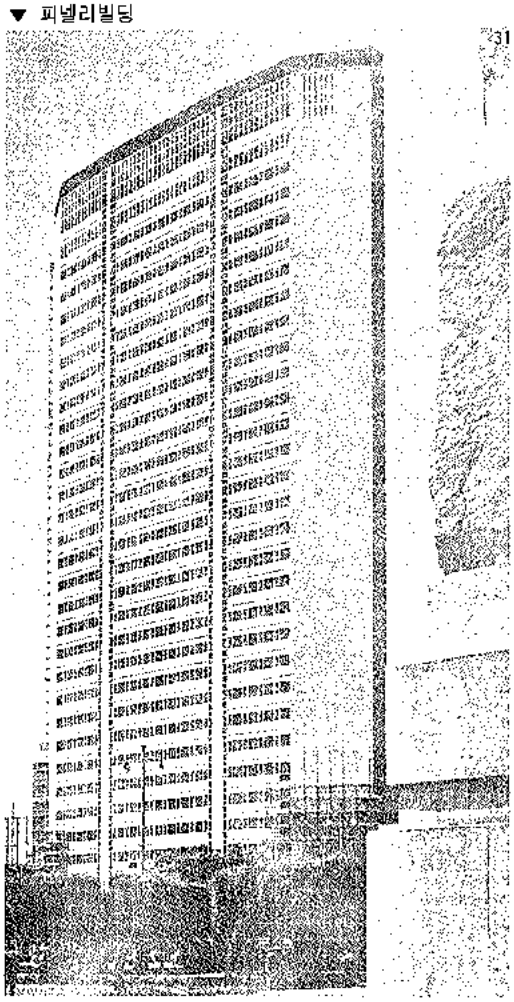


피낙스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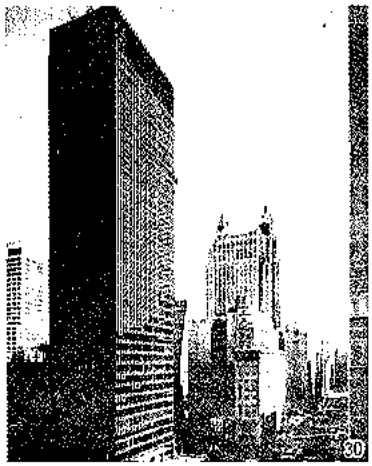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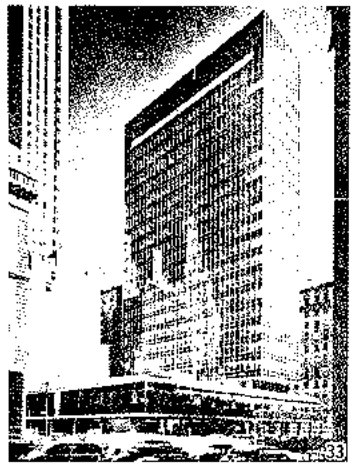
▲이퀴터블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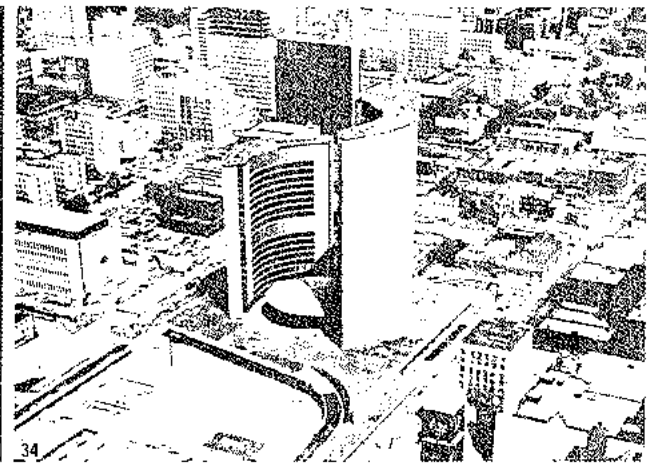
▼ 피넬리빌딩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아파트


▲시그램빌딩


▲S. O. M의 레버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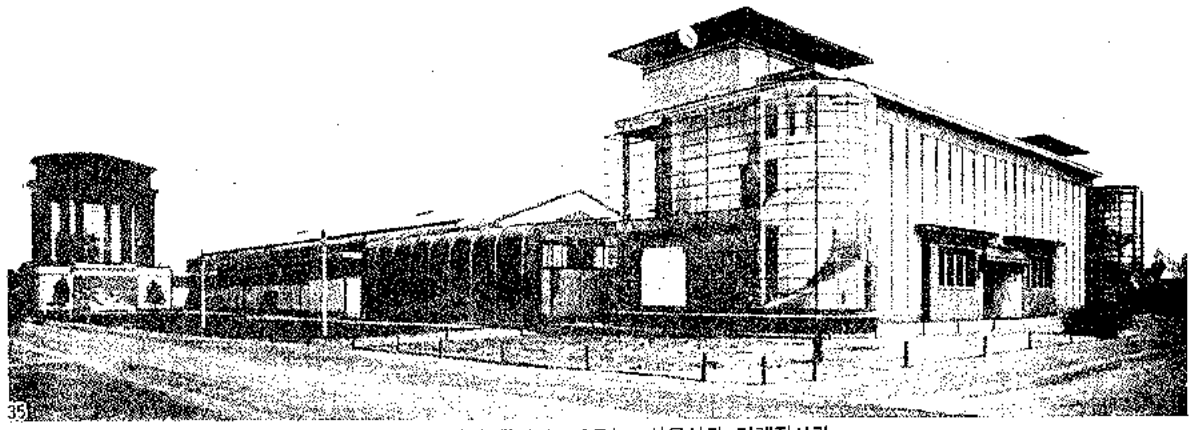

▲ 트론토시청사

미국 〈사진28〉
○ 마이스 레이크 쇼어 아파트
1948~51 미국 〈사진29〉
○ S.O.M. 레버빌딩 1952
미국 〈사진 30〉
○ 지오 폰티 피렐리빌딩
1955~59 이탈리아〈사진 31〉
○ B.B.P.R. 벨라스카탑 1956~57
이탈리아〈앞 참조〉
○ S.O.M. 유니온 카바이드
1957~60 미국
○ S.O.M. 체이스 맨해탄빌딩
1957~60 미국
○ 헨트리히, 페슈닉 피닉스타워
1957~60 독일〈사진32〉
○ 미이스 시그램빌딩 1958
미국 〈사진33〉
○ 파아킨 토론토 시청사 1958~65
카나다〈사진 34〉
○ 스미슨 부부 에코노미스트빌딩
1962~64 영국

이 건물중 다른 태도는, 베라스카탑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베라스카탑은 야간에 도심지의 무인화 현상 — 모더니즘의 실패로 여겨지는 — 을 막는 복합건물일 뿐만 아니라, 밀라노 성당 옆에서 중세의 요새를 상기시키는,
맥락주의 — 컨텍스츄얼리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신 — 자유운동(Neo-Liberty) 라고 하는 아르누보의 다른 태도로 평가되어 왔다. BPR(Belgiojoso, Peresutti, Rogers) 의 로저스가 제출한 이 건물에 대한 의견은, "절충주의, 지역주의, 근대주의"의 산물이라고 만장일치의 비판을 가했다. 비판을 한 사람은, 반 아이크, 단케, 스미슨 부부, 바케마 등 5인이었다. 이때 웅거스는 이 건물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스미슨은 도시의 역사적 전통을 건축에 도입하는 일에 끝까지 반대하고 근대주의를 옹호하였다.
반면 웅거스는 이시기에 지나치게 전통의 매력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벨라스카 탑이 보여준 도시와 역사적 전통의 결합에 옹호했다. 웅기스 덕에 BPR 의 로저스는 논쟁이 끝난 뒤에 비난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이탈리아 건축가들은 웅거스의 태도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이 토론장에 참석치못한 Ed Stone, 야마사키등은 후에 그 토의장에 참석치 못했음을 아쉬워 했다.[9]

c. 유형학(TYPOLOGY)
웅거스는 건축을 3가지 원칙으로 다루기를 즐기는데,
— 형태 (FORM) —
형태언어의 수단은 구조체와 공간이 형성되는 법칙이다. 형태언어의 도움으로 벽이 문학으로, 색이 회화로, 소리가 음악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기능과 건축시공을 예술적으로 바꾼다. 즉 형태는 그 어휘를 외부의 영향에 의하지 않고, 형태의 관계에서 추출한 특별한 법칙에 의해 생성한다.
— 공간(SPACE) —
형태는 기능에 맞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기능을 형태에 맞도록 할 것인가? 지금은 전자를 따른다면, 역사적으로 후자의 예가 많다고 웅거스는 주장한다.
— 구성(CONTRUCTION) —
건물의 유형론은 건축의 기능보다 우선한다. 어느 공간형태의 정당성은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형(type)에 맞는 용도가 스스로 발생된다. 이것은 건축의 창조적 요인이 반드시 건물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단계보다 실제적인 프로젝트단계에서 건물을 정의하는 것은 건축의 원형(Archetype) 이다.[10]
미국에 가기 전까지 그에게서 유형학이란 단어는 거론되지 않지만, 유형학과 관련된 생각은 주거단지의 건물을 계획하면서 생각했다. 웅거스는 유형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형태론, 구문론, 어휘론" 등의 용어는 거론치 않는다. 그는 언어학이나 기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건축의 이야기를 언어의 체계를 빌려 이야기 할 뿐이다.
"새로운 재료를 발명하고, 새공법을 찾아내면, 틀림없이 건축의 세계는 풍부해 진다."(리시츠키, 1929년)[11]
웅거스가 인용한 리시츠키의 말은 웅거스가 소박한 "형태의 유형학"을 생각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이란 도시의 아날로지이며, 도시는 또하나의 커다란 집과같은 것이다. 건축공간은 광장이라 바꾸어 광장은 건축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타이폴로지에서 보인 그들의 특성은 같은 것이고, 다만 스케일이 서로 다를 뿐이다. 도시와 같은 집, 집과 같은 도시, 거리와 같은 복도, 복도와 같은 거리, 광장의 테라스와 같은 계단, 집의



▲독일공작연맹 전시회, 꼴로뉴, 사무실과 기계전시관

문과 같은 도시문, 창과 같은 아치등,..."[11]

이 스케일의 변환은 "유형론"을 생각하는 건축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옹거스에 따르면
1. 무질서한 현대도시와, 과거의 건축문화의 유산을 바라보며,
2.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 논리적 관계성을 파악한다.
3. 기본타입을 분류하고, 다양한 기본형을 추출한다.
4. 기본형으로, 현대도시에 스케일에 맞이난 적용의 창조적 시도를 한다.
5. 단, 정형화하거나 일정한 기법으로 경직되는 일을 배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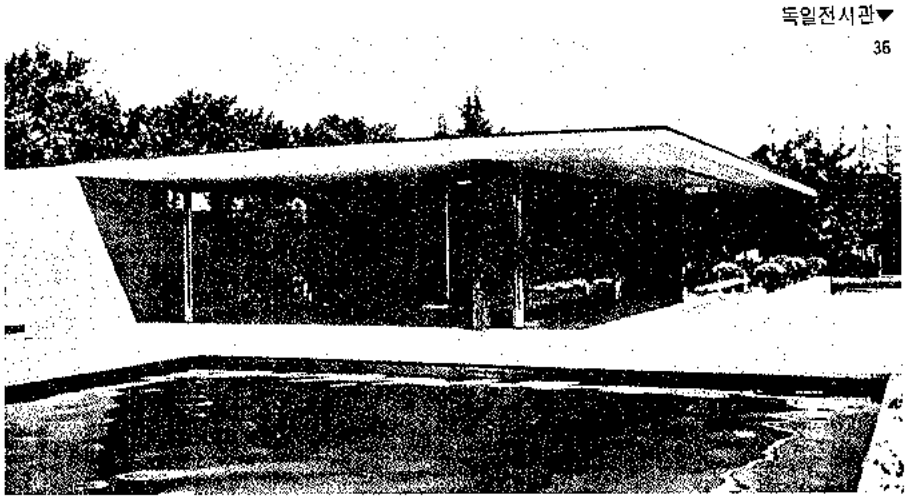
"대마로서의 건축"(Architettura come Tema, 1982)에서 추상적인 유형들(TYPES)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변형"을 계속한다고 생각했다.
이 내용은 5개의 주제로 설명되는데, 변형의 주제, 상호공존의 주제, 혼성의 주제, 동화의 주제, 상상의 주제.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 형태들은 변형을 기다린다.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이어 창조력에 의해 하나가 된다. 그 하나가된 형태는 창조력에 의해 의미가 새로워진, 새로운 형태가 된다.
이 과정에서 경직된 사고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관념적 설계(Concepptual Art 로서의 건축)에서 실제의 건축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그는 바라보았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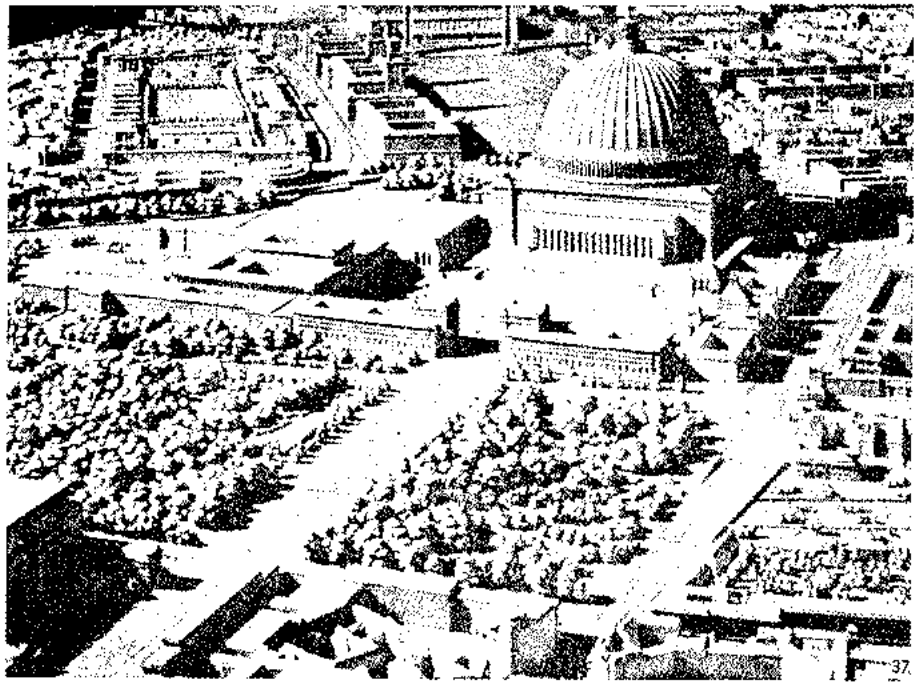
4. 배경과 상황

a. 독일의 상황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독일은 폐허위에 있었다. 그것은 두가지의 파괴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는 역사적 도시의 건물들이 무너진 물리적 파괴이며, 다른 피해는 물리적 파괴에 앞서 일어난, 나치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지적, 예술적 유산의 파괴가 그것이다.
독일의 건축가들이 재건에 착수하며 당면했던 과제는 60년대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다. 물리적 파괴로서 6.25와 지적, 예술문화 유산의 파괴가 이루어진 일제 강점 시기를 비교할 수 있다.
독일판 아르누보 현상인 유겐트 스틸에 의해 전반적으로 역사주의 연맹의 흐름에 뒤이어 1910년에 표현주의가 나타났다.
역사주의와 표현주의에서부터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로 서서히 바뀌는 동안, 피터 베렌스, 포엘지히, 막스 베르그, 에릭 멘델스존등의 활약으로 다양한 건축표현이 있었다.
1914년부터 그로피우스가 독일공작연맹(베르크분트)전시회에서 보여준 Model Factory 등에 힘입어 기능주의와 기술적 미학의 방향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사진35〉
1927년 바이센호프 베치계획〈사진 19〉
1929년 독일전시관, 바르셀로나. 〈사진36〉
등으로 국제주의의 고전이된 작품들이 나타났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뒤, 기념비적, 전체주의적 고전주의, 국가주의특징등이 나타나고 강요되었다. 전쟁이 끝난뒤, 시대착오적인 유산을 털어버리는 일들이 근대독일 건축가에게는 힘든일의 하나였다.
히틀러의 후원에 힘입어, 극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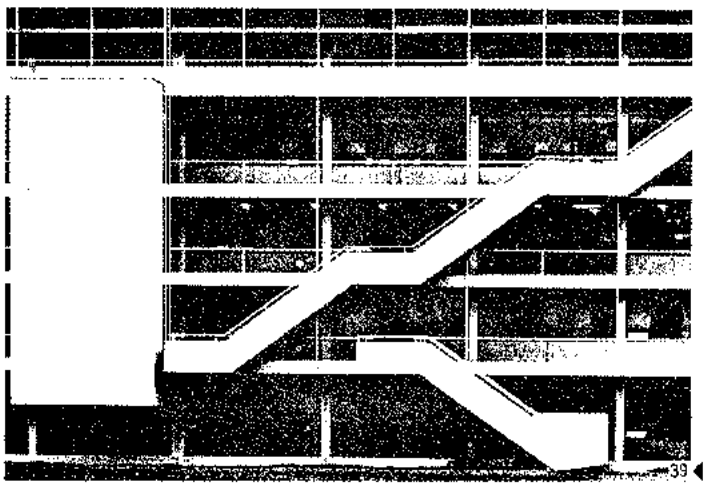
독일전시관▼
36





37 Albert Speer 설계, Great Hall 계획안

38 ▲아이어만, 기념교회당



39 ◀ Mail Order House

부리던 알베르트
슈페어(1905~1981)의 과대망상적인
고전주의도 1945년에 돌연
소멸되었다. 〈사진37〉 50년대 초기까지
전통주의자의 헌신과 모더니스트들의
성과에 힘입어 전후 복구작업을 겪는
동안 독일근대건축운동은 전개되었다.
50년대 후반에 간신히 웅거스에 의해
이어져, 전통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과
전개를 나타나게 되었다.
웅거스가 그의 스승인 에곤 아이어만의
작품에서 암시를 받았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쉬운일 일것이다.
아이어만은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절대적인 요구에 저항하면서
1920년대의 문화전통을 살려나간
작품을 설계했다. 베를린의 기념
교회당의 단순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사진38〉

즉 1945~55년은 독일 현대건축의
탐색기로서 탐구와 시도의 시기였으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 건축화된
전체주의에서 벗어나기에 시간이
필요했다. 1920~30년대로부터의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에서 바라본 스칸디나비아,
스위스로부터의 인간적인 건축으로의
환원작업의 영향이 컸다.
그러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은
— 전쟁이 끝난후, 수년간에 나타난
미국의 영향 — 그로피우스와
미스로부터의
— 유리상자와 커튼월의 상업건축
— 히틀러는 갔지만, 전체주의를
대신하는 권력자의 상징
— 국가발전과 함께, 경제력의
상승으로 나타난 단순성, 사치의
사회풍조 등이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독일정신에 근간이
되는 사려깊은, 도덕적 태도는 에곤
아이어만(1904~)에게서 볼 수 있다.
구조적논리에 합당하고 진실함을
시각으로 표현하며, 정교한 부재로서,
비례의 엄격함, 마감의 미적태도등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39〉[10]

b. 이탈리아의 상황
벨라스카탑이 나타나게된 배경을
바라보기 위해 이탈리아의 사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더니즘과 전통에 관한 충돌이
다른나라보다 심하고 강렬했던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에서 건축가들의
모더니즘과 예술가들의 전통주의의
끝없는 논쟁을 보지않고 어떻게
벨라스카를 논할 것인가?
이탈리아건축의 흐름중에서
"미래파"는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안토니오 쌍텔리아
(1880~1916) 마리아 치아토네 등의
미래파 선언은 18세기 이후로는
이탈리아에는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건축을 재정립 할 것을
원했다.

"… 문제인 것은 미래파의 주택을 건전한
계획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짓는

것이며, 우리들의 풍습과 정신의 모든요구를 한도내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다.…
건축은 전통으로 부터 해방되고 있다. 건축은 부득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것이 건축을 합목적성과 실용성의 멋없는 결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술로서 남아 있게 하는 것, 즉 종합과 표현이라는 것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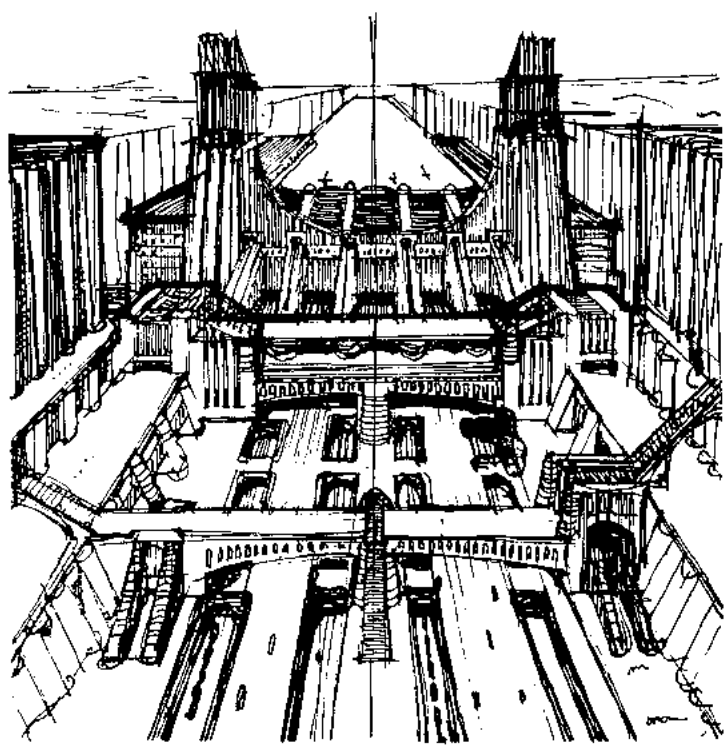
(미래파 선언--1914년 안토리오 쌍텔리아,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

이러한 미래주의(Futurist) 운동은 그 주인공들의 삶처럼 순탄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문화, 찬란했던 역사가 후진국으로서의 후손들에게 주는 부담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젊은이에게 진보적인 표현을 하게했다. 미래파의 활동은 아직도 보수적인 사회에서 전통주의자, 민속주의자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려냈던 미래도시의 이미지는, 지금의 현대도시에 만연된 형태의 기본요소로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고층건물, 에레베이터 고가도로, 육교, 지하차도등.〈사진40〉
쌍텔리아의 미래파를 "건축적 다이나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과격하고 너무 시대를 앞선 태도에서 비롯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문학과 회화 그룹은 (La Ronda 와 Valori) 유럽전위 예술가의 실험은 끝났다고 보고(국제주의 부정) — 새로운 고전주의 선택(밀라노 900 회화그룹)으로 새로운 고전주의는 건축에 파급되었다.
1926년에 그룹7이 창설되고 이탈리아 합리주의가 탄생했다.

"… 우리는 전통의 파괴를 의도하지 않는다 : 전통은 그 자체를 변형시키며…… 새로운 건축, 진정한 건축은 논리와 합리성의 밀접한 관계의 결과이어야 한다."

합리주의의 반 – 미래주의적 태도는 전통을 수용하며 근대적태도를 보였다. 그들에게 르 꼬르뷔제의 "Vers une Architecture(1927)"는 큰영향을 주었다. 이 그룹은 파시스트 건축가협회의 후원을 받아 전시회를 열었다. 1932년 파시스트 혁명 10주년 기념전람회에서 전통주의자들과 모더니스트들은 잠시 화해한듯 했으나, 그 후에는 각자의 표현방법을 정립해 가면서 서로의 대상을 그들의 태도속에 용해시켰다.
1936~38년에 두번째의 합리주의운동이 벌어진다.
모더니스트들은 대중과 전통주의자들과의 이념적인 논쟁은 포기한채 건축문제에 몰두한다. 밀라노 900, 예술원, 반-현대등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보수주의 또한 건축문제에 몰두한다. 몇차례의 건축계의 주도권이 모더니스트들과 전통주의자들 사이를 오고간뒤에, BPR 이 설계한 벨라스카탑이 태어났고, 국제적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다.[16]

c. 1970년대의 상황
70년대의 사회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변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
(1) 세계가 좁아졌다. 한곳에서의 영향이 다른곳에 신속하게 전파되고, 또 그반응도 신속하게 나타나는 하나뿐인 지구사회로의 변환. 다국적 설계사무소도 그러한 영향을 증대시켰다.
(2) 과학기술의 생산성.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생산체계와 이로부터 대량생산과 대량복제가 가능 해지고, 인간의 미래생활을 다양하게 예견하고 있다.
(3) 다양화시대로의 전환—지역적인 전통, 자발적인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와의 마찰은 건축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일부 평론가들의 논의의 쟁점으로 까지 번졌다. "포스트 모던"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Charles Jencks 는 전통사회에서의 건축전문가, 계몽된 후원자등과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집단의 에리트들이 지닌 다양한 기호문화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이중코드"라는 용어로 마찰을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17]
1970년대의 에너지위기는 우리를 자각케 해준다. 우리가 지닌 문명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동을 걸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의 인간의 행동강령을 제시한 로마클럽의 경고로 부터 적지않은 변화를 맞이했다. 석유를 기본으로한 자본주의체제를



40. 안토니오 쌍텔리아, 신도시계획안, 1913~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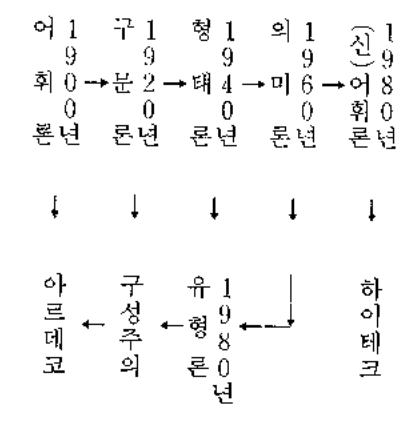
다시 검토해야 했다. 산업혁명으로부터 근간이 되어온 산업구조에 대한 반성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건축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 하고자 했다. 그중의 한 부류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축이론을 모색했다. 이들은 도시의 흐름과 사용자들의 가치, 장식과 같은 건축표현수단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원적으로 모더니즘 이후의 파도기적 양식을 만들어 내고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맥락주의, 인유주의, 장식주의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28]
인접한 주위환경과 관련을 맺고 물리적 환경을 찾는
맥락주의(Contextualism)
유명한 고전적 작품의 형태의 부분을 따서 자기작품에 활용하는
인유주의(Allusionism)
건축물에 장식을 선호하는
장식주의(Ornamentalism)
그러나 대부분 "포스트 모던"건축에는 따를 만한 이론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그들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신고전주의 양식에 빠져있다. 그들은 대학에서의 작품, 현상설계 출품작등 지어지지 않은 작품들로, 잡지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것 -제임스 스털링의 후기작품, 모리스 클로, 오스발트 웅거스, 레온과 톰 크리에 형제의 도시설계이론은 서서히 보자르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다.[29]

d 미국의 상황
이 시기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 진다.
르 꼬르뷔제와 미이스 반 델 로에 백색파(The Whites) 와
회색파(The Grays).
콜린로우(Colin Rowe) 와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
포스트모던(Post Modern) 과
레이드모던(Late Modern).
신합리주의(Neo Rationalism) —
The Rats.
위에 나열된 말들은 세계의 건축의 흐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말이기는 하나, (반드시 세계적인 현상인가는)쉽지만은 않다.
미국에서 "전통"이란 말의 느낌은 얼마나 실감나는 것일까?
그 "전통"에 "연속성"이라는 말이 포함될 때는 또한 어떠할 것인가?
200여년의 전통. 1차세계대전직후 미국의 예술가들은 "유럽에 대한 열등감"에 젖어 있었다. 폐허 위에서도 예술을 꽃피우는 유럽의 예술가의 저력에 놀라면서, 유럽을 바라보거나 모방하고 있었다.
1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우하우스 교육체계는 해체되어 퍼져 나갔다. 제대로 바우하우스의 이론을 실현시켜 보지 못한채 그들은 퍼져나갔다.
그로피우스, 미이스 등은 미국으로 향했다.
—제로에서의 출발—
바우하우스 교육의 이념이자, 목소 또는 가능성의 표현이었다.
이 모토는 모더니즘의 시작에서 부터 잉태되었다. 바우하우스를 미국의 대학들이 받아들인 결과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추종자들은 급기야, 미국의 전통을 다듬어가던 라이트를 그들의 우상의 자리에서 격하 시키고, 라이트는 탈리어신으로 낙향했다.[30]
1940년경 미국대학에서 유럽에서 20년대에 하던 실험을 계속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유리로된 박스들을 쉽게 만나게 되었다.
그 결과를 참지못한 것도 그들 자신이었다. "이중코드"라는 말은 전문가들이 내세운 모더니즘과 건국초기부터 식민지 열등감을 위로해주던 미국식 신고전주의와의 마찰이었다. 일반인에게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유럽에서 건너간 바우하우스이념자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른다.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2부류의 반성과 노력이 이어졌다. 로비트 벤츄리를 필두로 해서(무어, 스턴, 로버트슨, 그린버그, 지울골라) 이중 코드중에, 전문가의 코드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일반인들의 기호로서 이룩한 도시환경에 주목했다.
한편으로 "뉴욕화이브"(아이젠만, 그레입스, 과쓰미, 헤이덕, 마이어)는 르 꼬르뷔제를 배우기 시작했다.
꼬르뷔제는 레버빌딩이나 시그램빌딩이 지어지기 전에 1935년에 미국을 처음으로 가보았다. 1937년 "When the cathedral were white" 제목으로 뉴욕을 비평한 책을 발간했다.
"뉴욕의 고층건물은 도시계획의 단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단지 돈에 의해 바보가 된 도시의 파란 깃발일 뿐이다."[31]
중세의 "하얀 성당"과 뉴욕의 "파란 유리박스"를 대비시켜, 뉴욕을 바라보았다. "벽들은 거칠게 라임 플라스터로 마감되어…… 오직 하나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흰빛 : 이것은 명확하므로서 언제나 강력하다. (There is only one colour : White : always powerful since it is positive). "
백색파에 의해 르 꼬르뷔제의 모더니즘의 새로운 영향은 다시 확인 되었다. 중세석재의 흰빛과 모더니즘의 순수한 태도는 "백색"의 이념으로 승화되었다. 백색파는 모더니즘의 시작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면, 회색파는 백색의 반대가 아닌 —중간색으로서 "복합되고 대립되는" 이질적 요소를 혼합한 "혼란의 태도"를 띄었다.
이런 두가지 태도외에 에꼴 데 보자르에 유학을 시작한 이래, 면면히 흐르고 있는 고전주의적 성향 또한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32]

8. 웅거스에 대한 견해

지금의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단서로서, 그대상인 —역사적 도시 —를 인식하는 전제로서, 또는 그 방법론으로서의 "유형론"을 그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시대의 만연된 형태는, 근대에 필요한 재료를 찾기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채택한 각종 어휘(시멘트, 유리, 철)의 가능성의 결과이다. 그결과 도미노구조, 철골구조등의 적절한 공법을 택해 우리들은 이용해 왔다. 그결과 나타난 형태는 R.C. 구조와 철골구조와 유리벽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형태와 인간의 반응을 확인해 본 결과, 꼭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형태의 "의미"를 생각하던 건축가중에 형태를 반성하고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건축가들이 나타났다.

이중의 한부류는 각시대의 어휘로서 결론지워진 각시대의 형태들 사이의 관련성 — 유형론을 바라보므로서 지금의 형태의 수정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에 근대의 어휘나 구문론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아르데코, 구성주의도 결국은 의미론에서부터의 Feed Back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모더니즘이 언제 확실한 형태로 고정된 적이 있다고 할 것인가? 지금도 "하이테크"라고 부르는 기계시대의 미학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형태의 실험이 완전히 끝난 어휘론이나 구문론들이 얼마나 될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누보도 그시대에 만연된 다양한 움직임의 대표적 용어일 뿐이다.[25] 우리는 1970~80년대를 건축가마다 —Style 을 붙여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이야기할지 모른다. 건축에 관한 움직임이 통일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닐 것이며 다양한 움직임중에 건축의 기본적, 본질적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정신 — 보자르식이든, 바우하우스식이든, 스스로의 방식에 의하든 — 의 소유자의 건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연대순으로 작품을 나열하는 행위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이유는 모더니스트에서 전통주의자를지나 다시 건축의 "본질"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지는 "상표"로서의 "……주의자"를 배격하고자 한 말일 것이다.

그는 신합리주의자도, 신추상주의자도 아닌, 건축문제를 풀기위해 여러 곳, 여러 입장을 헤멘 건축가일 뿐이다. 세론의 주목을 받는곳을 기웃거린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 얻은 것은 그에게 붙여진 국제적인 경력뿐이다. 그는 시대상황의 본질과 건축의 본질을 찾아다니다 겨우 자기자리에 선 건축가임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는 이제야 자기작업을 시작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를 신합리주의자중의 한사람으로 생각하는 젠크스도 웅거스를 최근 독일에서 작품 몇개로 유명해진 것으로 보고있다. 그에 대한 기록도 시기별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독일에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웅거스를 바라본 사람도 A + U 를 통해 이탈리아인 램퓨냐니에 의해서 였다.

건축가가 건축주와 합의된 사항은 1차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이다. 이 합의된 형태가 사회에 대하여, 계약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동시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요하다.

살아있는 "전통"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민족에게는 그 과정은 치열하고 때로는 정치력에 휩쓸려 고통스럽기조차 한 것은 이탈리아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전통"에 대해 민감해 하지않는 민족이거나, 민감해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회라면,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응어리는 계속 남을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많은시간이 지난후까지도. 필자는 그를 찬양하기 위해 이글을 쓰지 않는다. 그는 콘셉츄얼 아트부류의 — 생각이 그대로 노출된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머리속에서 용해된 뒤에 작품으로 승화되어야 보다 나은 작품 — 그가 말하는 대로 본질에 가까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그가 찾아다닌 그 모색의 길이 길고 어려웠다고 느껴진다. 웅거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건축보다 유럽의 건축이 우월하다고, 지금도 믿는가? 유럽의 건축은 소망대로 부흥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싶은 이야기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해 집요하게, 작품으로 이야기한 건축가는 누구일까?

□참고문헌□

1) a + u, 1986 : 02, p. 35.
2) a + u, 1986 : 02, pp. 19~34.
3) a + u, 1986 : 02, pp. 39~46.
4) a + u, 1986 : 02, p. 48.
5) Galardi, New Italian Architecture, pp. 156~157. Lampugnani, 현대건축론, pp. 298~299.
6) Ulrich Conrads, 건축선언문집, pp. 209~210.
7) Team 10 Primer, p. 18.
8) Pehnt, New German Architecture, p. 33.
9) Charles Jencks,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pp. 325~328.
10) Architecture 1980, Venice Biennale, pp. 319~323.
11) Ulrich Conrads, 건축선언문집, pp. 151~153.
12) a + u, 1986 : 02, p. 35. 웅거스, "나의 작품에 대한 각서".
13) a + u, 1986 : 02, p. 53. 람퓨냐니, "몸짓과 그 그림자".
14) Pehnt, New German Architecture,
15) Vittoorio Gregotti, 이탈리아 건축의 신경향, pp. 9~37.
16)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서문.
17) Brent C.Brolin, Architecture in Context, p. 15.
18) Bill Risebero,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pp. 240~242.
19) Tom Wolfe, From Bauhaus to our house.
20)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p. 149.
21) Robert A.M.Stern, 미국건축의 신성향.
22) S.Tschudi Madsen, Art Nouveau. World University Library. Londen.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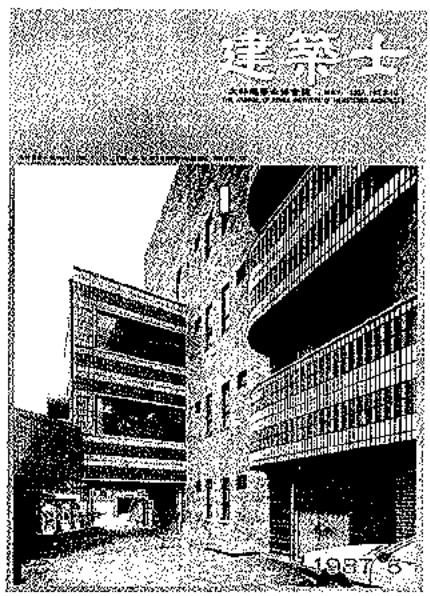
Art Nouveau. Paling Stijl. Style Nouille. Mouvement Belge Style 1900. Modern Style. Style Moderne Veldescher Stil. Stil van de Velde. Schnorkerstil,(Scroll style). Band wurmstil(Tapeworm style). Wellenstil(Wave style). Belgischer Bandwurm. Moderne Strumpfbandlinien. Jugendstil. Neu stil. Neudeutsche Kunst. Style Horta. Style Guimard. Sezessionstil. Wiener Sezession. Stile Floreale. Stile Inglese. Stile Liberty. Yatching Style. Style Metro. Style rastaquouere. Arte Joven.

都市的 삶과 都市的建築

-5월호 회원작품을 중심으로-

金文德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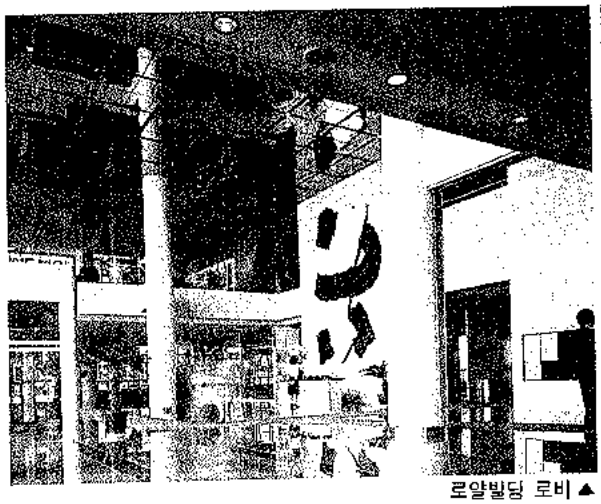
Criticism/Urban Life & Urban Architecture
by Kim, Moon-D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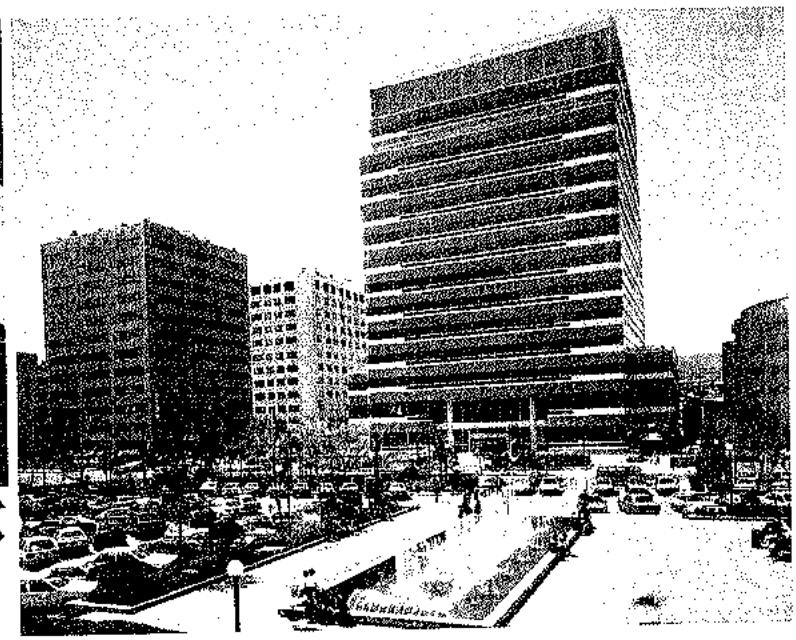


우리들 마음 속에, 몸 속에 찍힌 채 지워지지 않는 무수한 풍경들, 우리들의 영혼 속에 채각채각 빠르게 넘어가는 그리움의 환등, 더러는 선명하게, 더러는 어렴풋하게, 더러는 천연색으로, 더러는 흑백으로, 더러는 무성으로, 더러는 슬로우 모션으로 명멸하는 꿈의 사진들—그 모든 것으로 만든 것이 〈삶의 공간〉이다.
김화영의 "공간에 관한 노트"중에서

도시민의 꿈과 재개발

서울의 9월 입추가 지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무덥게 느껴진다. 아마 모든 서울 사람 아니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심정일 것이다. 6.29선언 이후 민주화에 부풀었던 사람들에게 여름의 기나긴 장마, 노사 분규, 택시 파업, 오대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쾌지수를 더해주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측불허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불안, 그러면서도 기대되는 모든 속박에서의 해방, 마치 근대건축의 형태적 제약에서 풀려난 현금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형태와 공간의 추구를 향유할 수 있는 건축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쇄도하는 현실속에서 대안이 없는 미래……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88올림픽.
그것 역시 우리 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불안한 믿음과 같다. 과연 올림픽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건축은 독창적인 건축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88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곳에 재개발이 행해졌다. 과거의 건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는 우리 건축인들의 마음처럼 새로운 공간,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재개발이 행해진 곳은 확실히 깨끗하다. 새로 세워진 건물마다 수없이 늘어나는 환경조각, 소공원, 분수, 스트리트 훼니처(Street furniture), 조경……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도시문제의 표피적 해결, 재개발사업 시행자 위주의 도시 전체의 기능향상이 아닌 부분적 향상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전술한 요소들이 도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소도구인 것만은 사실이다.
대상건물들을 돌아보면서 건물사이의 소공원에 앉아 이 건물과 거리에서 생활하는 도시의 소시민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생활, 택시와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난, 공해, 주택난 등등의 지루하고 지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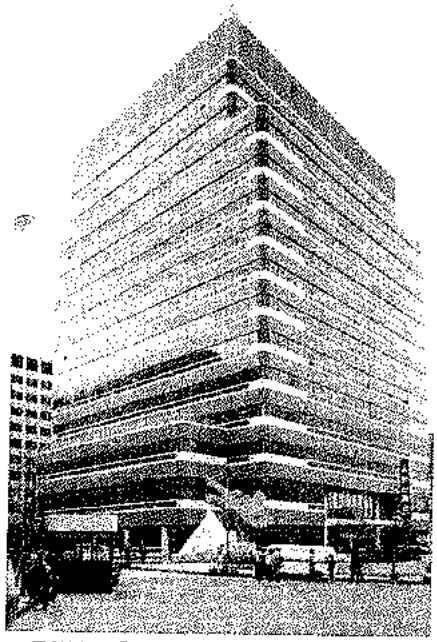


로얄빌딩 로비 ▲
로얄빌딩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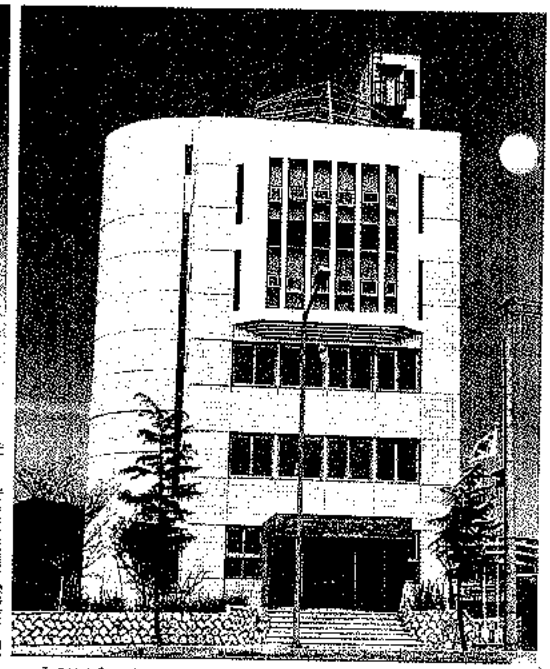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의 탈피—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마치 그 꿈들의 하나를 주택복권으로 해결하려는 듯이 복권판매소는 즐지어 있다. 또한 그들의 꿈을 대변하기나 하는 것처럼 재개발된 건물들 앞의 환경조각의 제목은 "비상", "비조", "위대한 탄생"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탄생되는 삶, 일상적인 삶에서 도약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는 없을까? 이상의 "날개"처럼 훨훨 날아 오를 수는 없는 것일까 하고 그들은 꿈을 키운다.
이런 상황하에서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
알란 파커(Alan Parker) 감독이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Midnight Express : 실제 의미는 탈옥)에서 주인공 입을 통해 "감옥, 수도원, 사원, 동굴"로 진해주는 바와 같이 사원이나 주거도 감옥으로 용도가 전화되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던 용기(容器)가 삶을 피폐케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처럼, 건축이란 행위는 우스개소리같이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영위케 하는 안락한 공간을 구축하는 행위인가 하고 의문을 품게 된다.
우리는 재개발이란 구실아래 일에 얽매인 노예를 위한 새로운 감옥을 건설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되뇌이게 된다. 특히 재개발의 주대상인 사무소 건축은 업무 능률을 배가시키기 위해 교모하게 조작된 공간적 도구내지는 창살없는 감옥의 구실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에 의해 그 건물의 기능의 우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물론 많은 건축가들이 재개발을 통하여 사무소 근무자와 도시민들에게, 제한된 조건속에서 그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한번쯤은 전술한 문제에 대한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무소 건축의 외형이나 외부 조경, 로비 부분의 처리 등에서는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시도들이 보이고 있으나 정작 사무소 근무자 개개인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무소 실내환경의 개선—오피스 시스템이나 훠니처(System Furnitrue) 같은 시스템은 전자에 비해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 건축을 감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안락한 근무처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제약과 변수가 있으나 건축가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되는 우리의 내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건축의 미래를 꿈꾸어 보면서 5월호에 소개된 사무소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형태에서의 해금(解禁)

5월호에 실린 건물들이 현금 건축되는 사무소 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건축물의 특징을 완벽하게 표출하는 것은 아니나, 비록 단편적인 측면의 나열이기는 하지만 어떤 공통분모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Less is More"라는 근대건축의 형태적 제약에서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세종문화회관 후면의 분수가 있는 광장에 서면, 분수의 푸른 물과 튀어오르는 흰 물방울이 입면에 투영된 것같은 건축물과 만나게 된다.
이 건물이 로얄 빌딩으로, 현금 건축되는 재개발 지구 사무소 건축의 형태적 특징의 공약수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건물이다.
외형에 나타난 대칭적 매스, 수평적 강조와 수평으로 변화하는 연속창, 코너 부분의 곡면 처리, 입구 부분에 대칭성을 강조하는 두개의 기둥, 과거 건축물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화려한 색채, 푸른 색의 건물과 보색 대비되는 붉은색의 환경조각—"비조"(한 도룡 작)라는 제목에 걸맞게 마치 날아오르려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건물의 형태.
이런 형태요소들은 과거 사무소 건축의 박스화된 형태제약에서 해금을


▲로얄빌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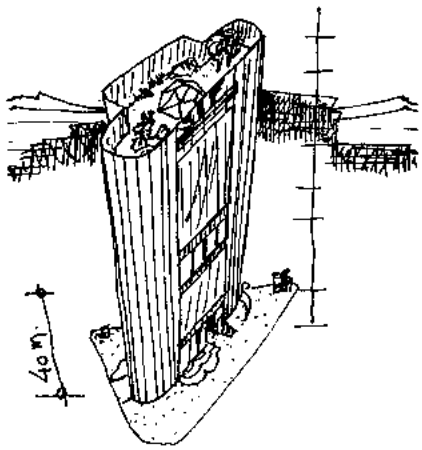
▲반도패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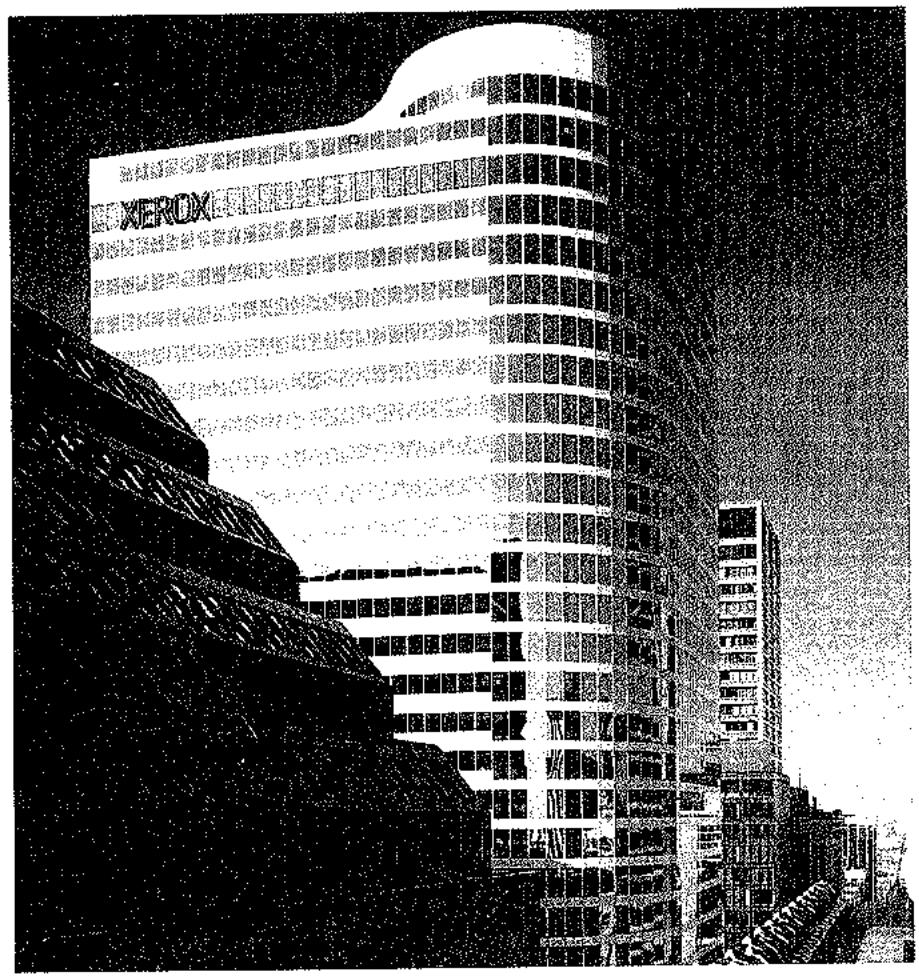

▲흥한건축 전경

주장하는 요소들이다.
물론 이 요소들은 로얄 빌딩뿐만 아니라 반도패션 빌딩 및 기타 건물에서도 부분적으로 표출되는 요소들이다.
이 중에서 현금 건축되는 사무소 건축에 자주 사용되는 형데어휘로 건물의 전체나 부분적 형태에 곡면을 도입하는 것과 수평적 구성의 강조를 들 수 있다.
특히 곡면적 요소 도입의 유행적 경향은 5월호에 게재된 건축물에서도 로얄 빌딩, 서울투자금융 사옥, 흥한건축 사옥, 중외제약 사옥, 반도패션 빌딩, 미가람 빌딩이라는 5개 건물에 나타난 징후만으로도 그 열기를 감지 할 수 있다. 한국 근대건축의 사무소 건축을 직선지향적 건축이라고 지칭한다면 현대 한국의 사무소 건축은 곡선지향적 건축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곡선지향적 경향은 사무소 건축에서 경직된 형태의 탈피와 유연한 이미지의 부여, 도시적인 매끈한 감각의 고양, 시공기술과 건축재료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이미지 부여 등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에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필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건축물의 형태자체가 상업적 요인이 되는 현금의 사회적 입장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평적 요소의 도입 역시 사무소 건축의 큰 흐름중의 하나로 로얄 빌딩, 중외제약 사옥, 반도패션 빌딩, 한일투자 빌딩, 미가람 빌딩에서 나타난다.
이 경향은 마이 카 시대를 맞이한 유체역학적인 속도감각의 형태 디자인에의 부여, 탈 근대건축의 신고전적인 조적조 디자인 어휘에서의 차용 등에 연유한다고 생각되며, 이 수평구성과 함께 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한 추세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창이나 벽면에서 혼합재료의 사용에 의한 다양한 모양의 줄무늬를 만들어 입면적 이미지에 다원적인 감각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향은 80년초 헬무트 얀(Helmut Jahn) 의 제록스 센타(Xerox Center : 1977~80) 등에 의해 촉발된 영향과 복합된 사회현상에 따른 다원적 요구가 일치하여 만들어 낸 경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에도 형태에서의 요철이나 색채의 강렬함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각적 호소를 하는 경향이 사무소 건축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88올림픽을 맞이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급격한 재개발과 이에 부수된 사무소 건축의 과잉공급으로 유발된 부수적 현상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추측된다.
또한 기둥같은 건축적 요소가 입구를 상징하는 형태어휘로도 사용되고 있다.

공간에서의 해금

사무소 건축에서의 형태적 다양성은 형태자체뿐만 아니라 공간적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큰 가든(Sunken Garden), 덱크(Deck) 등 외부 환경적 요소와 아트리움(Atrium) 과 내부 공간에서의 과감한 오픈 등 내부 공간적 요소가 그것으로 내외부 공간에서의 강한 공간적 확대감과 다양한 공간감을 유발시켜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이미 서구 근대건축에서 시도된 수법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사무소 건축에서는 경제여건상 최근에 와서야 시도되고 있다.
이런 공간적 수법과 함께 환경조각 등의 설치, 설비구조의 오브제화, 스트리트 훠니처 등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체험케 하는 부차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공간적 현상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여유있는 생활감각에 부응하는 여유있는 공간의 필요성, 도시민의 다양한 감각성향에 부응한 다원적 공간의 필요성, 오픈 스페이스가 낭비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위한 에너지 재생산적 공간이라는 인식변화, 공간의 다양한 구성에 의해 유발되는 건축물의 상업적 가치의 상승, 지하 아케이드 공간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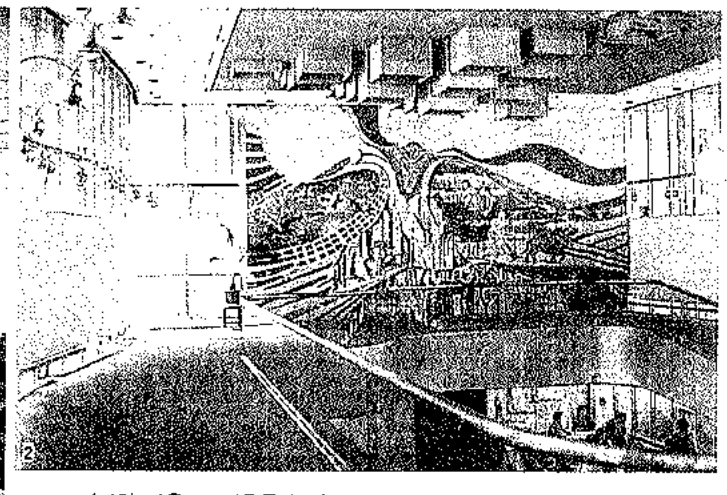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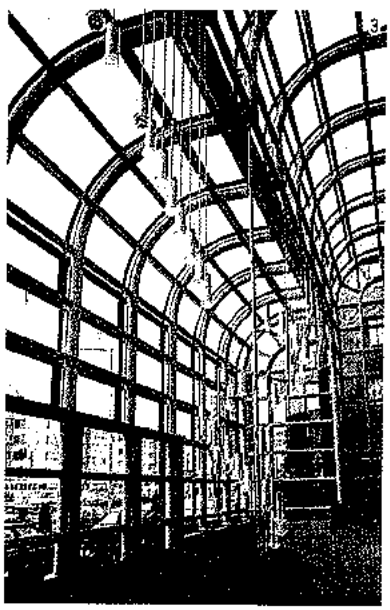
▲제록스센터 / 헬무트 얀 (197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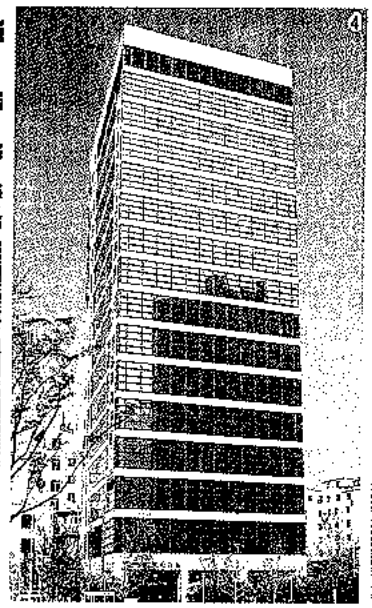
▼서울투자금융사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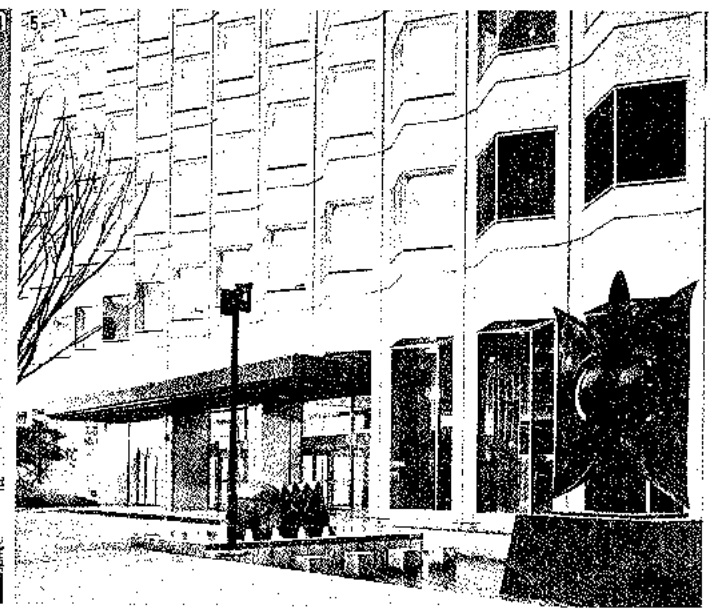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공간적 시도를 갈구하는 건축가들에게도 즐거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 가 "도시는 만남의 장"이라고 설파한 바와 같이 이런 다양한 공간적 조작과 요소들은 도시민의 생활에 자극을 주고 만남과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주분리에 의해 도심부가 다만 직장이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필요악적 장소가 아니라 철새가 한강에 다시 되돌아오듯이 도시의 매력을 발산시켜 도시적 삶과 도시적 분위기 그리고 도시적 건축과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5월초에 개재된 건물들은 크게 종로동 C.B.D 에 위치한 사무소 건축과 구로공단역에서 시흥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사무소 건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종로, 을지로 통에 위치한 재개발의 의해 건축된 사무소들은 도심부의 건축물답게 다양한 내외부 공간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조각 및 스트리트 훠니처 같은 공간적 소도구들도 비교적 잘 조화되어 있고, 또한 내외부 공간이 비교적 개방적이다.



1. 미가람 사옥 2. 서울투자금융 하늘공원
3. 반도패션빌딩 아트리움 내부 4. 한일투자금융 전경
5. 한효개발 선큰가든







로얄 빌딩, 한효개발 사옥의 선큰 가든이나 서울투자금융 사옥의 "하늘공원" 및 1층에서의 공용통로, 한효개발 사옥의 약간 선큰된 분수가 있는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간이 대기의자겸 아케이드 입구의 파이프형 난간 등과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된 환경조각과 석조의 정육면체 의자 등이 친근감을 유발하며 그 공간으로 도시민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로비나 "하늘공원"에서 2개층을 오픈한다든가 천정에 거울효과의 천정재를 마감하여 공간의 확장과 중폭효과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시외곽에 위치한 사무소 건축에서도 아트리움, 선큰가든, 퍼골라가 있는 덱크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선큰 가든이 건물 후면에 위치한다든지 덱크화된 휴게공간을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케 함으로 일반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도패션 빌딩같이 아트리움을 전면에 강하게 표출시키는 건물은 시외곽에서는 좀처럼 보기힘든 시도라고 생각되나, 환경조각등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런 아트리움은 내외부 공간의 중간적 영역이면서 계절적 요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공간적 형태적 수법으로 우리나라의 상업용 업무용 건축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반도패션 빌딩의 아트리움은 아트리움과 옥내 선큰 가든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재개발이 도심부 건물에서는 보다 개방적인데 반해 시외곽으로 가면 폐쇄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도전체의 기능향상이 아닌 부분적 향상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도심과 시외곽이라는 지가 및 임대료 등의 경제적 요인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오픈 스페이스를 사유화한다는 관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능에서의 해금

"기능"이란 사람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물건들의 여러 측면 중에서 겨우 한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가에타노 페스체 (Gaetano Pesce) 의 말처럼

중외제약사옥 전경▲

근대건축의 합리적 기능주의는 현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즉 건축에서의 기능적 의미는 기능위주가 아닌 형태및 공간위주로 경사하고 있으며, 근대에 있어서 기능의 의미는 탈색되어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겸 건축가인 에또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에 의해 주도된 멤피스(Memphis) 운동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는 기능이란 하나의 측정단위가 아닌, 삶과 대상을 이어주는 최고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하며 기능은 형태에 따라 창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념이 현재의 실내장식이나 가구 및 조명 등 소규모의 공간과 제품에 한하고 있지만 구미에서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구미의 경우처럼 우리의 건축은 기능의 과격한 확대해석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더라고 기능의 의미는 근대건축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사무소 건축에서 아트리움이나 "하늘공원", 선큰 가든 같은 것을 근대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로지 일에만 충실하게 매달려 근무에 열중하여야 할 사무소 근무자들에게는 업무집중력을 방해할 요소이지(너무나 일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업무능력을 촉진시키는 요소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즉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중진국 내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정의 우리의 과거 실정으로 본다면 휴식이란 사치스러운 요소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노사관계에서 보여진 사용자 위주의 위계구성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복권되는 요즈음의 현실과 흡사하게 기능과 형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무소 근무자들의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건축의 형태와 공간에 반영되는 것이다.
사무소 건축은 업무기능 뿐만아니라 휴식의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는 기능적 의미의 변화가 오늘의 "하늘공원", 아트리움, 선큰 가든, 휴게용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내외부 공간에서 환경조각, 스트리트 퍼니처가 공간과 조화되는 도시적 삶과 건축이 일체화되어 성숙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 론

5월호에 게재된 업무용 건축물들을 돌아보면서 현금의 업무용 건물들이 과거에 비해 형태,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적 발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발전의 계기가 되는 올림픽과 그에 부수된 재개발의 문제점들이 근원적으로 미해결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도시민과 그것을 다루는 건축가 및 행정가들에게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무엇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본다.
일본이나 구미의 건축이 올림픽이나 세계박람회 등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같이 우리의 건축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가지 제문제들은 민주화된 사회와 함께 변증법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으며, 우리의 생활감각에 맞는 도시적 삶과 도시적 건축이 창출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大都市 管理(2)

—都市의 管理問題—

盧椿熙
서울市立大学校 都市行政学科 教授

Report/Urban Management. by Ro, Choon-Hee

"

前回에서는 都市行政管理를 위한 都市의 本質을 비롯한 都市行政管理技術에 關하여 槪觀하여 보았다.
大都市 問題란 東西洋을 막론하고 정도의 差는 있을지라도 공통되는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따라서 美國의 뉴욕시와 서울시의 都市問題를 分野別, 機能別로 비교·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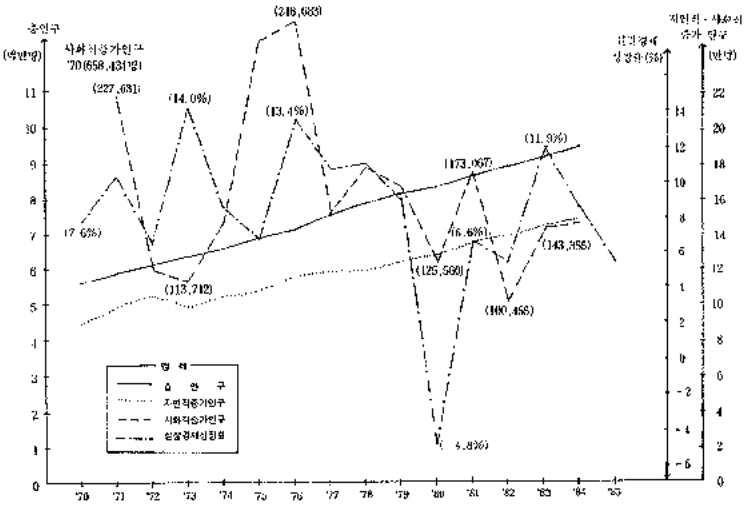
1. 都市歷史

먼저 뉴욕시와 서울시의 歷史를 살펴보면 뉴욕시는 지금으로부터 360년전(1626)에 처음으로 이민온 사람 200명이 定着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도 뉴욕시의 都心이 되는 맨하탄을 1626년에 인디안으로부터 단돈 24불과 담요 한장으로 매입하였다고 한다.
맨하탄(都心)의 길이는 남북으로 13마일(20.8km)이나 되고 동서로 폭이 2마일 (3.2km)정도이다.
그러나 서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전에 漢城府의 人口는 면적이 약 16㎢인 4大門안에 10만명으로 시작된 오랜 역사를 지닌 都市이다.

2. 都市形態

뉴욕의 생김 생김은 마치 고구마 모양처럼 되어 있으며 都心인 맨하탄을 가운데 섬처럼 두고 양쪽으로 East 강과 Hudson 강이 흐르고 있으며, 동쪽에서 都心을 건너가는 다리가 11개가 있다.
서울의 생긴 모양은 동서남북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분지인데 반하여 뉴욕시는 산이 없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광활한 평야지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도시개발측이 얼마든지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남북을 잇는 다리가 16개 있는가 하면 뉴욕시는 都心을 가려면 동서를 가르는 큰 교량은 네개 뿐이다.
그러나 이 네개 교량은 一, 二층으로 되어 있어서 一층에는 지하철이 二층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입체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생김, 생김에서 본 것과 같이 뉴욕시는 바다가운데 하나의 섬처럼 길고 넓게 자리잡고 있는 해안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面積에 있어서는 780㎢이고 서울의 面積은 627㎢로써 서울의 면적보다 153㎢가 넓은 도시이다.
그러나 뉴욕시는 지형이 길고 넓은 평지로 이루어진 도시로 그 可用土地面積이 많은데 비하여 서울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와 산악이란 지형상의 조건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대부분이어서 토지이용문제가 더욱 효율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뉴욕시의 都心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5번가가 기준이 되어 동서로 구분된다.(그림 1-1참조)
그리고 都市 한복판에 유명한 큰 都心公園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行政區域을 보면 서울은 17개 區이나 뉴욕시는 5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하탄區 면적은

〔그림1-2〕 經濟成長과 人口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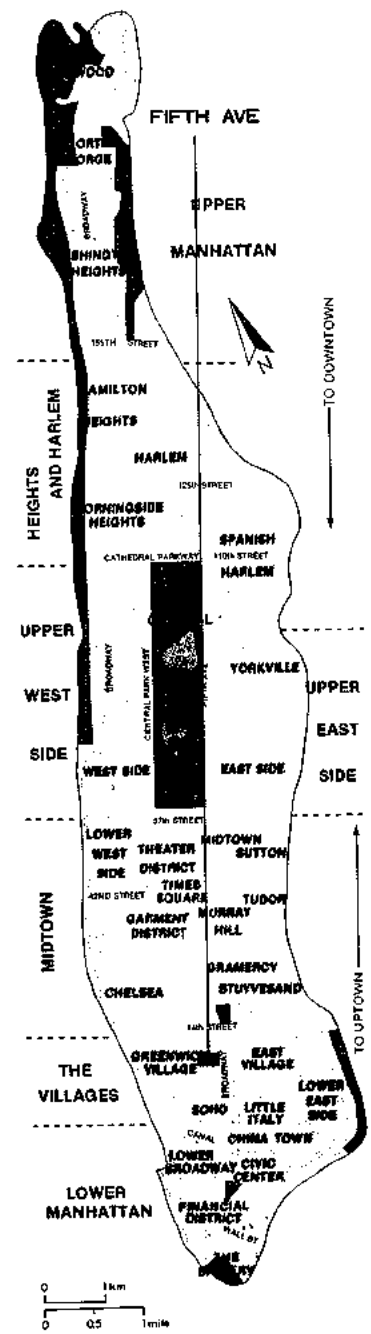


資料 : 1. 서울시, 서울시통계연보, 각 년도
2.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号

23평방마일(59㎢)에 人口
1,428,285명이 거주하고 있고
브르크린(Brooklyn)區의 면적은
72평방마일(186㎢)에 인구
2,230,938명이 살고 있고
퀸즈(Queens)區의 면적은
109평방마일(282㎢)에 인구
1,891,3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브롱크스(Bronx)區는
42평방마일(108㎢), 인구 1,168,97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스텔드아일랜드(Staten Island)의
면적은 55평방마일(142 ㎢), 인구
352,121명이 살고 있다.

3. 人口와 經濟

도시의 인구증가는 그 나라의
經濟成長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살펴
보려고 한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총인구는 1970년 550만명이었던
것이 1985년에 950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시인구문제는 그 도시의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문제된다고
생각된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서울의
인구증가추세를 보면 1970년 1년동안
무려 658,434名이란 많은 인구가
서울로 유입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6년에 248,683名,
1980년에는 125,560名으로
감소하다가 1981년에 173,067名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
100,455名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3년 143,355名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율과 비교해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이 유입된 1970년
경제성장률이 7.6%, 1976년
13.4%, 1980년 -4.8%, 1981년
6.6%, 그리고 1983년이 11.9%로
다소 기복은 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서울시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높으면
서울로 몰려 오는 사람이 많고
경제성장이 낮으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그 원인은 都市의 本質이
利益이라는 都市의
根本屬性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企業의 目標가 利潤인 것과 같이
都市도 그 핵이 이익임으로
경제성장이 되면 많은 서비스 수요의
창출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經濟産業面을 分析하여 보면
뉴욕시는 美國全體經濟의 15%를
점유하고 있다고한다. 서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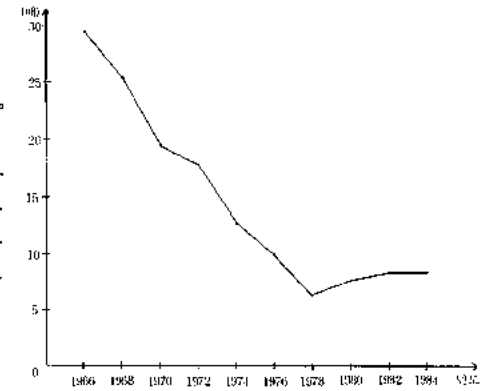
〔그림1-1〕 CITIPAK GUIDE : NEW YORK

〔표 1-1〕 1人当 GNP 비교(韓国·美国)

(단위 : $)

나라 \ 년도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한 국	125	169	248	316	535	800	1,406	1,589	1,773	2,044
미 국	3,846	4,352	4,841	5,650	6,707	7,879	9,721	11,996	13,626	15,949
미국/한국	30.8	25.8	19.5	17.9	12.5	9.8	6.9	7.5	7.7	7.8

자료 : 経済企劃院, 主要海外経済指標, 1986.



우리나라 전체 GNP의 30%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 1人堂 GNP를 비교하여 보면 (표 1-1)과 같다. 1966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1人堂 GNP는 125불이였고 미국의 1人堂 GNP는 3,846불이여서 미국의 1人堂 GNP는 한국의 30배였던 것이 1968년 25.8배, 1970년 19.5배, 1972년 17.9배, 1974년 12.5배, 1976년에는 한자리 수인 9.8배, 1978년에는 6.9배 1980년에 7.5배 그리고 1984년에는 7.8배로 점차 그 격차가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와의 다른 점은 우리는 아직 모든 도시기능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아직도 모든 도시기능이 未分化 상태에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도시마다 자기 고유의 도시기능을 각각 가지고 있는 完全 分化過程을 거쳤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경우 行政은 워싱톤에 무역은 뉴욕에 자동차는 이트로이트, 그리고 공업은 시카코로 완전히 분화되어 있으나 (표 1-2)와 같이 우리는 전국의 기업체본사가 69.2%, 국제무역이 96.3% 교육 47.2% 정보 78.1% 유통 69.0% 금융 47.7% 그리고 인구가 23.8%가 서울에만 편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뉴욕시의 직종별 취업분포를 분석해 보면 (표 1-3)과 같이 1985년 현재 서비스업의 종사자는 전체의 29.4%이고 무역이 18.2%, 정부고용이 15.8% 그리고 소방이 14.7%, 운수 및 공공시설이 6.8% 건설이 2.9%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29%로 단연

〈표 1-2〉 中樞管理機能의 서울 偏中

(서울의主要中樞管理機能集積現況)(単位 : 全国對比, %)

	서 울	地方大都市			
		釜 山	大 邱	光 州	大 田
中央政府機関 및 公共団体	83.8	0.9	0.0	0.1	2.4
企業体本社	69.2	6.3	2.1	0.7	0.9
國際貿易	96.3	3.2	0.1	0.0	0.0
教育	47.2	11.2	9.9	7.0	5.1
情報	78.1	3.2	3.6	2.3	4.8
流通	69.0	9.7	7.8	1.6	3.2
金融	47.7	8.0	7.3	4.1	3.9
人口	23.8	8.7	5.0	2.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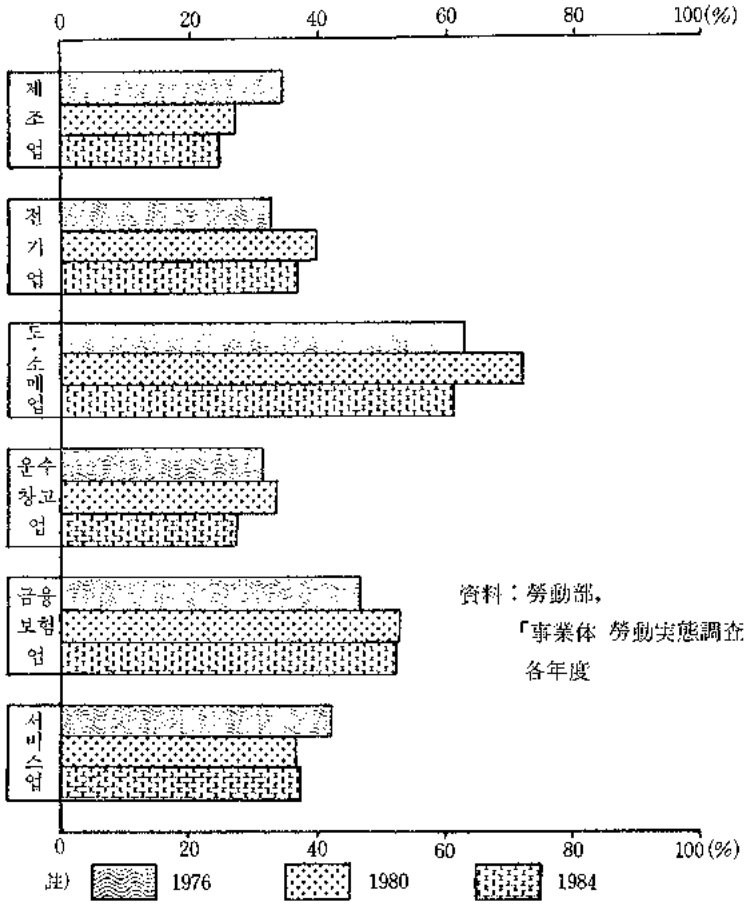
資料 : 國土開発研究院, 1983年 基準

〈표 1-3〉

Employment in New York City by Sector, June, 1981, 1984 and 1985
(in thousands)

	June, 1981		June, 1984		June, 1985	
Sector	Level	%	Level	%	Level	%
Services	937.2	27.7	1,011.9	29.3	1,026.0	29.4
Trade	614.4	18.2	631.8	18.3	636.0	18.2
Manufacturing	496.0	14.7	436.6	12.7	425.2	12.2
Government	515.5	15.2	533.1	15.4	549.8	15.8
FIRE	475.5	14.1	502.2	14.6	510.4	14.7
Transportation & Public Utilities	258.4	7.6	238.8	6.9	236.4	6.8
Construction	84.1	2.5	96.0	2.8	99.8	2.9
Total	3,381.1	100.0	3,450.4	100.0	3,483.6	100.0

Source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te : Mining is include in the services sector
Data may not add to total due to rounding in the original data.



資料：勞動部,
「事業体 勞動実態調査報告書」,
各年度

〈그림 1-3〉 全国対比 서울市 産業別 集中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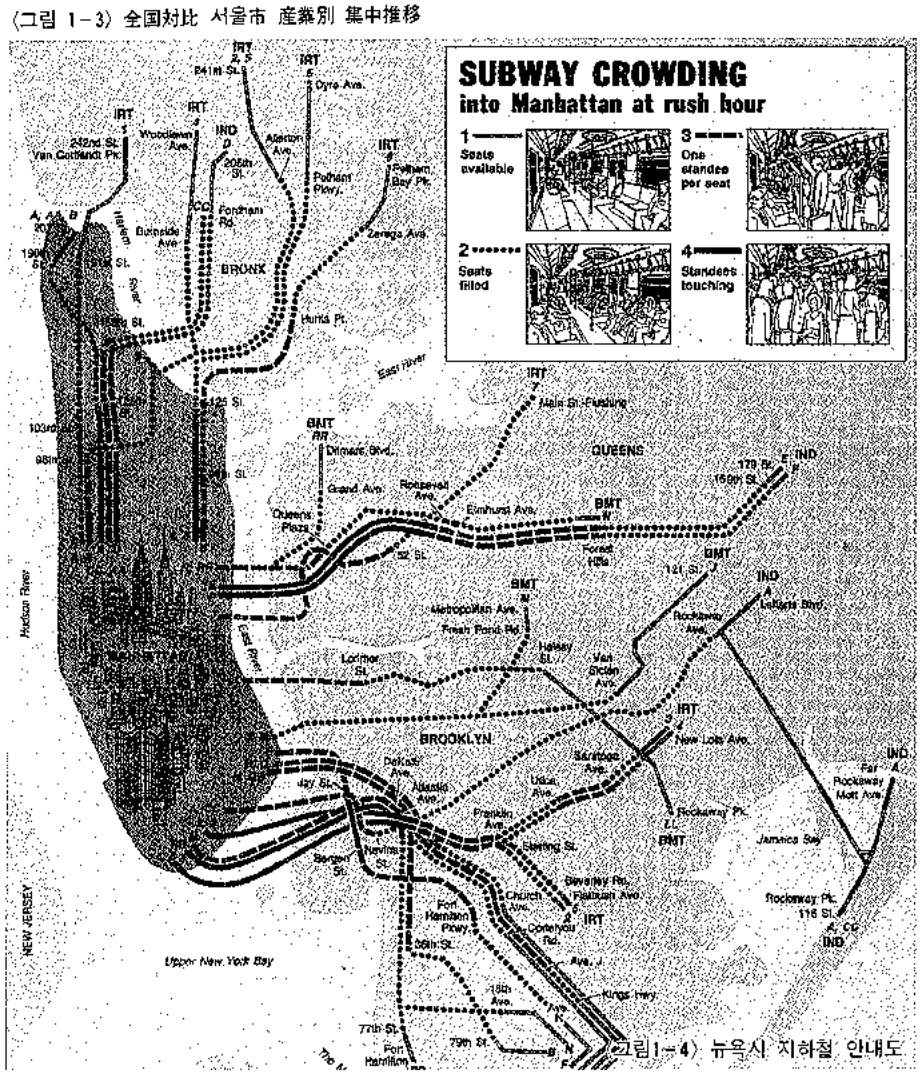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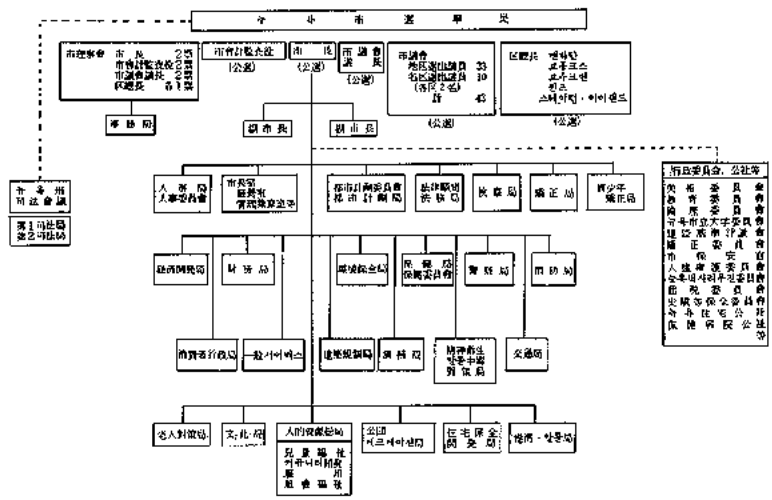
그림1-4) 뉴욕시 지하철 안내도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소방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14.7%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과 같이 서울市의 産業別 集中推移를 분석하여 보면 제조업이 20%, 전기업이 39%, 소매업이 59%, 운수창고업이 20% 그리고 금융·보험업이 42% 서비스업이 39%이다. 특징적인 것은 뉴욕시는 소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4.7%나 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는 1987년말 서울시 主要業務計劃을 보면 서울市 全體人力의 4%인 2,674名이 소방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뉴욕시의 소방 14.7%의 4배 정도나 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都市交通

交通問題로는 뉴욕시의 경우 市에 등록된 자동차만 100만대인데 비하여 서울시의 자동차는 약 50만대이다. 도시교통의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都心으로 몰려드는 자동차 문제인데 서울은 都心이 江北에 있어서 한강을 건너 다니는 南北間의 교통문제이지만 뉴욕의 경우는 都心인 맨하탄을 가려면 東西로 Hudson 강이나 East 강을 건너야만 都心을 갈 수 있게 된다.
뉴욕은 都心을 잇는 교량이 11개인데 비하여 서울은 남북을 연결하는 교량이 모두 16개나 된다. 그런데 뉴욕시의 교량 11개중 4개는 해저터널이며 또한 대부분의 교량이 三層構造로 입체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서울의 한강교량과 다른 점이다.
大都市의 都市交通은 통근을 주축으로 한 一定한 시간의 교통수요와 都心을 向하는 求心性을 특징으로 하기때문에 첫째 機動性, 둘째 高速性, 세째 多量輸送性이 기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뉴욕시의 大都市交通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하철망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이 외곽에서 들어오는 지하철망은 모두 都心인 맨하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출·퇴근시간에 어느 노선이 얼마나
복잡한 혼잡도를 가지고 있나를
분석한 것이다.
'1(═══)'두선이 그어져 있는 부문은
언제나 좌석이 있어서 앉아 갈 수
있는 노선으로 주로 변두리 지역에서
끝나고, '2(……)'점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그 곳에서 이미 좌석이 없다는
것이다.
'3(▪▪▪)'사각으로 연결된 부문은
좌석 하나마다 한사람이 서서 간다는
것이다. '4(▬▬)'검은선은 사람이
많이 서있어서 비비고 다녀야 하는
혼잡도 상태를 나타내는 노선을
말하게 된다.
이와같은 네가지 혼잡도를 살펴볼 때
변두리에서는 앉아서 오다가 都心이
가까워질수록 그 혼잡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교외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거리
고급급행열차를 운행하여 都心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都市交通施設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담당·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뉴욕의 都市交通問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首都圈交通廳,
M.T.A(Metropolitan
Authority) 와 交通廳,
T.A(Transportation Authority)
그리고 民間鐵道會社가 운영되고
있다.
M.T.A는 뉴욕시 주변일대의 광역적인
지하철로서 交通機能을 담당하고
있고 T.A는 버스와 지하철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單一機關으로
都市交通機能을 효율적으로
一元化하여 대중교통기능을 담당하는
모체가 되어 있다.
교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人力을 보면 뉴욕시의 M.T.A에
근무하고 있는 人員은 모두
68,242名 T.A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41,481名이고 버스는
3,800臺, 지하철차량수는 6,262臺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지하철차량은
1985년 현재 656臺이어서 뉴욕은
서울보다 10배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1984년 4,292名,
버스는 8,000臺이다. 버스의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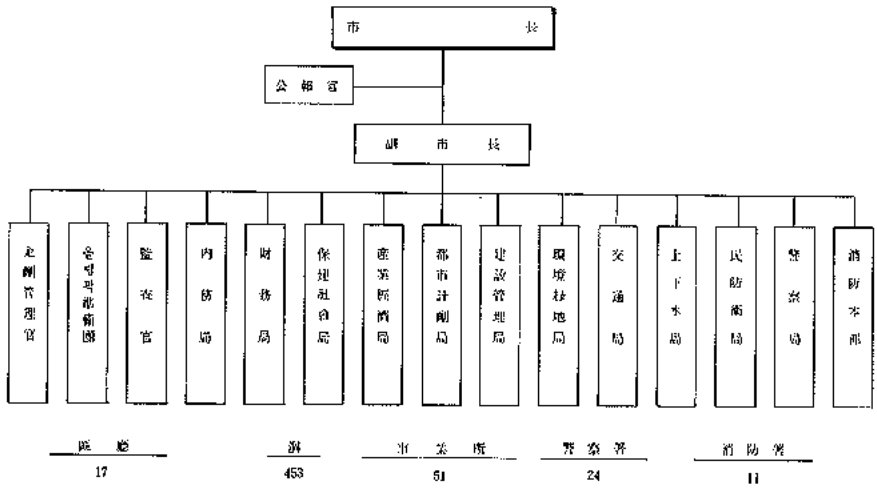


(그림 1-5) 뉴욕市政府機構図(1980. 10)
資料 : Tokyo. New Sympoeilum on Urban Probieme Tokyo, 1980

뉴욕이 3,800臺인데 비하여 우리가
2배가 훨씬 많은 셈이된다. 여기서
우리나라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는 버스를 90개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하철과
아무런 연계기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용인구를
보면 뉴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전체 교통인구에서 60%에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는 지하철 이용률이
16%에 머물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65%에 이르고 있음으로
서울시의 大衆交通手段은
명실상부하게 90개의 개인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서 公共性이 미흡해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어느 나라 都市든지 都市問題는
있게 마련이다. 뉴욕의 都心은 물론
道路率에 있어서 35%나 되고 서울은
16%에 지나지 않지만 뉴욕의 都心인
맨하탄의 교통혼잡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업이 등장하여 재미를
보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업이란 都心의
交通混雜과 정체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전거 심부름꾼(Bike
Messenger)이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변화되어 가는 都市化 情報를
지금과 같은 都心交通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多樣化된
都市社會, 企業의 여러가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는 짧은 시간안에
수백만 달러가 거래되는 중요한
계약문서의 송발을 비롯한 중요한
서류나 소포 및 광고물의 전달은
시각을 다투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편제도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빠른
자전거를 타고 등에 짐을 짊어지고 이
빌딩 저 빌딩으로 뛰어다니는
심부름꾼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뉴욕시와 서울시와의
면적·인구·경제·교통문제등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와같은 都市들이 완전한
유기체로써 역할을 다할려면 이를
관리·운영하는 機構와 사람 그리고
資源인 예산이 문제된다.
따라서 다음은 뉴욕시의 機構와 예산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人力,
운영방법을 현지에서 연구·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 都市行政機構

먼저 뉴욕시의 조직기구는 (그림
1-5)와 같이 1市長,
3副市長(政策·經濟開發·運營)과
35개 局 그리고 50개 각종
專門委員會가 있으며 人力으로서는
1986년말 현재 221,46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市의 경우는 1市長, 1副市長,
11개 局(그림 1-6참조)에 27,801명이
종사하고 있어서 人力面에서 보면
뉴욕시는 서울시보다 10배나 되는
定員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그림 1-6〉 서울特別市 行政組織 機構表

수 있다. 機構面에서 뉴욕은 35개 局 以上이 되나 서울시는 11개 局이어서 뉴욕이 기구면에서도 서울시의 3배 이상이나 큰 機構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면을 살펴보면 뉴욕시의 1986년 예산액은 202억불로써(18조억원) 서울시 예산의 20배나 된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4)과 같다.

뉴욕시 세출구조를 보면 사회복지와 문화, 체육진흥비가 전체의 60% 이상이나 되는데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는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비가 2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지역개발비가 33.9%로 大衆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뉴욕시는 5.7%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조적이다. 이는 아직도 서울시는 건설단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일반행정비가 뉴욕시의 倍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어느나라 都市든지 처음 건설단계에서는 投資費가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도 아직 지역개발이나 주택,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들을 건설 확장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의 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알찬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개 도시기반시설은 한번 계획 후 건설된 것은 적어도 30~40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이용되게 됨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이용만 하게 되지 투자·건설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뉴욕시의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100년이란 오랜 歷史를 가지고 계획, 투자된데 반하여 우리나라 서울의 현대적 도시기반시설은 불과 20년이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뉴욕시의 都市開發行政은 벌써 개발단계를 거쳐 再開發 그리고 오늘날에는 保存이란 성숙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서울은 아직도 개발과 재개발단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조직기구라도 그곳에서 조직과 기구를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됨으로 뉴욕시와 서울시의 도시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6. 都市서비스

(표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 서울시의 인구는 2,445千名이었으며 이를 서비스하는 공무원은 10,798명으로 공무원 1人當 서비스인구는 226명인데 비하여 뉴욕시의 경우는 인구 7,781千名에 공무원 199,539명으로 공무원 1人當 서비스인구는 39명으로, 이를 서울시와 비교하면 뉴욕시가 6배 이상이나 더 많은 서비스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에는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1人當 國民 204명을 서비스해야 됨에 반해 뉴욕시는 공무원 1人當 國民 36명을 서비스함으로써 보다 質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물론 서울과 뉴욕의 단순비교가 도시서비스공급 실정의 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도시환경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써 서울시의 洞의 실태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一個 洞은 보통 人口 2萬 내지 3萬명이 된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서비스 인력은 15명 내외로 동사무소 직원 한명당 1,000명을 서비스해야 하니 洞에 가서 인감이나 주민등본을 사본하러 가게 되면 불친절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인력의 절대 부족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것 뿐만 아니라 洞은 자기 고유의 사무가 아닌 적십자회비와 같은 위임사무가 전체의 6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같은 서비스라면 은행창구에서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할 정도로 도시서비스의 質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도시서비스는 앞으로 점차 都市經營原理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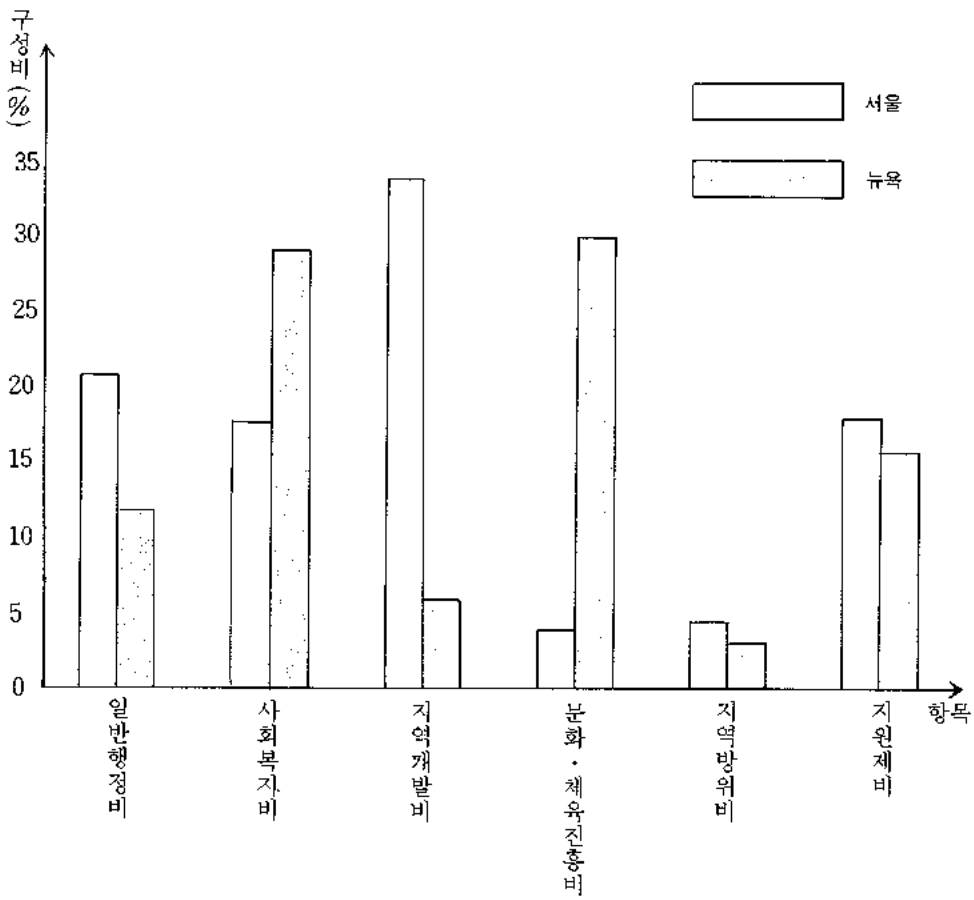
뉴욕시의 경우 都市交通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경제원리에 의하여 도시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都市交通, 주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보조원을 대폭 확보하여 주차단속 및 주차장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 봉급의 7~8배

〈표 1-4〉 '86 주요 세출예산 기능별비교(서울·뉴욕)

기능별 \ 시별	서울		뉴욕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천달러)	구성비(%)
총액	938,552	1,053,369	20,255,538	18,027,428,820
일반행정비	206,818	21.0	2,378,319	11.8
사회복지비	173,166	17.6	5,913,449	29.2
지역개발비	333,668	33.9	1,148,068	5.7
문화·체육진흥비	36,608	3.7	6,052,944	29.9
지역방위비	41,951	4.3	557,384	2.8
지원제비	175,870	17.9	3,143,227	15.5

자료 : 서울시, '8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 1986 및 The City of New York, The Green Book, 1986-87.



〈표 1-5〉 도시공무원 현황비교(서울·뉴욕)

(단위 : 명)

	년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서울	공무원(A)	10,798	14,827	18,915	25,421	39,605	47,197
	인구(B)	2,445,402	3,470,880	5,525,262	6,889,470	8,366,756	9,645,932
	B/A	226	234	292	271	211	204
뉴욕	공무원(A)	199,539	196,641	258,123	270,893	195,611	212,000
	인구(B)	7,781,984		7,867,760		7,071,639	7,648,000
	B/A	39		30		36	36

자료 : 서울시, 서울시통계연보, 각년도 및 The City of New York, The Green Book 1986-87.

이상의 벌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차단속을 엄하게 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철저한 이용자 부담으로 주차 및 교통시설을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과 다른 점이다.

7. 結 論

지금까지 뉴욕시와 서울시의 歷史, 人口, 面積, 經濟, 交通 그리고 도시시설과 관리능력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面積에 있어서는 뉴욕시가 서울시보다 조금 넓으며, 인구는 서울보다 훨씬 적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기구 및 인력은 서울의 10倍, 운영예산은 서울의 20倍나 되고 있음을 보았다.

도시의 성장단계면에서 서울은 아직도 開發과 再開發이 공존하는데 비하여 뉴욕은 이미 개발이 끝나 재개발을 거쳐서 보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都市管理技術을 보면 서울시는 아직 관리목표가 능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뉴욕시는 都市管理目標를 형평과 배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뉴욕시 도시운영관리가 衡平과 配分에만 치우친 결과 先後와 낭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뉴욕시 골목 골목에서 발견된다. 필요도 없는 정구장이 골목마다 만들어져서 비둘기와 개들만이 기어 노는 비능률적인 자원의 배분이 쉽게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뉴욕시의 10分의 1도 않되는 人力과 20分의 1밖에 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뉴욕시보다 더 많은 人口를 서비스하고 있다는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都市란 農村과 달라 복잡하고 다양하며 과밀한 시설과 사람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운영관리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양성, 육성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기반시설과 운영체도를 정착시키는데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된다.

雙楹塚을 通해서 보는 建築要素 몇 낱 小考

趙仁淑

건축사사무소 다리建築

Report/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Features through the Mural-Decorated Tumulus 'Ssangyong-Chong'
by Cho, In-Souk

■글의 차례■

1. 背景
2. 雙楹塚(Tomb of Twin Pillars)
3. 墓室에 나타나는 建築樣式에 관련된 要素
가. 八角石柱
나. 기둥·栱包·人字栱圖(壁畫)
다. 建物圖(壁畫)
라. 抹角藻井(Lantern Ceiling)
4. 맺는말

1. 背景

우리나라에서의 무덤의 변천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新石器時代에는 葬制, 靑銅器時代및 初期鐵器時代에는 墓制, 三國時代에는 古墳, 고려이후에 와서는 墓나 陵으로 변모해 왔다. 즉 古墳이란 '삼국시대의 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이 정의를 한다면 어떤 한정된 시대에, 어떤 형식을 갖춘 지배층의 墳墓라 할 수 있다.[1] 여기서 한정된 시대라 함은 부족사회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시기부터 支配, 피지배가 구분된 시기까지이며 火葬의 성행에 따라 고분의 築造가 쇠퇴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형식을 갖춘 지배층의 무덤이란 고분의 입지조건이나 墳丘의 外形이나 規模, 內·外部의구조, 부장품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有機的으로 결합되어 꾸며진, 형식을 갖춘 墳墓를 말한다. 古墳이 통제력이 강한 시기의 권력자의 심볼이었으니 이를 연구한다는 것은 當時의 시대상·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고분연구나 壁畫硏究 그 자체가 아니며 初學者로서 또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단지 문헌에만 의존하여 쓰는 글이므로 古墳의 무수한 내용중 어느 일면만 다룰 수 밖에 없다. 이에 수많은 고분의 例중 하나를 나름대로 선택하여 거기에서의 건축적인 要素에 관련된 몇가지만을 감히 이 글의 범위로 하는 것이다.

신라나 백제·가야에서도 많은 고분이 축조되었지만 삼국시대벽화고분(壁畫古墳)하면 고구려벽화고분이 연상될 정도로 고구려시대에는 많은 壁畫古墳이 築造되었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압록강의 만주쪽 지류인 혼강(渾江)유역의 桓仁지방에서[2]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가 서기 1세기경 압록강의 중류 북안 吉林省 輯安의 通溝로 옮겨 國家체제를 굳히고 王國을 출발하였다. 서기427년(長壽王 15년)에는 더욱 南쪽으로 내려와 대동강 유역의 平壤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서기668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멸망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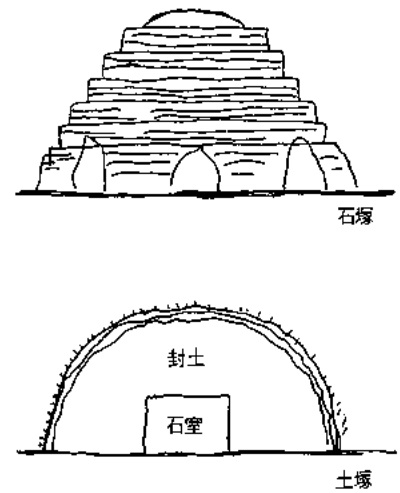
28왕조가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通溝와 평양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동안
알려진 고분의 수는 약 50여基에
달하고, 이들의 분포는 통구부근에 약
15基, 평양부근에 28基,
안악(安岳, 載寧平野)부근에 약
5基가 있다.[3] 28왕조에 50여基의
고분이란 점을 미루어 보아 古墳의
주인공은 王 및 거기에 버금가는
支配계급의 사람이라 보여진다.
5세기부터 7세기 까지의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생과 유행은 일찍부터
遼東지방 진출이나 대동강 하류
부근으로의 南下등을 통해
中國墓制와의 접촉에 의한
外來文化영향의 한 양상이라
하겠다.[1] 그러나 중국에서는
4세기경까지 고분이 축조되다가
5~6세기에는 공백기를 두고 다시
唐代에 와서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에 키나이(畿內)[5]에 당시의
豪族이나 首長의 무덤으로 보이는
장대하게 盛土한 墳墓(古墳)가
축조되었다.[6]

고구려의 古墳은 대체로 3期로
구분된다. 초기(4세기~6세기초)와
중기(5세기초~6세기)는 佛敎思想의
영향이 컸고,
후기(6세기말~7세기전반)는 道敎의
영향이 컸던 시기이다. 古墳에
그려진 壁畫의 내용에는 그들의
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古墳壁畫 및 벽화 그리는 풍습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생존당시와 같이 生活한다는
영혼불멸의 世界觀을 반영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思想의 변화를
벽화의 주제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고분의 위치를 보면 대다수가 산을
등지고 넓은 들을 앞에 낀 전망이
좋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그들의 생업이 농업이었음을 잘
말해준다.[7]
古墳의 基本形式은
橫穴式石室墳이며 外形은 石塚과
土塚으로 나뉘는데[8] 통구지방에는
石塚이 많았고 평양지방에는
土塚(封土墳)이 많았다. 특히
평양지방의 고분은 주로 大同江
北岸에 있는
龍岡郡·大同郡·江西郡등지에
산재해 있어 이 지역이 비교적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土塚과 壁畫裝飾法은 고구려가
일찍부터 樂浪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낙랑미술의 전통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한 퍼뜨리는 中間役의
과정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이 가지는 의의는 고구려가
중국에서 아이디어와 內容은
배워왔지만 중국적인 틀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형식을 만들어
중국고분공백기(5~6세기)에 東洋의
古墳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다.[9]
特히 建築的인 측면에서 볼 때,
木造建物의 細部樣式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西域의 영향을 받은
抹角藻井, 또는 기둥의 수법 등의
要素를 통해서 당시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의의가 크다. 이에
시기로는 中期에 해당되고 형식은
土塚인 雙楹塚을 통해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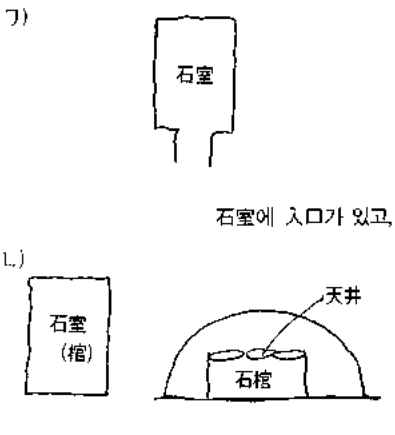
□주

1) 金基雄 : 한국의 고분문화,
博物館특설강좌, 1982.
2) 金元龍 : 고구려의 벽화고분
「韓國壁畫古墳」, 一志社, 1980, p.37.
3) 金基雄 : 壁畫古墳의 分布狀態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公社,
1982, pp.16~19.
4) 金元龍 : 고구려 벽화고분의 性格,
전게서 p.85.
5) 키나이(畿內)는 일본에서의
메이지(明治)이전 宮城부근의 直割地를
뜻하며, 본래 중국에서는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5백리 사방의 구역을
말한다.
6) 日本은 아스까(飛鳥)시대 以前을
原始時代라 구분하여,
죠오몽(繩文)시대, 야요이(彌生)시대,
고훈(古墳)시대까지를 넣고 있다.
古墳時代(4세기 중엽에서 6세기까지)에
와서는 農耕生活에 의해 경제력도
상승하고 村落의 형성도 진보되어
키나이(畿內)를 중심으로 국가로서의
통일형태를 갖추게 된다.
久野建·辻惟雄·永井信一共著/
秦弘燮역 : 原始時代「日本美術史」
悅話堂, 1978, pp.1~2.
7) 金基雄 : 壁畫古墳의 構造形式,
전게서 pp.19~20.
8) 石塚은 2~3단에서 5단정도로 큰 돌을
쌓아올린 피라미드형 積石塚이며
土塚(封土墳)은 入口와 연도(羨道)가
달린 橫穴式石室墳을 封土로 덮은
것이다.



〔그림 1〕

횡혈식석실 과
수혈실석관(竪穴式石棺) 의 구분은
入口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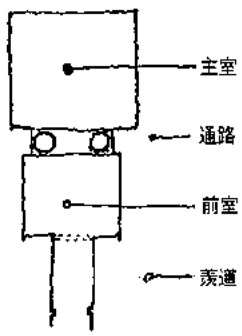


〔그림 2〕

연도(羨道) : 墓室에 이르는 길
9) 金元龍 : 고구려의 벽화고분의 性格,
전게서 p.85.
金元龍 : 고구려의 時代槪觀
「韓国美術史」, 汎文社, 1968,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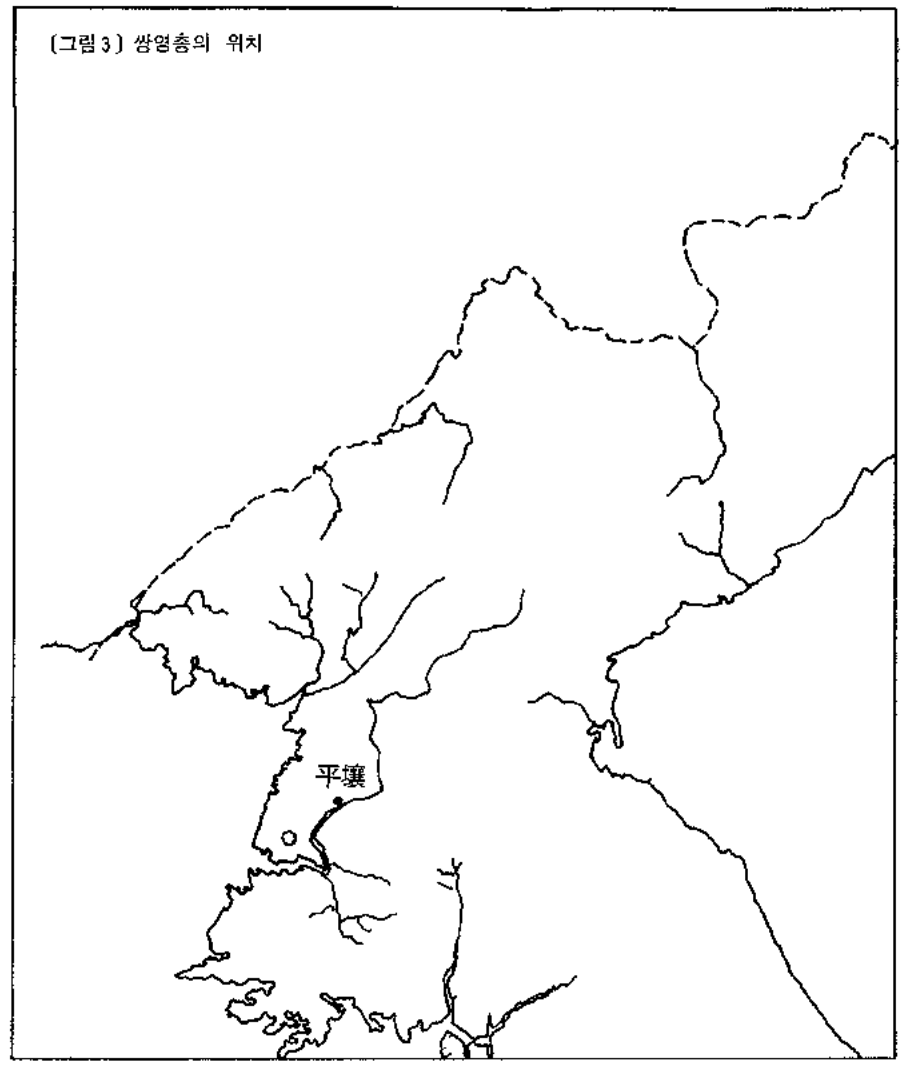
2. 쌍영총(Tomb of Twin Pillars)

대동강 유역의 용강군 지운면
眞池洞에 있는 雙楹塚은 한 쌍의
기둥(楹 : 기둥영)이 있어 그렇게
命名된 것이다.
築造時期는 고구려의 全盛期에
해당하는 6세기 전반이라 추정되며
中間墳墓중 초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古式의 土塚이다.[10]
墓室의 향은 南向이며 내부구조는
횡혈식석실로 前室과 主室(玄室)로
구성되는 二室墳이고[11],
통로(通路·通道)에는 한 쌍의
八角石柱가 서 있다.



〔그림 4〕

〔그림 3〕 쌍영총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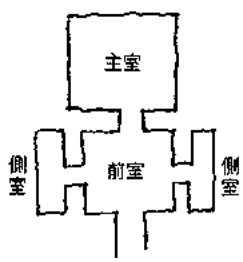


묘실의 재료는 돌이며 돌을 쌓아 만든
벽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표면에
墨線과 彩色을 使用하여 壁畫를
장식했다.[12]
土塚(封土墳)의 墳丘에는 흙을
덮고 잔디를 입혔는데[13] 이는 묘실의
보강 및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무덤이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벽화의 內容은 多樣하나(그림7,8)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實測圖를
토대로 묘실의 규모 및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14]

□주

10) 金元龍 : 雙楹塚「韓國美術史」
汎文社, 1968.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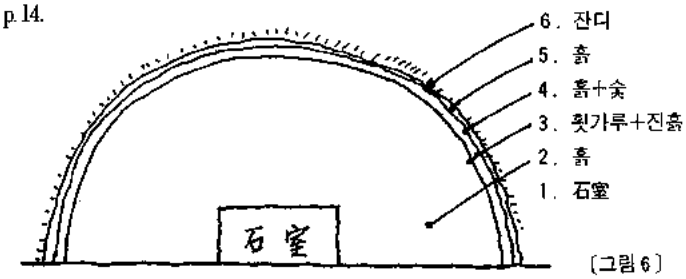
11) 초기의 土塚에서 연도나 전실 좌우에
側室을 두던 구조가 中期에 와선
側室이 거의 없어지고 前室과 主室의
폭이 거의 같아진다.



〔그림 5〕

12) 安輝濬 : 고구려의 회화「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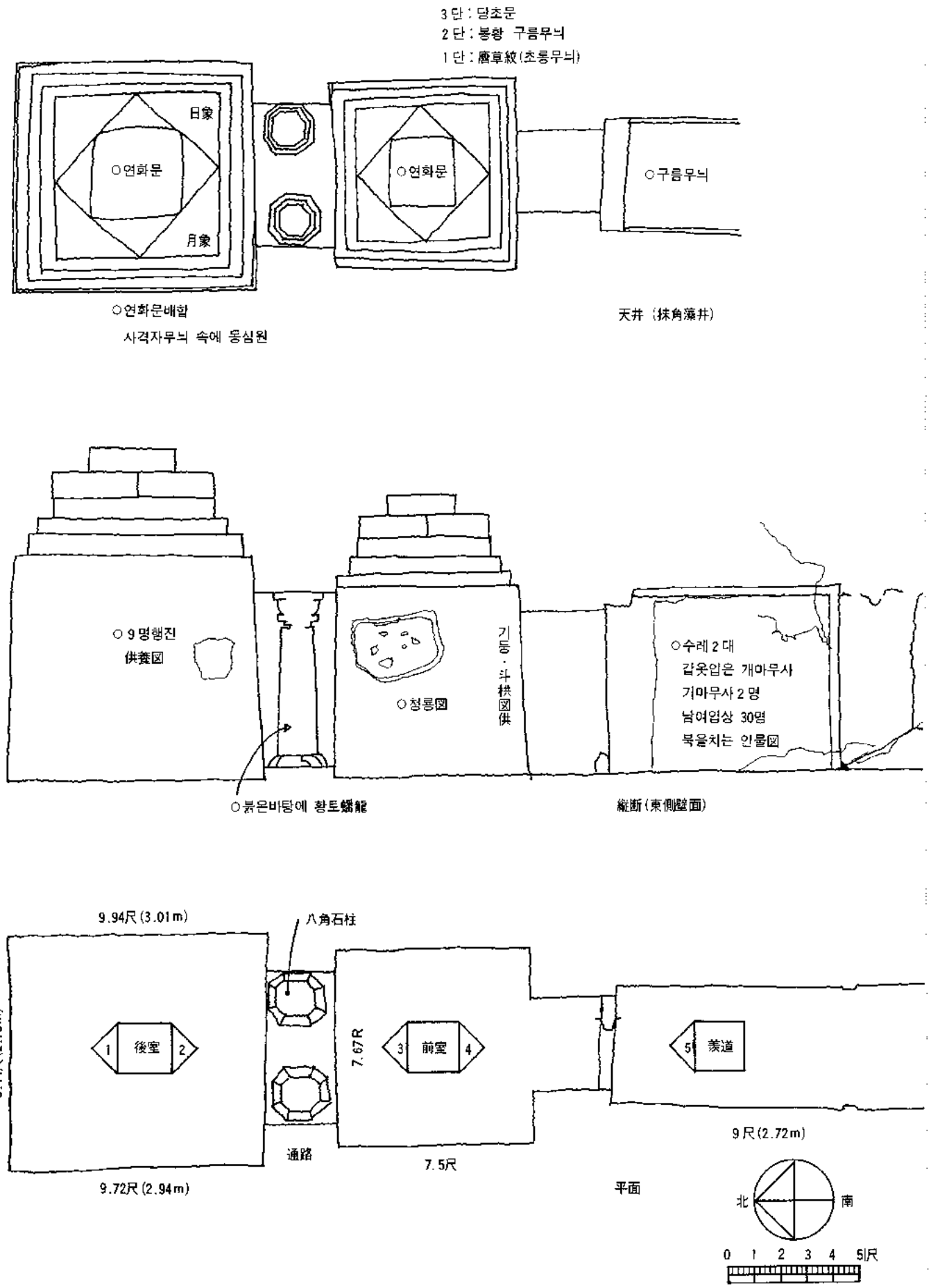
13) 흙을 덮는 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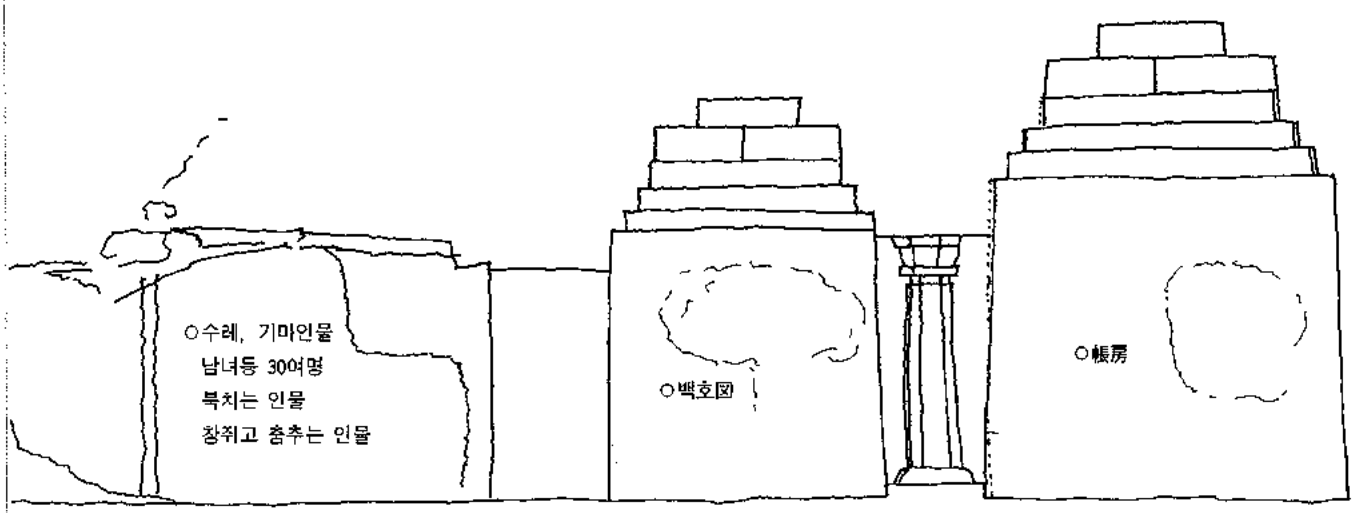
〔그림 6〕

金基雄 : 한국의 고분文化, 앞강좌,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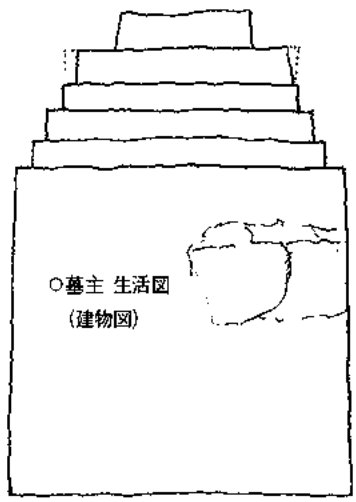
14)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第二册」
平文社, 昭和十八年, pp.161~191.
그림 7, 8 : 雙楹塚石槨實測圖
(朝鮮總督府 土木局營繕課實測)참조
그림내용 金基雄 : 쌍영총, 전게서
pp.16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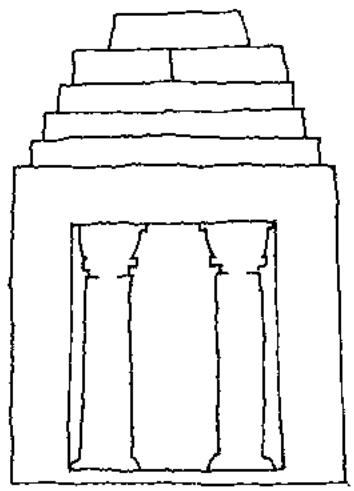
〔그림 7〕 쌍영총석실 실측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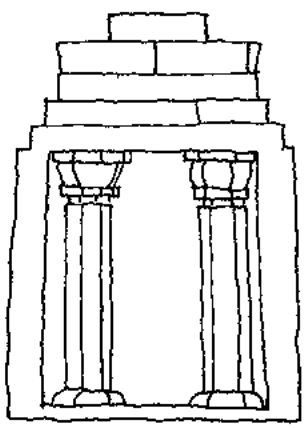
縱斷(西側壁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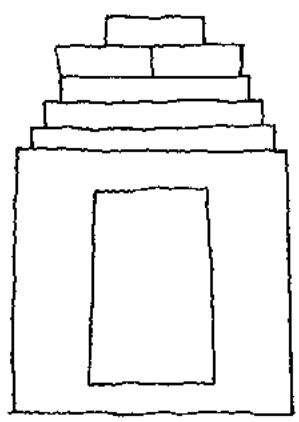
1. 後室北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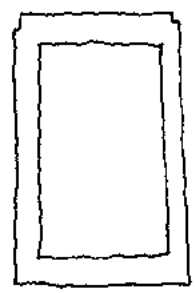
2. 後室에서 通路



3. 前室에서 通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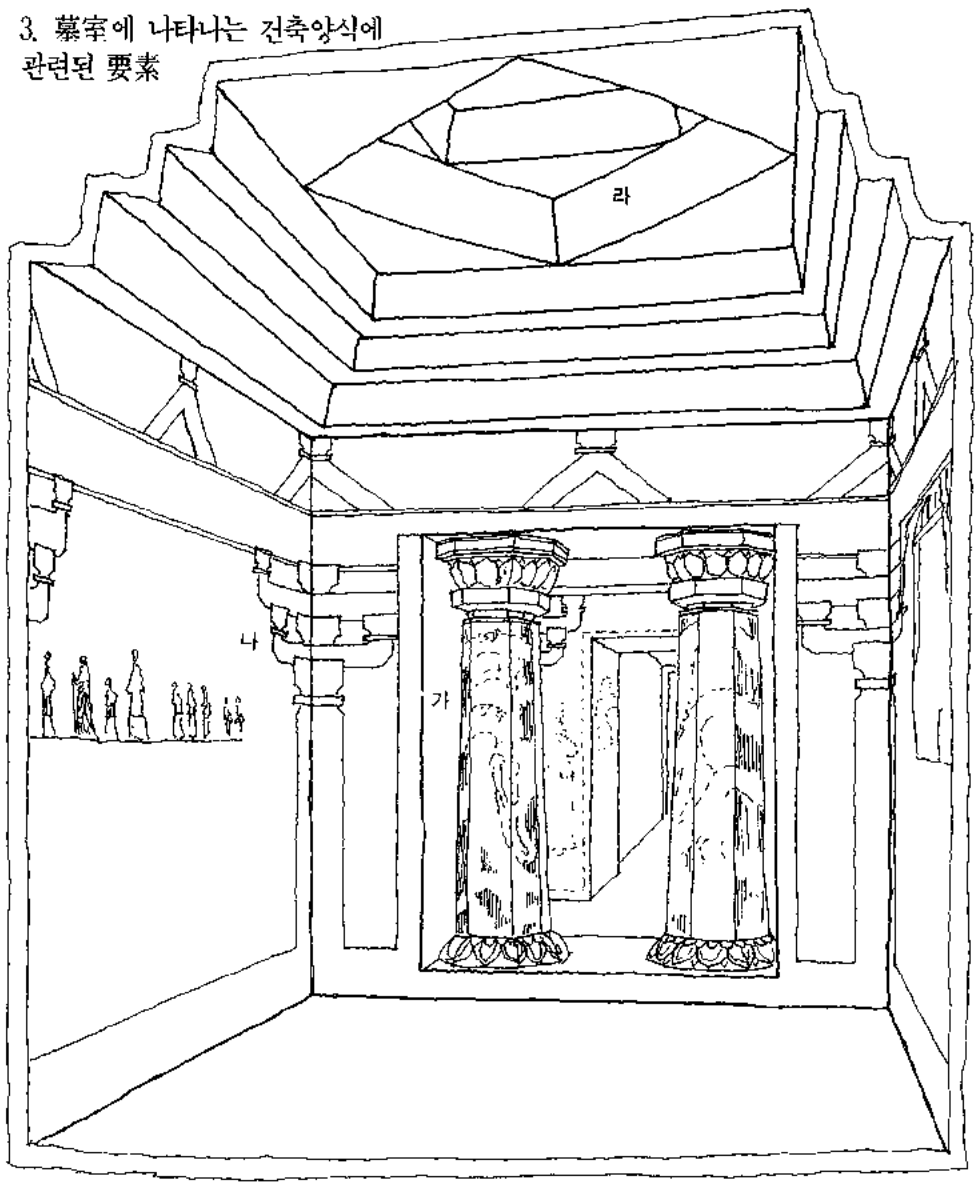
4. 前室에서 羨道



5. 羨道에서 前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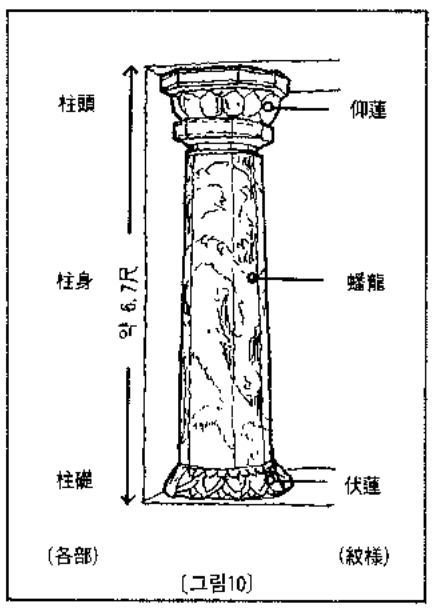
〔그림 8〕 쌍영총석실 실측도-2

3. 墓室에 나타나는 건축양식에 관련된 要素



가. 八角石柱 나. 기둥·栱包·人字栱図(壁画) 라. 말각조정 〔그림 9〕 雙楹塚後室見取圖[15]

가. 八角石柱



〔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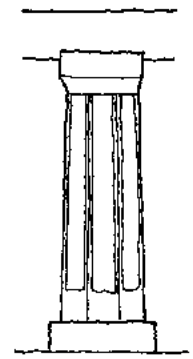
前室에서 後室로 가는 통로(通路·甬道)에는 左右에 한 쌍의 8각石柱가 서 있어 구조적으로는 통로 上部의 荷重을 부담하고 있다. 넓은 통로에 기둥을 세우므로써 실제의 通過空間의 폭을 좁혀주어 後室(玄室)의 聖域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16]

기둥의 높이는 6.7尺 가량이며 柱身은 밑이 조금 넓고 위가 좁은 형태[17]로 蟠龍(반룡 : 굽이치는 용)이 그려져 있고 柱礎는 伏蓮을 그린 蓮花柱礎[18]이며 柱頭의 두툼한 굽에는 仰蓮이 그려져 있다. 연꽃紋樣은 佛敎思想의 영향으로 비롯된 것이며 후대에 내려와 伏蓮위에 仰蓮을 올려놓아 佛像臺座에 使用된 例[19]가 많았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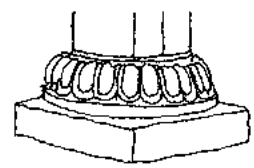
15) 關野貞 : 圖版第十「朝鮮美術史」, 朝鮮美術史, 昭和七年 참조.)

17) 이러한 下大上小형의 八角柱는 同時代 中國·南北朝時期의 建築細部에서 볼 수 있으며(그림, 甘肅天水麥積山30號 八角柱 ; 劉敦楨, 전게서 p.110), 時代가 조금 앞선 例로는 後漢代 山東沂南縣古畫像石墓에서 볼 수 있다. (그림12).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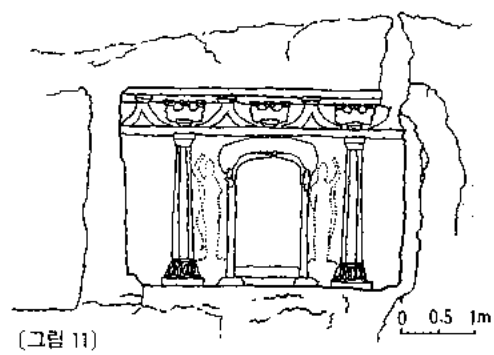
18) 이러한 蓮花柱礎는 同時代 中國·南北朝건축의 石柱에 쓰였다.(그림 13, 河北定興義慈惠石柱 ; 劉敦楨, 전게서 p.110).



〔그림 13〕

19) 伏蓮위에 仰蓮의 蓮花座를 올려놓고 그 위에 佛像과 光背를 造像한 例로는 國立박물관안의 甘山寺石造彌陀像(A.D 719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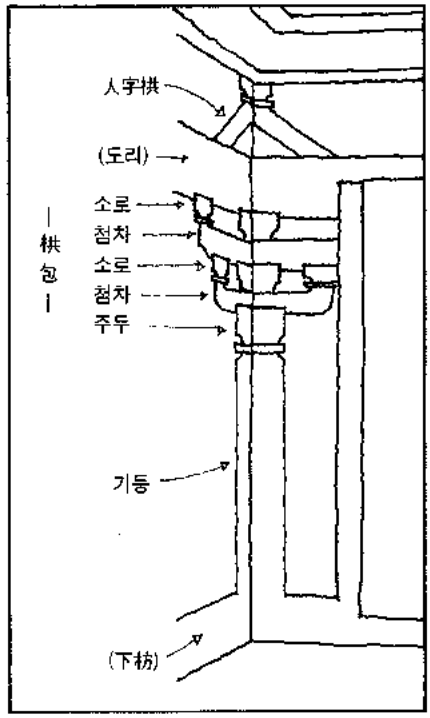
16) 비슷한 역할을 하는 例는 同時代 中國에서 石窟入口에 한 쌍의 八角石柱를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나. 기둥·栱包·人字栱圖(壁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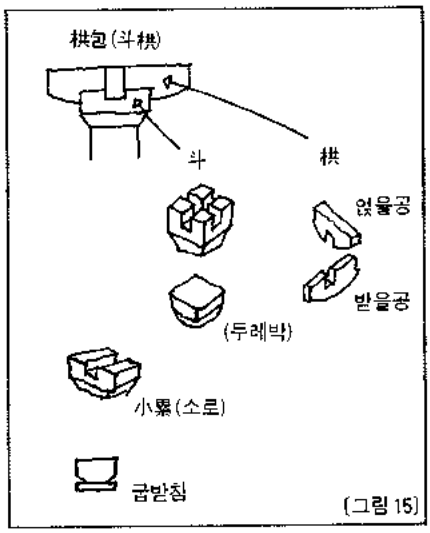
前·後의 墓室壁 네 귀퉁이에는 기둥과 栱包[20]가 그려져 있고 기둥뿌리엔 下枋을 나타내는 듯한 橫帶가, 斗栱위엔 道里를 나타내는 듯한 橫帶가 그려져 있다.
기둥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기둥머리가 주두의 굽받침과 만나는 部分에서는 모를 둥글게 하였다.
柱頭와 소로는 같은 모양이고 첨차 양단에는 끝을 약간 위로 올려 굽받침을 가진 소로를 놓았고 첨차 중앙에는 굽받침없이 소로를 놓아 兩端의 小累보다 조금 크게 그려져 있다.
壁上部에는 귀퉁이와 中央에 人字栱[21]을 그렸는데 直線的인 발 위에 栱包의 소로와 같은 모양의 斗를 올렸다.



> 기둥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기둥머리가 주두의 굽받침과 만나는 部分에서는 모를 둥글게 하였다. 柱頭와 소로는 같은 모양이고 첨차 양단에는 끝을 약간 위로 올려 굽받침을 가진 소로를 놓았고 첨차 중앙에는 굽받침없이 소로를 놓아 兩端의 小累보다 조금 크게 그려져 있다.

□ 주

20) 栱包는 中國·日本에서는 斗栱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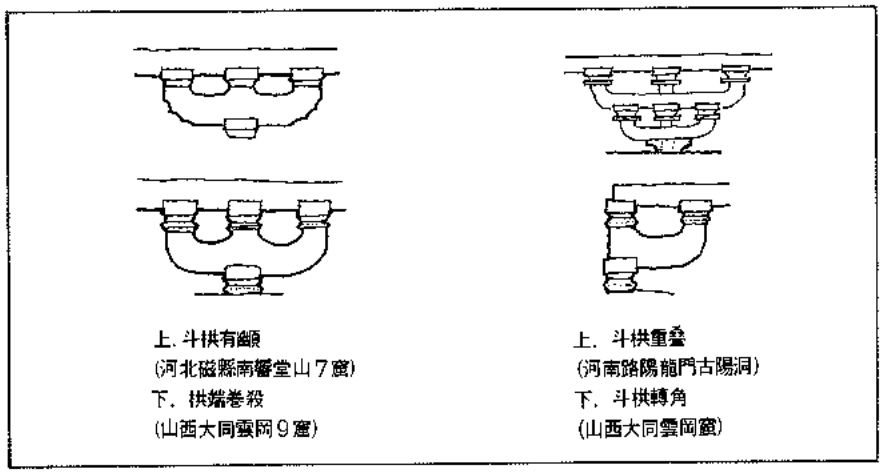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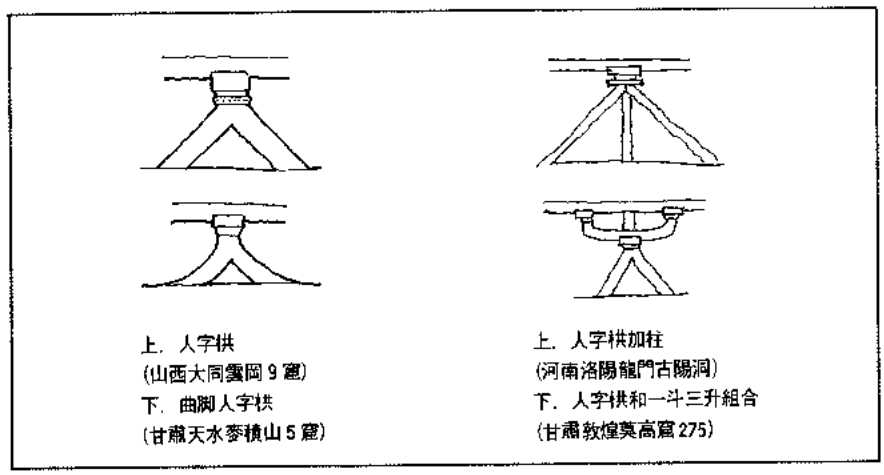
(그림 15)

21) 人字栱비교도, 劉敦楨 : 전게서 p.108).

中國·南北朝時期建築細部의 斗栱 몇가지를 비교 해보자.(그림 16, 劉敦楨 : 전게서 p.108).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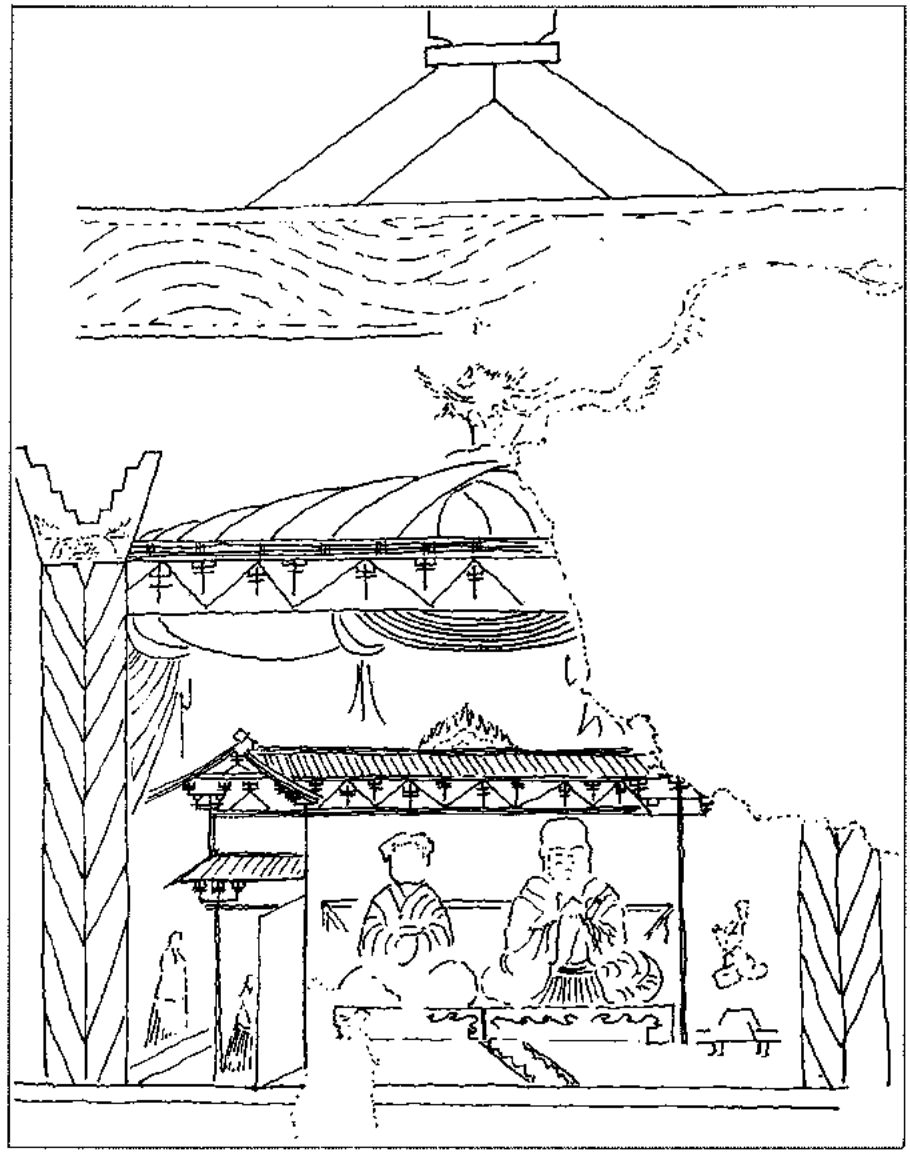
(그림 17)

다. 建物圖(壁畫)

後室北壁의 壁畫는 '墓主夫婦像'으로 墓主夫婦의 일상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상당히 사실주의적 作品이다.(그림 18)이 夫婦는 帳幕建物속에 그려진 기와집안에 평상위에 나란히 正坐하고 있다.

建物은 맞배집으로 용마루 끝에는 望瓦 비슷한 장식이 달려 있고 기둥은 가는 線으로 표현되었다. 기둥머리는 斗栱표현이라 여겨지는 半장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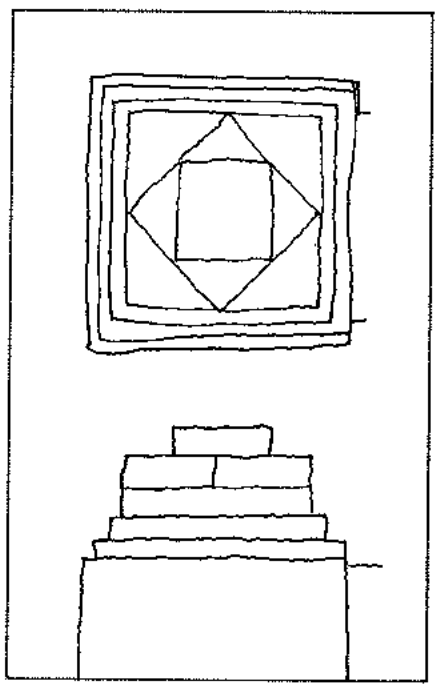
기둥위 柱間에는 人字栱으로 보이는 架構物이 있고 人字栱사이와 人字栱중간에 半모양의 龍字柱를 그렸다. 建物 左측면에는 기둥중간에 다시 작은 처마를 내고 그 밑에 門을 달았다. 이 그림으로 보아 건물의 출입구가 맞배집의 측면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림 18〕 夫婦像[22] ▶

□주

22) 金元龍 : 「壁畫」(韓國美術全集4), 同和出版公社, p. 55참조.



〔그림 19〕 쌍영총 前室藻井

라. 抹角藻井

石室의 天障構造는 고구려 壁畫古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각조정[23]으로 되어있다.

抹角藻井이란 天障架設에 있어 四壁線과 平行하도록 한·두段의 받침돌을 안쪽으로 내밀어 天障面積을 줄인 다음 한 벽의 中間에서 이웃벽의 中間까지 斜交하는 삼각형 받침돌을 네 귀에 걸쳐놓고, 그것을 한 두번 반복한 다음 마지막 天障空間은 한장돌을 덮는 方式의 天障을 말하는 것이다.[24]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은 황해도 安岳郡의 冬壽墓(安岳三號墳, 4세기 후반)이다.

이 天障架構法은 黑海沿岸·印度·中央아시아를 거쳐 3세기경에 이미 中國에 들어와 있었고[25], 고구려에까지 전파되어 마치 고구려인의 特許처럼 使用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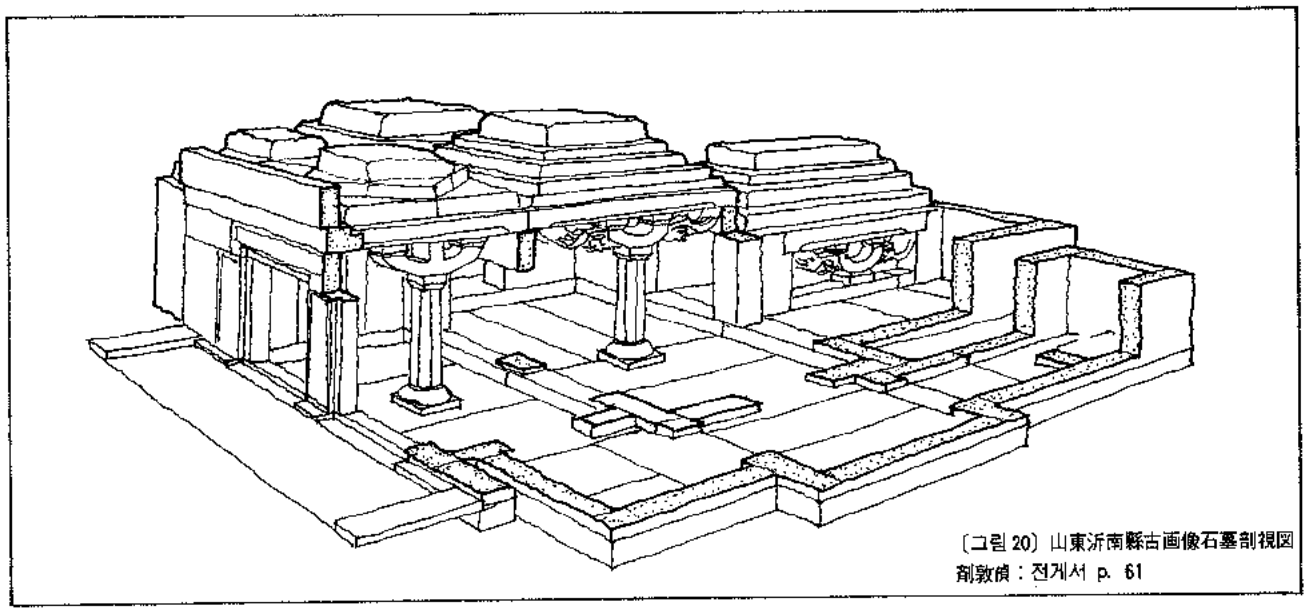
同時代의 中國의 例로는 甘肅敦煌莫高窟 北魏石窟藻井에서 볼 수 있다.[26]

□주

23) 抹角藻井은 闕八天井이라고도 하며 高裕燮은 穹窿的闕八樣式(Lanternen Decke)이라 했다.
高裕燮 : 고구려의 건축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同人會, 1964, pp. 16~20.
金秉模 : 抹角藻井의 性格에 對한 再檢討 「歷史學報」 80, 1978, pp. 1~26.

24) 金元龍 : 삼국시대墓제 「韓國考古學槪說」 一志社, 1973, p. 143.

25) 山東省沂南의 後漢代 石墓에서 볼 수 있다. 金元龍 : 전게서 p. 45.



〔그림 20〕 山東沂南縣古画像石墓剖視図
劉敦楨 : 전게서 p. 61

26) 劉敦楨 : 전게서 p. 112, 113, 圖73-2
…斗八藻井見于敦煌彩畫中,
推測當時可能有實物,
天花除方格與長方格平綦外.
有用長方形平綦构成人字形頂棚的. 根据敦煌石窟,
當時建築物的天花和藻井繪有五彩綜紛的彩畵.

4. 맺는말

이상과 같이 쌍영총을 통해서 양식적 표현이라던가 造築의 지혜등을 몇가지 살펴 보았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연구되어져야 할 点은 封土 墳丘의 흙을 덮는 方式과 봉토의 크기, 石室壁의 築造法, 그리고 通氣 및 배수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들이 자세히 밝혀지므로써 當代의 기술적인 지혜나 原論的인 해결책들이 설명될 것이며 그러한 背景이 樣式史에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건축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墓主의 死後世界가 건축요소로 장식된 것은 生前에 건축물 속에서 살아가듯이 영혼불멸의 삶의 공간을 자연스레 표현한 것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건축요소를 그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石室의 크기나 통로 등이 人間의 실제적인 스케일에 맞게 축조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한낱 상징적·장식적 공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하나 문제되는 것은 외래문화와의 교류이다. 古今을 통해서 볼 때 外來文化를 받아들여서 즉각 토착화시키는 작업은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졌건—눈으로 보고 왔던지, 외래의 기술자가 만들었던지 간에—최종표현 만큼은 우리의 自然환경과 우리 感覺에 맞게 되었으리라.

옛 것을 앎으로써 오늘의 위치를 바로 알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미숙한 채로 손에 닿는 문헌을 참고하여 定理해 보았다. 拙稿에 대해 先學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丁卯年 어느 여름날 역삼동 一隅에서 趙仁淑 삼가 씀)

□참고문헌

高裕燮(遺著)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同人會, 1964.
金基雄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公社.
金正基 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金元龍 壁畫(韓國美術會集4) 同和出版公社, 1974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3
韓國美術史, (株)汎文社, 1968
韓國壁畫古墳, 一志社, 1980
韓國古美術의 理解,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尹張燮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정인국 한국의 건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和出版公社, 1976.
韓國美術史(한국예술총서Ⅱ), 大韓民國藝術院, 1984.
한국박물관회, 韓國의 傳統文化, 國立中央博物館, 1987.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第二册, 平文社 昭和十八年.
關野楨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昭和7年.
久野建 辻惟雄·永井信一/秦弘燮역, 日本美術史, 悅話堂 1978.
마이클 설리반/金敬子·金基珠역, 中國美術史, 知識産業社, 1978.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

住居用 建物의 設計改善方案 研究(1)

朴相東 朴孝洵 尹龍鎭

Report/ A Study on the Energy Efficient Design Methods in Residences

Park, Sang-Dong Park, Hyo-Soon Yoon, Yong-Jin

Ⅰ. 序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韓國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院에서는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는 1980년 이래 농촌 표준형 단독주택의 에너지절약방안 제시('80)를 시작으로 기존 및 신축 단독주택('81,82), 집합주택의 부분난방('84) 및 개수방안 연구('85)를 하였으며 아울러 이들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상자료의 정리('81), 快適環境基準('82,84)을 설정하였다. 특히 신축주택과 관련된 연구로서 에너지절약형 시험주택을 동 연구소내에 건립('81)하여 단계별로 비거주비난방조건('82) 비거주난방조건('83), 모의거주조건('84")하에서의 에너지소비 행태에 따른 실험 및 실측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및 실내기후 환경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주거용건물의 에너지 절약방안을 수립하며 또한 에너지절약형 주거용건물의 모범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의 이해를 돕고 에너지절약형건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Ⅱ. 建築과 에너지節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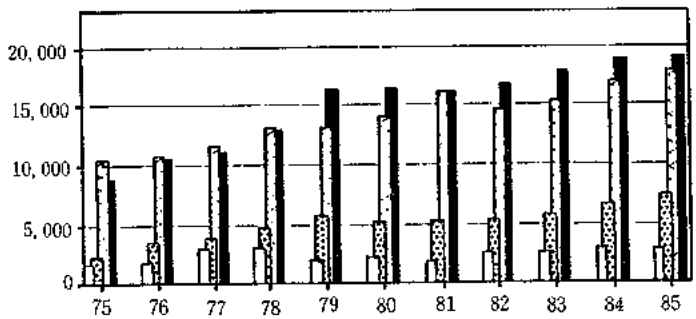
1. 에너지 消費實態

1. 家庭·商業部門의 에너지消費量 推移

우리나라에서의 1976년 이래 에너지소비량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그림-1]과 같다. 모든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되어 온 에너지소비량은 1985년의 경우, 10년전인 1976년의 25.948 MTOE 에 비해 1.82배나 증가한 47.397 MTOE 를 기록하였다. 이 중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만을 보면 1976년의 10.815 MTOE 에 비해 17.831 MTOM 로 1.65배의 증가를 보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에 비해 다소 낮으나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7~40%를 차지하여 이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에너지소비 構成比와 우리나라의 構成比를 비교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민생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약 26.8%로 타국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나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경우는 35~40%로 우리나라와 같이 비율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 필자약력
朴相東 : 韓国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長, 工学博士
朴孝洵 : 韓国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 先任研究員
尹龍鎭 : 韓国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 研究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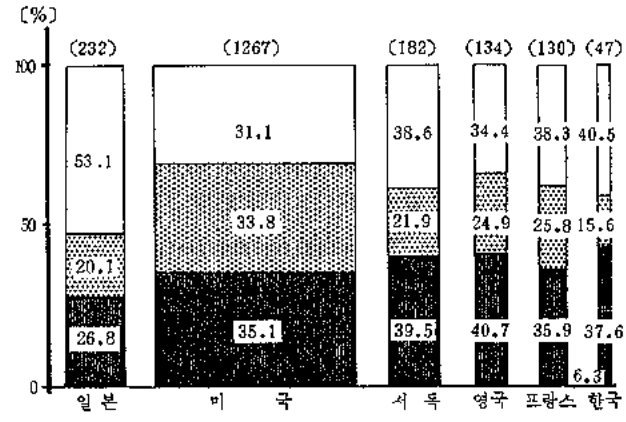
〔단위 : 1,000TOE〕



〔그림-1〕 年度別 需要部門別 에너지 消費

*자료출처 : 동력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1986

〔단위 : %〕



〔그림-2〕 主要国家別 에너지 消費構成比(1982)

*( )内는 石油환산 100萬t

**자료출처 : 通産資料調査會, '85省エネルギー總覽, 1984

2. 에너지源別 消費率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에너지원별로 구분하면 [그림-3]과 같다. 1985년의 총 에너지소비량은 17.831 MTOE로 이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62.3%로 가장 높다. 석탄의 대량소비로 미루어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의 주요난방수단이 연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석유의 소비율은 19.8%이며 전력은 6.5%로 가장 작다.

3. 住宅形態別 에너지消費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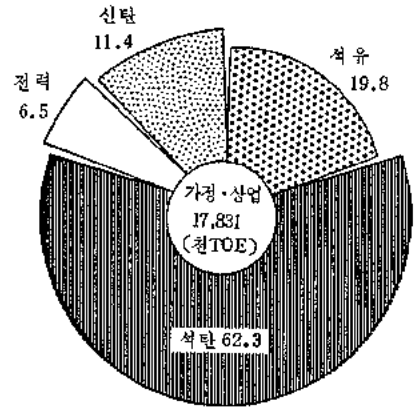
1985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1가구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17,961.6Mcal 이다. 이를, 통계년도('76~'79)에 차이는 있으나 외국의 주택에너지소비량과 비교하면 〔그림-4〕와 같다. 이 중 일부 냉방에너지가 소비되는 국가도 있으나 그 비율은 극히 작은 편이다. 비교 대상국들은 대개가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한 국가들로서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의 비중이 크다. 일본의 경우('79) 는 전체 에너지소비량도 작을 뿐 아니라 난방에너지 소비량도 무척 작다. 그러나 일본의 중부 이북, 북해도 등지의 난방에너지소비율은 타국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용에너지가 75%로서 에너지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택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해서는 난방과 관련된 에너지의 使用行態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형태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표-1〉과 같다. 주택의 형태를 단독주택, 중앙 및 개별난방아파트,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여 가구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여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17,908.1\times10^3$ Kcal 를 사용하였으며 에너지원별로는 연탄 84.2%, 석유류 4.5%, 가스 3.9%, 전력 5.5%, 신탄 1.8%(주로 농촌지역만 사용)의 소비구성을 나타내었다.

4. 에너지節約 目標

우리나라의 가정부문 에너지原單位는 1983년의 경우 가구당 1.45 TOE 이다. 이는 난방만이 아닌 취사 및 동력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값이며 이를 참고로 설정한 가정부문 목표 에너지原單位는 〈표-2〉와 같다. 〈표-2〉에 의하면 '86년도 목표 에너지原單位는 1.28 TOE로 '83년 대비 약 5% 절감된 양이며 '91년에는 11% 절감된 1.29 TOE, 2001년에는 27% 절감된 1.06 TO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난방에너지 原單位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의 실정과 비교하면 〈표-3〉과 같다. 단독주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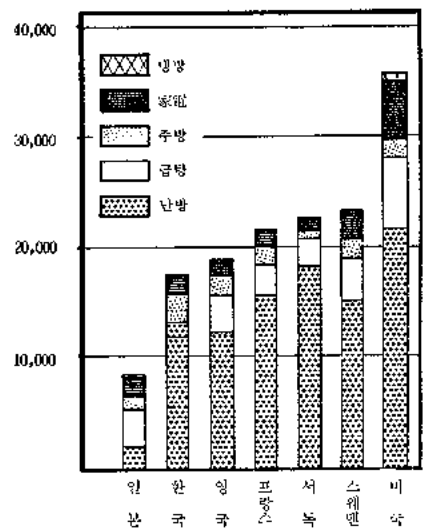
〔단위 : %〕



〔그림-3〕 에너지源別 消費率(1985년)

*資料出處 : 動力資源部, 에너지經濟研究院, 에너지 통계연보, 1986.

〔Mcal / 세대·yr〕



〔그림-4〕 家庭用 1世帶当 年間 에너지 消費量

*자료출처 : 通産資料調査會, '85省エネルギー一覽總, 1984.

〈表－1〉 住宅形態別 家口当 에너지消費量(年間)

〔단위 : 10^3kcal〕

에너지원 / 주택형태	합 계	연 탄	등 유	경 유	B－C유	프로판	도시가스	전 력	신 탄
단독주택	17,908.1	15,073.8	366.3	455.0	0.0	702.2	1.3	984.8	324.6
중앙난방 아파트	20,887.9	0.0	0.0	142.1	17,793.1	30.9	1,431.8	1,489.9	0.0
개별난방 아파트	15,513.0	13,408.6	93.4	0.0	0.0	800.1	257.7	953.2	0.0
연립주택	19,280.0	14,947.6	196.9	2,101.1	0.0	922.0	32.2	1,074.1	0.0

*자료출처 : 動資研, 1985년도 家計부문 에너지 常設 표본운영연구, 1985.

〈表－2〉 家庭部門 目標 에너지 原単位

〔TOE/가구〕

年	1983	'86	'91	2001
原 単 位	1.45	1.38	1.29	1.06

*난방·취사·동력 台含

**자료출처 : 에너지節約技術普及促進委員會 건물분과 회의자료, 1986.

〈表－3〉 暖房 에너지 原単位

〔Mcal/m^2·yr〕

国名 / 建物類型	핀 란 드	프 랑 스	한 국
아 파 트	138.9	81.0	223.6
単 獨 住 宅	135.2	108.6	248.4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建物에너지 関聯會議資料, 1986.

〈表－4〉 에너지節約型 試験住宅의 実測負荷計算 (서울기준)

理論暖房負荷 〔Q : Kcal/h〕	7,447.7	
B. L. C	5,603.3	$BLC=\frac{24\times Q}{\triangle t}$
暖房基準度〔℃〕	18	
外気平均度〔℃〕	−4.3	
室内平均度〔℃〕	5.3	
理論暖房度日 〔℃·day〕	223.2	
実測暖房度日 〔℃·day〕	127	

경우, 우리나라의
난방에너지原単位는
248.4[Mcal/m^2·yr]로 핀란드 및
프랑스에 비해 1.8~2.3배나 크다.
한편 '81년도에 건립된 당 연구소의
에너지절약형 시험주택(B형)[1]의 실측
부하량은 〈표－4〉와 같다.[2]
서울지역의 暖房度日 3175[℃·day]를
기준으로 한 B형 시험주택의
단위면적당 난방부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 = B.L.C \times H.D.D \times \frac{實測\ 暖房度日}{理論\ 暖房度日} \div 純面積 \cdots\cdots(1)$$

여기서,
B.L.C: 年間暖房負荷係數 (Building Heating Loads Coefficient)
H.D.D: 暖房度日 (Heating Degree Day)

(1) 식에 의해 계산한 B형
시험주택의 난방부하는
99.2[Mcal/m^2.yr]이다.
본 연구에서는 B형 시험주택의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하여
에너지절약형 주거용건물의
설계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에너지절약형주택의
에너지소요량은 부하를 기준으로
'82년도 시험주택 실측부하량의 10%
절감량인 90[Mcal/m^2.yr]를 목표로
하였다.

2. 建物의 에너지節約과 室内環境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절약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나친
에너지절약의 강조로 인한 실내환경의
질 저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換氣熱損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지나치면 환기부족으로 인한
실내공기의 오염이 우려되며
난방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난방기준온도등의 하향 조정은 실내
거주자에게 熱的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本 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방식인
바닥輻射暖房과 관련된 열적인
쾌적조건들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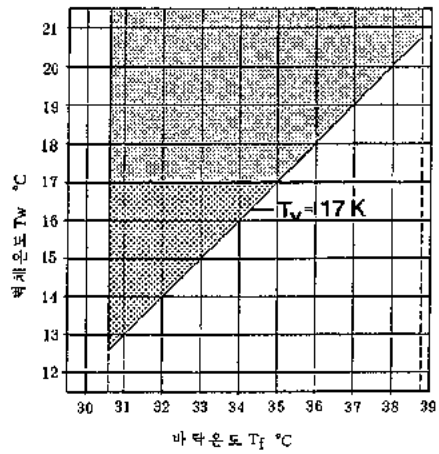
1. 人體의 温熱感

어떤 환경에서 인체의 쾌적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인체의 熱平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체로부터의 발생열과
주위로의 손실 사이에 평형을 이뤄
적절한 체온, 피부온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인체로부터의 열방산의
경로 및 열방산량의 비율은 환경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輻射,
對流, 傳導, 水分蒸發에 의해
일어나며 그 중 피부표면에서의
방산이 약 88%를 차지한다. 또한
輻射에 의한 放散이 40%로 가장
크다. 인체의 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소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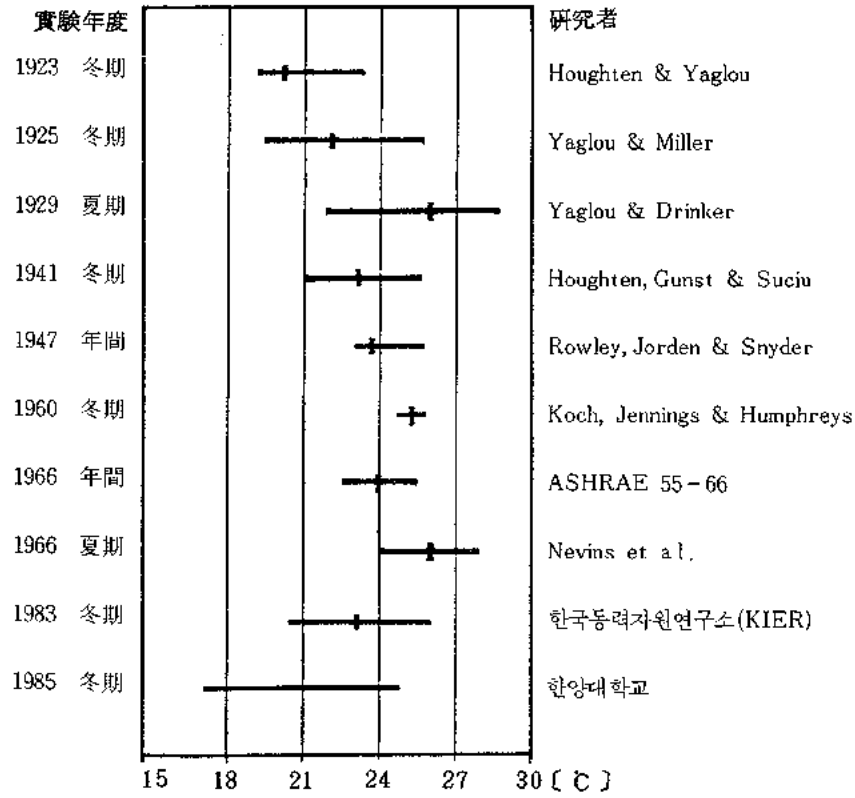
- 氣　　温 (Ambient Air Temperature)
- 相對濕度 (Relative Humidity)
- 氣流速度 (Air Velocity)
- 輻 射 熱 (Heat Radiation)

이에 덧붙여 인체의 代射量과
衣服着衣量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전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쾌적하다'는
상태는 인체의 열생산과 열방산이
평형을 이룰 때이며 이 때를
熱的中性 (Thermal Neutrality) 상태라 하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를 일컫는다.
열생산과 열방산의 관계를 일반적인
열평형식으로 표시하면 식(2)와 같다.

$$S = M - (\pm W) \pm E \pm R \pm C[Kcal/h] \cdots\cdots(2)$$



〔그림－6〕 壁体 및 바닥表面의 快適温度範圍



〔그림－5〕 乾球温度에 의한 快適温度範囲의 비교(HR≒40%)

여기서, S : 人體內에 축적된 熱量
[Kcal/h]
M : 代射에 의한 發生熱量
[Kcal/h]
R : 輻射에 의한 顯熱交換量
[Kcal/h]
C : 傳導·對流에 의한 顯熱交換量
[Kcal/h]
E : 水分蒸發에 의한 熱損失量
[Kcal/h]
W : 일에 의한 發生熱量
[Kcal/h]

한편 대류난방이 아닌 온돌과 같은 복사난방공간이나 단열이 불량한 실내에서는 실내표면온도의 불균등으로 인해 국부불쾌감의 발생이 잦다. 국부불쾌감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따뜻한 반면 다른 부위가 차갑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감으로 인체의 쾌적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전신쾌적감과 아울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국부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열을 통해 실내표면온도차를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부불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는 다음과 같다.

- 不均等 輻射場
- 對流에 의한 身體 一部의 冷却(드래프트)
- 따뜻하거나 차가운 바닥에의 접촉
- 氣温의 垂直 分布差
- 不均等한 差應量

2. 快適環境範圍

실내환경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들을 요소로 하여 유효온도(ET), 수정유효온도(CET), 신유효온도(ET*), 작용온도(OT)등이 평가척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합성온도(Resultant Temperature)가 이용되기도 한다.
乾球温度만에 의해 설정한 쾌적범위는 [그림－5]와 같다.
쾌적범위는 물론 인간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인종, 성별, 연령, 체격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나 각종 실험에 의한 통계적 처리에 의해 그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그림－5]에 의하면 난방기의 쾌적온도범위는 1923년의 20℃에서 1966년에는 26.2℃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난방기기의 개발, 보급등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쾌적환경에 관한 연구는 근래 當 硏究所를 비롯,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温水温突暖房方式주택을 대상으로 온열환경요소의 측정 및 재실자의 반응을 조사하여 설정한 쾌적환경범위는 다음과 같다.

- 人體代射量 1 Met,
  衣服熱抵抗値 1.1 clo.,
  氣流速度 0.1 m/sec,
  相對温度가 30~40%일 때 室温 17.5~24.5℃에서 温熱中性感을 나타내며 이는 바닥輻射熱에 의한 영향으로서 對流暖房方式에서의 基準値보다도 下限값이 낮다.
- 適正바닥表面温度의 範圍는 30.6~38.8℃로 外國의 立式生活方式에 의한 適正바닥表面 温度範圍에 비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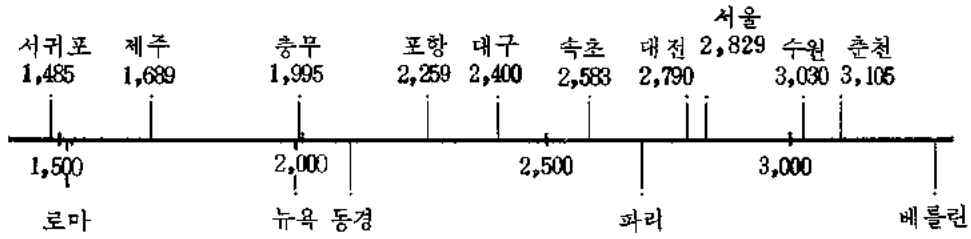
[그림－6]은 위의 쾌적온도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벽면과 바닥표면온도와의 관계에 의한 쾌적온도범위(▒▒部位)를 보여준다.

Ⅲ. 住居用建物의 에너지節約計劃

1. 에너지節約計劃의 槪要

1. 에너지節約計劃의 樹立

일반적인 건축계획시 건축물의



〔그림 - 7〕 地域別 暖房度日

* 자료출처 : 主要地域別 氣象資料, 動資研, 1983.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은 대개 다음 순서에 의한다. 먼저 주어진 계획조건에 의해 건물의 개략적인 기본안이 작성되면 유사한 건물로부터 에너지소비실태를 파악하여 에너지절약목표의 개략치를 정한다. 다음으로 에너지절약 Checklist에 의해 각 항목을 검토하여 필요 요소들을 선정, 이 결과를 건축기본안에 반영하며 또 이에 대응되는 설비시스템을 검토한다. 이로부터 열부하를 산출하고 각 에너지절약 시스템의 가격, 운전, 경상비를 예측, 평가한다. 부하계산 및 경제성분석에 의한 효과를 판단한 후에 건축, 설비면과 에너지절약 시스템의 조정을 거쳐 시공을 하게 된다.

2. 에너지節約計劃의 槪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방법의 원리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단열이나 일사차단등의 방법으로 부하가 되는 작용인자들의 작용을 경감시킨다.

둘째, 자연환기등 설비에 의한 도움이 없이도 가능한 작용인자들을 이용한다.

셋째, 高效率器機의 사용, 제어방법 및 설치조건의 효율화등, 건물내의 설비운전효율을 높인다.

넷째, 太陽熱, 地熱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한다.

다섯째로 실내기준온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요구수준을 저하시키는 방법들이 있다.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에너지源別 利用方法
- 비슷한 조건의 對象建物에 대한 消費實態 파악, 예측
- 에너지節約方案에 의한 節約量과 初期投資額의 비교
- 設備器機, 建物의 耐用年數, 즉 Life Cycle Cost 등의 균형을 맞춰 計劃할 것

일반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계획할 경우에는 대상건물 공간의 환경을 설정조건에 맞도록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요에너지량을 비용효과 측면에서 보아 최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부하를 경감시키고 최소 운전에너지로 공간의 적정환경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建築的技法과 設備的技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건축적인 에너지절약기법의 주요요소는 다음과 같다.

- 建物形狀
- 開口率
- 表面狀態
- 日射
- 建物方位
- 斷熱

또 설비적요소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設備의 시스템 效率
- 器機效率
- 制御
- 自然 및 排에너지 利用
- 設定條件의 適否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조건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건물별로 적용가능한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요소별로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건물의 소요에너지량을 예측하고 요소별 Checklist에 의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2. 住居用建物의 에너지節約方案

1. 우리나라의 氣候

가. 暖房度日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본래는 각 지방별로 건축구조물의 熱貫流率 규제치를 별도로 구분치 않고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림-7]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난방도일은 지역별로 1,485[℃ · day]에서 3,105[℃ · day]에 이르기까지 차가 많으며 동일한 熱貫流率 규제치를 적용할 경우, 그 난방부하의 심한 격차는 물론 규제치의 적정선에 대해서도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이유로 當 硏究室에서는 기후별지역구분에 의해 규제치를 달리 적용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편의상 제주 및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열관류율 규제치를 적용하고 있다.

나. 溫度와 濕度

온도와 습도는 어느 지역의 기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며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氣溫度가 이용된다. [그림-8]은 기후지역별로 대표적 도시인 서울, 대전, 제주의 氣溫度이다. 이를 이용하면 연간 지역별 온도 및 습도의 월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후는 대체로 다습함을 알 수 있다.

〈表－5〉 主要地域別 年平均 水平面 日射量

地 域	日射量〔cal/cm² · day〕	地 域	日射量〔cal/cm² · day〕
대관령	239.8	청 주	206.3
춘 천	293.6	충 주	236.8
강 릉	202.8	아 산	273.6
서 울	268.3	유 성	278.8
인 천	224.4	정 읍	182.7
수 원	287.9	남 원	234.0
울 진	232.6	광 주	271.9
문 경	211.3	목 포	290.2
산 청	203.4	승 주	311.5
진 주	287.3	제 주	282.2

다. 日射

일사는 여름철의 냉방부하를 증대시키나 겨울철에는 난방부하를 경감시키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그 지역의 위도, 대기의 청정도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월별, 지역별, 방위별로도 차이가 크다. 〈표－5〉는 주요지역의 연평균 수평면일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게는 정읍의 182.7[cal/㎠.day]로 부터 크게는 승주의 311.5[cal/㎠.day]까지 많은 차가 있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철의 일사량이 많아 겨울철의 2~3배에 달하기도 한다.

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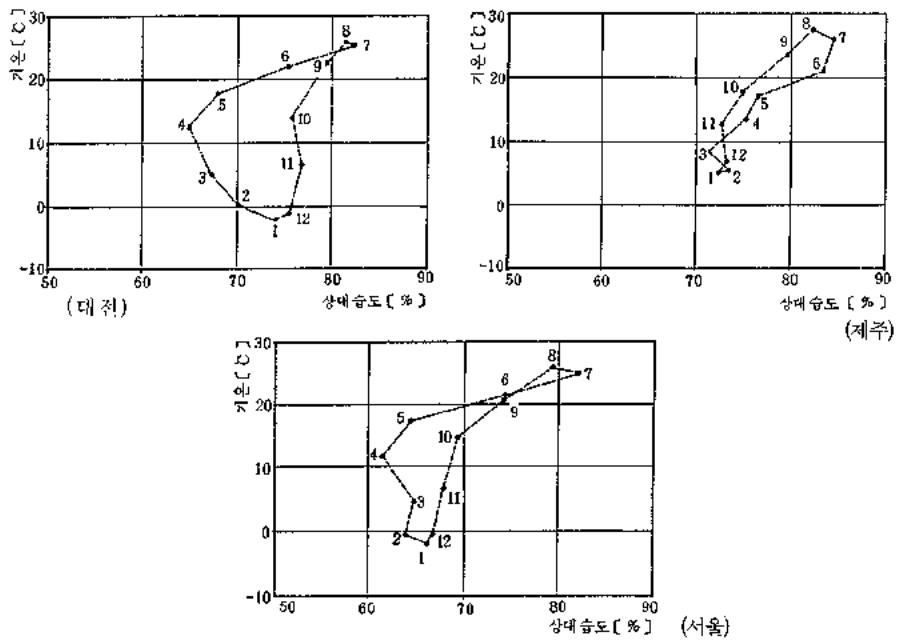
풍향, 풍속은 건물의 통풍계획, 출입구방향, 배기구의 위치결정등 건축계획시 고려해야 할 주요요소의 하나이다.
어느 지역의 풍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풍향에 따른 빈도를 나타내는 風配圖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9]는 여름철 서울지역의 10년간에 걸친 풍향의 평균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 미루어 서울지역의 主風向은 WSW 와 ENE 임을 알 수 있으며 여름철 통풍효과를 얻기 위한 건물개구부 및 수목의 배치등에 이용할 수 있다.

2. 建築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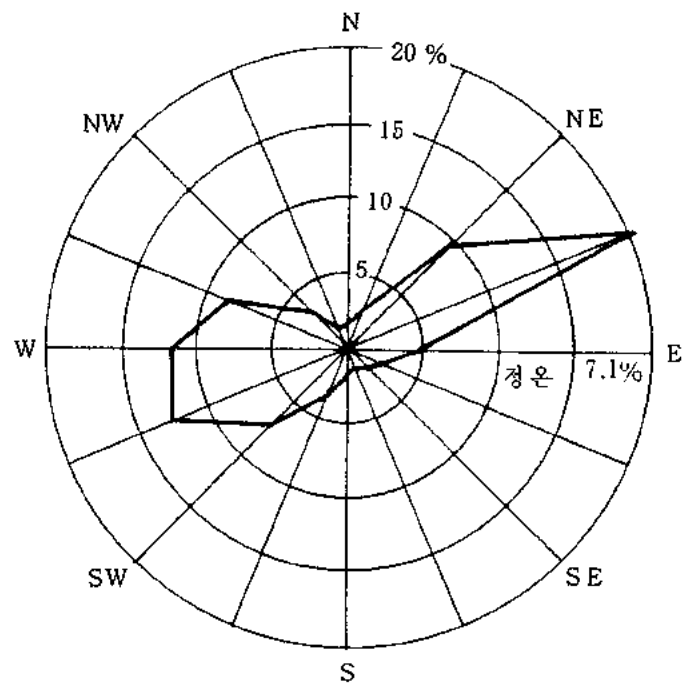
가. 垈地

건물의 외부공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에너지절약대책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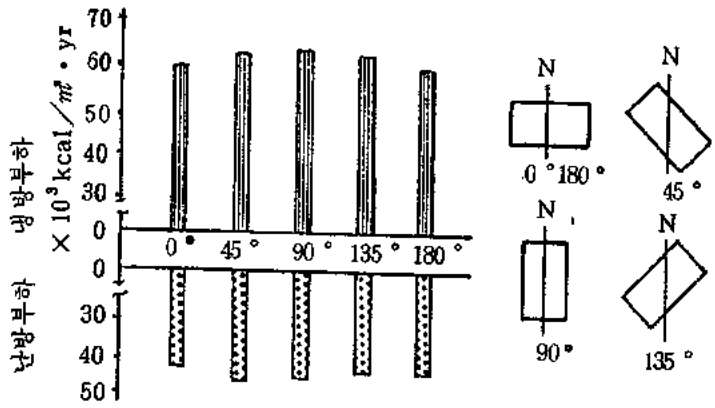
• 建物에 入射하는 日射調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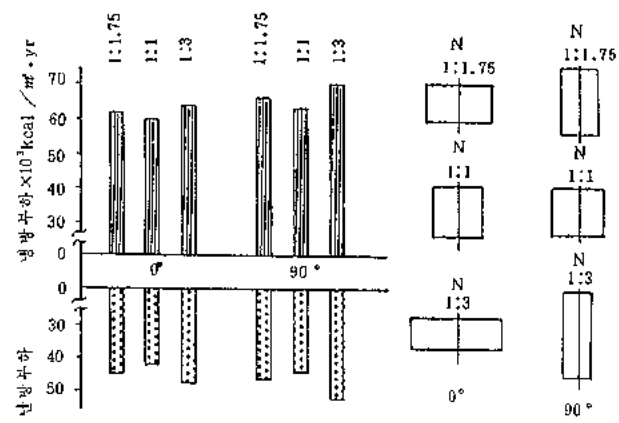
〔그림－8〕 地域別 気濕度



〔그림－9〕 夏季(6~9月)서울 地方의 風配図(1971~80年)



〔그림－10〕 建物方位와 年間積算 冷房暖負荷



〔그림－11〕 建物形狀과 年間積算 冷房暖負荷

- 地表面등에 의한 反射調節
- 通風調節
- 防風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상조건이나 부지조건들을 파악하여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부지 지표면의 반사율이 낮은 것이 좋다.
건물이 놓여지는 부분외의 부지는 잔디나 콘크리트, 벽돌, 자갈 등으로 처리된다. 벽돌이나 콘크리트등 일반 재료의 반사율은 대개 10% 전후이다. 이러한 지표면의 반사율이 높을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냉방부하를 증가시키게 되며 또한 Glare 현상을 일으킨다.

○ 흙, 地中温의 日變化및 年變化는 기온의 변화에 비해 매우 안정된 편이다. 건물을 지중에 배설할 경우에는 이러한 지중온의 특성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식물, 즉 수목이나 잔디밭, 담쟁이덩쿨 등은 부지의 에너지효과 조절에 좋은 재료이다. 이들을 이용하면 기온, 습도의 완화, 日射調節, 방풍대책외에 심리적 효과, 소음방지, 먼지의 취입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상 식물의 양과 질에 따라 차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대상 식물의 크기, 높이, 형태, 밀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건물 주변에 수목이나 화단을 적절히 배치하면 통풍 및 방풍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배치가 나쁠 경우에는 오히려 통풍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목 배치에 따른 통풍경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외에 잎이 많은 나무를 건물벽체에 인접하여 배치할 경우에는 나무와 벽사이에서 공기가 정체되어 외벽표면의 대류열전달율이 작아지게 된다.

나. 方位, 配置計劃
일반적으로 건물의 Facade 의 방위에 따라 건물의 부하량에도 차가 난다. [그림－10]은 건물의 방위에 따른 연간 적산냉난방부하를 나타낸 것이다. Facade 의 방위가 南北일 경우의 부하량이 가장 작으며 東西일 경우가 가장 크다. 이는 최대부하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의 태양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南側의 실내로는 太陽射入量이 작은 반면 東西側(日出, 日沒)의 고도는 낮아서 부하가 커질 수 있다. 반면 겨울철은 태양고도가 낮아서 입사량이 많아져 南側의 난방부하를 줄여준다. 그리고 건물에 비해 대지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北側에 배치하여 南面 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면으로부터의 반사, 인접 건물로부터의 반사, Glare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形狀
건물 내부와 외기와의 열교환은 대부분 건물 외피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건물의 형상과 관련,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외피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물의 면적이 동일할 경우, 건물형상에 따른 장단변비 변화에 의한 연간부하량의 변화는 [그림－11]과 같다. 이 경우 건물방위에 관계없이 長短邊比가 1 : 1일 경우(正方形)의 부하량이 가장 작다. 그러나 이는 벽체에 대한 창면적비가 40%에 해당할 정도로 큰 경우이며 건물이 남향일 경우, 대체로 長短邊比가 1 : 1로부터 1 : 1.5일 경우가 적정하다.

라. 平面計劃
건물과 외기와의 열교환은 대부분이 건물외피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건물외피의 열성능이 중요시되지만 평면계획이나 단면계획도 에너지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면계획시에는 가능한한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열환경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실은 건물부하에 비춰 불리한 위치(北側, 外周部등)에 배치시킨다. 이런 배치로 자연채광을 소요실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외기차단을 위한 열적완충공간의 역할도 한다. 이 때 이러한 室들은 結露防止에 주의해야 한다.
출입구를 통한 열손실도 건물부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출입구를 통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입구의

〈表-6〉 地域別 Ko의 값

地域	Ko[kcal/m²h℃]
Ⅰ	0.637
Ⅱ	0.771
Ⅲ	1.150

〈表-7〉 地域区分에 따른 建物部位別 Ka값 [kcal/m²h℃]

部位 \ 地域	Ⅰ	Ⅱ	Ⅲ
開口部	2.86	3.12	5.80
壁	0.44	0.57	0.70
지붕	0.33	0.43	0.52
바닥	0.55	0.67	1.00

위치 선정시 풍향을 고려하여 바람의 영향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되 前室의 설치로 방풍을 해 주면 좋다. 특히 건물 내부축에 熱源室을 배치하면 굴뚝을 통한 열손실도 줄일 수 있다.

마. 外皮計劃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피는 건물의 열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다. 당연구실에서는 1983년,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건물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建物의 部位別 性能 및 設備基準(案)'을 작성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이 중의 '建物外皮'項에 대해 설명한다. '建物外皮의 性能基準(案)'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물외피구조의 최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84년도에 1차 개정된 바 있다.[2]

1) 一般事項

건물설계시에는 이 기준 외에도 건물의 위도, 경도, 건물이 위치한 장소의 고도, 형태, 건물의 길이와 폭의 비, 건물면적에 대한 층수, 건물의 열용량, 건물외부의 색, 인접구조물, 주위의 표면 또는 식물에 의한 음영과 반사등의 건물에 관한 조건과 외기의 대기압, 풍속, 풍향, 시간별 태양일사등을 고려함이 좋다. 난방되는 모든 건물은 여러 요소가 규정된 열적성능을 만족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지붕과 천정, 벽, 開口部, 바닥 등에 대해 임의의 K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외피 전체에 대한 Ko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本 基準(案)의 해당지역의 각 부위별 성능기준의 Ka값에 제한받지 않는다.

$$Ko \geq K, \quad K = \frac{\sum K_i A_i}{\sum A_i}$$

여기서, A_i : 各 部位面積 [m²]]
K_i : 各 部位의 平均熱貫流率 [kcal/m²h℃]
K : 建物外皮전체의 熱貫流率 [kcal/m²h℃]
K_o : 各 地域別 総平均貫流率 基準값 [kcal/m²h℃]

한편, 겨울철의 난방기준온도는 18℃로 한다.

2) 部位別 性能基準

신축건물의 각 부위별 평균열관류율(Ka)은 다음 〈표-7〉에 표기된 해당 지역의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건물 중 화장실, 현관, 계단실, 복도(통로 포함)등은 제외한다.

① 벽

어떤 지역의 난방되는 건물의 벽은 〈표-7〉에 의한 해당 지역의 열관류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 2종류 이상의 벽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한다.

$$Kw = \frac{K_{w1} A_{w1} + K_{w2} A_{w2} + \cdots\cdots}{A_w}$$

여기서, Kw : 壁의 平均熱貫流率 [Kcal/ m² h ℃]
Aw : 壁面積中 開口部의 面積(窓 및 門)을 제외한 純壁面積 [m²]
Kwn : 壁 n 의 熱貫流率 [Kcal/ m² h ℃]
Awn : 壁 n 의 面積 [m²]

② 지붕과 천정

어떤 지역의 난방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은 〈표-7〉에 의한 해당지역의 열관류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붕과 천정은 일체화된 구조로 간주한다. 단 2종류 이상의 지붕과 천정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한다.

$$K_c = \frac{K_{c1} \cdot A_{c1} + K_{c2} \cdot A_{c2} + \cdots\cdots}{A_c}$$

여기서, Kc : 天井의 平均熱貫流率 [Kcal/ m² h ℃]
Ac : 天井의 面積 [m²]
Kcn : 天井 n 의 熱貫流率 [Kcal/ m² h ℃]
Acn : 天井의 面積 [m²]

③ 開口部

어떤 지역의 난방되는 건물의 개구부는 〈표-7〉에 의한 해당 지역의 열관류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식은 K 값을 충족시키도록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K_P = \frac{K_f \cdot A_f + K_d \cdot A_d}{A_P}$$

여기서, Kp : 開口部의 平均熱貫流率 [Kcal/ m² h ℃]
A_p : 開口部의 全面積 [m²]
K_f : 창문의 熱貫流率 [Kcal/ m² h ℃]
A_f : 창문의 面積 [m²]
K_d : 문의 熱貫流率 [Kcal/ m² h ℃]
A_d : 문의 面積 [m²]

단, 2종류 이상의 문과 창일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한다.

$$K_P = \frac{K_{f1} \cdot A_{f1} + K_{f2} \cdot A_{f2} + K_{d1} \cdot K_{d1} + K_{d2} \cdot K_{d2} + \cdots\cdots}{A_P}$$

④ 바닥

어떤 지역의 난방하는 건물의 바닥은 〈표-7〉에 의한 해당 지역의 열관류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주

1) 朴相東外, 에너지節約型 住宅研究및 建設, 韓国動力資源研究所, 1981.

2) · 앞의 책, p. 227
· 朴相東外, 新築住宅의 에너지節約研究, 韓国動力資源研究所, 1982, pp. 116~118.

3) 高層建物의 設計基準 및 評価技法開発研究(Ⅲ), 韓国動力資源研究所, 1984, 참조.

"

오호 통재라
사랑하는 건축인,
미덥던 건축가,
왜, 먼저 가야만 하나

"

- 故 李康植兄을 생각하며 -

安將元
本協會 理事

□ 主要略歷

- 1938년 4월 28일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서 李基萬 옹의 4남으로 태어났다.
- 1957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61년 한양대학교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1968년 모연홍건축연구소 근무
- 1971년 건축사면허 취득
- 1973년 중앙주택연구소 개설
- 1978년 주식회사 完종합건축 대표이사
- 1979년 제 1 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 1982년 대한민국 건축대전 1~5회 초대작가
- 1985년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 1985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 1987년 아도무 · 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1987년 대한 건축가협회 감사

□ 主要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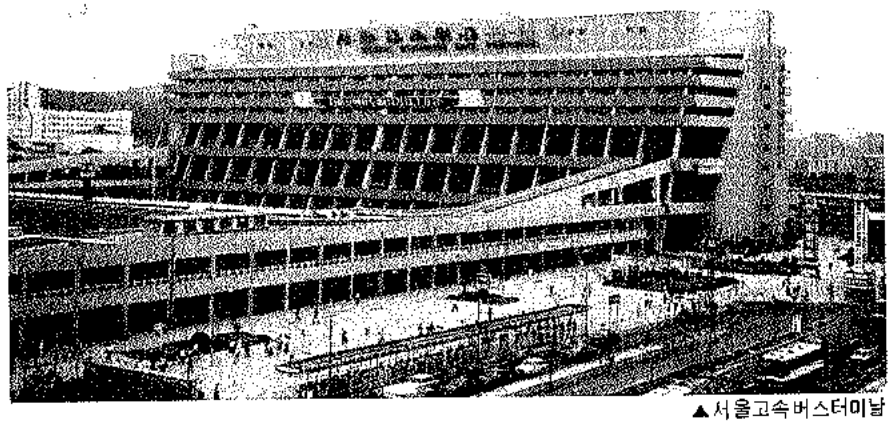
- 1961년 마포아파트 단지설계
- 1967년 세종호텔 설계
- 1968년 무교동 쌍일빌딩 설계
- 1974년 서소문 한영빌딩
- 1976년 명동 미즈백화점 설계
- 1977년 Grabon 유신백화점 설계
- 1978년 숭의여자전문대학 음악당 설계
- 1979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설계
- 1980년 설악산 유스호스텔 설계
- 1983년 서초동 형주빌딩 설계
- 1983년 개포병원 설계
- 1984년 선곡성당, 수정궁
- 1985년 명동선사인 쇼핑센타 설계
- 1986년 청평성당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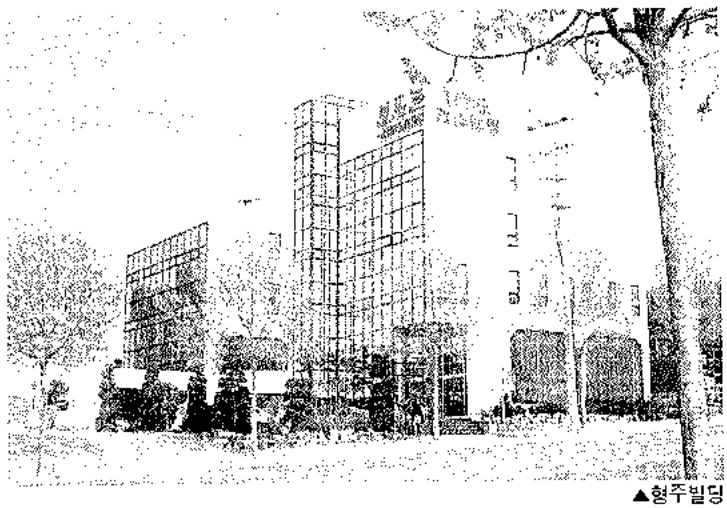
나의 사무실에서 우리 협회로 올때면
잠수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빌딩과
만나게 되고 꽃동네에서 보뜨르경양식
건물을 보게된다. 바로 故 李康植형의
작품들이다.
출장길에 터미널은 1년에 여러번
사용케 되고 스케일이 큰 초대형 건물이
마치 故人의 巨軀 (자이안트) 처럼
느끼질때가 있었다. 내 키가 160cm
정도인데 비해 자이안트의 키는
180cm이 넘었으니, 그리고 버스가
구성요소의 기본이 되니 스케일이
큰 것은 당연하다고는 생각한다.
헌데 보뜨르에 들를때 생각은 달라진다.
유리벽의 아기자기한 공간은 내자신이
縮小에 노출되는 기분이어서 그 좁은
복도를 이 거인이 어떻게 다니나 할
정도니까.
아뭏든 그 두 대조적인 건물은 故人의
대표적 작품들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協會 갈때나 올때
보뜨르 4층에 들르면 李康植형을 만날
수 있다는 느긋한 심정이었는데 오늘은
그 작품들에서 느끼는 체취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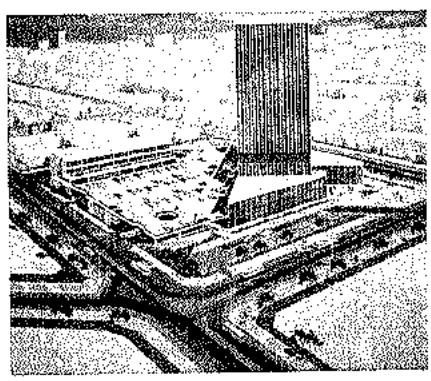
허전하기만 하다. 바로 1987년 8월 27일 소리없이 훌쩍 어디 출장간 것처럼 他界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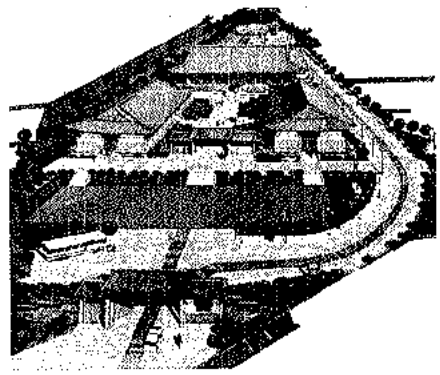
康植형과 나는 1960년 대학 4학년 시절 4. 19를 맞아 졸업작품전과 동시 4. 19기념 전시회에 출품했었다. 그때 康植형도 몇친구들과 함께 마스타플랜과 기념탑을 계획하고 우리팀은 박물관과 노천극장 2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展示가 임박할때까지 투시도가 나오질 못하였다. 너무 손이 달리고 그 힘든 투시도는 제대로 구색이 맞지 못했던 것이다. 康植형에게 부탁을 하였다. 벌써 그때는 시간적으로 피곤했을 때인데 그 바쁜중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우리팀의 투시도를 교수님의 승락받는 데까지 해냈다.
나의 고맙다는 말에 그 충혈된 눈으로 "아니야 괜찮아, 잘됐니?"하는 그의 표정은 너무나 따스했고 다음친구가 또 밤새기를 부탁한 상태에서도 그는 선혀 귀찮다는 표정이 아니라 항상 웃는 표정 그대로였다.
서울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그는 투시도에서도 그 색조나 배경의 구성은 건물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여서 여기저기서 끌맺음을 부탁했었으나까 아마 셀 수 없이 밤을 강의실에서 지냈으리라.

내가 군대에 다녀와서 1965년 말경 신아건축에서 金熙春교수를 모시고 있을때 장기간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다.
인천에 모 방직회사 계획이 시작된때여서 누가 이 작업을 잠시 인수해줘야 했는데 그때도 다급하게 康植형에게 부탁했다. "갔다와"하는 짧은 한마디였고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故人은 평상시 박학재교수를 흠모하였는데, 한길회 (건축동문모임) 총무시절 박교수 세미나를 주선한 일이 있었다.
누구도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예산관계, 책자발간, 회의장 등) 후배 몇사람과 거뜬히 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으나 특별히 후원자도 없는데 그 후원자란에 완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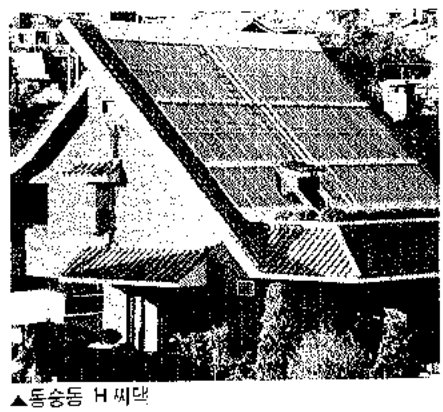

▲서울고속버스터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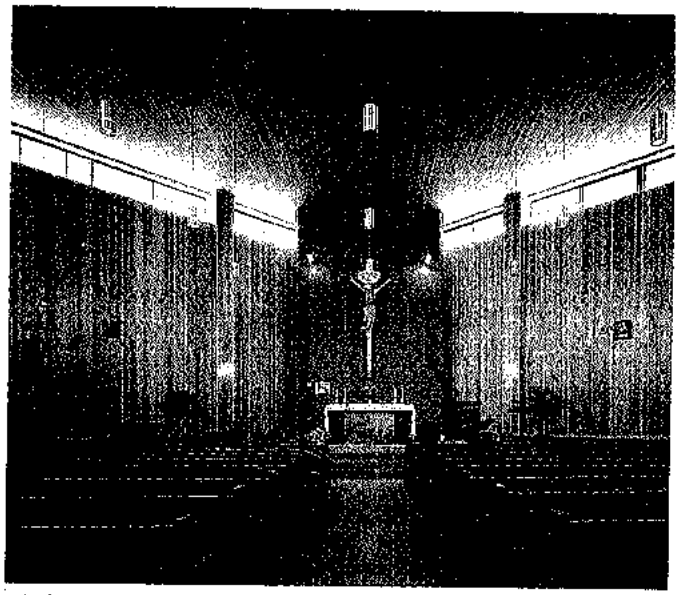

▲형주빌딩


▲부산고속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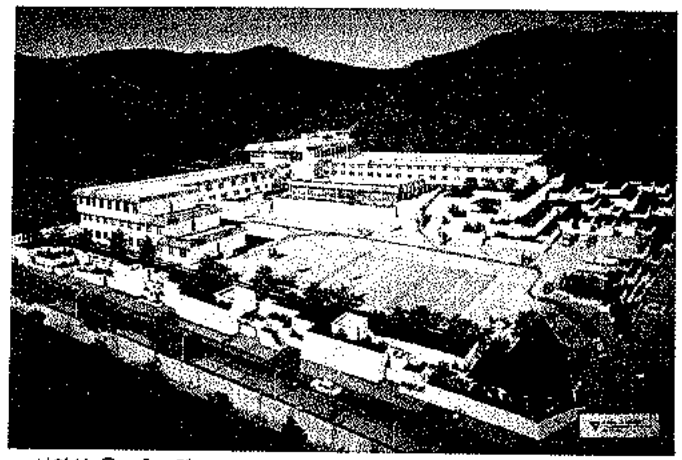


▲방배동 이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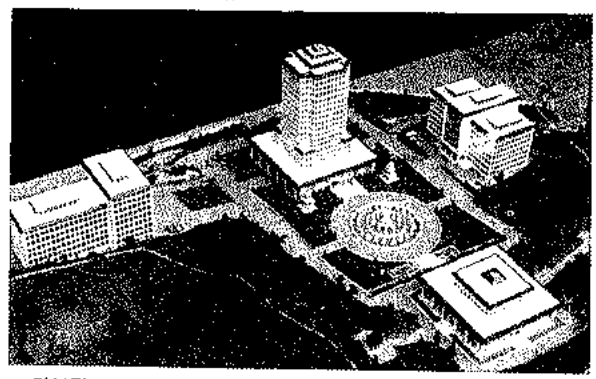

▲동숭동 H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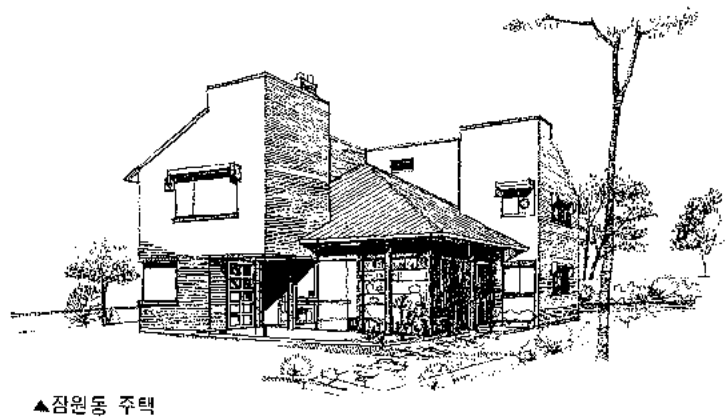
◆전곡성당



▲설악산 유스호스텔 조감도



▲만불전조감도



▲잠원동 주택

건축과 신아건축이 대문짝만하게 기재돼 있었고, 건축협회들이 그 다음 자그맣게 인쇄돼 있어서 건축계의 몇인사가 노교수의 행사에 어떻게 개인들이 단체보다 우선하여 후원자가 되느냐고 되게 나무랬고 떠들석하게 되었다.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댓구도 없이 고개를 떨군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지금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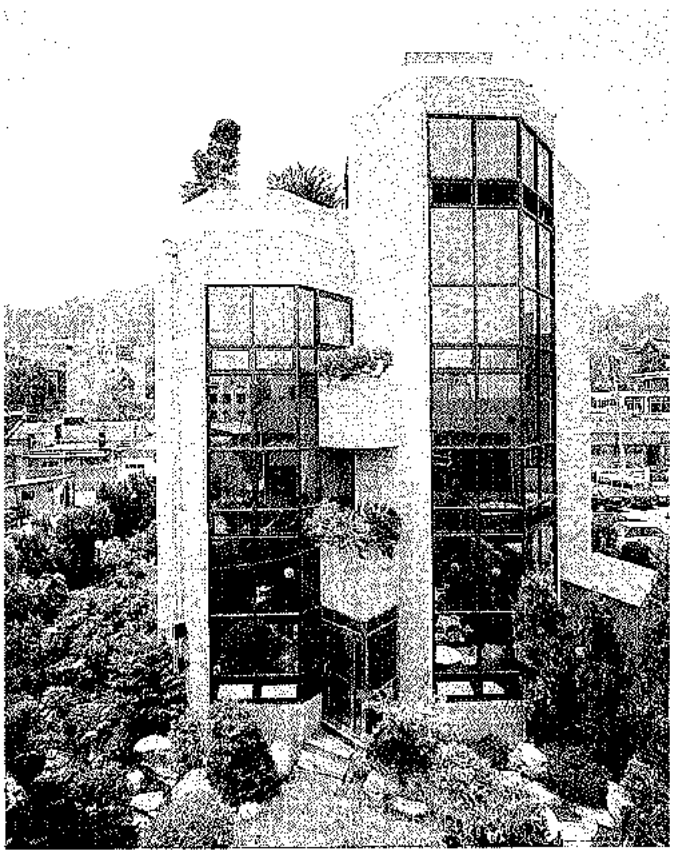
故人은 건축사협회 監事로 수년간 金枝泰, 吳雄錫회장을 모시고 전국의 감사직분을 맡은 일이 있는데 아무리 사무실 일이 바빴어도 협회를 위하여 맡은 일은 포기한 적이 없이 동분서주 했고 그의 솔선수범은 협회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고직전에는 한국건축가협회 감사로서 활약을 했는데 결국 한국건축계의 감사직을 도맡아 헤오면서도 남에게 욕을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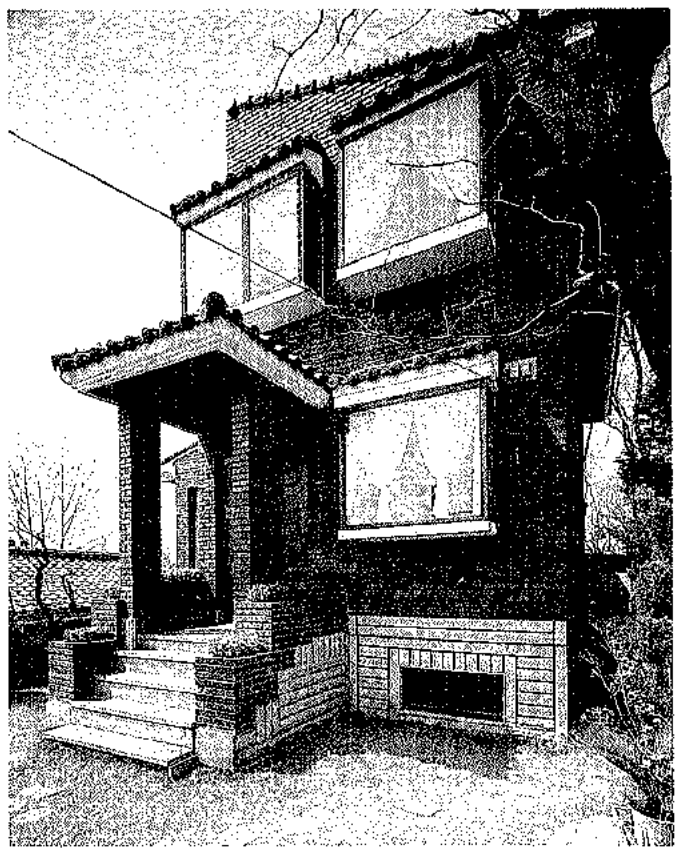
그의 작품활동은 행동과 실천이 일치되었었다.

건축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에워싼 모든 환경마저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남보다도 건축생활에 의협심이 강했다. 우리나라 중견건축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특히 그의 건축행위는 확실한 自己言語를 가지고 표현하였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될때까지의 그의 작업은 생활미학을 바탕으로, 조형예술을 현실에 승화시키는, 그의 끈질긴 집념은 바로 그의 인간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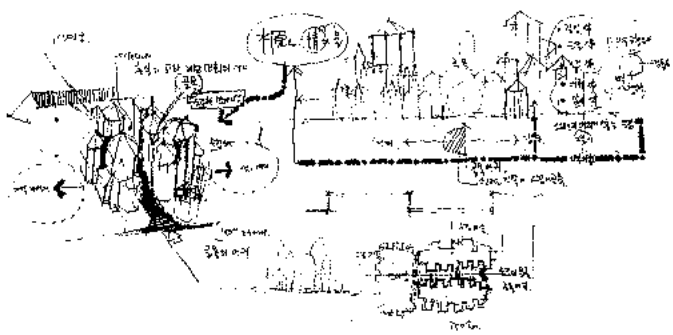
수없이 만지는 스케치 속에서 그는 하나에서 열까지 스스로 만져보지 않고는 완성하지 못하는 성품으로 설계사무소 이름마저「完」이라 했고 그것이 바로 그의 建築言語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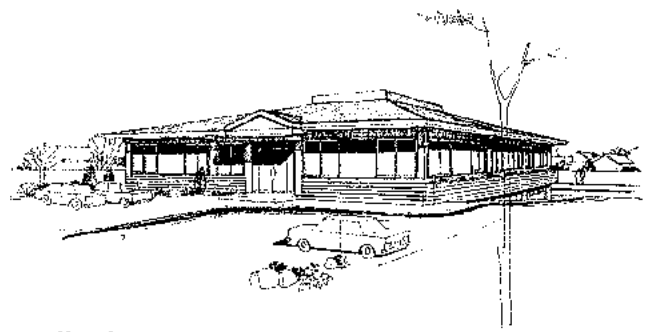
▲수정궁 (전문음식점)



▲상도동S 씨댁



▲수정궁 계획



▲언주동 음식점

작업에 임하면 며칠이고 사무실에서,
혹은 거리에서, 현장에서, 집안일조차
잊어버리고 이발소 찾는 시간이 아깝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명동 대포집에서
건축과 인생을 음미하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작품들이 풀릴만한
3 차원의 세계에 젖어서야 또다시
작업에 임하는 그의 생활은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인생을 건축때문에 걸어왔고, 가족도
자기 건축생활속에서 본다는
고 이강식형의 미망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함) 역시 부군의 사무실을
인수하고 큰아들 이석재군이 (고 2)
건축가로 클때까지 사무실을 지킨다는
말을 전해듣고, 정말 그는 갔지만
건축행위는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가 아끼던 제자들, 사무실 동료들,
그리고 유품들은 아직도 보뜨르 4층에
그대로 있고, 부인의 따스한 손길이 있어
고 이강식형의 아드리에를 메만지고,
생전의 그의 작업들이 후배들에 의해
더욱 빛을 보는 영원한 전진을 부탁한다.

몇년전 어렸을때 친구가 타계하고 그 부인이
쓴시를 (김소엽 · 서울神大교수) 다시
되뇌이게 된다.

"별"
외로운 이여
고통의 강가에
누워 보아라.

삭지 않는
돌의 고뇌도
물살로 풀리거니

고뇌의 강에서만
뜨는 별

외로운 이여
고통의 강가에
누워서
가슴에 하나씩
별을
그려보아라

〈博士學位〉

朴時翼회원 博士學位取得

朴時翼회원 (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이 〈風水地理說 發生背景에 關한 分析硏究 – 建築에의 合理的인 適用을 위하여 –〉로 1987년 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工學博士學位를 수여받았다.

학력 및 경력

- 본적 : 서울
- 생년월일 : 1943년 6월 29일
- 普成高졸 (1961. 3)
- 漢陽大건축공학과졸 (1965. 3)
- 美陸軍극동 지구공병단공사 감독 (1970. 10)
- 建築士 (1974. 3)
- 高麗大대학원 건축공학과졸 (1978. 9)
- 오미건축연구소自營 (1978. 12)
- 제일건축설계사무소 自營 (1984. 2)
- 高麗大대학원 博士過程 수료 (1984. 3)
- 高麗大 건축공학과 강사 (1986. 7)
- 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 (1986. 7)

論文

-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碩士學位論文 (1978. 9)
- 전통건축양식과 국민성과의 관계. 건축사지 게재 (1979. 10)
- 風水地理說에 의한 住宅配置의 성격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4. 4)

論文概要

동양적인 생활의 체험과 철학으로 구성된 風水地理說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어왔다. 과거 역사상 국가적인 都邑地를 선정할 경우나, 개인의 陰·陽宅 이론으로서 풍수지리설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과 건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발견된 풍수지리설 이론의 장점을 현대건축에 적용함으로써, 이상적인 건축공간의 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설의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風水地理說의 發生背景"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을 논술하였다.

제 2 장에서는 고대인의 생활환경과 사상에 대한 것으로 풍수지리설의 이론적 핵심이 되는 吉地選定의 개념이 인류생활 초기에 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석기시대의 종교사상을 조사하였고, 원시분묘제도의 하나인 支石墓를 통하여 그 당시의 시대적 사상을 분석함으로써 풍수지리사상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제 3 장에서는 三神五帝思想의 내용과 건축적 표현의 분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에 있어서 불교·유교·기독교 등 외래사상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상은 하느님 숭배의 사상이며, 그 이론은 三神五帝思想으로 오늘날까지 사회의 일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 4 장에서는 周易理論의 建築的 適用關係를 논하였다. 풍수지리설은 주역의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이론적인 체계가 성립되어, 주역의 발생과정을 조사 연구하였으며, 주역이론의 건축적인 적용관계로 건물의 方位論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에도 이상적인 건물의 배치에는 〈東向대문에 南向집〉 등의 방위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다. 건물의 방위에 관한 이론을 주역의 六十四卦 에 의하여, 건물위치의 8개 방위와 각 건물의 방위에 따르는 대문의 8개 방위별 구성에 의한 64가지 건물배치유형에 따르는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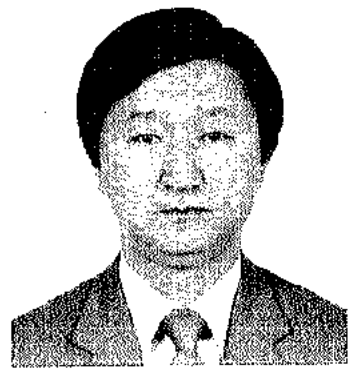
제 5 장에서는 풍수지리설의 발생과 건축에의 적용관계를 분석하였다. 풍수지리설은 자연과 인간의 〈氣〉적인 해석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있어 氣에 대한 풍수지리 이론적인 의미와, 풍수지리설을 구성하고 있는 산, 물 및 들판 등의 지세에 관한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배경들에 대한 연구로 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풍수지리설의 발생과정과, 풍수지리설이 초기에 건축에 적용된 실례들을 조사하였다.

제 6 장에서는 결론으로서, 풍수지리설은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상, 매우 일찍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풍수지리설과 건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통건축의 사상적인 배경을 風水地理說이나 陰陽五行說보다는 三神五帝의 사상에서 찾아야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편집자주〕 본 논문은 특히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사지 10월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할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金基哲회원 博士學位取得



金基哲 회원(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이 제출한 논문 〈韓國 傳統劇의 演戱特性에 따른 公演場 建築的 要素에 관한 硏究〉가 1987년 6월 弘益大 대학원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를 통과 工學博士 학위를 획득하였다.

학력 및 경력

- 본적 : 서울
- 생년월일 : 1944년 11월 7일
- 普成高졸(1962. 3)
- 弘益大건축과졸(1967. 3)
- 弘益大대학원 건축계획전공(1972. 2)
- 弘益大대학원 博士過程 수료(1982. 2)
- 建築士(1974. 2)
- 建築技術士(건축시공) (1979, 8)
- 홍익공전 성대 경희대 중남대 강사 역임
- 弘益大, 建大 강사(현)
- 東明建築 대표(현)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기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현)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현)

論文

- 中部近郊 農村住宅 計劃設計에 關한 硏究(文敎部) (1973. 1)
- 大型多目的홀의 建築音響에 關한 硏究(弘益大學院論功) (1975. 2)
- 새마을農村住宅規格化에 關한 硏究(江原道) (1975. 12)
- 農村住宅改良方案(새농민77. 1月號) (1976. 12)
- 信協建築計劃少考(信號 卷2號) (1977. 3)
- 農村住宅 장마철관리(새농민 77. 6月號) (1977. 6)
- 住宅工事方法(女性東亞 78. 9月號) (1978. 8)
- 傳統民俗劇의 場所性에 關한 硏究 (1987. 2)
- 傳統假面劇 公演場의 建築計劃에 關한 硏究(1987. 4)
- 傳統假面劇 公演場의 固有舞台 建築計劃에 關한 硏究(1987. 6)
- 傳統劇 演戱特性에 따른 公演場 建築的 要素에 關한 硏究(1987. 6)
- 假面劇 公演場 現況 調査(現)

論文概要

演劇이 그 민족이나 사회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종합예술이라면 그 문화의 고유한 형식에 부응하는 독특한 舞臺가 있어야 하고, 있어 왔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 전통극은 20세기초에 잘못 이식된 서구문화, 특히 근대서구극의 그늘에 가리워 그 보존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서구의 액자형무대(proscenium stage)는 극장의 典形으로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한 우리 전통극의 특성과는 맞지도 않는 이 액자형무대에서 억부른 공연 시도는 전통극과 관중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했을 뿐이다. 다만 1960년대 이후 주체성 회복운동에 따라 민속예능에 눈이 가해지면서 전통극도 屋內外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구의 근대적 연극형식에 한계를 느낀 서구적 연극인들이 돌파구로서의 구실이 아닌 自生的이고도 정직한 創造의 次元에서, 우리의 전통극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늦게나마 전통극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웃 중국과 일본의 경우, 京劇과 노오(能), 가부끼(歌舞技) 등을 국극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劇場空間을 정착시키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전통극에 대한 극형식의 정립과 더불어 고유공연장공간의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전통극 공연장 공간의 문제는 건축적 입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또한 전통극의 公演場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통하여 建築計劃要素를 추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要約的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2 장에서 연극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여, 연극이론상 傳統劇演戱特性을 파악하는데 기본자료로 하여,
3 장에서 전통극의 기원과 변천 및 사상적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전통극의 演戱特性을 파악하고, 연희특성에 따른 과거 전통극 공연장의 기록들을 도표로 정리함으로써 전통극공연장의 건축계획요소를 추출하는 기본자료로 삼고,
4 장에서 한국 근대이후의 연극 공연장을 고찰함으로써 전통극 公演場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현재 전통극 전수회관 공연장을 현지 조사 분석, 평가 도표로 나타냄으로써 전통극 公演場 建築計劃 방향정립에 기초자료로 하며,
5 장에서 동서양 각국의 연극 공연장의 형성과 변천을 고찰하여 연극의 변화와 공연장 변천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동양각국의 전통극을 위한 공연장의 특징을 분석 도표로 나타냄으로써 한국전통극을 위한 공연장의 건축계획요소를 추출하는데 비교자료로 삼아,
6 장에서 전통극 공연장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에 있어서 적응 가능성을 검토하여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計劃要素를 추출하고, 전통극 공연장 건축계획 방향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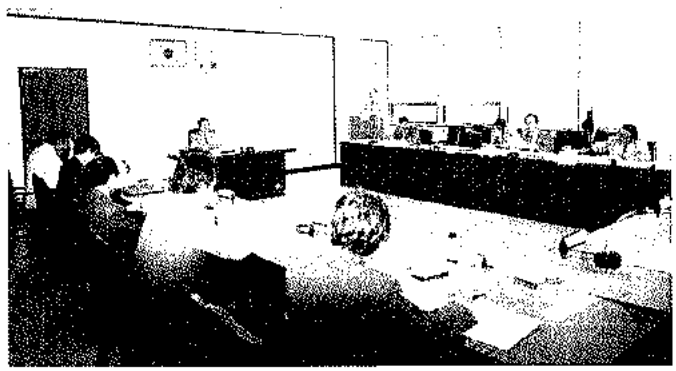
2000년을 향한 건축사의 자세

申鍾浩
眞豊건축사사무소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문예부흥의 시발점인 올림픽준비와 함께 정치의 안정, 경제의 안정, 사회의 안정등 모든 방면에 안정이라는 부흥운동의 시발점에 있다.
우리 건축사 또한 이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고 공유하며 자연에서 태어난 우리가 자연의 조형물을 만드는 선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또한 우리의 권리를 찾고 봉사하는 건축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 6. 25, 4. 19, 5. 16등 민족수난속에 고생해 온 선배 건축사의 뜻을 조금이나마 받든다는 차원에서 젊은 건축사들의 올바른 건축관 정립이야말로 선배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본인 또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여 선배들의 형설의 공을 받들고 더욱 계승발전시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확보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 조국은 단군창조이래 최대의 안정기를 맞을 수 있는 시점에서 자연조형물의 창조자며 무형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왜, 남의 집 설계는 잘해주면서 정작 자기의 보금자리는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을 늘어 왔는가?
바로 등잔밑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며 비건축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비건축인을 계몽, 선도하여 건축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 건축사의 책임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다.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오, 뉴우턴, 그리고 금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의 근본은 기술자이고, 우리 건축사 또한 예술을 겸비한 기술자가 아닌가?
젊은 건축사들의 진취적인 노력여하가 선배 건축사의 뜻을 잘 받드는 관건이다.

선배, 후배건축사 그리고 사회 각계층 선배, 후배여러분!
현대는 술고문, 술상무 시절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정세속에 지나친 술로서 건강을 해치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과연 어떤 본보기가 되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무궁화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사는 물론, 사회 각계층 여러분 모두 각자 자기 여건에 주어진 임무에 정열을 쏟는 자세야말로 이 나라를 진정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 후배 여러분!
우리 건축사들도 이제 단순한 쟁이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사회 시대니 만큼 다방면에 박식한 지식을 갖추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부하면서 수주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떳떳하게 명함을 내놓고 수주하는 바로 그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읍니다.
힘냅시다.
건축법을 준수하는 우리는 조국의 꽃의 한부분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후배 건축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때입니다.
본인 또한 열심히 보고, 배우고, 뜻을 받들겠읍니다.
존경하는 사회 각계층 선배,후배여러분!
지금까지 건축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했읍니까? 평당 1만2천원, 1만5천원이니 하는 식으로 자연의 조형물 창조자며 무형의 자산 소유자이며, 건축설계를 무한대까지 노력하여 인생설계 차원으로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깊은 마음들을 너무나 실망시키지나 않았는지요? 우리에게도 국가에 의무(건축법을 지키는 양심)가 있고 최소한 권리가 있지 않읍니까?
선배, 후배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는 다시말해 환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해오고 있음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 심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서, 아니면 문헌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피맺힌 얼심기에 우리는 다같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때 설계비 또한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으며 그러기위해서는 두뇌, 창조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젊은 친구가 너무 바른소리 한다고 야단만 치지마시고 큰 의미로는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좁은 의미로는 건축사로서 권리를 찾아야할 시점이 아닙니까. 이제 건축물도 도시적 차원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우리나라 국토가 비록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전국적인 현존 건축물 정도는 살살이 공부하여 두뇌속에 잘 보관하여 진정으로 건축사의 올바른 가치관을 키우며 오늘도 삼천리 금수강산 모든 분야에 꽃이 만발하고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도처 모든분야 여러분의 노고를……

제8회 理事會 개최



제 8 회 理事會가 安箕泰 회장 주재아래 본협회 이사, 감사, 서울시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8 월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다룬 의안과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호 의안 :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예산편성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심의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협의키로 하고 다음 기본적인 사항만 결의.
1. 실적회비 전국징수율을 0.7%로 함.
2. 사무비중 통신비에 텍시빌리 사용료를 추가함.
3. 행사비중 屈示事業을 86년도와 같이 6개지부에서 순회전시하는 규모의 예산을 본부 예산에 편성함.
4. 〈분소보조금〉를 〈분소운영비〉로, 〈새마을 사업비〉를 〈사회사업지원비〉로 개칭함.

제 2 호 의안 : 예산목간전용사용
경남지부, 서울지부, 제주지부가 공과잡비 수선수수료 부족에 따른 예산목간전용사용을 요청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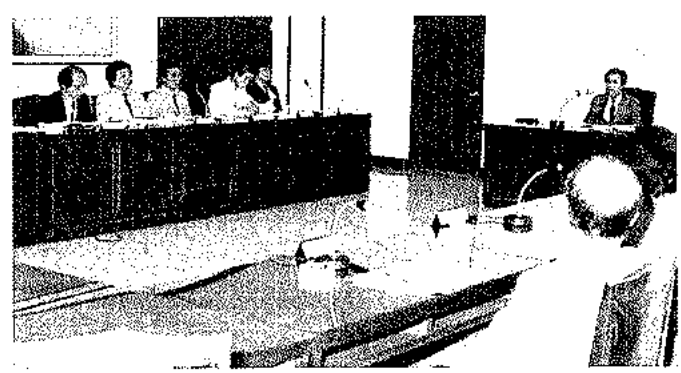
제 3 호 의안 : 諸規程改正
支部獨立豫算制度의 실시 및 본부 기구의 축소 개편에 따른 程款上 諸規程의 改正을 위해 의안으로 상정한 인사, 문서, 회계, 적재, 사무분장 등의 개정(안)을 다음 사항을 조건부로 원안대로 승인.
1. 文書規程중 문서보존 연한에 대하여는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2. 職制 및 事務分掌規程改正(안) 중 제2조2항의 〈간부직원은 2급 이상으로 한다〉를 〈간부직원은 2 급 이상 직원 및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支部監査會議 개최

본협회와 각시도지부의 '87년도 자체 정기감사에 대비한 支部監査會議를 8월 28일~ 8월 29일까지 2일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柳根洌 감사와 鄭孝煥 감사에 의해 진행된 본 감사회의에서는 각시도지부의 총무과장이 참석, 監査方向과 指針을 시달받았으며 특히 각시도지부 경리담당 실무자들이 업무취급요령이나 방법이 미숙하여 장부기재, 결의서 작성 등이 각 지부마다 상이함을 감안, 이의 숙지를 위한 실무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본 실무교육실시로 1988년부터 시행되는 지부별 독립예산제도와 관련한 지부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되어 협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全國事務局長會議 개최

9월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任仁琳 事務處長 주재하에 全國事務局長會議가 개최되었다.
개회직후 安箕泰 회장은 「근간 느끼고 겪는 민주화 바람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건축사 업무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88년부터 각시부가 독립예산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각시도지부가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기기에는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예산을 자체에서 수립하므로 자유롭게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을것 같으나 그렇게는 안되고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독립예산체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각오와 자세 정립을



分所設置

경기지부 안산분소와 충남지부 대천분소 설치가 제 7 회 이사회 (87. 8. 7)에서 승인되어 설치 준비중에 있으며 11월1일자로 開所하게 된다.

분소명	관할구역	설치장소	시행일	비고
안산분소	안산시 전역, 화성군 시흥군 일부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1987. 11. 1	비예산
대천분소	대천시 보령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 대천시	1987. 11. 1	비예산

촉구하였다. 이어서 「직원사회를 대표하는 사무국장 여러분은 꿋꿋한 직장관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 어깨에 협회 발전의 짐이 얹혀 있다고 믿고 강한 직장인으로서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88년도 지부예산(안) 수립과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시달을 비롯 기타 협회업무 전반에 걸친 광범한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

李康植회원 別世

本협회 監事를 역임하고 淨化對策委員長으로서 본협회 발전에 헌신하던 李康植 회원이 1987년 8월 25일 입원 가료중이던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별세하였다.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서 1938년 4월 28일 태어난 故李康植 회원은 갈현리의 갈현국민학교를 거쳐 경기중·고등학교를 나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71년 8월 21일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최근까지 (아도부·완종합건축사사무소)를 경영해 왔다.

故李康植 회원은 8월 27일 카톨릭 신부가 집전한 영결미사로써, 미망인 신현정 여사와 석재, 혁재 두 아들을 비롯, 평소 故人을 아끼던 많은 친지들에게 영원한 고별을 고하고 갈현리 고향으로 돌아가 마련된 幽宅에 조용히 누웠다.

新人·學生 作品接受 마감

건설부 후원 아래 본협회가 주관 실시하는 87년도 건축사 및 신인 학생건축설계 작품전시회의 신인·학생부문 작품접수가 9월15일 마감되었다.

당초 9월10일까지 마감키로 했었으나 마감일 연장요청이 쇄도하여 5일을 더 늘추었었다.

접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新人……24作品
學生……62作品

本部 機構縮小

장기간의 건축경기 침체와 支部 독립예산제도 실시시기의 임박 등을 감안한 재정운영 긴축화의 일환으로 本部機構縮小가 단행되었고 이에따른 人事異動의 지난 8월말 실시되었다.

그결과 企劃管理室이 폐지되어 1실 3부 5과에서 3부 4과로 기구가 축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人事異動이 뒤따랐다.

성 명	소속 및 직위	인사이동 내용
趙哲源	기획관리실장	출판사업 부장
金明顯	기획관리실 기획과장	총무부 기획과장
梁珍錫	총무부 서무과장	서울지부 총무과장
吳模禄	본부 기술부	서울지부 기술지도부
崔亨鎬	본부 기획관리실	본부 총무부
李京順	본부 기획관리실	본부 총무부
朴俊德	본부 기획관리실	본부 총무부
李相政	서울지부 총무부	본부 총무부
玄武英	서울지부 기술지도부	본부 기술부
鄭明秀	본부 기술부	의원면직

支部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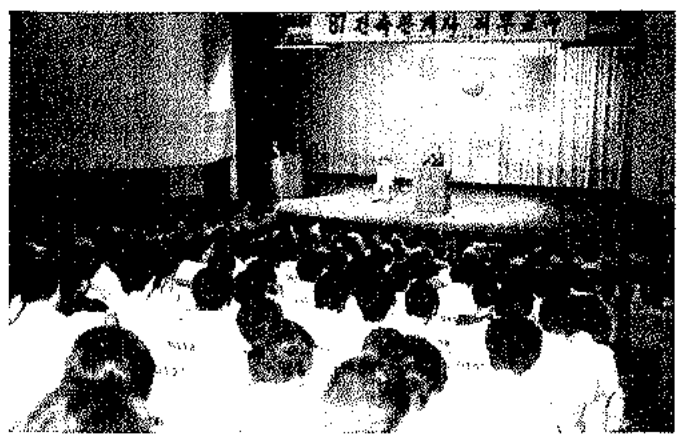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건축관계 職務敎育 실시

8월28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회원 2백34명, 건축사보 72명, 건축직공무원 88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환 부시장, 김성임 건축과장, 정환호 지부장에 의해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에 앞서 건축부조리방지대책 실천결의문 채택이 있었으며 이어서 건축관련 법규 및 지침등을 내용으로 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高昌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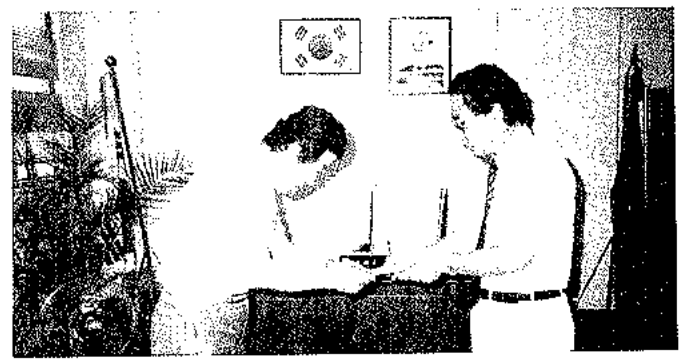
감사패 수상

高昌永 지부장은 84년부터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월1일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김천홍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보이스카우트에 천막지원

7월29일 高仁永 지부장은 한국보이스카우트 인천연맹을 방문하고 동연맹 정영호 사무국장에게 스카우트 훈련용 천막 2조와 성금 30만원을 전달하였다.

한국보이스카우트 인천연맹에서는 1991년도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보다 알찬 스카우트운동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천시내 각 단체 및 각계 유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87 건축사 자격시험합격자

계 169명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10009	김 이 용	10698	서 철 수	11245	박 수 열	12316	홍 영 표	13768	임 현 윤
10010	이 상 균	10699	송 태 원	11267	김 용 경	12320	이 재 준	13835	김 관 중
10023	최 봉 상	10734	송 석 주	11342	주 재 선	12434	조 신 일	13933	임 홍 순
10028	송 영 기	10736	황 재 훈	11346	김 동 수	12446	한 상 훈	13963	한 남 수
10053	김 병 화	10778	김 성 근	11364	정 인 수	12454	허 서 구	14033	강 제 회
10067	오 평 국	10791	전 승 훈	11411	윤 완 섭	12466	원 영 명		
10085	정 창 모	10804	안 분 효	11500	심 연 홍	12484	유 경 훈	20004	조 동 욱
10101	유 홍 재	10812	최 영 희	11543	강 희 달	12490	송 건 수	20030	강 기 옥
10131	최 한 군	10824	김 용 주	11563	박 정 견	12498	조 병 욱	20046	박 종 대
10157	김 종 팔	10829	김 은 태	11581	오 청 환	12540	민 훈 기	20054	이 두 희
10182	박 문 창	10830	배 동 기	11618	남 정 현	12588	천 종 호	20082	임 재 복
10215	명 찬 기	10831	김 기 주	11674	나 영 찬	12595	김 수 정	20084	정 명 옥
10224	차 기 철	10835	김 후 석	11725	김 영 근	12664	박 찬 근	20093	이 현 탁
10378	최 남 수	10845	최 병 호	11834	홍 승 팔	12671	손 기 찬	20109	여 광 우
10380	김 기 원	10859	홍 승 노	11883	라 승 문	12685	박 인 서	20229	황 인 무
10403	최 진 원	10890	송 유 동	11907	김 유 지	12720	방 승 문	20281	이 희 범
10428	조 광 훈	10910	신 상 익	11917	김 동 술	12817	박 찬 희	20301	엄 순 조
10440	박 성 주	10935	배 창 복	11935	홍 순 백	12847	김 성 근	20306	류 정 환
10540	박 상 윤	10956	이 종 민	11940	박 찬 일	12907	이 한 식	20315	김 상 친
10542	조 규 복	10964	강 병 준	11957	안 경 호	12911	이 호 만	20331	최 병 상
10551	전 중 배	10986	손 문 보	11976	정 태 복	12924	김 상 기	20345	신 길 웅
10565	김 창 석	11012	여 태 석	12008	이 운 배	12974	양 철 호	20351	심 상 학
10578	손 욱	11015	함 인 선	12074	김 경 욱	13130	강 신 태	20401	이 희 남
10598	문 제 수	11023	최 원 병	12091	김 동 휘	13199	한 철	20406	남 병 대
10600	김 상 균	11048	이 강 호	12099	문 성 식	13233	이 정 희	20410	윤 석 휘
10601	황 창 규	11070	신 승 상	12103	이 인 경	13300	권 이 원	20438	탁 광 호
10630	김 정 대	11093	이 제 관	12133	빈 성 실	13306	이 재 호	20443	고 학 림
10636	임 혜 석	11130	김 덕 명	12111	이 재 운	13448	김 봉 호	20523	백 경 흠
10649	류 익 현	11156	이 명 진	12173	한 문 규	13464	이 병 곤	20525	류 정 영
10660	천 홍 대	11158	최 익 현	12191	박 경 배	13472	장 우 섭	20529	박 종 헌
10670	박 동 환	11161	정 운 주	12201	임 용 병	13480	정 동 언	20641	구 본 균
10675	류 익 신	11165	백 승 기	12211	배 용 준	13532	조 두 석	20684	권 순 문
10687	한 상 철	11209	김 유 석	12277	박 병 호	13685	오 정 원	20688	황 보 창 호
10688	엄 주 현	11239	신 영 용	12295	권 상 혁	13737	홍 기 백	20757	이 한 구

정성어린 참모습을!

김현준
주식회사 신양 대표이사

30억 아시아인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폐막된지도 어언 10개월이 지났다.
아시아 27개국에서 참가한 모든 선수 임원들은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차질없는 진행으로 치루어진 대회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였다는 격찬을 보내옴과 함께 우리에 대한 우월성을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대회를 치르기 전에는 나도 걱정, 너도 걱정, 온 국민이 걱정. 그리고 다른나라에서도 과연 잘 치룰까하는 걱정으로 눈여겨 보아왔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해냈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큰일을 위해 너나 없이 참여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우리들은 큰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손을 모아 국가를 위하여 자기희생으로 감내하여왔다. 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정신인가.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온 국민의 축제속에 이루어진 대회는 "청결한국 친절한국"이란 좋은 이미지를 세계 속에 부각시켜 놓았다.
이제 88서울올림픽을 앞으로 1년여 앞두고 있지만 86잔치의 경험과 보고 느꼈던 점을 잘 다듬어서 세계적인,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온 국민이 힘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준비하여야 하겠다.
온 국민들은 자원봉사에 더욱 많이 지원하고 언어기량을 다듬어서 친절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하겠으며 대회진행자들은 친절과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외국선수들에게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영어회화를 익혀두어야겠다.
또한 외국선수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수입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깨끗히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야겠다.
우리나라에는 17개 국립공원이 전국토에 펼쳐져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중에 자연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희귀한 식물과 자연석을 마구 훼손하고 각종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나 이런 일은 절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과 풍요로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축복받은 국민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88서울올림픽대회때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손님들에게 소박한 우리의 문화와 정성이 깃든 산과 바다. 그리고 밝고 희망찬 우리의 친절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두다 힘써야겠다.

지하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동방포루마 269-1718
276-0123-4